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Here and Now!*

*All Roads lead to icheon.*

이천 인문학 총서 5

|     |     |     |     |     |
|-----|-----|-----|-----|-----|
| 이동준 | 김승아 | 박연희 | 신정아 | 손영학 |
| 이태한 | 남윤호 | 신동훈 | 한영순 | 윤한택 |
|     |     |     | 윤여빈 |     |



이천문화원  
Icheon Cultural Center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 발 간 사

이천문화원은 줄곧 이천에 필요한 인문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왔습니다. 문화원이 하고자 하는 인문학은 그냥 인문학이 아니라 바로 ‘이천의 인문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위에다 주체적으로 나의 삶을 세우고, 다 함께 우리의 삶터인 이천을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천의 인문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천문화원의 인문학 강좌는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인문학 강좌의 주제는 ‘인문학으로 이천 읽기’였는데, 이 인문학 강좌를 통해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이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다양한 관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인문학 시리즈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이를 활용해 창조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세 번째 인문학 시리즈를 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운영시스템인 ‘윈도우즈’와 같이 고립된 개인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통하는 ‘창문들’(Windows)을 활짝 여는 작업이 올해 인문학이 지향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Icheon)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사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중앙으로, 이천을 변방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을 중심에 놓고 서울을 변두리에 놓겠다는 사고의 전환입니다. 이천을 기반으로 해서 굳건히 선 다음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강한 주체의식의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인생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 항해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천에서 같은 목표와 같은 희망, 같은 꿈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올해 이천문화원이 시도한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강좌는 우리가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떠서 이천이 가진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가능성과 풍부한 자원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문학적 성찰은 기존의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지역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오늘 이천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 마을과 골목 구석구석에까지 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지역에 대한 가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지역을 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많이 공감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그동안의 강좌 내용을 책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 이천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은 바람과 좀 더 창의적이고 활력에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를 시민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이 책은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강좌의 내용을 꼼꼼히 재정리하여 지면으로 옮긴 것입니다. 말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들을 문맥에 맞춰보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문학적 도전과 실험이 이천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며 인문학총서 다섯째 권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수고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25일

이천문화원장 조 명 호

# 목 차 Content

## I 프롤로그

|                                |    |
|--------------------------------|----|
| 출발점은 '지금 여기'여야 한다! / 이동준 ..... | 13 |
|--------------------------------|----|

## II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하는 그 날을 꿈꾸며

|                                      |     |
|--------------------------------------|-----|
| 1 이젠 로마가 아니라 이천이다 / 이동준 .....        | 35  |
| - 이천이 왜 세계의 중심이어야 하는가                |     |
| 2 전통과 현대의 만남 / 김승아 .....             | 71  |
| - 우리에게 20만 명의 이천 스토리텔러가 있다           |     |
| 3 지역의 변화, 세계를 바꾸다 / 박연희 .....        | 97  |
| -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문화)을 만들어가는 일           |     |
| 4 수려선, 근대문화의 기록 / 신정아 .....          | 127 |
| - 수려선의 기억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     |
| 5 지역문화의 기록, 이천민중실록(Talk) / 손영학 ..... | 157 |
| - '대구경북문화 기록하기'에서 배워라                |     |
| 6 사진과 문화유산의 만남 / 이태한 .....           | 183 |
| - 왜 지금 우리에게 문화재 사진이 필요한가?            |     |
| 7 생활공간과 예술의 만남 / 남윤호 .....           | 209 |
| - 예술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

|                                    |     |
|------------------------------------|-----|
| <b>8 삼국유사에서 이천유사로 / 신동흔</b>        | 219 |
| - 이천의 구비전승에서 삶의 진실을 읽다             |     |
| <b>9 세라믹 예술도시를 꿈꾸다 / 한영순</b>       | 249 |
| - 모든 길은 세라믹 예술도시 이천으로 통한다          |     |
| <b>10 서희, 밀레니엄영토를 다시 그리다 / 윤한택</b> | 269 |
| - 불과 결혼하여 나무를 낳다                   |     |
| <b>11 이천이 직면한 열가지 위험한 질문 / 윤여빈</b> | 301 |
| - 이제는 회피하지 않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     |
| <b>12 습지의 땅, 황혼의 시간 / 이동준</b>      | 339 |
| - 스핑크스, 냇고개에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다       |     |



## 2017년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인문학 강좌

|                          |                   |
|--------------------------|-------------------|
| 출발점은 '지금 여기'여야 한다! 》     | 프롤로그              |
| 이젠 로마가 아니라 이천이다 》        |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
| 전통과 현대의 만남 》             | 김승아(아리랑 스토리텔러)    |
| 지역의 변화, 세계를 바꾸다 》        | 박연희(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
| 수려선, 근대문화의 기록 》          | 신정아(경기도 사이버도서관)   |
| 지역문화의 기록, 이천민중실록(Talk) 》 | 손영학(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 |
| 사진과 문화유산의 만남 》           | 이태한(여주대 교수)       |
| 생활공간과 예술의 만남 》           | 남윤호(인덕대 교수)       |
| 삼국유사에서 이천유사로 》           | 신동훈(건국대 교수)       |
| 세라믹 예술도시를 꿈꾸다 》          | 한영순(前 이천도예고 교장)   |
| 서희, 밀레니엄영토를 다시 그리다 》     | 윤한택(인하대 교수)       |
| 이천이 직면한 열가지 위험한 질문 》     | 윤여빈(경기학연구센터장)     |
| 습지의 땅, 황혼의 시간 》          |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



이천 인문학 총서 5

# 01

## 프롤로그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 출발점은 지금 여기 '이천'이어야 한다!

이동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 1. 이천을 읽는다는 것

이천문화원의 인문학강좌는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2014년 주제가 '인문학으로 이천읽기'였습니다. 2015년에는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라는 주제였지요. 올해는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들에서 뭔가 맥락이 읽혀지시나요?

책을 읽는 저마다의 독법이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젠입니다. 이천을 읽는다는 것은 이천을 해석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기술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해의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말 무엇이 사실이고 정확한 내용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런 방식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들을 인용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폭로성 발언을 하기도 하지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저마다 아전인수(我田引水) 해석을 하고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 대중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을 읽어낸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되짚어보아야 할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 리터러시’(News Literacy)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의 조작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액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행간 읽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문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가장 극우적인 경향의 신문과 가장 진보적인 경향의 신문, 이 두 가지를 같이 읽는 겁니다. 사설을 읽어보시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달라요. 그 간극이 있죠. 그 간극 사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제가 보기에 그 간극을 채우는 일은 신문을 읽는 독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실체적으로 접근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상반되는 이해의 간극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천문화원에서 꽤 오래 유지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주말문화탐방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역사·문화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벌써 80회 이상 쪽 해오고 있습니다. 주말문화탐방에 참여하시는 회원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이천문화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 지역에 대한 탐방은 안 하고, 다른 도시들만 탐방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천이라는 지역을 잘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천이라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도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다른 도시들이 또 우리 이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전해져 온 이천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나 향토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부자의 시각 말고 외부자의 시각으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 2. 확실성의 추구 - 나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행

어떻게 보면 나 자신, 자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내가 보는 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서로 간극이 생기겠죠.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서 회의가 있어서 수원을 갔었는데 마침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재미난 전시를 하더라고요. 『보는 것, 보이는 것, 보여 지는 것』 (Hyper realism : To See, To Show, To Be Seen) 뭐 이런 전시가 있었어요. 그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물이나 풍경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라면 단지 ‘보이는 것’에 불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껍질에 불과한 사물의 모습이 아니라 사물을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의 시선 속에 들어와 ‘보여지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사물 뒤에 그 사물 속에 투영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사물을 바라보는 일상화된 시선들, 적나라한 내면의 풍경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순간 오싹해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또 다른 나의 시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또 다른 나의 자아를 투영시킨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내가 나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들

도 필요하겠고 또 어떻게 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객관화 시켜서 볼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무엇을 말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나를 찾아가는 긴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인류의 지성사를 살펴보면 나를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야 자아에 대한 발견, 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비로소 추구하게 된 것이니까요.

그 이전에는 자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구석기시대의 인류, 문명 초기의 인류에게 엄청나게 위력적이고 커다란 존재감을 보여준 존재는 ‘자연’ 그 자체였지요. 벼락이 치고,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추위가 닥치는 자연의 위력 앞에 원시의 인류는 경악과 공포를 느끼고 자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자연을 다스리게 되고 도시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현상의 배후에 있는 원리를 추상적 실체로 인격화하면서 ‘신’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르네 데카르트 René Descartes

중세시대에는 이 신의 개념이 그 시대의 인류의 생각을 온통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오직 신에 대한 관상, 신이 내린 율법과 말씀만을 지키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강조되던 시대였지요. 하지만 어느덧 자아에 대한 관념이 인류의 사고 속에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수학자였어요. 가장 확실한 진리의 추구, 수학적 진리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것은 무엇 일까에 대해서 그는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확실성의 근거를 찾기 위해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이 과연 확실한 것인지 모두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학적 진리마저도 그저 받아들이지 말고 확실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론적 의심을 집요하게 밀고나가 보니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것은 ‘생각하는 나’라는 주체성에 대한 자각이었던 거지요.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의심하는 나 자신은 의심할 수 없다. 그게 데카르트의 결론이었어요. ‘나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 바로 이것이 서구의 근대사상이 싹튼 인식론적 근거가 되었던 거지요.

하지만 ‘생각하는 나’ 만으로 나의 실체를 온전히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데카르트의 명제는 좀 더 깊은 속고에 놓이게 됩니다. 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아무리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식 속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라는 의식 속에 생각한다는 그 의식의 주체로서의 ‘나’는 있지만 정작 살아 숨 쉬는, 피와 살을 가진 나. 그리고 이 내가 존재하게끔 가능하게 해주는 이 세계로 나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그 ‘생활세계’ 속으로 나는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이게 20세기 들어서 현상학(phenomenology)이 씨름했던 과제였어요.

‘생활세계’(Lebenswelt)라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객관성의 토대를 찾으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나의 의식의 작용이 창조해낸 이 세계의 외로운 섬에서 벗어나 또 다른 나에게로 가 닿을 수 있을까? 나와 동일한 의식을 가진 수많은 주체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생활세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인간끼리의 사회관계를 근거지우고 모든 사물의 객관성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찾으려는 자아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 창문 없는 단자

제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라는 게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뭐냐 하면 일종의 사고의 섬, 의식의 섬에 가두어져 있는 자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방안에만 쳐 박혀 있죠?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못 하고 소통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사회 속에서의 나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은둔형 외톨이가 그 방을 뛰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의 최소단위를 ‘원자’(atomos)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에도 이런 최소단위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서양철학사에 보면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니츠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물질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체가 있는데 우리의 의식도 ‘단자’(monad)라고 하는 단순성과 통일성을 가진 사고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단자, 즉 가장 작은 단위의 정신적인 주체를 모나드라고 하면서 모나드가 입자성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입자성이란 단일하고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비연장적인 물질적 사물의 존재론적 기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나드는 창문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창문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란 말이죠. 다른 존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촉발이 되거나 외적 영향을 받지 않고 완결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모나드로서의 타자와 어떻게 소통과 교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창문이 없잖아요.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나드들 간의 연관과 질서는 이미 각각의 모나드 안에 ‘예정된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라이프니츠도 의식의 외로운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예정조화’라는 개념, 그리고 ‘신’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불가능해져버립니다. 모든 게 신의 예정조

화에 의해 조정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각자 자신의 필름을 돌리고 되감으면서 자기의 세계만을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관객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모나드 간의 조화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객관세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창문이 없다는 것은 은둔형 외톨이 같이 밖에 있는 객관세계와 여전히 소통이 안 되는 거죠. 20세기에 들어와서 부딪치게 된 문제가 이거예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의식의 주체로서의 자아를 확보해 내기는 했지만 객관성의 세계를 구성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라이프니츠 탄생 350주년 우표. 독일 1996

그래서 이제 의식은 관념론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는 칸트 이후로 이 의식의 자기발전을 무한히 확대해서 헤겔 같은 경우 ‘모든 것은 정신의 자기현현이다.’ ‘역사는 세계정신의 발전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나만이 그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내가 만들어낸 세계와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럴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창문’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창문이 없는 단자라고 생각했는데 창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창문이 닫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것이죠.

그 창문을 열고 나 이외의 다른 모나드, 그 모나드에도 창문이 있어서 창문을 열게 되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주변에 상의할 사람도 없이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버둥거리다가 점

점 고립되고, 한 가지 일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침울해지고 대인 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은둔형 외톨이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살을 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그런 고립된 의식의 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의 고립된 세계로부터 벗어나 생활현장으로, 마을과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번 인문학 강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겠는데요.

#### 4. 컴퓨터 시스템 윈도우즈 - 창문으로 열리는 세상

1980년대 중반에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시스템(Operating System)으로 윈도우(Windows)라는 운영체제가 처음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이 운영체제는 정말 컴퓨터를 일반 사용자들 위주의 사용환경으로 바꾸어놓은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 사용되었던 도스 시스템은 컴퓨터 명령어 위주의 운영체제였어요. 이런 도스 컴퓨터를 꺾어보지 않은 세대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도스가 뭐냐 하면 키보드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자판을 칠 때마다 화면에서 커서가 깜박이며 입력된 내용을 표시하는 원시적인 방식이었어요.

그에 비해 윈도우 시스템은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방식(GUI: Graphic User Interface)으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상의 공간 위치를 마우스로 움직여가며 ‘클릭’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마우스로 클릭할 때마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창이 열리지요. 프로그램 창이 열리고, 기능 창이 열리고, 메뉴 창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클릭하면 창이 닫히게 됩니다. 마우스로 창을 끌어서 이동하기도 하고 창의 오른쪽 위에 있는 최소화 버튼, 최대화 버튼, 종료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작동하며 원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윈도우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창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윈도우즈’(Windows)라고 복수로 표현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윈도우즈 시스템을 통해 뭘 의도했는지 중요한 철학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컴퓨터를 부팅하면 맨 먼저 윈도우즈 창 모양의 메인 로고가 화면에 나타나지요. 바로 날아다니는 창입니다. 주변에는 구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공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창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윈도우즈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수많은 창들이 열리고 닫힙니다. 이건 소통을 의미합니다. 미디어와 프로그램,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연결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트워크와 인터넷의 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윈도우즈가 결과적으로 목표로 했던 것은 시스템이 고립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시스템과 시스템이 네트워크 되는 것을 목표로 했거든요. 또 사용자와 사용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목표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잖아요? 저는 윈도우즈야말로 라이프니츠의 창 없는 단자에 대한 멋진 반박이었다고 생각해요.

## 5. ICBM – 미사일이 아닌, 초연결사회의 핵심기술

인터넷(Internet)이란 말은 ‘서로 간의 연결’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이 지금에 와서는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느냐 하면 ICB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ICBM은 과학기술의 시대에 등장하는 미래사회의 신기

술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ICBM이라고 하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ICBM은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던 냉전시대에 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상대국을 향해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대륙 간 장거리의 탄도를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ICBM 실험 발사를 했잖아요. 바로 대포동 미사일입니다. 우리 이천에 그 대포동이 있어요. 아시죠? 단월동에서 모가면으로 가는 방향에 그 대포동 말입니다.(웃음) ICBM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Internet, Cloud, Big data, Mobile)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먼저 I는 인터넷(Internet)입니다.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는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을 뜻합니다. 서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분석

하고 또 정보를 교환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이걸 사물인터넷, 만물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십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컴퓨터를 서로 시스템으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컴퓨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망을 인터넷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에서 이 인터넷이 고안되어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적 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 기기, 모든 사물들에 컴퓨터 기능이 장착되면서 사물과 사물 간에 서로 정보가 연결되는 초연결망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기기와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사회가 되는 거지요. 스마트홈 시스템, 스마트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다음에 C는 클라우드(Cloud)입니다. 클라우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혁신적으로 나타난 개념입니다. 클라우드란 구름이란 뜻이죠. 구글(google)이 목표로 했던 것이 바로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클라우드란 정보를 저장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는데요. 공중에 클라우드가 있어서 클라우드의 무인기지에서 모든 저장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연결하고 소통하는 개념이죠. 인터넷은 연결망이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공중에 떠있는 일종의 모바일 저장소죠.



정보를 저장한다고 할 때 ‘클라우드’(Cloud)란 말을 쓰고 기록물을 보관한다고 할 때 ‘아카이브’(archive)란 말을 씁니다. 그에 비해 “라이브러리”(Library)라는 말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수많은 책들을 보관해 놓았던 장소가 도서관인데 그 책이라는 것이 지금은 양피지나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문서나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의 형태로 보관하는 시대에서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와 연관되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현해 내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B는 뭘까요? 빅 데이터(Big Data)입니다. 얼마 전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인간과 컴퓨터와의 바둑 대결입니다.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인 알파고(AlphaGo)가 대국을 두는데요. 알파고라는 컴퓨터시스템은 이제까지 있었던 수많은 대국들을 다 데이터로 저장하고 분석하잖아요? 빅 데이터라는 것은, 수많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예측하고 결과로 내놓습니다. 빅 데이터라는 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폰



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 앱을 열어볼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로 오늘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그 걸음 수가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기록되고 또 분석이 되더라구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725보, 3시부터 4시까지는 2025보... 뭐 이렇게 걸

음 수가 다 분석이 됩니다. 스마트워치를 차게 되면 맥박수도 다 분석이 되고 내 자신의 건강상태를 다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병원 서버로 바로 연결해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개인의 건강 데이터들을 10년 동안 축적해서 빅 데이터 분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우리 몸의 변화 양상들, 질병과의 연관성, 그리고 각종 질환에 따른 신체적 변화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10년간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데이터가 분석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자신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어떤 소비행동 패턴들이 다 분석되고 누군가가 이걸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인터넷, 클라우드, 빅 데이터 - 이게 또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끝으로 M은 뭘까요? 바로 모바일(Mobile)입니다. 모바일은 네트워크 통신의 이동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스마트폰이 바로 이 모바일의 이동성을 집적하고 있는 단말기지요. 그런데 이 이동성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사람을 늘 따라다닌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이동성이란 개념이 나오는 거지요. 스마트폰은 그저 도구가 아니라 나와 신체, 신체와 세계를 매개하는 수단입니다. 기존의 유선전화나 휴대전화가 인간에게 청각과 시각 중심의 감각을 확장시켰다면 스마트폰은 여기에 더해 촉각이라는 독특한 감각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체 밖에 있는 도구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로 들어와서 신체의 기능을 확장해주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위치기반 앱이 나의 감각기관을 대신해 끊임없이 나의 주변환경을 모니터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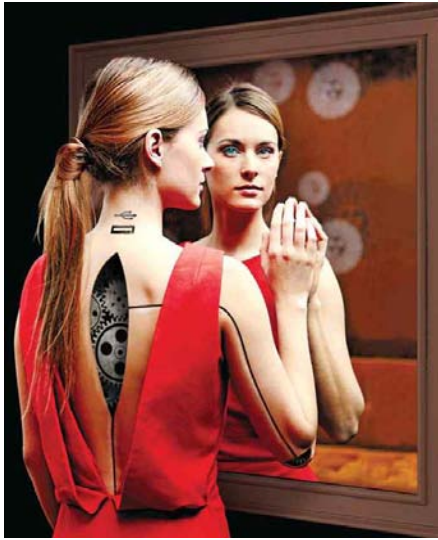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 축수와 정보, 콘텐츠로 무장한 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게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입니다. 모바일이 가져온 혁신 중의 하나가 개인과 개인을 온라인 상에서 서로 연결시키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이런 모바일 환경에서 신분확인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지문이나 홍채 인식 같이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아이덴티티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뱅킹이나 모바일 쇼핑, 모바일 결제서비스까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일상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 느낌과 정서들, 더 나아가 나의 하루 생활의 관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옮겨갔는지 모바일 데이터를 분석하면 다 알 수가 있죠. 종합해보면 모든 사물들에 장착되어있는 인터넷(IoT)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하면 클라우드에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들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분석이 되고 다시 모바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골목골목에, 그리고 거리마다 설치되어있는 CC카메라를 한 번 보십시오. 또 차량마다 설치되어있는 블랙박스가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나 동작을 죄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전율스럽기까지 합니다.

## 6. 기억의 총체로서의 나 - 지금 여기 있는 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사유하는 나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했었는데 20세기에 와서는 인간의 의식이 의식의 섬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객관세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연 ‘나’라는 존재는 내가 그동안 보고 느끼고 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경험의 내용과 기억의 총체들 - 그것이 곧 나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TV드라마에도 그런 걸 소재로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 끝난 ‘리멤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는 대로 다 기억이 되요. 너무 과잉되게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모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 알츠하이머병을 앓으면서 점점 그 기억이 사라져갑니다. 그렇게 기억이 희미해져가다가 결국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잃고 나 자신에 대한 기억도 잃게 되면 결국엔 나는 사라지는 것일까? 그러면서 끝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기억과 함께 나의 존재도 사라지는 것일까? 그럼 나의 존재의 의미는 기억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 나는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고 경험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 속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뇌 속 신경세포와 시냅스에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축적된 기억의 정보들을(그 양이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그저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연결사회로 가면서 개인의 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수집되고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한 번 볼까요? 여기 이 여성의 목 뒷면에는 USB를 꽂는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USB를 꽂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사람의 뇌에 저장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동안 경험해온 모든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폐기되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트릭스 같은 공상과학 영화를 보

면 그런 장면이 좀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억이나 정보의 총체로서의 나를 과연 진정한 자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딸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남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이기도 하고 또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 왔을까요? 많이 고민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정신없이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시작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자식들도 나의 품을 떠나가고 남편도 자신의 일과 사회적 활동에 전념하느라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심리적 변화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폐경기가 시작되면서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신체적으로 노화현상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것을 갱년기라고 하지요.

갱년기는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식론적으로 논의되는 그런 어려운 자아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아니구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직접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과 씨름하던 데카르트는 모든 수학적 진리와 나의 존재성마저도 의심스러워 했지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말해서 꼬집으면 아프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그렇게 구체적인 ‘나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누가 대답해보시겠습니까? 예,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7. 그냥 인문학이 아니라 이천에서 하는 인문학

그래서 이천인문학이 필요한 거죠. 그냥 인문학적으로 나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나인 거예요. 텅빈, 공허한 나인 거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그 나에 대해 고민하는 보편적인 나는 되겠죠. 보편적인 나일 수는 있는데 공허해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추상적인 나가 아니라 내용이 있고 피와 살이 있는 나는 뭘까? 창백하고 정신적 나가 아니라 구체적인 피와 살을 갖고 생동감 있게 감각을 느끼면서 자각할 수 있는 나는 뭘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가 바로 ‘지금 여기’라는 말이죠. ‘언제나 어디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보편성 형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실에 있죠. 그 교실은 관고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2층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모바일(Mobile)이에요. 이 스마트폰 이전에 여러분 자

신이 모바일이에요. 이 생각하는  
나가 추상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  
지 않고 신체를 통해 실어져서 계  
속 이동을 하죠. 이동하면서 '지금  
여기'가 시시각각 새롭게 다가옵니  
다. 나의 이동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이동함에 따라서 지금은 교  
실에 있는 나가 되지만 조금 있으  
면 친구와 만나고 있는 나가 됩니  
다. 그리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돌  
아오는 아이들을 챙겨주고 있는  
집에서의 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우  
리가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점을 찾아보자면 바로 이천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 지금이라는 시간  
은 순간순간 흘러가는 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넓은 시간의 범위를  
말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같은 시기를, 같은 시대를, 이천이라는 지  
역에서 살아오고 있는 나. 그런 나들이 모여서 함께 이천을 살아가고 있  
는 우리들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출발해야 바로 진정한 이천의 인문학  
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이천에 어떤 소설가가 살고 있다고 칩시다. 중앙문단을 통해 등단했고 베  
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그 소설가는 수시로 서울로 올라가 문인들과 교  
류하며 중앙무대에서 정력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설가는 과연 이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천에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이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  
다. 이런 질문을 저는 어디서든지 합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론 하고 학교  
에 가서도 학생들에게 불쑥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주위 분들에게도 물어

2015년 인문학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됩니다. 그러면 특히 행정적으로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천이라는 행정적인 지역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이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다른 의미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말의 뜻은 이천이라는 단순히 지리적인 행정구역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삶의 내용을 내가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천에 살고 있다면 이천에서 형성되어온 이천의 문화, 그 다음에 이천 사람들이 지금 화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주제들, 그 다음에 이천 사람들이 과거부터 겪어 왔던 역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이천 사람들이 앞으로 이천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하는 고민들, 이런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사람은 이천이라는 행정구역 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충분히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천에서는 조상 대대로 이천에 살아온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한 일이고 또 존중할 만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이천에서 살아 왔다고 해서 이천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대대로 이천에서 살아 왔다 하더라도 그 집안, 그 가문이 과연 이천이라는 지역 사회에서 얼마만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왔는지 마을에서 서로 힘을 합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역사적 시간을 겪어온 과정이 부족하다면, 그 집안이 아무리 대단한 문벌가문이고 아무리 오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천에 안동김씨 집안이 살고 있지만 안동김씨 집안은 조선 후기 때 김좌근, 김병기 대감 같은 한 시대를 호령했던 권문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인물들이 세도가의 관점, 권력자의 관점에서 지역의 주민들을 침탈하고 특권적 호사를 누리며 살았을 뿐 이천의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지 않았다면 역사적으로 봐도 이들을 이천 사람이

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이천 사람입니까? 지금 이 시간 바로 여기에 있는 당신은 이천 사람인가요? ‘예’ 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고 ‘아니오’ 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질문에 대해 나 자신의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이 지역의 의미를 깊이 성찰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지역성에 대한 고민을 이미 해오셨거나,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구요. 또 앞으로도 쉼 없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시민이 되신 거지요. 그런 고민과 내적 동기가 있으셨기에 이 인문학 강좌를 신청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인문학은 그냥 인문학이 아니라 이천의 인문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을 나와 세계를 바라보는 중심으로 삼고 주체적으로 삶을 세우고 새롭게 우리의 삶터인 이천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문학에 초빙된 분들은 분야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지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지역에 대한 가치,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지역을 토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분들이 지역에 접근하는 방식과 수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잘 소화하고 내 삶의 자양분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순전히 우리들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천 인문학 총서 5

# 02

## 모든 길이 이천으로 통하는 그 날을 꿈꾸며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 1강

# 이젠 로마가 아니라 이천이다

- 이천이 왜 세계의 중심이어야 하는가 -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문화비평가이자 실천학자. 대안학교 맑은샘솟는학교 설립. 90년대 한국의 경제를 견인해온 대기업과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통섭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과학기술과 물질문명, 성과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에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 어떤 인문학이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최근에 의학과 예술, 인문학의 융합연구로 인간의 '심장'을 읽어낸 「마음의 장기, 심장」을 공동 저술했다.

## 1. 판도라의 상자

신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단의 지역,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뒤돌아봤다가 그만 아내를 잃어버린 이야기 말이에요. 오르페우스가 저승에서 아내 에우리디케를 구해오다가 안타깝게도 다시 잃어버리잖아요. 또 소돔 성을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본 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또 고대에는 금하는 법도 많아요. 팔조의 금법도 그렇고 십계명 같은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판도라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를 소개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판도라의 상자인데요. 판도라의 상자라는 건 뭘까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거신족 티탄 가운데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란 신이 나오는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앞서서 생각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앞날을 미리 알고 예견하는 지혜로운 신인 거지요. 그런데 그에게는 에피메테우스(Epimetheus)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형과는 반대로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과 티탄들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 거인과 올림포스 신들과의 싸움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티타노마키아’(Titanomachia)라고 불러요. 앞날을 내다 본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승리할 것을 알고 제우스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승리하고 나서 티탄족들을 깊은 구렁텅이인 타르타로스에 죄다 떨어뜨렸지만 프로메테우스 형제에게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세우는 막중한 일에 참여를 시킵니다.



판도라. J.W. Waterhouse. 1903

그 임무는 인간과 온갖 짐승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제우스가 인간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신전과 기념관을 만들게 하고 그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또 신들이 해왔던 힘든 일들을 인간이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우스의 명을 받은 프로메테우스는 흙으로 온갖 짐승과 사람의 형상을 빚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 재료가 달랐어요. 그냥 흙이 아니고 제우스가 벼락으로 내리쳐 죽인 티탄의 재를 섞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티탄들은 제우스의 아들인 어린 디오니소스 신을 찢어서 삼켜버렸는데 이에 분노한 제우스가 벼락을 던져 죽인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디오니소스의 신적인 요

소와 티탄이 가진 땅의 요소를 동시에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피조물들이 만들어지자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배분해주었습니다. 어떤 동물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을, 어떤 동물에게는 딱딱한 등껍질을, 또 어떤 동물에게는 날개를 주거나 하는 식으로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선물을 준 거였어요.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이름처럼 좀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 없이 선물을 동물들에게 인심 쓰듯 나누어주었던 탓에 정작 사람에게 차례가 왔을 때는 줄만한 선물이 남아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에피메테우스가 형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요.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사랑한 프로메테우스는 결국 제우스가 인간에게 금지한 불을 훔쳐다 주기로 합니다.

왜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금지시켰을까요? 불을 갖게 되면 인간이 강력해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요. 자신도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권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벌을 받아 카우카소스 산에서 쇠사슬로 묶인 채 매일매일 날아오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는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하려 했던 것일까요? 인간을 끔찍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토록 인간에게 애정을 쏟았던 것일까요? 저는 프로메테우스가 앞날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운명, 제우스와 올림포스



프로메테우스. G. Moreau. 1868

신들의 운명,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 내다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우스 입장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게 영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인류를 돕

지 못하도록 카우카소스 바위 산에 꽂꽂 묶어두고 불을 받은 인류가 그에 대한 댓가를 치르도록 계락을 꾸밈니다. 이렇게 해서 제우스가 꾸며낸 작전이 바로 판도라입니다.

판도라(Pandora)는 제우스가 인류를 약화시키기 위해 신들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낸 최종병기 같은 거예요. 여신의 모습처럼 빔어낸 형상에 아테나 여신이 직접 지은 면사포를 씌우고 허리띠를 둘러주었고, 아프로디테는 눈부신 아름다움과 치명적인 매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헤르메스는 그녀에게 교활한 마음을 넣어주었고, 그밖에 다른 신들도 제각각 선물을 한 가지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판도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온갖 선물을 받았다는(all-gifted) 뜻입니다. 제우스는 이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불들려 가기 전 제우스가 보낸 선물은 어떤 것도 받지 말라는 당부를 동생에게 했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당부를 까맣게 잊고 판도라의 매력에 빠져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지요.

판도라의 상자는 원래 헤시오도스가 쓴 저술에서는 항아리로 묘사되어 있어요. 판도라가 이 항아리를 어떻게 가져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들려 보낸 것인지, 아니면 에피메테우스가 피조물에게 나누어주었던 선물을 담은 항아리로 필요한 것들은 다 나누어주고 남은 것들만 모아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한 판도라가 뚜껑을 열게 되지요. 그 순간 그 속에 있던 불행과 질병, 고통, 미움 같은 온갖 해로운 것들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퍼지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란 판도라가 급히 뚜껑을 닫았지만 이미 온갖 재앙들은 다 빠져 나간 뒤였고 겨우 항아리에는 '희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우스가 의도했던 대로 된 거지요. 이쯤에서 그칠 만도 한데 제우스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게 권력의 속성인가 봅니다. 인류가 번성한 뒤에 지상에 홍수를 보내 고분고분하지 않은 인류를 쓸어버리자고 한 것도 제우스였잖아요.

거기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력에의 의지'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아

들이 제우스가 아버지인 크로노스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티탄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립니다. 가이아는 티탄들도 자기가 낳은 자식들인데 이걸 좀 심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대항할 엄청난 괴력을 지닌, 업그레이드된 거신 족들을 창조합니다. 이들을 기간테스라고 불러요. 이 기간테스들과 올림포스 신들과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데요. 이 싸움을 ‘기간토마키아’(Gigantomachia)라고 부릅니다. 이 싸움에서 기간테스들이 선제공격을 하는데 이들의 상상을 초월한 괴력을 목격한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은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너무 강력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탁을 받아보니 인간의 힘을 빌지 않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걸 내다본 거죠.



흔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어기고 열어보는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판도라의 상자는 신화적으로는 온갖 종류의 재앙이 들어있는 상자인데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기억의 상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약점, 치명적인 결함, 트라우마 같은 것 이런 게 죄다 공개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자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봤어요. 여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자에서 여러분은 뭘 발견하시나요? 제가 이 상자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었던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들,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은 작업, 서로 의기투합해 일을 벌이거나 함께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느낌들... 뭔가 희망적인 일들을 이렇게 쪽 담아보는 것이었거든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모든 재앙들이 다 인간 세상에 퍼졌잖아

요? 근데 끝으로 남은 것은 희망이었어요. 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재앙의 상자가 아니라 희망의 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이 상자에 나쁜 것은 들어있지 않아요. 남아 있는 것은 희망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퍼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자에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희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에서 이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이’ 희망을 어떻게 키워내고 펼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인문학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 2. 기록과 만남

우리 이천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독특하고 재미난 설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개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소재나 주제별로, 지역별이나 모티브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모아놓고 보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발상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냥 점들에 불과하지만 이야기와 그 이야기의 배경이나 소재가 되는 지역을 서로 연결시켜서 선을 만들어보는 거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봉산을 무대로 한 설봉산 이야기길, 조각작품들을 주제별로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는 조각예술 감상길, 요즘 마을벽화그리기 사업이 우리 이천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벽화작업이 되어있는 마을이나 골목을 투어하는 마을벽화 이야기길, 효자전설이 서려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효자체험길,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영남길의 흔적을 밟아볼 수 있는 울면 이야기길...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 그 장소성과 연결시켜 풀어놓고 보니 우리 이천에도 이야기를 풀어낼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옛 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이야기로 풀어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 현장이야말로 정말 이야기로

담아 낼 게 많거든요. 콘텐츠로 가득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인문학 강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록'과 '만남'이에요. 기록이라는 것은 옛 것에 대한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옛날에는 기록이라고 하면 문자나 글로 쓰는 것만을 의미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다양한 방식의 기록이 가능합니다. 사진으로도 가능하고, 그림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남기는 메모들이나 각종 영수증, 집안 곳곳에 모아져 있는 잡동사니가 몇 십 년 후에는 굉장한 컬렉션(collection)으로도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0~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석탄산업이 에너지의 근간이었습니다. 석탄채굴 광산들이 많은 강원도 태백 같은 지역에서 그 시대, 그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본다고 합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기록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광산에서 일을 했던 광부들의 일상적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 광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생활용품들, 빛바랜 사진들, 월급명세서, 하루하루 일과가 빼곡하게 메모가 되어있는 달력이나 가계부, 업무수첩, 사소한 가재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귀중한 기록물들이죠.

### 3. 일리아스적 영웅의 전형

여러분, 무사이(Mousai)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뮤직(Music), 뮤지엄(Museum)의 어원이 되는 말이 바로 이 무사이입니다. 무사이는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인 므네모시네 사이에서 태어난 예술의 여신들입니다. 아홉 명의 무사이드들이 있는데 각자 맡고 있는 소임들이 다 달라요. 역사를 관장하는 클레이오(Cleio), 희극을 관장하는 탈레이아(Thaleia), 연가를 담당하는 에라토(Erato), 서정시를 담당하는 에우테르페(Euterpe), 찬가와 무언

극을 맡고 있는 폴리힘니아(Polyhymnia), 서사시의 여신 칼리오페(Calliope), 리라(lyre)를 든 가무의 여신 테르프시코레(Terpsichore), 천문을 관장하는 우라니아(Urania), 그리고 비극을 관장하는 멜포메네(Melpomene). 이렇게 무사이드들이 예술을 분야 별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왜 무사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고대 그리스의 시인들은 무사이드들이 시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비로소 시를 짓고 노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를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사 여신이어 노래하소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 일리아스 -



춤을 추는 아폴론과 9명의 무사이드. Baldassare Peruzzi. 1523

아킬레우스(Achilleus)는 테티스(Tethys) 여신과 펠레우스(Peleus)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신이 인간과 정식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래 제우스가 테티스를 좋아해 그녀와 결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테티스와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제우스를 능가하는 자가 되리라는 예언 때문에 제우스가 억지로 테티스를 펠레우스와 결혼시킨 거라고 해요. 그렇게 인간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테티스는 신과 같이 만들고 싶어했어요. 신과 같다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인간의 요

소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테티스는 아들을 낳았을 때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를 아들의 몸에 바르고 불 속에 넣었다고 해요. 그걸 남편인 펠레우스가 보고 놀라는 바람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테티스가 갓 태어난 아들의 발뒤꿈치를 잡고 저승의 강인 스틱스(Styx) 강물에 온 몸을 담갔기 때문에 그곳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고도 해요.

테티스는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길 원치 않았어요. 전쟁에 참여하면 아들이 죽게 될 운명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전 그리스에 트로이 전쟁을 위해 소집령이 내려올 때 테티스는 아들을 궁전에서 여장을 하고 수많은 공주들 사이에서 지내게 합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 없이는 그리스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게 신탁이었어요. 오디세우스가 기지를 발휘해 공주들 속에 숨어있는 아킬레우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합니다. 명예 없이 불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죽을 운명을 받아들이고 불멸의 명예를 얻느냐 그런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이 대치하고 있던 기간이 자그마치 10년입니다. 왜 이렇게 싸움이 길어졌을까요? 트로이에 헥토르(Hektor)라는 영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킬레우스가 없이는 헥토르를 돌파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아킬레우스와 그리스군의 총 대장인 아가멤논 사이에 벌어진 불화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싸움에 절대로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후로 그리스군은 한 번도 이기질 못합니다. 수많은 그리스 병사와 영웅들이 헥토르와 트로이군에 의해 죽어 나갑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리스군이 계속 죽어나가면서 쓸데없이 허송세월하는 기간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그의 절친 파트로클로스(Patroklos)가 꾀



아킬레우스의 죽음(부분) P. Rubens. 1630

를 냅니다. 바로 아킬레우스로 변장하고 나서는 거지요. 아킬레우스의 칼과 투구를 쓰고 파트로클로스는 그리스군을 이끌고 트로이를 기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이게 꿈쩍하지 않던 아킬레우스를 격노하게 만듭니다. 절친의 복수를 위해 헥토르와 일대일 결투를 하는 거예요. 아킬레우스의 창이 헥토르의 쇄골 위 목덜미를 꿰뚫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는 헥토르를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의 시신을 가 죽끈으로 꿰어 전차에 매달고 성 주변을 달립니다. 헥토르의 시신은 처참하게 훼손됩니다.

성 위에서 그의 부모인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Priamos)와 헤카베(Hekabe) 왕비, 그리고 아내인 안드로마케(Andromache)와 어린 아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지요. 이런 잔인한 행동은 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아킬레우스가 왜 분노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게 일리아스의 주제인거예요. 어떻게 보면 트로이전쟁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아킬레우스의 내면세계입니다. 그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걱정, 충동, 분노. 그러니까 실제 전쟁은 트로이 성과 해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그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분노를 신들이 어떻게 일으켰고 잠재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 4. 트로이 목마 - 치명적인 전리품



여주의 트로이목마(左), 터키의 히사를리크 트루바의 목마(中), 차낙칼레의 목마(右)

여기 이 조형물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가는 쪽에 산림조합이 있는데요. 그 앞에 세워져 있는 트로이 목마입니다. 높이가 25미터나 되는 세계 최대의 트로이 목마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목재를 가지고 뭔가 여주에 랜드마크가 될 만한 큰 조형물을 만들어보자 해서 세워지게 된 건데요. 제가 여기 목마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난간 부분도 그렇고 안전 면에서는 좀 위험하더라구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잠깐 실수하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트로이 목마인데요. 터키 이스탄불에서 자동차로 8시간 정도 내려가면 히사를리크 트루바(Hisarlik Truva)란 도시가 있습니다. 하인리히 쉐리만(Heinrich Schliemann)이 발굴했던 트로이의 옛 유적지가 있는 곳인데 여기 입구에 세워져있습니다. 여주에 있는 목마는 이 목마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이것보다 좀 더 실감나게 제작을 해 놓은 트로이 목마가 있습니다. 터키 서부해안 도시 차낙칼레(Çanakkale)란 곳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브래드피트가 주연했던 영화 트로이(Troy, 2004)에 등장했던 바로 그 거대한 트로이 목마입니다. 해변광장에 세워져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영화 트로이에 보면 그리스 군들이 10년 동안 트로이를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질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 군들이 사라지고 해변가에 이 거대한 목마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목마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던 트로이 사람들에게 그리스 군의 스파이였던 시논이 거짓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목마가 성 안에 들어가면 트로이가 승리한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옮기지 못하게 일부러 크



영화 트로이(2004)에서 재현한 목마

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쳤던 트로이 시민들은 그 말을 믿고 이 전리품을 성 안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게 좀 불길하다, 저것을 성 안으로 들어 놓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스 군의 계락을 눈치 챈 신관이 있었어요. 바로 ‘라오콘’(Laokoon)이라는 트로이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신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트로이 목마는 전리품으로 마침내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 군의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죠. 이 트로이 목마를 성안으로 들여 놓고 트로이의 시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생각하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일종의 카니발, 승리의 축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트로이 목마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 군의 정예 병사들이 숨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트로이의 시민들이 다들 술에 진탕 빠져서 골아 떨어졌을 때, 목마에서 내려와 불을 지르고 성문을 열어서 잠복해 있던 그리스 군대들을 다 성안으로 들여보내죠. 그래서 처참한 살육이 벌어집니다.



라오콘 상. 1524년경 복원 vs. 1900년대 초 복원

라오콘 상은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죠. 라오콘 상은 원래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1506년경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야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이 잘려 나간 것이 보이

죠? 그리고 또 여기 두 아들의 팔도 잘려나간 부분이 보이고... 이렇게 몇 개로 동강이 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접합시켜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복원작업을 미켈란젤로에게 부탁했는데 발견되지 않은 오른쪽 팔 부분을 어떻게 복원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오른쪽 팔이 근육의 움직임으로 보면 뒤로 꺾여진 모양일 거라고 추정을 했지만 당시

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팔을 하늘로 쭉 뻗은 모양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복원을 해 놓았어요. 그렇게 400여 년간 그 형태로 보존되어오다가 1900년대 초에 라오콘 상에서 떨어져 나온 진짜 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팔은 미켈란젤로가 말했던 것처럼 굽혀져 있었던 겁니다.

라오콘 상은 신관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이 물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에요. 라오콘이 트로이목마를 성안으로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니 그리스 군이 승리하도록 운명을 정해놓았던 신들로서는 곤란하게 된 거지요. 자칫하면 그리스군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을 편들었던 포세이돈 신이 바다에서 거대한 물뱀을 나오게 해가지고 이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을 물어 죽게 하거든요.<sup>1)</sup> 이렇게 해서 트로이 목마가 성 안으로 들어오고 마침내 트로이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그리스의 영웅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트로이 목마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트로이목마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정상적인 프로그램 같은데 정해진 명령을 받으면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는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예요. 여기에 걸리면 시스템과 정보들을 막 파괴하고 해서 컴퓨터를 아예 못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마를 성 안에 들여놓았다가 트로이가 함락된 것처럼 컴퓨터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트로이목마’라는 바이러스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 5. 오디세우스의 여정

아까 일리아스의 맨 처음 구절을 말씀 드렸는데요, 오디세이아 서시를

---

1) 이에 대한 또 다른 전승도 전해진다. 원래 라오콘은 아폴론 신전의 신관인데 사제로서 독신으로 살겠다는 맹세를 어기고 신전 안에서 여인을 범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분노한 아폴론 신이 커다란 물뱀을 보내서 라오콘과 두 아들을 죽게 했다는 것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사(Mousa) 여신이며 들려주소서.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끝없이 바다를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내(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 오디세이아 -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아킬레우스가 아니라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성을 함락한 오디세우스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트로이전쟁은 이렇게 처참하게 신성한 도시 트로이가 파괴되면서 끝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영웅들은 다 고향으로 귀환했는데 이 오디세우스만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다를 계속 헤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포세이돈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이 맨 먼저 도착한 섬이 키클롭스(Cyklops)라는 외눈박이 괴물들이 사는 섬이었습니다. 거인 괴물들이 사는 섬이라 피해 가려고 했지만 식량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섬에 정박하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들어간 곳이 폴리페모스(Polyphemus)가 사는 동굴이었습니다. 이 괴물은 포세이돈과 바다의 님프인 토오사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인데요. 오디세우스의 부하 장수들이 이 괴물에게 붙잡혀 하루에 두 명씩 잡아먹히게 되지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배에 실어왔던 포도주로 폴리페모스를 취하게 한 뒤 커다란 창으로 거인의 눈을 찌릅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폴리페모스의 광란을 피해 동굴을 빠져나옵니다. 폴리페모스가 소리를 지르자 그의 동료 거인 키클롭스들이 몰려옵니다. 누가 너의 눈을 찔렀냐고 물으니 폴리페모스가 대답합니다. “우티스, 우티스!” 우티스란 말은 ‘아무도 아니야’(Nobody)란 뜻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폴리페모스를 놔두고 키클롭스들은 돌아가 버립니다. 무사히 배에 오른 오디세우스는 안타깝게도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배를 타고 떠나면서 자신을 뒤쫓아 온 폴리

페모스에게 그만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겁니다. 영웅심의 잔재가 남아있던 거죠. “이 괴물아 똑똑히 들어라. 나의 이름은 오디세우스다!” 이렇게 말입니다. 폴리페모스는 분노하며 아버지인 포세이돈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지 못하고 끝없이 바다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헤매는 오디세우스(左),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와 오디세우스(右)

호메로스가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기나긴 서사시를 쓴 것이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가 어떻게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지부터 트로이가 멸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노래한 ‘일리아드’고요, 후반부로 오디세우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까지 10년간 항해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모험들을 기록한 내용이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자기 나라로 자기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시작하는 인문학강좌를 ‘오디세이문화대학’이라고 명명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정직하게 자기 자신과 대면해서 온갖 괴물과 싸워 나가는 그런 모험의 과정을 함께 해보려는 것입니다.

## 6. 괴물은 무엇인가?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보게 되는 사물들을 다 괴물로 바라봅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생물들, 물건들, 심지어 부모까지도 괴물로 인식하는 거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만실에 가보면 처음에 아이가 얼마나 경악 속에서 태어나니까? 강한 조명 속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너무나 밝은 빛에 눈이 부셔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때부터 공포의 시작이에요.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입 속에 관을 넣어 이물질을 빼내고, 첫울음을 터뜨리도록 엉덩이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아기에게는 모든 게 다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괴물은 낯선 것,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괴물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사회를 말해요. 개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사회체제,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은 길들여지고 체제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그냥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다 거대한 괴물과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대의 괴물들로 가득한 신화의 세계 못지않게 온갖 기괴한 괴물들이 득실대고 그런 괴물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괴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도처에 존재하는데, TV가 될 수도 있고, 초고층빌딩이나 거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폭력적인 사회구조나 교육제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 사회적 상황들이 괴물 투성이라는 이야기죠.

한 10년 전인가요? 봉준호 감독이 만든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괴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 낸 거죠. 현대 사회의 배설물. 쓰레기 더미. 악취가 나는 시궁창 속에서 점차 커져가지고 거대한 몸집으로 출현한 것이 그 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괴물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찾아 간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회 속에 길들여지지 않고 정직하게, 그

냥 타성에 젖지 않고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끝까지 참다운 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만의 자신을 찾아가는 그 기나긴 과정을 ‘오디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그리고 이 시대에 이천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오디세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괴물은 어떻게 보면 나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고통스런 기억이나 피해의식들, 공포 같은 것들이 외화되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괴물은 도처에 존재하고 오디세우스는 그 괴물들을 하나하나 퇴치해나가지만 정작 그 괴물 중의 괴물이 또 아리를 틀고 있는 은신처는 바로 나 자신 속입니다. 나의 내면에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나의 내면의 도처에 괴물이 존재하고 그 괴물들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오디세우스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오디세우스를 일깨워야 합니다.



오디세우스와 폴리페모스. T.Pellegrino(상), A.Böcklin(하)

## 7. 이제 누가 영웅인가? - 데모도코스의 노래

그렇다면 그런 기나긴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도 오디세우스처럼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의 영웅인 거예요. 고대의 영웅들은 정말 특별한 능력과 힘과 재능을 부여받고, 특별한 무기로 장착한

인물들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영웅들은 어떤 인물들인가요?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 속에서 맞닥뜨리는 괴물들, 자신과의 대면을 꺾방하는 모든 방해물들을 물리치고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사람, 그리고 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 사람, 혹은 그 과정에서 포로가 되거나 죽음의 위협에 놓이더라도 끝까지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온갖 종류의 괴물들이 난무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이겨낸 사람이 다 영웅인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이 다 영웅이고, 영웅으로 이 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이든 간에 그 사회가 마련해준 편의와 기득권에 편승해서 적당히 적응해 살아가는 소시민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본성과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결단을 내리는 영웅인가요? 예, 영웅이시죠. 자기 자신의 영웅이에요. 자기 삶의 주인공이란 뜻이죠. 오디세이아를 보면 영웅 오디세우스는 길고 긴 항해 속에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위험을 그저 넘기고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와 지혜로 다른 대안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에서 그리고 있는 영웅은 이전의 영웅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를 보세요. 충동적입니다. 그가 지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요. 올림포스 신들조차도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노심초사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신들이 모든 인간의 운명을 미리 정해놓고 트로이전쟁이 어떻게 종결될지도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분노를 제어하질 못합니다. 트로이 전쟁이 십년이라는 긴 세월을 끌게 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의 분노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까닭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그가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점, 이것 때문에 그가 분노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그의 강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발성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는 불사의 삶을 살려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숨어 지내야만

한다는 게 너무도 비통스럽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영웅으로서의 명예를 얻을 수 있다지만 어차피 죽고 나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멸해야 할 인간의 기억 속에 영웅으로 기억된다한들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그는 좌절된 영웅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물인정하고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지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의 정서적 기저에 깔려있는 분노의 감정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디세우스가 저승에서 만난 아킬레우스의 훈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 그럴싸하게 말하지 마시오. 영광스런 오디세우스여! 나는 세상을 떠난 모든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지상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재산도 많지 않은 가난한 사람 밑에서 품이라도 팔고 싶소이다.” (오디세이아 11권 489행)

이에 비해 오디세우스는 충동적으로 선불리 행동하지 않아요. 위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리를 둡니다. 그는 아킬레우스와 비교하면 혈통으로나, 용맹으로나 여러모로 떨어지는 인물임에 틀림없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 식으로 자기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해요. 아킬레우스를 전쟁에



알키노스궁에서 노래하는 데모도코스

참여하게 만든 것도 자기이고 트로이를 최후로 함락한 것도 그의 뛰어난 지략 때문인 거죠. 그리스군의 술한 영웅들을 죽음에 몰아넣고 질질 끌기만 해온 전쟁을 종결시킨 게 바로 오디세우스 아닙니까. 아킬레우스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용맹과 강력으로 무장을 했지만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개인의 분노와 감정대로만 행동을 했어요. 아가

멤논과의 불화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 군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 영웅은 개인적인 명예는 얻을지 모르지만 그리스군 전체를 위한 영웅은 아닌 거지요. 자기 내면의 충동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아킬레우스는 그 이전의 영웅들에 비해선 한계와 약점이 너무도 많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고대의 영웅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지금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에 비해 결정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킬레우스의 혼령이 말한 것처럼 아킬레우스는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이고 오디세우스는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교활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꼼꼼하게 모든 상황이 다 파악될 때까지 쉽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이런 영웅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들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함량 미달의 인물이죠. 그런데 오디세이아가 그리고 있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새로운 형태의 영웅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웅이고 싶어 합니다. 누가 트로이를 무너뜨렸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데모도코스(Demodocos)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음유시인이 트로이 전쟁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듣고 싶어 합니다. 그가 처음에 부른 노래가 뭐였냐 하면 아킬레우스하고 오디세우스가 논쟁을 벌이는 그 장면을 노래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킬레우스와 대등해진 거지요. 오디세우스가 마지막으로 시인에게 청해 트로이 목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며 오디세우스는 눈물을 쏟습니다. 트로이를 점령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에 혼자 감동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10년 동안 바다를 헤매며 겪었던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니까? 오디세우스 자신이에요. 아무도 그가 겪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사투를 벌이며 항해를 했던 그의 부하들이 모두 죽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만이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이걸 비겁한 인물입니다. 배의 선장이 자신만 살아서 귀환했다고 해보세요. 그런

데 오디세이아의 서시에 보면 그 책임이 다 부하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하들이 휘페리온 헬리오스의 소떼를 먹어치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아’는 유일한 생존자인 오디세우스가 들려주는 자신에 관한 낚두리, 좋게 말해서 오디세우스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 8. 숨은 욕망 - 세이렌의 노래

오디세우스가 키르케(Kirke)의 섬 가까이에 왔을 때 오디세우스는 이 섬이 어떤 섬인지 정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마법의 약초로 만든 음



율리시즈와 세이렌. John William Waterhouse. 1891

료를 먹게 한 뒤 지팡이로 쳐서 돼지로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겨우 탈출해서 돌아온 부하 에우릴로코스의 보고를 받고는 오디세우스가 직접 부하들을 구하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헤르메스 신이 그에게 키르케의 마법에 빠지지 않는 약초와 키르케를 제압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부하들이 돼지로 변했다는 건 본능에 충실한 노예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괴물의 유혹에 포로가 되어버린 거지요.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다릅니다. 자신의 마법이 통하지 않는 오디세우스에게 키르케는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유혹하지요. 오디세우스는 키르케가 요구하는 충동적 욕구를 들어주는 대신 자신이 시키는 대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 맹세란 게 뭐냐 하면 돼지로 변한 자신의

부하들을 다시 돌려놓아야 하고 자신의 아내인 페넬로페와의 결혼관계를 위험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과 쾌락을 구분한 건데요. 다분히 가부장제 사회의 의식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부하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키르케의 섬에서 1년을 지내다 오디세우스는 다시 귀향길로 나서게 되지요.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바다를 향해하면서 세이렌(Seirenes)과 스킨라(Scylla), 카립디스(Charybdis)라는 괴물을 만날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이렌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 모양을 한 괴물인데 노래 부르는 여신이에요. 너무나 고흥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세이렌 섬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노래를 들으면 금방 빠져들어서 그만 배가 난파해버리고 만다고 해요. 이 세이렌의 섬 근처를 이제 오디세우스 일행이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의 조언을 따라 부하들이 세이렌의 노래를 듣지 못하도록 밀랍으로 귀를 막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대체 어떤 노래를 부르길래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냅니다. 부하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단단히 묶어두고 섬을 통과할 때까지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부하들은 노래 소리를 못 들지만 자신은 세이렌의 노래를 듣는 거예요.

이윽고 오디세우스의 배가 그 계곡 협곡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어디선가 그 노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밀랍으로 귀를 막은 부하들은 묵묵히 노만 저어요. 하지만 노래를 듣는 오디세우스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미칠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세이렌의 섬을 통과한 후에 거의 녹초가 된 오디세우스를 부하들이 풀어주죠. 세이렌은 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노래였길래 오디세우스가 유혹되어 미치도록 발버둥을 쳤던 걸까요? 적어도 세이렌의 얼굴이 여신의 모습처럼 아름다워서라거나 그 목소리 자체의 아름다움에 끌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해석은 세이렌이

오디세우스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꺾어보고 그걸 노래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는 바로 일리아스입니다.

세이렌은 넓은 트로이 땅에서 아르고스인들(그리스)과 트로이아인들이 신들의 뜻에 따라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 풍요의 대지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리아스의 세계에서 주인공은 아킬레우스고 오디세우스는 조역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리스 전군에 소집령이 내렸을 때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서 거짓으로 미친 척 했던 병역기피자였고 아킬레우스가 죽은 후 그의 갑옷과 방패를 차지하기 위해 동료인 아이아스를 죽게 만든 교활한 술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세이렌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세이렌은 오디세우스가 일리아스에서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 밝혀줍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과거에 행해졌던 행적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지요.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아이아스 같은 이들과 비교할 때 오디세우스의 행적은 영웅이라 하기엔 너무도 초라하고 왜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이렌은 오디세우스가 무얼 원하는지, 어떤 욕망을 숨겨왔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영웅이고 싶어하는 그의 몸부림을 간파한 거지요. 영웅들의 무대인 트로이에서 아킬레우스가 아니라 바로 오디세우스가 진정한 영웅이자 주인공으로 노래되는 것을 들려줍니다. 어쩔습니까? 세이렌이 이렇게 유혹해 왔다면, 제가 오디세우스라면 틀림없이 그 노래를 듣고는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 같아요.

하지만 그 세계로 돌아가려는 순간, 다시 과거를 되돌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그의 행적들을 되짚어보며 영웅의 면모로 바꾸어보려는 순간 그는 난파를 당해 죽게 됩니다. 세이렌의 노래에 끌려들어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이 과거의 유혹으로부터 그를 구해내는 안전장치도 다시 무시무시한 괴물이 득실대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 세계로 그를 구출해 냅니다. 다시 그의 항해를 시작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의 항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칼립소(Calypso)라는 여신과 만나는 거거든요. 그가 10년 동안 바다를 헤

메고 다녔는데 그 중 7년 동안  
머문 곳이 바로 칼립소와 시간을  
보낸 오기기가 섬입니다. 오디세  
우스는 세이렌의 섬을 지나서 괴  
물 스킬라와 카립디스가 있는 곳  
을 지나다가 풍랑과 소용돌이에  
배가 난파되어 간신히 살아남게  
되지요.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그  
를 구해준 이가 칼립소 여신입니



오디세우스와 칼립소. Arnold Böcklin. 1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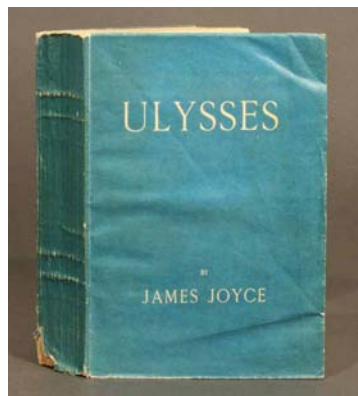
다. 그런데 이 칼립소는 불멸의 여신이기 때문에 오디세우스에게 자기와  
같이 이곳에서 살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고된 삶을 버리고 지복과 영생이 보장된 삶을 함께 누리자는 유혹입니다.  
그는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회유하기  
위해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 섬에서 7년을 머물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  
에는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와 살면서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도 합니  
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에는 이미 늙어  
있을 자기 아내와 이미 성장했을 아들을 찾아서 이 섬을 떠나게 됩니다.

## 9.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나긴 여정**

20세기 초에 아일랜드 출신의 제임스 조이스라는 위대한 문인이 등장  
합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소설을 쓴 분입니다. 이 분  
이 소설을 쓰는 기법을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이라고 부  
르는데요. 주인공이나 작중 인물의 의식이 흘러가는 과정을 여과 없이 보  
여주는 기법입니다. 의식의 흐름이란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문  
을 쪽 펼치면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어떻게 읽습니까? 내 관심이 먼저 가  
는대로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1면 정치 쪽부터 읽어요. 저는

7면 문학 쪽에 서평부터 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설을 먼저 보거나 맨 뒷면에 오늘 방영될 드라마의 줄거리부터 읽기도 합니다. 읽는 방식도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진만 대강 보고 넘기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기사제목만 읽어 나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관심을 끄는 제목이 있으면 기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신문을 읽은 순서를 쫓 따라가 보면 그건 그 사람의 관심이 옮겨간 자취,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임스 조이스가 쓴 소설 가운데 ‘율리시즈’(Ulysses)라는 책이 바로 이 의식의 흐름 방식으로 쓴 대표적인 소설이에요. 율리시즈란 이름은 오디세우스의 라틴식 이름입니다. 이 소설을 다 읽으려면 정말 방대한 분량의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율리시즈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레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인데 그 사람을 율리시즈에 빗대어 소설 제목으로 끌어왔습니다. 레오폴드 블룸은 율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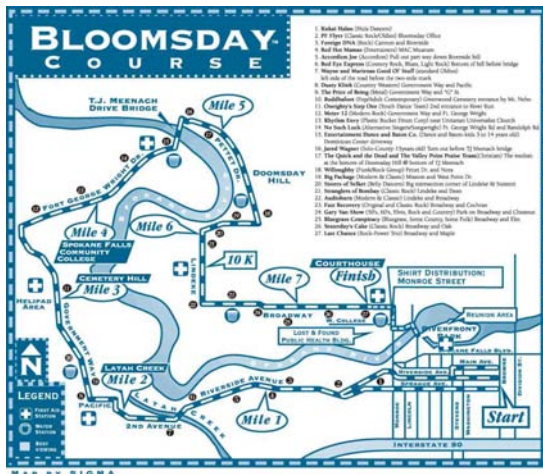


1922년판 율리시즈(ULYSSES)

즈가 10년 동안이나 바다를 떠돌아다닌 것처럼 더블린 시내를 헤매고 다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어 보이는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방황을 합니다.

게다가 구성 자체가 오디세이아와 아주 흡사합니다. 1장 텔레마코스에서 시작해서 18장 페넬로페로 끝나거든요.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인데 이 소설에서는 스티븐(Stephen Dedalus)으로 등장합니다. 더블린 거리에서 이 두 사람은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하면 더블린의 사창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소설의 15장 키르케의 내용입니다. 키르케가 오디세우스를 유혹하잖아요. 20세기에 와서는 키르케가 있는 곳이 더블린의 사창가로 묘사되는 거지요. 두 사람 다 잠재된 욕망을 따라 사창가에 오게 된 것이고 그 곳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지요.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아내인데 소설에서는 블룸의 아내 몰리

(Molly Bloom)로 등장합니다. 몰리가 잠에 들기 전에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끝없는 상념들이 묘사됩니다. 여기에 동원되는 단어가 4만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돼있어요. 이 두꺼운 소설 책 속에서 레오폴드 블룸이 더블린 시내에서 방황하는 시간적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고작 하루 일정이에요. 블룸이 1904년 6월 16일 아침 8시에 집을 나가서 더블린 시내를 쏘다니며 선물집이건 친구 집이건 여기저기를 방황하다가 새벽 1시에 귀가할 때까지의 일정입니다. 그 짧은 하루 동안 주인공이 만나는 사람들, 일어나는 사건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번잡한 상념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의식을 따라가며 묘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블룸이라는 사람, 이 주인공이 하루 동안 겪는 의식의 기나긴 여정을 그린 이 소설이 20세기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소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thedrunkenodyssey.com  
presents

**A Bloomsday Reading**

Come get shipwrecked this Bloomsday, in a celebration of James Joyce's infamous modern epic, *Ulysses*, as read by **The Drunken Odyssey All Stars**

**Sunday, June 16th at 6 P.M.**  
The Gallery at Avalon Island  
39 S. Magnolia Avenue Orlando, Florida, 32801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블룸스데이 마라톤코스 리플렛(左), 블룸스데이 리딩 리플렛(右)

아일랜드에 가면 블룸스 데이(Bloom's Day)라는 게 있어요. 바로 율리시즈의 주인공인 레오폴드 블룸의 날을 정한 거지요. 블룸스데이가 6월 16일이에요.<sup>2)</sup> 매년 6월 16일을 블룸스데일로 정하고 있어요. 이 기간에

2) 6월 16일은 한때 초등학교의 임시 교사였던 작가 조이스가 시골 처녀 노라 바네클

맞춰서 더블린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면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더블린 시내에 있는 모든 선물집, 도서관, 카페, 공원들, 음식점, 우체국, 병원이 다 이 날을 블룸스데이로 정해 놓고 거리에선 온갖 축제가 다 벌어집니다. 카페에서는 올리시즈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회와 낭송회가 열립니다. 이거는 카페에서 열리는 블룸스데이의 리딩(reading)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소설을 계속 이어가며 읽는 거예요. 밤 새워서 읽어요. 그 책을 다 읽는 거지요. 이 소설이 왜 유명할까요? 왜 그렇게 사랑을 받을까요? 더블린 시내가 이 소설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더블린 사람이에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왜 더블린 사람인지. 그렇다면 우리 이천에도 이천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는 작업들이 많이 시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더블린에서 받은 리플렛(leaflet)인데 블룸스데이 코스가 나와 있어요. 마라톤이 열리는 코스죠.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 코스가 뭐냐 하면 블룸이 하루 동안 오디세이 같이 용감하게 더블린 거리를 쏘다녔던 하루 일정의 코스인데 이 코스를 달려 보는 거지요. 여기 리플렛에 보면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표시가 되어 있지요? 지나가는 장소들이 하나하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곳곳의 명칭들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각종 이정표를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관광객들은 너무 즐거워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도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한다거나 부수지 않고 그대로 보전하면서 고스란히 그때 모습을 즐기는 겁니다. 더블린이라는 도시 자체가 문학과 잘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임스조이스는 20세기 문학의 거장입니다. 좀 과도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더블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천에서 문학하는 사람, 이천에서 예술 하는 사람, 이천에서 교육하는 사람, 이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

---

(NoraBarnacle)과 첫 데이트를 한 날로 알려져 있다. 제임스 조이스는 이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소설에서 이 날짜를 활용했는데, 노라는 조이스의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다.

이천에서 기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단순히 행정적인 권역에서 주민등록을 등재했다고 해서 이천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이천이라는 지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천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블린 시내에는 이날 블룸스데이 스타트(Blooms Day Start)란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마라톤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이 마라톤이 참가자가 얼마나 많은지 도시 전체가 온통 축제판인 거예요. 정말 굉장합니다. 제임스조이스 산업(James Joyce Industry)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게 문화의 저력인거죠.

## 10.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Rome Capitoline Museum

여기 사진을 보시면 쌍둥이 아이가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젖 같지 않아요. 여덟 개의 젖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데, 바로 늑대입니다. 로마의 건국자인 로물루스와 레무스(Romulus and Remus) 형제가 버려져서 늑대로부터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되거든요.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어떻게 로마를 건설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 겠군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영웅 가운데 트로이 왕가의 친척인 아이네이아스(Aeneias)가 있습니다. 그는 아프로디테와 다르다니아의 왕 안키세스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입니다. 트로이전쟁으로 인해 신들도 그리스 편과 트로이 편으로 갈라졌는데 당연히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에 섰겠지요. 하지만 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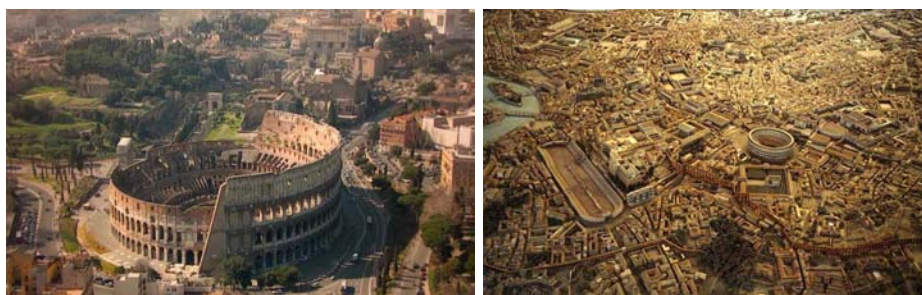
쟁이 트로이의 패망으로 끝날 운명이라는 걸 알았기에 아프로디테는 아이네이아스를 구원할 계책을 세웁니다. 트로이가 멸망하더라도 아이네이아스를 통해 트로이의 혈통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트로이전쟁에서 그가 그리스의 영웅 디오메데스(Diomedes)와 겨루다 부상을 당했을 때 아프로디테가 아들을 구하려고 나서고 아폴론이 그를 구름으로 감싸 피신시키지요. 천하무적인 아킬레우스와 맞섰을 때는 포세이돈이 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트로이가 그리스군에 의해 유린되면서 최후의 항전을 하던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의 아버지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일종의 보트피플이 된 거죠. 그렇게 표류하는데 그의 여정이 오디세우스와 아주 비슷해요. 그도 오디세우스 못지 않게 바다에서 수많은 위험과 마주합니다. 키클롭스와도 만나고 스킨라가 있는 섬 근처도 지납니다. 그는 7년 만에 리비아의 카르타고에 도착해서 디도 여왕의 환대를 받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여인의 사랑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탈리아 중부인 라티움에 도착하게 되지요. 신들의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곳은 그의 조상인 다르다노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게 베르길리우스(Vergilius)의 서사시 아이네이스(Aeneas) 이야깁니다. 이 서사시가 라틴어로 씌어진 최고의 서사시가 된 건 이렇게 그리스 세계와 로마 세계를 연결시켰다는 점, 그리고 저승에 대한 묘사가 아주 세밀하고 독특해서 단테의 신곡(La divina commedia)에 나오는 지옥 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점 때문이에요.

아이네이아스는 라티움에 도착해 거기서 라티누스 왕의 딸과 결혼하는데 여기서 태어난 인물이 실비우스(Silvius)입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이 실비우스의 후손인 레아 실비아(Rhea Silvia)가 낳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레아 실비아의 아버지인 누미토르(Numitor) 왕에게는 아물리우스(Amulus)란 동생이 있었어요. 그가 형의 왕위를 찬탈하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형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딸은 베스타 여신의 사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여사제는 평생을 처녀로 지내야하기 때문에 후손이 태어날 염려

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레아 실비아를 좋아했던 마르스 신이 숲으로 물을 길러온 그녀를 취해서 이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아물리우스 왕은 두 아이를 티베리스 강에 내다 버리게 해요. 시종들이 두 아이를 광주리에 넣어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이 아이들을 발견한 게 앞에 사진에서 보셨던 암 늑대입니다. 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난 쌍둥이 형제가 마침내 로마라는 도시를 세우게 되지요. 로마는 처음부터 제국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로마하면 제일 유명한 게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은 원래부터 이런 모양이었을까요? 이런 형태는 아니었구요. 이게 옛날 로마지도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옛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원래의 모습을 복원해 낸 건데... 바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콜로세움은 원형에 비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죠.



현재의 로마 콜로세움과 그래픽으로 재현된 고대로마 도시의 모습

여기는 아피아 가도(Appian way)인데요. 기원전 4세기 말 쯤에 처음 만들어진 로마 최대의 도로입니다. 이 가도와 이어진 로마의 도로망은 간선과 지선을 모두 연결하면 15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아피아 가도는 영화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퀘바디스,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보면 여기를 막 달려서 가죠. 이 가도에 깔린 포석을 보세요. 이게 그냥 깔아 놓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 아스팔트를 까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해 뒀어요. 맨 아래에 모래를 깔고 그 다음 작은 돌들을 깔

고 또 그 위에 자갈을 깔고 다시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아스팔트처럼 엉겨 붙도록 물탈을 뿌리고 그 다음 평평한 포석들을 쪽 깔아 놔거든요? 오늘날에 한 것보다 더 잘해 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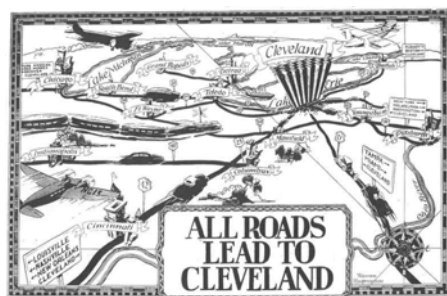
그래서 이런 로마의 가도가 간선과 지선으로 이어지고 넓혀져 가면서 군대이동이라든지, 물자수송이나 무역거래 이런 게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를 벗어나 이 가도를 가다가 환상을 보고 다시 돌아와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리고



로마의 아피아 가도(Appian way)

스파르타쿠스(Spartacus)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붙잡힌 스파르타쿠스와 노예들도 이 가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로마군대가 이동하는 길, 사통팔달 이어진 도로망을 의미하기 보다는 세계의 모든 문화, 경제 그런 부분까지 다 로마를 통해서 세계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한 도시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표지인데요. ‘모든 길은 클리브랜드(Cleveland)로 통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를 미국의 도시 클리브랜드로 바꾸어 놓았는데요. 왜 이걸 말씀드렸는지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번 인문학 강좌의 제목을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모든 길을 클리브랜드로 통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은 이 클리브랜드 주민들한테는 클리브랜드로 통하는



1936년 클리브랜드에서 나온 카툰

다

거예요.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나를 중심으로,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어떤 외부적인 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체적으로 세우고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 11.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그럼 ‘올 로드 잇 투 이천’(All Roads Lead to Icheon)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천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사고한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서울을 중앙으로, 이천을 변방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을 중심에 놓고 서울을 변두리에 놓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디로 보내려고 합니까? 예, 서울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는 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의식의 밑바닥에서부터 이천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천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게 필요할까요? 이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Here and Now)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거기가 촌구석이고 아무리 산골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그 사람이 존재하는

기반인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추상적인 정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과 피를 가지고 감각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며 체험을 하는, 살아있는 ‘나’인 거예요. 그런 내가 이웃과 만나고 살아가면서 같이 호흡하고 공감하며 뭔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 그게 바로 지금 여기(Here and Now)인 것이죠. 우리한테는 그 공통된 기반이 뭘까요? 바로 이천이라는 지역인거죠. 그래서 로마를 이천으로 대체한 겁니다.

이천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천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민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천에도 제임스 조이스 같은 작가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삶을 찾아가는 오디세우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쟁취해 내고 이 항해를 같이 떠난 사람들끼리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이천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키길 원하는 거죠. 좀 더 밝고 아름답게 더 창의적이고 활력에 넘치는 도시를 꿈꾸고 싶은 겁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도시를 꿈꿀 수 있도록 뭔가 동력이 되는 인문학 강좌가 되었으면 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모든 길은 세라믹으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Ceramics)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 곳인데요. 로마일까요? 클리브랜드일까요? 바로 이천입니다. 설봉공원 위, 세라피아 쪽으로 가면 커다란 게이트 벽 뒤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천은 도자도시. 예술도시를 꿈꾸고 있죠? 이게 단순히 표어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쌀 하면 여주 쌀, 이천 쌀인데, 제가 최근에 한 가지 놀라는 것은 여주 쌀입니다. 여주 쌀을 판매하는 전문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자채쌀’을 표방하더라고요. 물론 자채쌀은 현재 명맥이 끊어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여주에서는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여주 자채쌀은 옛날 대왕님께서 진상을 받으시고, 빛깔과 밥맛이 모두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신 쌀입니다. 붉고 빛나는 쌀은 홍자광. 흰빛이 나는 쌀은 옥자광이라 칭하신 정통의 명품 쌀입니다.’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여주는 이런 식으로 자채쌀 명맥을 여주가 이어간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쌀부대에다가 박아 놔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옛날 어느 지방에 유력한 두 도시가 있었는데 두 도시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는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쌀 전쟁입니다. 서로 누가 이른 봄에 먼저 파종을 하느냐, 모내기를 누가 먼저 하느냐, 또

누가 먼저 첫 수확을 하느냐, 이런 경쟁이 왜 일어났냐 하면 이 내용이 주요 신문의 1면에 나기 때문에 그걸 선점하려고 경쟁을 하게 된 거지요. 뿐만 아니라 두 도시 간에 문화 전쟁도 벌어졌어요. 바로 두 명의 위대한 인물을 두고 싸우기 시작 한 건데 이 인물을 차지해야 도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두 도시는 이천과 여주입니다. 두 인물이 누 군고 하니 세종대왕과 서희입니다. 먼저 이천에서 쌀의 이름을 ‘임금님표’로 상표등록을 해버렸어요. 세종대왕의 능이 여주에 있으니 임금님 브랜드는 우리 여주가 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그게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주에서는 브랜드명을 할 수 없이 ‘대왕님표’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된 게 서희입니다. 서희라는 분이 그 할아버지 대부터 이천 효양산에 은거를 하고 사셨던 분이죠. 이천서씨의 시조입니다. 하지만 서희의 묘소는 여주에 있어요. 서희의 부친인 서필, 서희, 그리고 그의 아들인 서눌 이렇게 삼대의 묘

소가 여주에 있습니다. 그러니 서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주는 당연히 여주의 인물로 생각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천에서 서희를 모시는 설봉서원을 복원하면서 이 서희를 이천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희선생 선양사업추진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서희는 이천서씨다, 이천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또 이천서씨의 시조묘가 효양산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서희역사관과 서희테마공원도 만들어졌습니다. 여주에서는 아쉽게도 세종대왕에만 치우치다 보니 서희라는 인물을 놓친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두 도시 간의 이런 자존심 다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큰 시각으로 보면 용인, 여주, 이천, 광주 이런 쪽은 행정적 경계로만 구분 짓지 말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천이라는 행정적 경계에만 사로잡히다 보면 더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인근지역과도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연대해서 공동으로 해나갈 일은 없을까 고민해본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은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이천인문학을 여는 첫 번째 강의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통과 현대의 만남

- 우리에게 20만 명의 이천 스토리텔러가 있다 -

**김승아** 아리랑스토리텔링 콘서트의 창시자. 국내에 예술장르로서 스토리텔링 공연을 소개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국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캐나다, 싱가포르, 그리스, 이탈리아, 케냐,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에 최초 한국인으로 참가했다. 현재 한국문화홍보대사로서 한국문화를 스토리텔링 공연과 워크숍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 1. 나는 스토리텔러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모두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몇 시에,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저는 일어날 때 제 눈에게 ‘승아야, 일어나, 어서 일어나!’ 이렇게 말을 걸면 갑자기 눈이 숙 올라가서 떠지는 거예요. 저는 눈을 뜨고 나서 일상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하다가 밤에 잠이 듭니다. 하루 종일 제 자신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거죠. 저는 스토리텔러예요. 그래서 저의 일상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은 눈꺼풀 하고 대화를 하시나요? 저는 가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졸음이 올 때 눈꺼풀에게 말을 해요. ‘너 왜 이렇게 무겁게 내려오려고 하니?’ ‘난 지금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러면 안돼!’ 이런 식의 대화는 평범한 일상조차 뭔가 새로운 걸로 바꾸는 마법 같은 거예요.

정말 똑같은 시간인데, 지금부터 오 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들어올 때 여러분 표정이 다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웃음) 꽃

이 다 만발해 있는 거죠. 저는 이천을 좋아해서 이천에만 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오늘 따뜻한 옷을 입고 있다가 벗고, 얇은 옷을 입고 덜덜덜 떨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환호해주시니까 갑자기 기운이 막 나면서 지금 몸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체온이 변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 과충류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체온이 달라졌냐. 그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에요. 기를 받으면서 제가 변신한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마법을 걸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천을 변화시킬 마법사들이십니다.

## 2. 스토리텔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해리포터 아시죠? 조앤 롤링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잖아요. 그 여인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죠? 애기 우유 값 벌려고. 그래요. 어떤 엄마는 우유 값 벌려고 책을 쓰고, 억만 장자가 되는 거죠. 이천에도 억만장자가 되실 분들이 다 여러분들인 거 아시죠? ‘이천에 인문학 강의를 있다고 하니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라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삼년 후에 이천시가 주최하는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게 데뷔를 화려하게 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완전 유명해지는 거죠. 또 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 홍보를 엄청 해드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백악관으로 가는 거죠.

뭔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마법은 여러분이 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콧구멍을 사랑하셔야 돼요. 눈꺼풀을 사랑하시고, 콧구멍도요. 왜? 여러분 몸에서 다 작동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이제 구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상상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몸에 상상의 구멍이 있어요. 수천 개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꼭 막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대화를 안 해봤으니까 그게 막힌 거예요.. 아까 제가 눈꺼풀하고 대화한다고 말씀 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머리를 잠깐만 만져보실래요? 이 안에 여러분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수천 개의 상상 구멍이 있어요. 느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 머리에 상상 구멍을 열 주문을 하셔야 돼요. 특이한 거 있잖아요.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할 건지 ‘열려라 대박’ 이렇게 하실 건지 본인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 3. 문화콘텐츠는 일상적인 것이다

문화콘텐츠라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아침에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말하고 듣고 하는 이게 다 콘텐츠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상상 구멍이 막혀가지고 남들과 똑같이 그게 나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콘텐츠가 아니었던 말이지요. 그런데 콘텐츠는 정말 일상적인 것이어야만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 이름이 뭐죠? 김승아. 어떻게 아셨어요? 승아인데, 제가 제 이름을 갖고 마법을 하겠습니다. 전체 주문은 하나로 할게요. ‘열려라 이천’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문을 외워주시면 평범한 제 이름이 변신합니다. 외국 사람한테 소개하거나 한국 사람한테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먼저 승아의 “승”이라는 글자를 볼까요? “乚”은 책을 펼친 모양이랑 똑 같죠? 책을 이렇게 엮어 놓은 모양입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읽고요. “一”이거는 뭐랑 같아요? 무대. 그래요. 무대 모양이잖아요. 스테이지입니다. “ㅇ” 이건 뭘지 아세요? 제 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무대에서서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러예요. 이번에는 ‘아’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기운을 받는 건 누구 덕분인가요? 바로 여러분 덕분이잖아요. 스토리텔러라는 건 내가 연극배우처럼 저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터렉션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ㅇ”은 관객의 머리예요. 그 다음에 “乚” 이건 의자예요. 그러니까 “아”는 의자에 앉아 저의 스토리를

듣는 관객을 뜻하지요. 그래서 ‘승아’라는 이름은 처음엔 그냥 단순한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저의 직업을 표현하는 상형문자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제 이름을 바로 씁니다. 처음엔 ‘저는 한국말 몰라요’ 했던 사람들도 다 제 이름을 쓰죠. 그림이니까. 갑자기 “승아”가 상형문자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외국에서 공연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대해 알고 싶으면 3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이다.” 외국인들이라 제 이름 발음을 잘 못하고 기억은 더더욱 못하죠.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영어이름 쓰는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다양한 영어이름을 썼어요. 하지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한국이름을 부르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승아’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내 이름 제대로 발음 안 하면 난 너희와 친구 안할 거야. 이건 매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 아니다. 딱 3초 만에 내 이름 외우게 해줄게. 나는 마법사니까!” 주문을 하면서 이렇게 해줬어요. “Sing, Ahahah~!” “What is my name?” 하니까 “Sing Ahahah~” 하면서 다들 “우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승아’라는 내 이름에서 ‘Sing’을 보세요. ‘Sing’ 노래하는 거잖아요. ‘아,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합창) 이렇게 다 같이 부르게 되지요. 제 공연 이름이 아리랑스토리텔러 콘서트잖아요. 그러니까 ‘Arira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One!” 이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시작해요. “Sing ahahah~” “Two!”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외국인들이 정말 아리랑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You have good harmony! 그런데 할모니~ 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서 이번에는 할머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머니, 이게 세 번째 알아야 할 거예요. 영어에서 ‘old woman’, ‘grandmother’를 할머니라고 하잖아요. 제가 들려드리는 스토리는 대부분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우리 할머니는 서른세 살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아흔 세 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독수공방하시면서 매일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래시다가,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할머니의 첫 룸메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저는 소울메이트였던 거지요.

제가 아기 때 그렇게 악을 쓰고 울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아무리 해도 애가 울음을 안 그치는데 얘기만 해 주면 울음을 뚝 그치는 게 저였대요. 그래서 할머니께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이제 우리 할머니가 들려준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Do you wanna listen to the story?” 라고 외국인 관객들한테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다 ‘Yes’예요. 그러면 제가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마법 걸어줘야 돼요. ‘할머니’ 불러볼래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할머니~ 할머니~~!”하고 애타게 불러요. 그러면 제가 쑥! 나와 가지고 한국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죠. 한 번만 보면 제 얼굴 이름 다 기억하고 제 스토리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다 외우셨죠. 외국인들도 제가 얘기한 세 가지가 뭐였고, 세 번째는 할머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전달하고 다녀요. 한번만 말해주면 자기들이 전달하고 다니는 거예요. SNS로 급속도로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를 보고 또 오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문화는 우리가 좋다고 해서 전해지고 세계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한 번 듣고, 기억하고, “이게 너무 좋구나.” 해야 전파가 됩니다. 저는 해외에 다니면서 그들이 무한 감동했던 한국문화의 진수만 전달합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한테 소중한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도 다 돈 주고 제 공연을 봅니다.

이천시도 그런 거 같아요. 이걸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 상상력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방식이 뭐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잖아요. ‘Sing Ahahah~’ 이게 뭐 어려운 영어인가요? 심플하지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다보면, 진짜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또 누구한

데 필요한 거냐 하면, 우리 다음세대들, 공부만 하고 학원 맨날 가느라 우리 문화가 뭔지 모르는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상 구멍이 열리는 순간 이게 다 콘텐츠가 되고,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조금 더할 수 있는 건 거기에다 제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기술로 가공을 해서(아까 잠깐 제 마법의 기술을 예시로 보여드렸잖아요) 간접적인 전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준비 되셨어요? 전수받을 준비 되셨어요? 파이팅하면서 시작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4. 오방색



제가 외국인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묻곤 합니다. “당신나라 북하고 우리 북하고 다른 게 뭐냐?” 여러분도 한 번 얘기해보세요. 색깔, 방향, 모양도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끄집어내려는 건 우리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여기 이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집, 음식, 옷. 우리나라 고유의 세 가지 의식주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여기서 공통점은 오방색입니다. 우리는 오방색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외국인들은 ‘오방색’ 이러면 다들 신기해합니다. 자기네들 문화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럼 제가 오방색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방색은 행운(good luck)을 가져다주는 거다.’ 설명하면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또 ‘대박’도 가르쳐주고, ‘복’도 새해 인사인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색깔만 뜻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을 이루는 다섯가지 요소 (five elements)까지도 뜻한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물, 흙, 불, 금도 있고, 나무도 있다 이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신기해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더 나가서 오방색에는 계절의 의미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 노란색 당의를 입고 갑니다. 노란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니까요. 외국인에게 “왕족에게 강의 받아본 적 있어요?” 라고 물으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동김씨예요. 조선시대 때 안동김씨 가문 출신의 왕비님이 세분이나 있었잖아요. 살짝 비밀인 것처럼 윙크하면서 알려주면 ‘오’ 이러는 거죠. 새로운 스토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에겐 유머감각이 중요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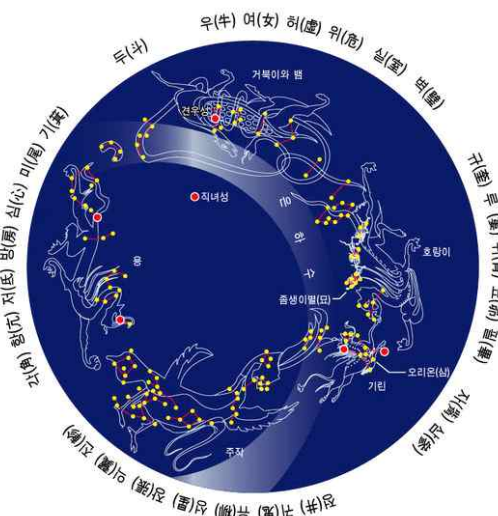
| Colors    | Elements | Directions | Seasons   | 4Gods       |
|-----------|----------|------------|-----------|-------------|
| Blue(청)   | wood(목)  | East(동)    | Spring(춘) | Dragon(청룡)  |
| Red(적)    | fire(화)  | South(남)   | Summer(하) | Phoenix(주작) |
| White(백)  | stone(금) | West(서)    | Autumn(추) | Tiger(백호)   |
| Black(흑)  | water(수) | North(북)   | Winter(동) | Turtle(현무)  |
| Yellow(황) | earth(토) | Center(중)  | -         | -           |

## 5. 한국문화 더하기 그 나라의 문화로 설명해주기

여러분, ‘좌청룡 우백호’ 다 아시죠?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아테네에서 이야기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항상 신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신들도 각각 방향을 지키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들의 신과 비교를 해주면서 애깃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김치를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것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과 비교를 해줘야 해요.

만약 이천의 도자기를 주제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에는 그리스의 유물로 나온 도기들이 많잖아요. 그리스의 신화 페르세포네부터 시작해서 에로스도 있고, 그런 신화들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당신들은 신화 이야기들을 도기에 그림으로 그려 넣었는데, 우리는 문양으로 그려 넣었다. 그런데 그 문양이 좀 단아하다. 우리가 결코 신화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담백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가 소통이 되려면 내 얘기만 쪽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국 문화 더하기 그 나라의 문화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조금 있다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로 운세에 관심이 있고 외국은 별자리 운세니까 이런 것도 제가 주의 깊게 찾아낸 거죠.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 래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외 국인들이 얘기를 하면 그러 면 중앙이 뭐냐? ‘용’ 이렇게 얘기 하고, 제가 입고 간 옷 에 용무늬 있는 거 보고, 우 리는 옛날에 왕의 얼굴을 얼 굴이라고 안 했고 ‘용안’이라

고 해야만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방색에 대한 철학, 그리고 불교 이야기도 해주고...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 6. 한국의 전통가옥, 풍수지리

풍수지리에서 ‘배산임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리스를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요. 산토리니를 떠올려 보세요. 푸른 바다 물결이 출렁거리고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짓죠.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죠. 그러면서 풍수지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게 명당이다’ 설명을 하고 ‘하회마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엘리자베스여왕 모르는 유럽인은 없으니까. 엘리자베스여왕이 이 마을에 오셨다고 알려줍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옥에서 주무셨다고 이야기해주면 그럼 한옥은 오방색 더하기 풍수지리에 맞춰서 우주의 원리가 들어간 집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우주의 원리가 담긴 집에서 자고, 우주의 원리가 담긴 옷을 입고, 우주의 원리가 담긴 음식을 먹는다’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원리를 외국인들한테 전파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되니까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시장에서 문화를 선점해야 돼요. 세계적으로 태권도는 다 알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태극무늬까지 연결을 해요.

제가 한옥의 기와집과 초가집을 설명하면서 놀부가 어디 살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유럽식 건축물을 떠올리면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이게 흥부 집, 놀부 집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한국문화가 들리는데 갑자기 보여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한국드라마를 볼 때, 대장금이나 이런 사극을 볼 때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거죠. 더 알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자료를 막 찾는 거죠.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은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한 외국인이 이번에 월드 스토리텔링 대회



에 나가는데, 제가 전에 얘기해준 한석봉이랑 어머니 떡 써는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그 대회 주제가 ‘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가래떡 뽑아내는 동영상 보

여주고 떡 써는 거 보여주고... 이게 외국 사람들 더하기 우리 신세대들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좋은 게 사진이 풍부해서요. 이게 다 이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향교 사진인데요. 이게 내 핸드폰 갤러리에 있으면 그냥 사진인데 프리젠테이션에 넣게 되면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콘텐츠와 결합하는 연결고리는 뭐냐는 거죠. 저는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 유료화를 벌여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상구멍이 생기면 콘텐츠가 되고 자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문화가 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궁궐의 야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관광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에는 배산임수가 중요합니다. 마당에 자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365일 변신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고흐 그림 필요 없고, 모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명품인거잖아요. 자연은 신의 작품이잖아요. 한옥에는 신의 걸작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도 옵니다.



궁궐의 야경(경복궁)

## 7. 한국의 전통음식

음식은 여러분 익숙하시잖아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요리였어요. 그런데 한국문화를 알리는 스토리텔러를 하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김치 만들기 경연대회 가서 2등을 했어요. 1등 한 사람이 원래 본업이 요리사였어요. 저는 김치를 잘 못 만드니까 연습을 했습니다. 다섯 번을 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또 로마에서 제가 오방색을 주제로 새해 초에 음식을 했습니다. 거기는 크리스마스에서 새해 초까지 굉장히 휴가가 길어요. 그때는 일도 안하고 가족들까지 휴식을 취하는 시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이번 이천 인문학의 주제를 보니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이천’으로 통한다고 바꾸어놓았네요. 참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로마에서 저에게 페스티벌 주최한다고 해서 갔어요.

이번에는 한국 음식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만들어줄 수 있냐고 해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제가 40인분하고 다섯 가지 메뉴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한국문화를 알리는 일이기에 재료준비 완전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가 장장 8시간을 부엌에 서가지고, 다섯 가지 메뉴를 40인분 만들었는데, 그 다섯 가지 메뉴가 오방색이란 복을 부르는 음식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 또 복 받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것이 복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천을 복의 도시로 만들어보죠. 복 도자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음식은 오방색이 주제였으니까, 비빔밥, 잡채, 부침개... 아 그리고 외국에서 음식 할 때는 항상 채식주의자를 유념하셔야 해요. 그리고 종교에도 유의하셔야 해요. 이슬람교는 돼지고기, 힌두교는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래서 항상 채식주의자를 위한 두 가지 비빔밥, 김밥 할 때는 야채김밥, 부침개도 해물파전, 야채 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국에는 고기, 만두랑 들어가니까 야채국물만 준비해 주세요. 국물을 두 가지로 준비했어

요. 고기국물, 그냥 국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행사에서 1부는 뭘 했냐 하면, 복을 부르는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까치 이야기, 두 번째는 복을 타러 간 총각 이야기, 세 번째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였거든요. ‘대박’을 연결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왜 까치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설날을 설명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까치가 그들 입장에서 길조인지 흉조인지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자기들에게는 길조래요. ‘그래, 그럼 우리 공통점이 너무 많구나’ 하며 설날노래를 불렀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래로 휘어잡아야 겠구나’ 생각해서 팀을 나누어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 있고, 오늘이 새해다.” 그리고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세배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주고, 큰절 있죠? 또 복주머니를 열면서 돈 주라고. ‘일단은 동전을 넣어야 말해준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웃음 한바탕을 만들고. 이게 우리가 새해 첫 날에 할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아이들이 하는 첫 인사다. 이렇게 하고 까치 이야기를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복을 타러간 총각 이야기가 있어요. 로맨틱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일부러 그거 넣고, 대박 때문에 흥부가 얘기를 들려줍니다.



2부는 푸드 쇼입니다. 테이블 자체를 다섯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엄청 철저하게 했습니다. 테이블보를 오방색으로 방향을 맞춰서

세팅하고 중간테이블은 노란색으로 합니다. 외국인들이 앉아있으면 일부러 수저를 테이블에 제대로 세팅을 안 해요. 일부러 숟가락, 젓가락을 가운데 다 세팅해요. 그리고 제가 음과 양에 대해 얘기를 해주지요. 음식은 땅에서 나는 거라 ‘음’의 에너지다. 음식을 담는 접시는 다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이건 ‘양’이다. 젓가락은 네모 모양이니까 ‘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밥상 자체가 다 음양의 원리다. 이러면 다들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거죠.

“자, 수저를 드시오.” 이러면서 제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번에는 젓가락질 연습이다.” 이때부터 외국 사람들에게겐 난관이죠. 아주 얇은 쇠젓가락을 쥐고 젓가락질을 하는데 손이 벌벌 떨리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이 경이로워지는 순간이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경이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젓가락질, 이것도 콘텐츠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는 거지요. “각 테이블이 몇 개 인가요? 여러분 각 테이블 별로 여러분이 집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걸 집으세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깨소금 집을 사람이 이기는 거죠.

또 승자들끼리 2차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투명 컵을 줍니다. 일본동안 가장 많은 걸 담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국제 문화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응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한국 순수어로 ‘이겨라’. ‘아자아자!’ 영어는? ‘gogo!’ 이거잖아요. 이탈리아는 뭘까요? ‘다이다이다이’예요. 너무 웃기죠? 그러면 1분 후에 승자가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오방색 화려한 복주머니를 상품으로 줍니다.



오방색의 의미를 알아서 복주머니를 탄 사람을 부러워하죠.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잡채에 오방색이 이렇게 들어갔구나. 저는 얘기 안 해요. 스스로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서로 비빔밥 감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주의 원리를 담은 옷을 입고, 우주의 원리를 담은

집에서, 우주의 원리를 담은 밥상과 음식을 먹는, 우리는 우주적인 민족인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술을 곁들이죠. 그리스에는 밥 먹기 전에 먹는 술, 밥 먹으면서 먹는 술, 밥 먹고 나서 먹는 술. 세 가지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가서 제가 폭탄주를 만들어 주었어요. 거기 오신 40명이 정부 관계자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부터 인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 지적인 수준이 다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폭탄주 마셔본 적 있냐고 물으면 정말 신기해하세요. “자, 내가 보여줄게.” 이 사람들도 측량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측량하는 법 다 가르쳐 줘요. 그럼 거의 과학 실험시간인 거예요.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 다음 건배사로 넘어갑니다. 한국사람들은 ‘위하여’ 또는 ‘건배’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어로는 어떻게 하지?” 하고 물으면 ‘친친’이라고 대답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제가 ‘친친’ 할 테니까 여러분은 ‘건배’ 하세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런 다음 제가 말을 또 이어갑니다. 제가 ‘친친’했을 때 여러분은 ‘건배’했는데 건배라는 말은 중국어에서 온 거고, 건배, 간빠이 발음도 비슷하다고 하니까 이해가 쉽게 되죠. 이때 제가 “순 한국말로 배워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 이제 한국문화에 매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말로 건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위하여’라고 건배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시적인지 알고 있느냐? 한국말로 ‘사랑해’ 하면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말인데 이게 너무 시적인 거예요. ‘너를 위하여’ 인데, 우리는 ‘너’를 생략하고 ‘위하여’ 한다. 웬지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하여’ 했는데, 여기에 의미를 붙여서 “위하여!”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황실에서 하는 격조 높은 건배사가 돼 버렸어요.

또한 한국 사람들을 건배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따로 연말만 되면 송년회 때문에 건배사를 개인레슨을 받는다, 그런데 살짝 알려주겠다고 하고 ‘나그네’ 란 건배사를 알려줍니다. ‘나’,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나’ - 이거는 ‘May I’, ‘그’ - 이거는 ‘love you’, ‘네’, 이거는 ‘Yes’. 그러면 다들 너무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진짜 복 받고 가시네요. 우주의 기운을 다 받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대박을 외칩시다. 대박!” 이제 이해가 되시죠. 흥분 놀부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환상공주 아세요? 혹시 핸드폰 형광등 기능을 켜 다음 투명 잔에 비추면 불빛이 네온사인처럼 보입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에게 환상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스토리텔링과 푸드쇼가 끝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 8. 한국의 전통의상

이제 의식주에서 옷. 이거는 태어나서 돌이잖아요, 돌 복. 돌잔치 얘기도 해줍니다. 굉장히 관심 있어 해요. 결혼식에 우리는 웨딩드레스를 입지만 생각해보면 한복도 이제 우리한테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한국식 돌잔치를 해서 돈을 번 분이 계세요. 토론토에서 제가 가르친 제자가 있는데, 애기엄마였어요. 그분 말이 자기가 거기서 돌잔치 하는 미국 여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돌잔치를 하면 자기와 애 엄마들이랑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식 돌잔치 옷을 입히고 돌잡이 하는 것도 해주고... 이런 풍습을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지요. 이런 게 다 아이টে미예요. 이전에 돌잔치 마을을 빨리 조성해서 세계 각국



엄마가 여기 이천에 와서 돌잔치 하게 만드셔야 해요. 결혼도 여기 와서 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모두 여기에 와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거는 뮤지션들이 공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곳곳에 예술 장르에 까지도 이런 오방색 개념이 스며들어있어요. 김덕수 선생님 덕분에 사물놀이 이런 건 이미 유명해졌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 안에 오방색이 담긴 거는 잘 몰랐던 거지요. 이 안에서 오방색을, 음양의 원리에서 이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 9. 음양에 관한 이야기



음양. 이게 우리 생활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문고리, 이것도 음양이잖아요. 동그란 것은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날에는 이 문을 무엇으로 어떻게 잠갔을까요? 예, 손가락, 손가락으로 잠갔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수저를 보여주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생활의 지혜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주제가 밥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겐 이게 정말 마법 같잖아요. 밥 먹을 때 도구로 쓰고

밥을 푸려고 할 때 쓰고, 밤에 잠  
잘 때는 자물쇠로 쓰고. 이런 한국  
사람들의 생활의 지혜를 보고 외  
국인들이 이런 데 잘 감동하거든  
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일상생활  
물건들을 보여주고 이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한번 해석하게 해요.



그러면 이건 다 땅에서 나는 거니 동그란데 놓고요, 수저 놓고요, 본인들  
이 다 아는 척 하게 해요. 그게 좋죠. 음양 얘기하기 전에 밥상 그림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 그림에서 뭘 봤는지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오묘한 밥상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테  
이블세팅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겠  
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 자체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가 되고, 문화 콘  
텐츠인거죠. 그러면서 제가 피자를 한  
번 동그란 접시에 담아보자, 그러면서  
서양에선 포크와 나이프가 있잖아요. 그  
러면 너희들은 포크를 숟가락이라고 생  
각하고, 나이프를 젓가락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면 나 때문에 테이블세팅이 바뀌는 거예요.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의 밥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피자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를 하는 거죠. 생활이 바뀌고. 여기에다가 도자기 접시를 여러분이 빨리  
스토리텔링을 하셔가지고 이천 도자기를 파셔야 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새색시 옷에서 빨간 색이 양이고, 파란색이 음인데, 왜 바뀌  
었을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모니 때문에 그렇다고 이 원리를 설  
명해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아주 분석적이잖아요. 자기들이 분석하게  
하고 이런 거 간색까지도 설명해주지요. 오방 정색은 양이에요.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간색은, 그러니까 오방간색은 음 에너지예요. 그게 섞여서 색동이 나오는 것도 설명해주고. 그러면 우리나라 색동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거구요. 그러면 자기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어디가 신랑이고 어디가 신부 자리인지 아세요? 우리 결혼문화를 외국에 수출해야 해요. 한국의 상차림, 폐백 음식, 이게 정말 엄청난 우리문화의 콘텐츠인 거예요. 바로 왕족 콘텐츠잖아요.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귀족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주의 원리를 다 섭렵해 보는 거잖아요. 이걸 휴머니즘이에요. 자연과의 조화이기도 하고 이게 다 이야기를 만들고 쉽게 설명을 하면 정말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스토리의 힘이라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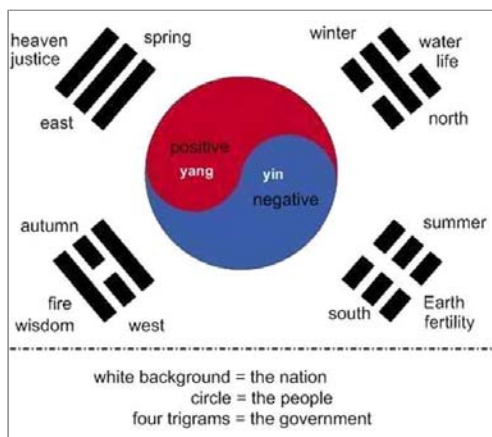


제가 색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줘요. 작품이 있거든요. 보통은 퀴즈를 내기도 해요. 이 사진에서 누가 신랑 엄마일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 분석을 하죠. 뭘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옷 색깔 때문에 아는 거죠. 그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외국인들 눈에는 정말

신기한 거죠. 신랑 엄마, 신부 엄마 이렇게 옷 색깔로 구별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사소한 건데 그들은 애깃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 콘텐츠예요.

## 10. 태극기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기를 보라, 보라, 보라. ‘보라’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 해야죠. 대한민국 국기 자, 보라, 보라, 보라. 여기 경상도 출신, 보라, 보라, 보라. 경상도 악센트로 해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음양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계절과 함께 다 설명하니까 대한민국이, 브랜드위상이 올라가면서 뜨거운 박수를 받고 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콘텐츠라는 것은 어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죠. 여러분들의 눈, 코, 입, 귀. 여기에 상상 구멍을 뚫으셔가지고, 끝없이 상상력을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생기게 하고 동기유발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한국문화를 이해하게 되니 한국 대사관이 갑자기 눈에 보이고, 한국 관련 인터넷사이트나 SNS를 통해 계속 정보를 얻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을 배우려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영어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전 세계 국민들이 한국어 배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원어민 선생님이로 세계로 가셔야 돼요. 전통문화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한국말도 완전히 본토발음(?)이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안 믿겨 지시죠? 제가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한복 입고 사진을 찍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언니, 전부 다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류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정말 많아졌어요. 싸이의 강남스타

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등이 간지러운데 그런 것은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제가 효자손으로 박박 긁어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제가 가진 얕은 지식이지만 그걸 가지고도 멋진 콘텐츠를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더 훌륭한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상상력의 구멍만 뚫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오늘 몇 가지 예를 보신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 연구하실 수 있어요. 제 강의는 끝났고요,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대답을 다 해드릴게요.

## 질문과 대답

**질문자** : 선생님께서 서양 사람들 앞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소재가 되는 한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천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전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연자** : 제가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공연을 했어요. 발생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의 문화를 알리시려면 외국의 문화를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들의 눈높이와 사고의 틀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해요. 이탈리아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를 가져가는 거구요. 그리스는 지금 경제위기잖아요. 우리의 국채보상운동, IMF때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걸 얘기하니까 저만 붙잡고 저의 기를 받아가려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한국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는데 특히 제가 춘향전을 자주 얘기했거든요.

춘향전.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 할머니, 어머니 세대 이야기 말이에요. 춘향이는 유교문화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을 극복한 여자였나요. 춘향이 이야기를 통해 모진 수난을 이겨내는 강한 여자의 지혜, 자기가 생각한

결 반드시 이뤄내는 강인한 여성으로 이야기해주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히라보다 춘향이 훨씬 더 완전 영웅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 제가 춘향이의 사당에 있는 사진, 초상화, 빨간 치마에 초록색 저고리를 입은 영정 모습을 먼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여신으로 제가 만들어 버렸어요. 춘향을 왜 그랬을까요? 당신들은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들이 다 있지 않냐. 사실 아테네라는 도시 이름도 여신 이름에서 온 거잖아요. 춘향이 그런 여자들의 정신을 살려낸 걸로 승화시켜 여신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용도에 따라 이걸 다르게 변조한 거예요. 당근도 어떤가요? 잡채에 넣을 때는 볶으셔야 되고, 찌개나 국에 넣을 때는 끓이셔야 되잖아요? 음식 만드는 방법에 따라 똑같은 재료가 달라져서 변신하듯이, 제가 강의를 통해 유교문화를 전해야 한다, 이런 경우면 춘향을 유교사상의 일부종사(一夫從事)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여인으로 그리는 거예요. “하나요!” 이러면 “일부종사 하오리다!”, “둘이요!” 하면, “내가 어찌 두 남군을 섬기리까?” 이런 이야기를 영어로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춘향전의 십장가(十杖歌)<sup>1)</sup>가 와 닿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지? 매를 맞으면서 시를 지어? 이걸 정말 신의 수준 아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여신으로 대우받게 되는 거죠.

단군신화 이야기도 제가 곧잘 들려주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밋밋한 단군신화가 아니지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마늘 이야기, 이렇게 변신을 해요. 오천 년 전에, 마늘과 쪽을. 벌써 스토리나 나왔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마늘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마늘 얘기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마늘 이야기가 있어. 좋아하니? 그럼 오천년 된 마늘 이야기 한번 들려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춘향가(春香歌)〉 중 수청을 거부한 춘향이 변학도의 태형을 당하면서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두운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정절을 주장하고, 수청 강요의 부당성을 폭로하며, 신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을 말한다.

그 다음에 흥부가. 제가 이걸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는 마스터클래스 주제를 흥부가로 했어요. 그 전 단계는 춘향가로 발표 한 거구요. 그 당시에 ‘레 미제라블’ 영화 다들 보셨지요? 그게 엄청 인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사람들 흥부가 하면, ‘형제가 엄청 우애 좋게 지내지?’ 이렇다니까요. 그렇게 놀부가 괴롭혔는데도 맨 마지막에 박을 타니까 뭐가 나와요? 도깨비가 나오잖아요. 큰 방망이를 들고 도깨비가 놀부를 때려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흥부가 와서 “죽이지 마시오, 죽이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물이 황당한 거지요.

“당신의 형이 당신에게 얼마나 못되게 했느냐? 내가 이참에 널 대신해서 죽여줄게.” “아니오, 아니오, 나를 죽이시오!” 이러는 거예요. 괴물이 보기에 흥부가 너무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상한 놈이잖아.’ 왜냐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 복수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에는 흥부가 미친놈인 거예요. 딱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그 분은 나의 유일한 형님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Only one. He is my only old brother, only brother” 이러는데 어떻게 죽어요? 못 죽이지요.

그러면서 갑자기 도깨비들이 감동을 해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거기 그 대목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모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자신들에게도 심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놀부는 좀 밉잖아요. 놀부한테 “네 동생한테 잘 하거라. 안 그러면 내가 와서 혼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놀부의 반전이 아주 중요해요. “Thank you!” 흥부가 뭐라는 줄 알아요? “Let's go to my house. Let's go together. I have a big house. It's yours!” 놀부가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니꺼도 내꺼고, 내꺼도 내꺼라고 이랬는데. 흥부의 마지막 대사는 뭐예요? “It's yours!”

자기 집을 형님 것이라고 말해요. 내 집인데. 거기서 감동 안 오세요? 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레미제라블의 주제가 merci(mercy), 그러니까 자비였어요.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죠? 쫓대를 흠쳤는데 주교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 쫓대 내가 뵈는데 왜 안 가

져갔나요?” 이 말을 들으면서 장발장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놀부의 인생은 언제 바뀌어 지느냐 하면 흥부가 그를 용서한 순간, 온 인류의 교과서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굴었는데 용서를 하다니... 감동 아니에요?

자꾸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철저하게 그들의 시각에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그게 한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매칭이 된다고 하면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신부님 강론, 법륜스님의 법문, 언제 감동이 오나요? 내가 오늘 자식하고 엄청 싸웠어요. 저 원수 같은 놈,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부님이, 스님이 그러는 거죠. “그 자식도 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고생하고 있다.” 딱 한 마디하면 “아이고 미안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세종대왕님이 말씀하신, 민심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저는 비록 이렇게 몸이 작지만, 이탈리아 국민을 어루만져주고, 그리스 국민을 어루만져주고, 싱가포르 국민을 어루만져주는, ‘나는 한국의 어머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자니까. 그럼 남자 분은? 대한민국의 삼촌으로 가는 거죠.

여기 따뜻한 가슴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가슴이 얼마나 따뜻한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최대 경쟁력이예요. 일본 사람들은 썩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차가워요, 영국 사람도 그렇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이잖아요. ‘정’. 이걸 영어로 ‘어팩션(affection)’ 이라고 하는데 저는 스토리와 문화를 안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과 음식 함께 먹으면서 “잘 될 거다, 대박일 거다, 이걸 엄마의 메시지잖아. 우리 자식 잘 돼야지, 엄마가 기도할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경쟁력 아닌가요? “이거 음식 많이 먹으렴, 요리를 잘 못하지만 내가 널 위해서 8시간을 만들었어.” 우리 엄마들 늘 넉넉하게 해주셨잖아요. 저의 어머니한테, “엄마 나 로마에서 40인분 요리 했어”, 이랬더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혼자 벌인 거지만 그 곳에 가면 웬지 저력이 생겨가지고... 제가 머  
리에서 해물과전 냄새나면서 공연하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  
었어요.

## 강연자에 대한 이야기

제가 원래 영어 강사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강사라는 직업은,  
일단 돈이 보장되는 직업이죠. 또 일찍 시작해서 20대 중반에 연봉 3천,  
30대 넘어가서는 1억이 넘게, 약간은 유명했던 강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스토리텔링을 2007년에 알게 되면서 캐나다 선생님을 만났는데  
스토리를 골라보라 하시길래 외국 스토리를 고르려고 했는데 ‘한국 스토  
리 골라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잡은 스토리가 ‘참기름 범  
벅 강아지로 호랑이 잡기’였어요. 그런 이야기 아세요? 제가 거기서 충격  
을 받았는데 그 스토리가 인기가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데 왜 나한테 굳이 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만 해도 다르잖아요. 느  
낌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비전을 심어 주셨다가, 나중에 제가 춘  
향전을 하니깐 ‘판소리를 너의 인생의 목표로 잡아라’ 이러셨어요. 외국인  
들이 저를 보고 ‘살아있는 인간문화재’라고 비행기를 태우지만 아직 문화  
재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저한테 콘텐츠가 돈이라는  
걸 알려준 건 외국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판소리를 공부해야 하니깐, 항상 완창 쫓아다니고 국악을 쫓아다  
녔는데 국악공연에는 공짜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속상한 건 공짜  
표를 쥐도 안 와요. 제가 2년 전에 완창 공연을 보러갔는데 8시까지 하더  
라고요. 다섯 시간에 곱하기 오를 해서 돈을 쥐도 시원찮은데 가서 김밥  
얻어먹었어요. 그 가족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다섯 시간을 앉아 계셔 주  
시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제가 속상해했어요. 이래서 우

리 젊은 친구들이 국악 안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문화 안 하려고 하는구나, 배고프니까.

제가 강릉에 무슨 관노가면극 팀이 있는데, “선생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 관객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연습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영어를 강의하고, 고액 과외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일주일에 하루는 수업을 하지만 6일은 나도 연습해야지. 이런 강의가 그냥 나오는 거겠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경제원리가 작동하잖아요. 누가 후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나 팔아서 국악인 한 명 모셔가고. 모두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 만드는 콘텐츠인 거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야 창의성이 발휘되지 누군가 자꾸 혼수를 두면 다 없어져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애가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라 자꾸 끼어들면 창의력 다 없어져요. 우리나라 예술인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달에 한 번은 국악 공연이나 우리나라 전통예술 공연을 돈을 내고 보러 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멘트입니다. 문화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밥을 먹고 살기 시작하면 밥을 열 끼를 먹을 순 없잖아요. 하루는 샤넬 바지를 산다고 쳐요. 그러면 샤넬 바지를 다섯 겹을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옷은 다 싼 거예요. 남이 주면 입든지 하거든요. 다행히 제가 얼굴이 빛이 나니까 제가 이런 일 하니까 제가 하는 거 다 명품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예술인들과 함께 하고 문화를 접하니까요, 정말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우리 문화는 우리가 살리지 않고 외면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닌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그렇게 예술에 돈을 쓰는 줄 아세요? 저는 너무 감동해서 이런 민족도 있구나. 그냥 극장을 가면 극장이 짝 차요. 그리고 매주 마다 극장을 가요. 바로 그리스예요. 제가

정말 이 나라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나라가 정말 양반이구나. 이탈리아만 가도 돈 안 쓰고 투기, 도박 이런 거에 돈을 쓰거든요. 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공연을 보러 간대요.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저에게 “선생님, 정말 예뻐진 거 같아요.” 이러면 저는 그리스 문화 성형 받고 왔다고 얘길 해요. 그리스에선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티켓을 할인해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리스문화의 영향을 끼친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죠. 지금 이 강의, 그리스에서도 한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반한 우리나라 문화거든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그리스가 인정한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 김승아 선생님, 귀한 강연이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인데도 이천까지 귀한 걸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시술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리에 상상력의 구멍을 뚫어주신 거 맞죠?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잘 풀어내 볼까 늘 연구하는 자세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외국 사람들도 귀를 기울인다는 것, 이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한국 문화에 담긴 재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해주신 여러 팁들을 잘 활용한다면 이천을 세계에 알리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잘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의 변화, 세계를 바꾸다

### -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문화)을 만들어가는 일 -

**박연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장.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기획국장,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장에서 활동했다. 2012년부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시민과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도시, 지방정부와 국제사회를 연계하는 지역 지속가능발전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자** : 우리나라의 초기 환경운동은 인간의 삶 보다는 자연, 환경, 이렇게 대상 그 자체에 집중을 했고 환경보전을 중심과제로 삼았습니다. 박연희 소장님은 우리나라에 ‘지방의제21’이라는 시민운동(활동)이 도입되던 때, 우리나라에 환경보전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온 분인데요. ‘환경과 사회’라는 이슈에 대해서 시민적 논의와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분입니다. 즉, 환경운동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시민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시엔 다소 낯선 방식이었지만 매우 중요한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이게 왜 낯선 방식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그걸 지도층 인사들이 선점하고 자기들 관점으로 끌고 가기 십상인데요. 지방의제21 운동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먼저 지방 단위에서 시민적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역설해 왔습니다. 지방의

제21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선언을 하면서 모든 지방정부들이 지역 단위에서부터 시민중심의 행동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오해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왜 환경단체가 환경문제만 집중을 할 것이지 행정, 교육, 문화, 복지, 여성, 이렇게 모든 분야를 다 건드리려고 하느냐, 지방정부의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무슨 시민운동이냐, 이런 반발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민운동에서 절차와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논의방식, 지역사회에서 민·관·기업의 협치구조, 통합적 시각의 문제해결, 이런 중요한 관점들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 운동의 초기 단계부터 박연희 소장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시민 중심의 환경운동과 지방정부와의 협력, 그리고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현장 경험과 노력을 해 오신 분입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의 박연희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시작하는 말

박연희입니다. 이동준 국장님의 초대를 받고 제가 이천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라는데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이천이라는 지역사회를 토대로 이천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천의 이야기와 이천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활동을 하실 분들이잖아요? 이천문화원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천의 문화에 관한 활동을 이어갈 분들이시죠. 반면,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문화’라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보이나요? 그러면 제가 문화와 관련이 없는 사람

인가요?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분류기준이 있는데 그 칸막이 기준으로 ‘너는 문화 영역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문화’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모여서 이렇게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이천의 미래를 얘기하실 때,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활동을 준비할 때, 그리고 이천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기록하고 해석할 때 ‘문화’라는 영역 외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다른 영역의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일을 겪으면서, 혹은 많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세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고 이렇게 강의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국제사회에서는 도대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 이클레이(ICLEI)란 무엇인가?

저는 ‘이클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표기는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라고 하고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의 지방정부 이클레이’가 공식 명칭이에요. 시민들이 보면 저게 뭔가 생각하실 수 있죠. 영어로는 ‘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라고 쓰고 ‘이클레이’라고 읽습니다. 국가는 이클레이한테 ‘NGO다, 정부기구가 아니다’ 라고 하고,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이클레이는 NGO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클레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클레이는 국제조직인데요.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 그런데 이클레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잖아요. 이클레이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단체’라고 부르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불러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이클레이는 지방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세계의 네트워크다. 즉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특화된 지방정부의 세계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지방정부의 리더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의견을 내면, 국가들은 듣기 싫은 내용이 많을 거예요. 각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국가가 아니고 그냥 NGO다 지방자치단체다 이런 거죠. 하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지방정부는 공적인 성격을 띠잖아요. 우리가 선출해서 뽑고 세금을 쓰고 법적 권한을 갖고... 그런데 어떻게 지방정부의 네트워크가 NGO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시민사회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엔이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Government Stakeholder’라고 하는데 번역하자면 ‘정부이해당사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묘한 표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국제무대라고 하면 ‘국제’를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이라고 하잖아요. 국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국제 관계’였어요. 유엔(UN)도 국가들이 주축이 되는 연합이란 뜻이죠.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보자면 국제관계에서 국가와 국가정부만 있지 지방정부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단체나 NGO에 불과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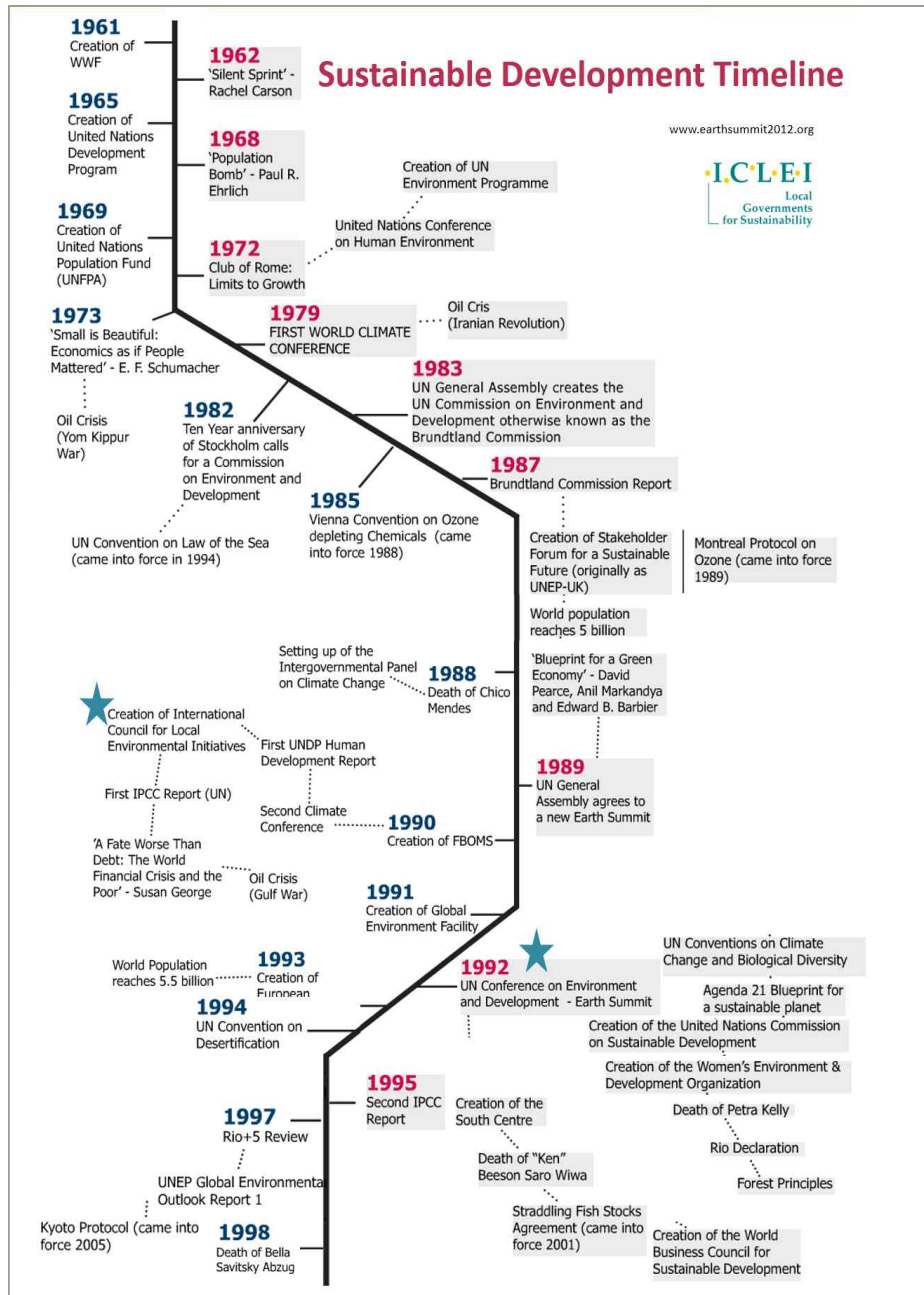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21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내셔널’보다는 ‘지구촌사회’, ‘글로벌’(Global)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21세기가 되면서 국가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이행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이 유엔의 국제적인 정책이나 합의,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이클레이와 같은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현장의 사례, 즉 지방정부의 실천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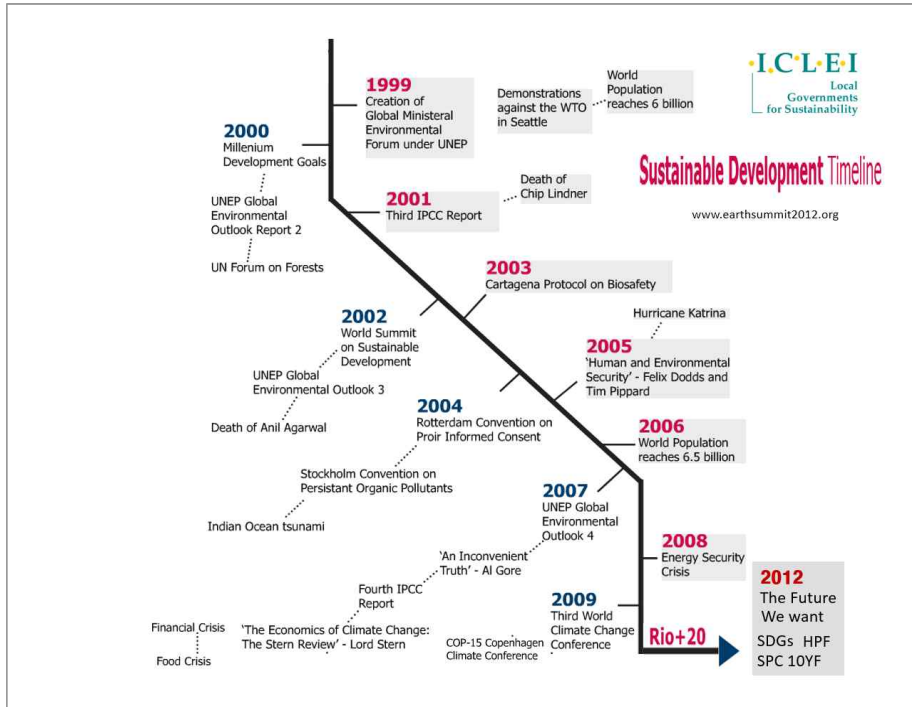
## ‘지속가능발전’은 유엔이 합의한 시대적 가치다

여기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슬라이드에 있는 글자를 세세히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슬라이드에 있는 연도를 눈으로 봐 주세요. 이 슬라이드는 지난 2012년까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 된 중요한 이벤트 즉, 국제회의, 국제협약, 국제적인 저작물 등을 연대기별로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전문가그룹과 정치적 리더들이 이 개념을 말하기 시작한 게 1960년대부터인데요.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이란 책에서 살충제로 인한 환경파괴와 그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72년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톡홀름에서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면서 환경문제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논의해 오던 것이 1992년이 되어서야 유엔에서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때 유엔 회원국들이 다 함께 합의를 했어요.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어떤 개념으로 할 거냐. 이제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도 이 기준에 맞추어 설계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회의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리우 지구정상회의(Rio Earth Summit), 또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로 불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도 이때 채택된 거예요. 그게 겨우 1992년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세대 지식인들의 정책적 제안을 통합해서 21세기의 사회발전을 보는 눈, 그 중심 가치를 ‘지속가능발전’이란 개념으로 합의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 이행과정을 10년, 20년 이렇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의 공식명칭은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입니다. 이 회의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젠다 21’입니다. 1992년 회의의 결과물로 회의 결과문서가 나오잖아요. 그 문서가 뭐냐 하면 ‘아젠다 21’이라는 문건을 결과문서로 채택한 거예요. 그 뜻은 지속가능한 21세기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이 ‘아젠다 21’이라는 것이죠. 이 회의 관련한 자료에서 고르바초프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1992년 이전에 개체됐던 유엔회의에서는 유엔에서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190여 개국이 다 동의해서 합의한 결정문을 채택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1992년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채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또 동서진영의 모

든 지도자들이 그 가치에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는 주제가 아니라 이미 25년 전에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 인류가 살아갈 길은 이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가 다 같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결의가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기후변화협약도 이때 채택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 소녀는 세번 스즈키(Severn Suzuki)라는 캐나다 소녀인데, 1992년 리우회의를 할 때 청소년 대표로 와서 연설을 했어요. 2012년이 리우회의가 열린지 20년째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리우회의를 평가하는 ‘리우+20’ 회의가 열렸을 때 이 소녀가 다시 참석을 했어요. 리우회의에서는 12살 소녀였는데 2012년 회의에서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 환경운동가가 되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세번 스즈키입니다. 저는 에코ECHO—환경을 지키는 어린이 조직의 대표로 여기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12살에서 18살 사이의 캐나다 아이들로서 무엇인가 변화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그룹인데, 바네사 수티, 모건 가이슬러, 마넬 쿼크, 그리고 제가 회원이에요.

여러분 어른들께서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거라는 말을 드리기 위해서 6000마일을 여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저희 스스로 모금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온 저는 어떠한 숨겨놓은 의제를 따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장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제 장래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선거에서 전다든지 종권시장에서 얼마쯤 잃는다는지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홀 모든 세대들을 위하여 말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그 홀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계 전역의 굴주라는 아이들을 대신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든 갈 데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행성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하여 말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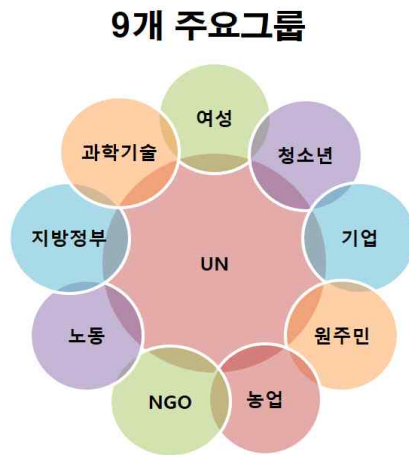
## 9개 주요그룹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은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의제에 대해서 회원국인 국가의 의견을 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협의하고 협상을 해서 결정하죠. 그런데 1992년 유엔회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가의 의견만을 취합해서 하는 결정은 지구촌 모두의 의사결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유엔이 결정을 했어요. 각 개별 국가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기는 하지만 국가 대표 이외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그룹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견지한 거죠.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9개 주요그룹’(9 Major Group)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저 9개 그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의제가 던져지면 국가별로 의견을 내지만 이 여성계, 청소년, 기업, 지방정부 등 9개 주요그룹 영역에서 각각 의견을 내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그래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결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의견들이 반영된 결정일 때에 그 선택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참여가 중요한 거구요.

그렇다면 저 9개 그룹의 의견을 다 들으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는 건가요? 다는 아닌 것 같죠? 뭐가 추가되어야 할까요? 장애인. 그렇죠? 사회적 약자가 빠져있죠. 지금도 유엔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를 정하고 의견을 구하는데, 1992년에는 9개의 그룹으로 명시했지만 요즘은 14개 그룹으로 확장했어요. 왜냐하면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



다는 거죠. 저 당시에는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봐야하는데 조금 더 빠진 그룹들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양한 참여자들, 일반 시민들을 고려했는가 중요하고 그 그룹에 누락된 그룹이 없는가를 살피

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아젠다21’을 채택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9개 그룹의 역할을 명시했어요. 그 안에 1번으로 명시한 그룹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성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지구의 절반은 여성, 이런 거죠. 그리고 여권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를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룹이 있는데, 지방정부를 9개 그룹의 하나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아젠다21에서는 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국가는 ‘아젠다21’을 잘 추진하면 되지만 지역차원에서는 지방정부가 로컬아젠다21(Local Agenda21)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의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행이 되려면 지역단위에서 실천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그 역할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최대한의 시민 참여를 통해서 행정을 하는 게 지속가능발전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받아들이어서 ‘지방의제21’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천의제21’. 지금은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제 활동하는 분 계신가요? 거기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많이 주셔야 해요. 여기 이동준 국장님은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 초창기 무렵, ‘이천의제21’을 잘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이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지방의제21’이 지역단위에서 잘 뿌리내리고 지역화 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예요. 저도 그때 이동준 국장님을 만나서 그런 일을 같이 했죠.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 20년의 평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

고 싶으면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나라도 과거에 벌써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만들었어요. 관련 시행령에서 광역 지방정부는 지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기도 했었구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정책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지속가능발전이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거라 맥을 같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시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도 제정했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했잖아요. ‘지속가능발전’보다 이 ‘녹색성장’을 우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이걸 대단히 반대했어요. 이게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와 안 맞는다는 거죠. 지속가능발전이 큰 개념이고, 녹색성장이 하위 개념인데, 하위 개념을 위로 올려서 정책을 추진했으니...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이런 점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당 저 당의 대통령 후보를 다 초청을 해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이 법체계에 맞지 않으니 다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양쪽 당의 환경이나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정책담당자들이 질서를 바로 잡겠다 했지만 아직도 그게 다 바로 잡히지 않았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1992년에 리우회의에서 아젠다21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후 10년 뒤에 요하네스버그에서 회의를 했고, 20년 후에 리우에서 또 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지난 20년 동안 변한 게 뭐냐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이것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때 결정한 게 뭐냐 하면 두 가진데요. 첫째, ‘아젠다21’이 좋기는 한데, 각 나라에서 해도 안 해도 특별히 제제를 하거나 책임감 있는 수행과제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2012년 회의의 결과로 고위급 정책포럼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유엔에서요.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이 유엔회의의 결정을 얼마만큼 이행했는지 보고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고, 4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이행과정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 1.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정책 흐름



그리고 두 번째, 각 국가마다 책임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면 공통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모든 나라 즉,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합의하자고 제안한 거죠. 그래서 2012년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SDGs’라고 하는데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책임 있게 해야 할 숙제를 채택하자는 것이었죠. 이런 결정을 다 담은 문건을 회의에서 채택했는데, 그 문서의 제목이 이겁니다. ‘The Future We want’

##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가려면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필요하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저는 문화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사회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친화적 언어로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속문서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년 계획’을 채택했어요. ‘10 YFP’(10 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라고 해요. 여러분 녹색구매 아시죠? 녹색구매, 친환경구매. 그거와 관련된 계획을 채택한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지속가능한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여기 시장에 나와 돌아다니는 식품들이 전부다 유전자 조작식품들 밖에 없어요. 내가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싶지만 전부 다 독성화학물질로 뒤범벅이 된 상품 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상품을 좋은 걸 선택하고 싶지만, 과대포장된 것 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대단히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소비의 연속입니다. 소비생활을 바꾸는 게 지속가능발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비패턴을 바꾸려고 할 때 옵션이 너무 제한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생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엔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생산과 소비패턴을 바꿔야 한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게 2002년부터 공식회의 석상에서는 거의 합의가 된 이슈인데 유엔에서는 계속 채택을 하지 못 했어요. 회의하다가 대표단들이 회의자료를 집어던지고 나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산패턴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기업계 로비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이걸 합의했어요. 그게 우리사회를 바꾸는데 중요하다고 국제사회가 판단을 한 겁니다.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 관리체계, 행동계획을 통합적으로 이끄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서 이걸 채택하자. 이렇게 정하고 초 광속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했어요. 열일곱 개의 목표(17 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169 Targets)를 채택한 거죠. 그리고 고위급 정치포럼을 개최해서 이행

과정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뭐해요. 유엔의 결정, 국가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다층적 체계가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엔에서 채택한 이 목표들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에 달렸다. 그래서 올해 2016년 10월 유엔 국제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채택한 SDGs가 지역차원에 내려왔을 때 지방정부와 도시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유엔에서는 SDGs를 15년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먼저 보이는 키워드를 보세요. 17개의 목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그리고 파트너쉽(Partnership) 등 5개의 가치(5Ps)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개 목표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선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주제를 잘 보시겠어요. 지속가능발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환경 쪽으로만 생각하셨나요? 첫 번째 목표가 빈곤의 종식, 두 번째 목표가 기아의 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이에요. 복지, 일자리, 이런 것들은 지속가능발전과 거리가 멀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적어도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폭력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을 최소한의 빈곤은 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저는 이 목표가 21세기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사회, 유엔이라는 틀을 통해서 이 시대가 합의한 가치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지속가능발전은 이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이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이 시대가 합의한 가치의 단면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슈들 중 전혀 모르던 새로운 것이 있으세요?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국제적 합의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한 이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걸 같이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우리 시대의 희망을 같이 만들어 가자는 결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들, 혹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런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더 혁신해야 할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 좋겠죠. 국제사회의 결의를 새김질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젠다21’을 1992년에 유엔이 채택했던 것처럼, ‘SDGs’는 2015년에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결의문에서 설명하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992년에는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환경, 경제 이 세 가지가 통합된 것,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 통합적 관점으로 발전을 도모한다는 개념이었어

요. 2015년에 와서는 환경, 경제, 사회라고 하는 요소가 세 개의 기둥인 것은 맞지만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가장 저변을 받치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이게 과도하게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은 모든 사회 경제를 떠받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구적 환경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메카니즘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경제 영역은 사람이 행복,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발전은 자연이 기반 한 것은 맞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죠. 이 행복을 이루는 기능으로서 경제, 사회...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 도시, 지구 기후변화의 범인으로 지목되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도시입니다. 리우+20 회의를 준비하면서 지난 20년을 되돌아볼 때 현재 시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7가지 이슈(7 Critical Issues)를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좌지우지할 7개 이슈가 무엇이나. 일자리, 에너지, 식량, 물, 해양 먹을거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 그리고 도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관리하느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7가지 이슈 가운데 왜 도시가 이슈가 되어야 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대단히 노력하는데 이 지속가능발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결국 도시에서의 성패에 따라 갈린다는 거예요. 지구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도시인구 비율이 농촌보다 높아졌어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인데 그동안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농촌인구가 준다. 이게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

다.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점은 지구의 대륙 위에서 그 점유면적이 저만큼 밖에 안 돼요. 그런 좁은 면적의 도시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서 뭘 하고 있죠?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어떤 보고서에서는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5%라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제활동은 도시에서 일어나죠. 인구 천만 이상이 되는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불러요. 인구 천만 이상이라고 하면 작은 나라 여러 개를 합한 것보다 이런 메가시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클레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안보나 주권에 대한 것은 일국 일표로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나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보면 유엔의 작은 국가를 백 개 합치는 것보다 이 메가시티를 합한 게 훨씬 크다. 그래서 이 도시의 대표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거기에서 책임과 권한을 분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되지 않나요. 도시가 지구환경에 이렇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 1대100의 도전, 도시화

인류가 도시를 만든 기원을 BC 이천 년이라고 하죠. 세계 인구를 65억

으로 보면 도시에 사는 인구가 3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도시를 만들어 온 역사가 기원 전 이천 년, 그리고 현재까지니까 약 4000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4000년 동안 인류는 도시 인프라를 만들면서 거기에 35억의 인류가 먹고 자고 교육 받고 일하고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온 거죠. 앞으로 40년 뒤에 인구가 30억 정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는 도시에 살게 됩니다. 그 도시는 어느 동네에 있는 도시일 거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라는 거죠.

도시화 1대100의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000년 동안 35억이 먹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30억의 인구가 도시로 온다고 하면 4000년 동안 만들어 왔던 이 도시의 인프라를 40년 만에 인류가 만들 수 있을 거냐. 지속가능발전에서는 도시화 1대100의 도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2050년이 되면 70%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될 거다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의 인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는 아시아의 도시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도시의 정책 결정이나 관리를 하는 사람은 누구죠?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잘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잘하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에 보면 첫 머리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인구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대부분 도시에 사는 거고, 그래서 결국 팽창하는 도시.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백조 정도의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 재원이 있어야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계속 소비하면 그 쓰레기가 배출되는 소비형태, 건축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식의 사회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인류가 도저히 살 수 없게 된다. 이게 국제사회의 판단이고 경고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국제회의가 여러 곳에서 열립니다. 국가 대표가 참여하는 유엔회의 중에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은 회의 기간이 약 이

주옵 됩니다. 그 중에 이삼일 정도는 지방정부의 리더들이 모이는 회의를 유엔사무국 차원에서 지방정부들과 같이 개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지방정부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는 도시를 생태적으로,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도시는 준비됐으니 국제사회가 보다 야심차게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라.’ 이런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 중의 하나가 이클레이 기구인 거죠. 그런 기구에 지방정부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건 여러분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 참여와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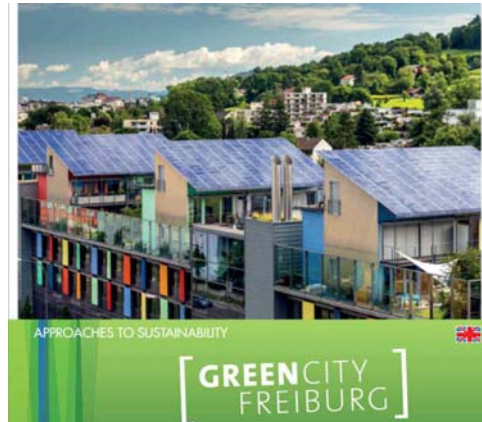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유럽의 도시들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라는 게 있어요. 소위 선진지 연수라고 해서 유럽의 경험을 한국에서 실천해 보겠다고 해 온지 벌써 이십 년 됐어요. 이십 년 동안 가서 배웠으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도시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생태도시, 환경수도들 가운데 하루아침에 세계의 우수 사례가 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협력해서 가는 거. 모범 사례 중에서 이게 빠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빠졌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돈도 있고 해외연수도 갈 수 있어요. 유럽에서 본 시설을 국내에 벤치마킹해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또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용할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는 게 뭔지, 그리고 시설이 완비 되었을 때 언제까지 시민의 자산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할지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시작할 때 돈을 이 부처, 저 부처에서 막 주지만 이걸 삼 년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삼 년 안에 어떻게 끝냅니까? 말이 안 돼요. 적어도 5년 후에, 우리가 5년 동안 돈을 줄 테니 지금부터 2년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지,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걸 충분히 하라는 거죠.

지금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소통이 처음과 끝인 거죠. 스토리텔링. 이거 콘텐츠를 가지고 소통을 하려고 만드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공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국가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게 교훈입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교훈인 거예요. 뛰어난 정치적 리더들은 다 소통을 강조합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지요. 그래서 소통과 참여를 이야기하는데, 소통과 참여의 핵심이 뭐죠? 그리고 권한이 뭐죠?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의 바램들을 잘 모으려면 어떤 메시지를 공유해야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이거든요.

프라이부르크는 2차 대전 때 군부대가 들어왔던 곳인데, 군부대가 떠나면서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싸움이 시작된 거죠. 독일 전역에서 그 당시에는 60년대 환경운동이 유럽에서 붐이 일 때였는데 학생들이 주민들을 돕겠다고 거기로 갔어요. 갔는데 그 지역의 농민들이 학생들을 쫓아버렸어요. 너희들 필요 없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이 분들이 보시기에는 왜 농사를 짓는



곳에다가 핵 같이 위험한 것을 갖다 놓나 하는 거였어요. 농민들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자동차가 위험하게 다니지 않는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원자력 같은 위험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마을, 그리고 주민커뮤니티가 활발해서 주민들이 물건도 공유하고 자전거수리점도 공유하는 뭐 그런 주택단지를 만들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곳이 보봉(Vauban at Freiburg)입니다. 보봉 주택단지 프로젝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 백 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정보는 우리나라에 널려있어요. 그런 마을을 만들면서 그 지역의 다른 주민들도 친환경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도시 안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최고로 불편한 도시가 프라이부르크라는 곳이죠. 거기는 차를 가지고 가면 불편한데, 그래서 도시 외곽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야 하는 도시예요.

거기서는 흠 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속 7km. 보행자가 걷는 속도여야만 합니다. 흠 존에는 차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



만 앞에 사람이 가면 뺑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을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전에는 이 고속도로를 그냥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년 전부터 이 지역 주민의 휴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몇 시까지는 이 도시 구간을 지날 때 속도를 60 이하로 줄여라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도시외곽에 무조건 빨리 달리는 도로를 건설하는 걸 주민들이 죽자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단을 시켰어요.

또 시민들이 원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도시에다가 솔라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태양광으로만 움직이는 건물, 태양빛을 따라 돌면서... 그런 곳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도시는 솔라 투어리즘으로 유명합니다. 생태관광, 에코투어리즘은 생태적인 자원을 관광과 결합해서 하는 건데요. 프라이부르크는 트레이드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폐기물 배출량을 90kg으로 줄인다든지, 주차시설을 얼마나 보행자 편의적으로 만들었는지, 쏠라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걸 보러오는 거예요. 프라이부르크는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트레이드 투어리즘을 주요한 아이টে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마다 45개국에서 2만 5천여 명의 트레이드 방문객이 다녀갑니다. 지역의 에너지를 충당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거죠. 그런 도시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최대로 변화한 곳인데, 뉴욕 섬머스트리트(Summer Street)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름 기간에 차를 막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명동,

종로 쪽을 막는 거지요. 자전거랑 사람만 들어가게 하고, 도로에 의자를 짝 깔아서 시민들이 이렇게 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도로는 꼭 차를 위한 공간이어야 할까? 자전거와 보행자들의 공간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메시지를 줌으로써 이 뉴욕 전체의 도시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에너지로 삼는 거예요. 흠 존을 실시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이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도로를 걸어 다닐 수 있는지, 또 시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도시 환경을 만들었는지 이런 걸로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하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전거 타기에 적합한 도시인가. 얼마나 통근하기에 용이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하는 지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도 사람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결국 중요한 건 사회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약자이고 싶어서 약자인가요? 약한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한 도시, 이런 곳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닐까 하는 거죠.

## 전주의제21

마지막으로 소개할 도시는 우리나라 지방의제21 우수사례이긴 한데, 바로 전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제에서 활동하는 방식은 민관협력과 참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 그런 건데요. 전주에서도 먼저 그 지역에서 중요한 과제들을 설정하고 관련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모든 학교,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시민 등 이런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전주의제21의 지표를 만든 게 2009년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의제를 만든 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주 의제를 만들었을 때 당시 이의제 회장님과 전주 시장님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지방의제21추진기구는 만

들어진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일만 집중하는 조직으로 개편을 했어요. 지표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한 거죠. 그 이후로는 해마다 지금까지 의제가 지표 평가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표를 똑같이 평가하지는 않아요.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평가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 전주의제21 — 5개 분야 41개 지표 /2009.1



| 더불어사는 전주           | 아이키우기 좋은 전주         | 살맛나는 전주       | 맑고푸른 전주           | 건강 싶은 전주         | 재미나는 전주           |
|--------------------|---------------------|---------------|-------------------|------------------|-------------------|
| 사회와복지              | 교육                  | 경제            | 생태와환경             | 자원,에너지           | 문화                |
| 20대연령층 타도 전출 입 인구수 | 인구1인당 공동도서관 연간대출 권수 | 전주비빔밥 판매 그릇 수 | 쉬리 노는곳 에 베스야 오지마라 | 전주시 자전거 교통 수단분담률 | 동호회 가입자 비율        |
| 119의 출동 유형         | 지자체예산 중 교육지원 예산비율   | 동네마트 판매지수     | 탄소발자국 전주 생태길 백리   |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 | 지역문화 자원 시민 인지도    |
| 평생학습 참여자수 외        |                     | 안정적인 일자리 수    |                   | 열대야 발생일수         | 개인당 문화 예술분야 평균지출액 |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문화 분야입니다. 전주는 문화 분야 의제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에 따른 지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주의제21 홈페이지에 가면 이 보고서가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 보세요. 중요한 건 전주의제가 하는 활동을 시장님이 전주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가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이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할 때 시장님이 함께 참석을 하죠. 같이 해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이 지표가 왜 상승됐는지 시의 정책과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 이런 걸 토론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소통인 거죠. 같이 하니까 의제에 참여하는 분들도 보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 바뀌는 과정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가 힘을 실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 보고를 하는 날은 지역의 언론인을 다 불러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지, 시도 책임을 느끼고 전주의제도 똑같이 책임을 느끼는 거죠.

##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Icheon)**

정말 멋진 표어인데요. 이천으로 모든 길이 통하려면... 제가 일하는 영역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특화된 이슈 속에서 일을 하지요.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 상대방이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정책의지가 있으면 제일 반가워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시민과 지방정부, 이 양자 간의 협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활동 주체가 되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자 간의 효율적 협업을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유연한 방식의 의사소통 틀(Framework)이 필요합니다. 전주의제와 전주시가 함께 협력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요. 이런 정도의 틀이 마련된다면 설사

실수를 하더라도 차근차근 보완해 가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스토리텔링’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러분의 고민이 훨씬 더 깊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것도 파워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했던 의사소통이나 협력방식의 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천시에는 이천문화원에서 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천의 다른 기관이나 조직들, 그리고 살고싶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잘 추스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사실 이천시의 자산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천시의 미래에 대해 필요한 목소리를 내실 분들이거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천에서 제일 알려진 게 뭐죠. 예, 도자비엔날레, 도자기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시민들과는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지, 시민들의 참여와 연계는 어떠한지, 문화 활동을 하는 그룹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축제는 이천을 세계적으로 알려내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 시대 최대의 화두인 ‘시민적 참여’라고 하는 기반을 이천은 국제적인 행사에 잘 접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깊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맨날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결국 국제사회에서 되는 게 뭐냐고 반문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골목을 통해서 세계로 이어져 있다. 어떤 지구적 이슈도 지역에서 이뤄지는 작은 움직임, 실천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지역에서 하는 활동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이천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더 큰 변화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천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빛나는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맺는 말

과거 도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도시도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어느 날 사라져버린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과연 문화라는 부분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문화라는 코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문화는 대체 지속가능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데요.

이건 런던이야기예요. 차가 도심에 들어갈 때 돈을 많이 냅니다. 통행세죠. 이 세금을 부과했던 시장이 재선에 실패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가 되는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분들 중에 친환경적 정책을 선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다음 선거에서 낙선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당락을 결정하는 건 누구인가요? 바로 시민들이죠. 이게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중요한 도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생활문화에 젖어서 살아가죠. 공식행사에서 종이컵 하나 안 쓸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 이런 결정을 지지하는 힘,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17개 목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 있나요? 새롭다면 유엔이 17개 내용을 목표로 선정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거죠. 거기에 담긴 내용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 문화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것도 우리 문화 속에 생활문화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해석은 뭐냐. 우리 입장은 유엔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국제사회의 합의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유엔결정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쓸 것인가. 저는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통이 도시에서 중요하잖아요. 차가 도로에서, 도심에서 뱅뱅하게 밀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교통체증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쓰여 있어요. 내가 트래픽입니다. 나도 거기에 일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개발의 시기, 성장의 시기를 거친 거잖아요. 우리가 기술사회의 편리한 거, 도시의 혜택이 가져다주는 단맛에 다 길들여져 있어요. 이것을 잘 조절하고 조율하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를 나는 누구로부터 받을 것인가. 결국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좋은 분들과 자꾸 교감하면서 그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워서 이천을 정말 좋은 사례로 만든다면, 그 성과에 대한 자량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같은 곳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회자 : 오늘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꾸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문화는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할까. 문화는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시라는 것이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고 모여 살면서 형성되는 것이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도시의 한계와 지구적 환경문제를 곱씹어 볼 때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 왔던 삶의 양식들이 다 버릴 것만은 아니고 어쨌든 그 속에 우리가 당면한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천에 면면히 흘러오는 그런 정신이 있죠. 이천이라는 고을이름의 연원이 된 ‘이섭대전’의 정신입니다. 이섭대전과 관련된 주역의 과거 익과와 손과인데요. 상징부호로 얘기하자면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주역이 고도로 추상화된 인간 생활의 상징체계라고 볼 수 있는

데 빼기보다는 ‘덜기’라는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와 ‘덜기’입니다. 더할 익(益), 덜 손(損)으로 읽기에 익과 손입니다. 서양에서는 ‘익’을 내세우다 보니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을 해 온 거고 이게 지구환경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비해 ‘익’보다는 ‘손’을 앞세우는 것이 동양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손실로 생각하지 않고 해(害)를 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본 거죠. 나를 덜어냄으로써 사회에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지혜입니다. 자본주의에 근거한 도시 개념, 이기적 개인에 근거한 시민사회. 이런 게 다 서구적 사고방식의 끝판인 지구환경의 파괴로 귀결되고 있잖아요. 도시는 탐욕적으로 무한 증식을 하다가 끝내는 괴멸하고 맙니다. 반면 우리 동양에서의 도시 개념은 그와는 다른 삶의 양식을 창출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덜어 낸다는 것은 21세기 인류문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서구화된 도시 개념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도시의 편의와 자본의 힘을 행사하는 거대한 자기장을 벗어나 주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도시와 자본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 그저 공연과 전시, 문화행사를 즐기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화를 삶에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문화를 삶의 저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배부를 때 향유하는 그런 걸로 오해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며 문화는 그런 악세사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태도, 공동의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져갈 것인가? 성장의 시대에 맞춰온 우리의 이기적인 삶의 양식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로마클럽에서 얘기한 ‘성장의 한계’에 부딪쳐 이제는 어떻게 21세기를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낼 것인가? 성장의 시대를 지나 우리는 어떤 삶의 양식을 모색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21세기를 성숙의 시대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과제로 제시해

주셨지만 우선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 강의가 있기 전에 신영복 선생님에 관한 짧은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가슴에서 팔과 다리까지 가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김수환 추기경도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칠십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머리로만 사고하지 말고 가슴에서 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나 혼자만의 실천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 골목과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실천이 이천을 바꾸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천에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와 우리의 실천을 불러일으켜주신 박연희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려선, 근대문화의 기록

- 수려선의 기억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

**신정아** 현재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사서.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경기도디지털아카이브 "경기도메모리(memoy.library.kr)" 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내 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공·민간기록물 DB를 구축하고, 세대간의 소통을 위해 '경기도민 이야기' 구술채록을 진행하고 있다. 아카이브를 통해 지역의 기록을 수집, 정리하고 활용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경기도민 이야기' 구술채록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이 기록화 사업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테마콘텐츠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된 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대한 소개를 하고나서, 기록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 근대문화의 기록을 위한 '경기도민이야기' 구축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물리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서버에 디지털 자료를 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기관은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으로 도서관을 지원하는 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일환으로 경기도에 관한 기록들을 모으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카이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일을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를 할 거냐가 중요한데요. 기록물은 누구

나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일기를 쓰고 있거나 가계부를 쓰고 있거나 그러한 것들이 모이고 쌓이게 되면 개인적인 아카이브가 구축되는 건데, 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카이브는 아니고 나중에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관리하는 과정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보면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이게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카이브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문서 하나하나, 장부 등 발행 전후 기록물들을 맥락정보 중심으로 서비스하고요. 도서관은 보통 완성본인 책, 자료를 대상으로 활용중심 서비스를 합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유물을 대상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전시해서 보여주는 역할이 큼니다. 하지만 이 문화기관들의 서비스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여주는 방식이나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 경기도사이버도서관 [www.library.kr](http://www.library.kr)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인터넷 홈페이지([www.library.kr](http://www.library.kr)) 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01년도에 개관을 하고 경기도 공공도서관 종합목록 DB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목록 DB는 경기도 내 230개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서지정보와 소장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으로, 이용자는 경기도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종합목록 DB를 기반으로 임산부와 영아들을 위한 무료택배 대출서비스와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택배 대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서비스는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은 컴퓨터나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책으로 현재 이만 권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두 번째 정도? 굉장히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등록

회원 수는 대략 30만 명 정도이고 하루 평균 2000명 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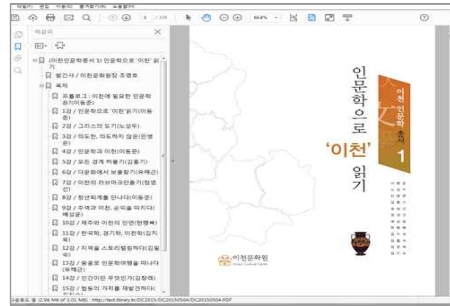
[경기도메모리] 2014년도에는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남기고 보존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생산되거나 경기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디지털라이징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카이브는 자료를 수집하고 장소에 보관하고 열람서비스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경우에는 물리적 공간이 없는 관계로 디지털화한 후 외부인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건립되면 경기도아카이브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를 통해 실물 열람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저희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경기도 메모리” 라고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memory.library.kr 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경기도 메모리의 목적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 기록에 대해 과거 · 현재 · 미래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정보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메모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DB, e-추억상자, 테마자료, 사진DB, 경기도문화자원 Link, 경기도 역사민속 정보서비스 등입니다.

[경기도 DB] 메뉴는 경기도 공공기록물을 대상으로 대략 12,000건 정도의 자료를 구축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31개 시 군 지자체에서 발간한 자료들이나 재단, 문화원 등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들입니다. 전자파일이 없

는 발간자료는 이미지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화 하고, DB에는 자료에 대한 서지정보와 목차정보, 요약정보가 입력되어 이용자가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문화원 발간자료는 약 1,500권 정도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추억상자]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 중 계속 가지고 있기에 부담스럽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자료, 서랍장에 있는 기록들을 남길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가계부, 독서일기, 그림, 사진자료 등 150권 정도가 구축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자료는 아이들 일기책이고 어르신들 경우에는 자식한테 남기고 싶은 자료입니다. 특히 본인이 창작하신 글들이 있어요. 책으로 내진 않았지만 남들이 봤으면 좋겠고 또 자손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글들을 구축하고 있어요.



[테마 자료]는 경기도내 개개인의 구술채록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경기도민이야기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야기’가 기존의 기록물하고 차이점은 구술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자원 콘텐츠화해서 서비스하는 것입니



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DB]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진은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입니다. 따라서 주 협력기관은 교육단체나 연사 등을 발간하려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DB 구축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사진이 있어도 실제 사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 년도에 이 장소가 어디고, 이게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유용한데 말이죠.



[경기문화자원 Link]는 데이터 연계서비스의 하나로 방사형그래프로 시각화하여 경기도시군을 여덟개의 주제로 나누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경우에는 역사, 특산물, 문화유산, 시설, 자연, 관광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내놓는 정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천을 대표하는 인물에 서희란 인물이 있으면, 서희란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뭐가 있었고, 인물들은 누가 있었고, 서희와 관련된 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남아있고,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문 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에 연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역사민속 정보서비스]는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작년에 발간한 경기도 역사 민속자료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집대성한 목록집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서비스입니다. 원문이 있으면 바로 원문으로 링크해서 보여주고, 원문이 없으면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링크하여 소장기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 2. 기록: 아카이브란? - 일상아카이브의 중요성

기록(Record)은 일상적으로 업무상으로 만들어지는 자료들 기록들을 다 포함합니다. 문서, 사진, 포스터, 업무상으로 뭔가 완성된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이라고 해요. 그럼 이 기록이 다 아카이브(Archive)냐, 그 구분은 아카이브라는 하면 일단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증거로 보존할 수 있는 기록물을 아카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물을 가져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 정리해서 만든 것들을 아카이브, 이 아카이브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통 아키비스트(Archivist)라고 부릅니다. 원래 전문가들을 아키비스트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시민 아키비스트, 이런 식으로 시민들도 이 아카이브를 만드는 주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평가 선별된 기록들은, 세 가지 원칙을 따집니다. 역사적인 잣대로 중요한지, 법적인 가치가 있는지, 또 하나는 행정적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아카이브는 기록물, 기록 자체이기도 하지만 조직, 시설, 장소도 다 아카이브라고 부

룹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천 아카이브다 라고 하면 이천에 관한 기록물 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이천 아카이브라는 장소, 조직도 다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카이브는 다른 말로 ‘기록보존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카이브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국가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어요. 국가아카이브는 국가기록원이 있고요, 지방 아카이브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기록관,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 기록보존소가 있고, 대통령기록관도 있어요. 또 기업 자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들이나 기록들을 남기는 기업아카이브,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술아카이브도 있죠. 각 주제별로 아카이브라는 건 다 가능해요. 개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잘 모으면 그게 개인 아카이브로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냥 막 쌓아놓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를 정해서 모아야 하고, 남들이 봐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분류와 정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기존의 아카이브에 대한 비판들도 존재합니다. 기록이 부와 권력에 의해서 남는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죠. 회고록이라든지 구술사라든지 이런 게, 사실 권력자로 편중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카이브 기록이 편향적이고, 그 시각 자체가 이미 승리자의 관점으로 남겨져 있고, 아래로부터의 관점이 아니라 위에서 보는 관점으로 남겨졌다는 아카이브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요구로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중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한 원동력 이라는 시각이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하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점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기록을 통해 큰 역사적 사건을 들여다보는 미시사적 관점이 논의되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역사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같이 들여다보는 기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역사적 사실과 맥락을 개인의 일상의 모습과 같이 들여다보며 판단을 하자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만드는 아카이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상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이루고 있다는 관심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민이야기] 구술채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온 <실향민 이야기>를 구축하였고, 2015년에는 <수려선>을 구축했습니다. <수려선>을 예를 들면, 개인의 삶 속에서 수려선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그 처음은 역사적인 사실과 맥락에서 시작합니다. 수려선이 왜 생겼을까.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왜 생겼고,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유지되다가 왜 폐선이 되었을까 이런 관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수려선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또 ‘나에게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를 살펴보고 그 매개체를 통해서 또 소통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인에게 수려선은 고향으로 가는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통학기차이기도 하고, 물건을 팔러 가거나 짐집을 나가는 운송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지하고 느끼는 관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현재의 나는 과거의 역사와 개개인의 경험의 공유를 통해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일상 아카이브는 모든 것이 기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그냥 기록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주제 아래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카이브를 남기는 목적입니다. 결국은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축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모으는 게 다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모아야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이걸 활용하고 싶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카이브들이 있는데요. 아카이브는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형태의 매체의 자료를 가지고 구축할 수도 있지만, 사실 특정 자료로 한정 지어서 할 수도 있어요. 사진으로만 한다면지, 아니면 구술로만 한다면지, 이렇게 아니면 포스터만 모은다면지, 엽서만 모은다면지, 특정 매체만 한정지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죠. 지금까지 간략하게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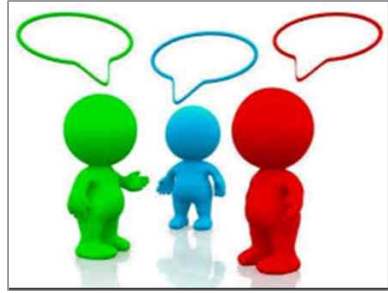
### 3. 경기도메모리 아카이브 구축을 가능하게 한 3가지 생각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면서 기존의 디지털화 작업을 떠나서 좀 더 발전되어 심도 있는 서비스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카이브를 만들어 갈 때 중요한 것은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경기도라는 관점에서 아카이브 구축에 앞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 1) 경기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먼저 경기도메모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경기도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정체성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경기도민이시잖아요? 경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천 말고 경기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경

기도가 뭐 다른 광역단체와 차이점이 있을까요? 경기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정체성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경기도민의 인식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경기도에 대해 다들 ‘별 생각 없다’, ‘지자체 중에 하나다.’ 라는 결과가 나왔



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경기도라는 지역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도넛 형태의 지역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집은 경기도에 두고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경기도로 뭉쳐지는 그런 카테고리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지역 브랜드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정체성이 뭘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다고 그게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사람이 같이 향유하고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공감하는 게 정체성인거지, 내가 만든다고 해서 그게 정체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2) 도서관은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역사성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사는 모습을 다 모아보자. 기록들을 모아 오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드러나는 거에 뭔가 특징이 있지 않을까. 처음엔 넓게는 못하겠지만, 작은 주제 분야에 접근을 하다 보면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 그런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자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도서관이잖아요. 최근 도서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도서관은 책을 열람하고 공부하는 공간이었지만, 요즘에는 지역 커뮤니티로서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거든요. 도서관 안에서 콘텐츠 제작, 책 쓰기, 자서전 쓰기, 아이들 글쓰기 등 이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그냥 발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다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공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내의 기관과 단체들과 협력하여 지역도서관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료 수집을 해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상에서 생산되는 자료까지도 수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아카이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시민들과 밀착해서 시민들의 활동 기록을 수집하고 남기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 3)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발전 속에서 지역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서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환경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역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



축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태지 아카이브’라는 게 있어요. 서태지의 팬 그룹이 만든 아카이브로 서태지 관련된 거, 포스터도 있고, 티켓도 있고, 서태지와 아이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기록 속에서 자기가 한 때 굉장히 열렬히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기록들을 같이 나누고 그 기록 속에서 자기가 가졌던 감정들도 다시 기억해보는 거죠.

우리가 ‘응답하라 1988’이나 그 시리즈를 보면서 아 옛날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서 나의 기억도 같이 보존이 되는 거죠. 디지털 기술의 가장 좋은 점은 누구나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 형태가 물리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은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없이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4. ‘경기도이야기’ 콘텐츠 구축

‘경기도민 이야기’라는 콘텐츠가 다른 기록 자료와의 차이점은 구술채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술채록을 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는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립, 보존하는 것에 대해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생산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큰 틀 아래서 ‘경기도민 정체성을 보여주는 경기도민의 다양한 삶과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기록들을 모아보자.’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런 기록들이 사실은 실제 어떤 종이나 사진 등 물질적인 자료로 남아 있지 않다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전승되어 오거나 기억으로 저장되는 추억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모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의 이야기를 모아보자. 근데 도민들의 이야기를 모은다고 해서, ‘자 경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여러분처럼 아무 말이 없을 거잖아요? ‘경기도가 뭐야? 경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참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게 좋겠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주제의 선택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왜 경기도민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구축을 했고,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 1) 왜 경기도민 이야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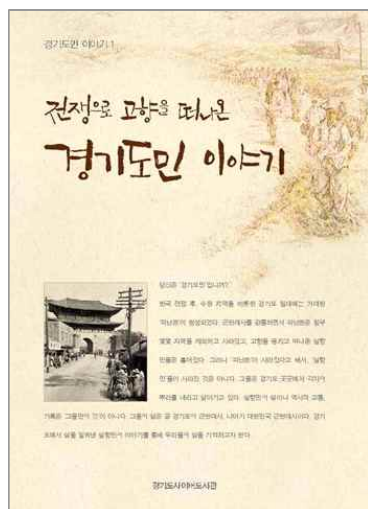
‘경기도민 이야기’는 경기도라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인의 삶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구축해보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동기였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결과물이죠. 노력해서 변화한 결과가 현재의 모습인데, 과거의 모습이나 진행과정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너무 쉽게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또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되거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예전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없어져 버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경기도라는 공간에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거는 아니죠.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고, 또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희노애락의 어떤 감정들이 있었고,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발굴하는데 그걸 누구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억으로 발굴해서 복원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집, 보존해서 구술채록을 하자고 했어요. 주제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하다보면 알 수 있거든요. 보통 장소, 사건, 인물 세 가지 영역에서 주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민 이야기’ 주제선정 원칙은 경기도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왕 어차피 구술채록으로 사람들의 기억을 남길 거라면, 근현대사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자. 지금 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우선 주제로 삼았어요. 지금 살아 계시는 할아버님이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남겨지지 않을 기록들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구축한 기록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 -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라든지 - 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따라서 주제선정의 우선원칙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 어떤 특수한 주제가 있는지, 공감을 할 수 있는 주제인가 등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접근성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경기도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주제 중 하나가

DMZ나 주한미군지와 같은 공간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그곳의 삶에 대해 구술채록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사람들이 쉽게 입을 열지 않는 주제는 작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개 시군은 포함을 해서 이루어지는 주제를 찾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민 이야기는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경기도민 이야기>라는 콘텐츠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북이 고향이신데 고향을 떠나서 경기도로 정착한 실향민들 열 분을 모시고 구술채록을 한 거예요. 일단 주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구술을 하실 분을 찾아내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작업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주제만 정하면 알음알음 소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콘텐츠는 경기도 이북 5도민 협회와 광복회를 통해, 또 잡지사에서, 아니면

주변에 계시는 분을 섭외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고려한 사항은 경기도의 유명한 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주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을 섭외했습니다. 그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분들의 이야기, 다양한 모습을 담는 게 저희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수원이나 경기도 일대는 굉장히 많은 피난촌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수원은 수원천 주변에 피난촌 사진들도 발견되거든요. 이 피난민들이 피난촌을 형성하고 살다가 휴전이 되면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경기도 전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경기도민 이야기>는 세 쪽지로 나누어 구성했습

니다. 첫 번째, 떠난 고향에 대한 이야기-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넘어 오는 이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에 정착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구술을 진행할 때는 주제를 정한 다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를 사전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미리 예비 질문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지, 그 맥락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경험들이나 삶의 모습이 그분들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기록들이 그 시대를 관통해서 살아왔던 분들과 함께 우리가 공유해야 될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곧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그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으로 진화, 변해 온 거라는 관점에서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콘텐츠는 <수려선 이야기>입니다. 수여선은 여기에 오신 분들 중 타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수여선은 1930년도에 부설된 협궤열차였어요. 협궤열차가 뭐냐면 지금 보통 열차보다 작은 거예요. 꼬마열차라고도 하고. 수인선, 수여선이 협궤열차였다고 합니다. 열차는 수원-용인-이천-여주까지 경기도의 동서지역을 통과해 운행했는데, 1972년도에 폐선이 됐다고 합니다.



42년 동안 운행이 됐다가,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관계로 재정상의 문제로, 그 즈음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소요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까 폐선이 됐는데, 현재는 그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70년대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개발을 이뤘습니까? 세상이 엄청 많이 변했잖아요? 남아 있는 흔적을 찾아 답사도 해보았는데 그 흔적조차도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아 있던 오천 역사 하나도 이번에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예전의 철도선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거의 없어진 거죠. 이제 남아 있는 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기억들이겠죠.

‘수려선’이라는 이름은 처음 열차가 개통할 때 이용한 이름 그대로 표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ㄹ”로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수여선이라고 부르지만, 처음 개통할 당시의 ‘수려선’이라는 이름으로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수여선은 일제강점기에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라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사철입니다. 수여선과 수인선 모두 사선이 많은 철도입니다. 그냥 열차가 아니라 사실은 쌀과 나무를 수탈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철도예요. 우리 경기도 지역의 많은 쌀과 곡식 그리고 임업 자원을 여주로부터 수원으로 옮기고, 다시 인천이나 필요한 지역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수여선은 원래는 강원도 원주까지 이을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여력이 안 되어서 여주에서 중단하게 되었는데요. 해방 후에는 여객선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됐구요. 그렇게 경기도 지역의 동서를 이어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교통수단은 서울로 다 통해서 움직이는데, 수여선은 동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죠. 근데 수원에서 여주까지가 네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린 거죠.

열차가 고개를 넘어갈 때는 못 올라가서 밀고 올라가고, 뭐 하여튼 이런 옛날 옛적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었어요. 본래 쌀 수탈의 목적이었지만, 징병을 할 때는 징병한 사람들을 데려가는 교통수단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문명수단이기도 했던 거예요. 수여선이 지어졌을 때, 처음으로 기차란 걸 봤다는 이야기도 찾을 수 있었어요. 수여선은 그 당시 지역에서는 근대화의 상징이기도 했지요. 이처럼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는 생생히 남아있는 기억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 2) 무엇을 할까?

아카이브 주제를 선정했던 것까지 이야기했구요. 이제는 아카이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일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수집해야 거기서 내가 어떤 주제로 뭘 보여줄지 맥락화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좀 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수반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기록 관리는 먼저 자료를 수집, 획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관리,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고, 분류할 건지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결정할 부분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기록들을 할 건지, 무조건 다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선별해서 할 건지 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는 거죠. 혼자 하는 건 어렵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아카이브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적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모아 놓은 이야기를 활용하는 건데, 활용할 때 모아 놓은 기록물들을 그냥 전시할 수도 있고, 책자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전시물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홈페이지로 구성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구술기록’에는 보통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술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술 속에는 사람이 가진 특성이 다 있잖아요? 뭐 전라도에 사는 사람은 전라도 말투를 쓸 거고, 경상도, 이천 등 똑같은 말도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구술성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주관성입니다. 개인의 이야기이므로 객관적이지는 않죠. 자기 생각이죠. 똑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는 개인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관성, 개인성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사실은 진실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이 구술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지, ‘아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진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사실 변형이 되는 부분이 때문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세 번째는 서사성입니다. 서사성은 이제 연대기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에피소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구술자가 선호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술기록은 보통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과 앉아서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같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술기록에는 이런 네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구술 자료가 완벽하게 재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기록들이 굉장히 파편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실에 여러 가지 판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천의 구만리 뜰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야기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그냥 진실이 아니라 서사적인 어떤 사실들, 서사적인 진실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문헌에서 나타나는 어떤 과거 자체도 완벽한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구술도 진실이 아니라고 말한 듯이, 역사서에 나오는 어떤 한 구절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표현되는 그 말의 함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만들 때 역사책에 언급된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역사서에 중종이 ‘어찌어찌 했다’ 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헌 자료 또한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미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구술 자료가 또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구술인터뷰 작업’은 크게 삼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질문지 만들기, 2)구술인터뷰하기, 3)녹취문과 상세목록 작성하기. 일단 구술자가 정해지면 질문지를 만들어야 해요, 왜 하는지, 목적이 정해지면

뭘 듣고 싶은지, 뭘 남기고 싶은지 정하고 질문지를 만들어야 겠죠. 구술자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건지,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구술자의 역할이나 활동이 궁금한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질문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구술인터뷰를 하는 거죠. 요즘엔 핸드폰이 워낙 좋아서 영상이나 녹음으로 구술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녹취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구술자의 말을 그대로 풀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녹취문까지 완성해서 남겨야 아카이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표현하고 기록으로 남겨둬야 검색 키워드를 작성하고 이용자가 검색이 가능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한 사람만 구술인터뷰를 하면 사실 큰 자료적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천의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만 수집하면, 그 분의 삶이 어떤 보편성이나 그런 걸 가질 수가 없지만, 이천 할머니들 백 명을 갖다가 이야기를 모으게 되면, 이천에 흐르는 기본적인 할머니들의 생각, 삶의 모습 같은 게 딱 드러나겠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녹취문이라는 걸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료로서 아카이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과정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참. 주제를 선정하면 해야 할 일이 그 주제에 대해 역사적인 사실이나 배경정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설명한 수여선을 예를 들면 수여선이 왜 생겨났으며, 수여선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정보를 말합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구술자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협궤열차가 뭔지를 모르는데, 설명을 듣고 있으면 도대체 왜 기차를 밀었다는 거야. 왜 어떻게 내렸다는 거야 하며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주제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문헌을 수집하든 사람을 모시든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술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건, 구술자가 관련주제에 대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장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술자는 보통 주제에 대해 관련 자료도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나 사진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당 자

료를 기증을 받거나 아니면 디지털라이징 하거나 또는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나중에 안 게시거나 연락이 안 닿거나 할 땐,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돌아가 시게 되면 그런 자료들이 다 사장되고, 없어지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녹취록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재가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이용자들이 읽기에는 구술된 것만 죽 있으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거든요. 보통 구술하면 두 시간 이 정도 하거든요. 두 시간을 그걸 책자로 쓴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원고 정리를 하시는 분이 재가공을 했어요.

그리고 구술 채록을 하면서 영상을 찍잖아요? 그 영상물을 바탕으로 인터뷰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전체는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

에 부분적으로만 필요한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때 면담작업 할 때는 구술동의서나 영상제작 및 전송관련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즘엔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구술인터뷰를 하면서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실험민들 열 분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은 인터뷰를 좋아하시지만 자제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내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은 하고 싶어 하시지만 자제분들의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실 때 무작정 하시면 안 되고, 자제분들이 싫어하거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시 수려선의 예를 가지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자료수집하고 콘텐츠 제작까지 약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여선은 네 개 도시에 걸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수여선에 대해 공부를 하고 답사를 다녔어요. 수원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천, 여주 이렇게 가다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또 사람들 섭외하고 녹취록 뜨고, 그걸 갖다가 책자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고 하는 시간까지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술을 통한 아카이브는 소요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공을 해서 문화자원화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편이지만, 녹취록 작성하는 데까진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녹취 작성하는 거는 충분히 협의가 되면 3~4개월 안에 도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최수현 할아버지 이야기를 설명할게요. 최수현 할아버지가 철도 기관사거든요. 할아버지가 당시 철도기관사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술과정을 카메라로 찍고 동영상 안에서 음성파일만 추출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녹취록을 작성할 때는 대략 시간을 기록하고, 면접자와 할아버지 이야기를 녹취록에 다 담아요. 녹취록 내용 그대로 책자로 만들면 재미가 없어서 저희는 작가 한 분이 이걸 다시 한 번 재구성 했어요. 할아버지가 언급했던 부분을 일부 발췌하고 요약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구술 동영상은 원본은 저장하고 콘텐츠 홍보를 위한 짧은 홍보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 3) 콘텐츠구축

수여선 홍보 동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제와 관련된 사진 자료가 확 눈에 들어오지요? 그래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아까 소장품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 협조도 받으셔야 합니다. 최수현 할아버지 같은 경우엔 기관사로 일하시면서 모아놓은 소지품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기차운행표나 기차표 등 수집해 놓은 자료는 스캔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는 구술내용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 제공 받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께 아카이브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구축 후에는 아카이브를 활용해 이용자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저희의 첫 번째 작업은 ‘수려선’이라는 책자 500부를 발간했어요. 500부를 발간했는데, 현재 책이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공공도서관에 배포하고 나머지 책들은 사람들이 책을 다 가져가버렸거든요.

수여선 책에는 철도대학을 다니면서 수여선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젊은 청년이 있어서 그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칼라로 해당 자료를 다 실었어요. 수여선의 노선에 따라 현재의 모습들을 찍었어요. 그 내용도 책자에 담고, 또 소장품들 사진도 실은 거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와 구술이야기도 함께. 수여선에 대해서는 이 책 한 권이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습니다.

### 4) 어떻게 서비스를 할까?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죠. 책자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로 다 옮겨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많이 보니

까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 ‘경기도민이야기’ 저희 홈페이지거든요.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온 열 사람의 이야기라고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열 사람 이야기를 좌측에 메뉴로 잡아두었고요, 아래 사진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사업 소개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요.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아카이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카이브는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홍보영상도 서비스하고 있어요.



각 실태민 개개인별로 실제 구술이야기는 한두 시간에서 세 시간정도 걸렸지만, 짧게 소개영상을 3분 정도로 다 만들었어요. 대체적으로 할아버지에 비해서는 할머니들이 말씀을 잘 하세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고. 이런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재미를 가지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홍보하는 거죠. 열 분 모두의 동영상에 있는데 한번들 들어가 감상해 보세요. 제 아이도 초등학교인데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구축한 아카이브를 가지고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동영상을 보니까 훨씬 더 다르죠? 그래서 동영상 만들 때에는 재능기부도 받았습시다. 영상을 잘 만드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에게 실비 수준으로 지불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거죠.

두 번째 홈페이지는 수려선이에요. 수려선은 조금 다른 포맷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사진관을 구성할 때는 사진을 제공해주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 해요. 사진의 내용, 소장자, 제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하죠.



효양도서관에서 전시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려선 아카이브를 토대로 저희는 책자를 내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전시물로도 만들어 서비스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출판도서의 지면 여건상 못 실었던 이야기까지 같이 포함했어요. 올해 작년 수려선 내용을 기획전시물로 만들어 전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전시는 수려선의 경로에 따라 수원-용인-이천-여주 순으로 순회전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천 경우에는 올해 7월 이천

## 5. 아카이브의 다양한 사례들

이제 아카이브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과 기억아카이브’에서 〈5월12일 일기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쓴 5월12일 일기를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모았습니다. 매년 5월12일 일기를 한 달 동안 수집하는데요. 아이들 기록도 있고, 어른들 기록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그것들을 그냥 계속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년차,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아 나가다 세월이 흐르면, 아 5월 12일 즈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도 하고 보통 일상이 있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세월이 흐르고 한 10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좋은 자료가 되겠지요. 본래 영국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영국 대학과 조인해서 진행하는 아카이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미산마을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가 요즘 굉장히 대세거든요? 서울의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주축이 되어 구축하고 있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산 같은 경우, 지역의 활동들에 대한 기록들을 모아 놓은 아카이브예요.

세 번째 성북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신나지〉라는 곳에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을 아카이브 중 하나입니다. 성미산의 경우는 활동에 대한 아카이브였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마을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간, 단체, 도시, 문화예술, 사람 이런 주제로 나눠가지고 자기네들이 소개하거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사진 자료랑 함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어요.

〈마을의 인물 백과사전〉은 평택 장당도서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활동 사례예요.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마을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른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록화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기 고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어른들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적인 기록들을 아카이브로 구축하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다들 자기 환경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4·16 기억저장소〉예요. 4·16에 관련된, 세월호와 관련되었던 모든 것, 기록과 보도, 추모의 글 등 모든 자료를 모아서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안양 같은 경우는 〈평촌마을신문〉을 디지털라이징 하고, 마을 신문이라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또는 매달 마을신문에 마을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남겨서 신문이라는 형태로 아카이브를 남기고 있는 거죠. 또 시흥에서는 시청 아카데미를 통해 〈마을기



록학교)라는 걸 운영했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관련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접속해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6. 마무리

아카이브는 결과물로 나오는 기록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활동이나 고민들을 남겨서 같이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카이브의 대상은 어떤 마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리깨’라는 사물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난 이거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와 같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결국은 상황에 맞게 구축된 아카이브들의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궁극적으로 경기도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마을 단위나 공동체, 기관들에서 만든 아카이브들을

연결해 주고 지원해 주는 허브로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열심히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 7. 질문과 대답

질문자 : 아까 말씀하시길, ‘누가’, ‘언제’, ‘어떻게’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천이 지금 여러 읍면에 대해서 문화유적, 민속조사 작업을 다 마무리했고, 시내권만 안 했는데, 작년에 시내권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걸 구술할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이 좀 더 일찍 진행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이죠. 시내권 민속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구술하실 분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강연자 : 그렇죠. 또 구술하기까지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질문자 :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필름이 귀하고 지금처럼 찍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라서 옛 사진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다들 몇 장 정도라도 옛 사진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좀 기증해 달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강연자 :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속성에 의해서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회유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은데, 개인의 기록으로만 남기고 싶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은 작업이에요, 근데 그게 모이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되거든요.

질문자 : 경기도민 이야기를 기획하실 때 경기도민은 누구인가 이렇게 경

기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사업을 확장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천사람의 정체성, 한국인의 정체성, 이렇게 따져 보고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민에 대해서는 잘 안 와 닿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정체성 문제에 대해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연자 : 아직 진행이 2년 차 밖에 안 되어가지고요. 제가 느끼는 경기도의 정체성의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경기도라는 지역이 한 곳에 죽 거주하시는 원주민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밀려 내려와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주해서 살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지금은 경기도에 외국에서 오신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어떤 지역과도 다르게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또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다양성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을 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터전에 들어가면 그 지역민들이 배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에서 온 이방인으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자기네끼리만 모이려고 하는 의식을 버리고 서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경기도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큰 축입니다. 서로 간에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들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자 : 아까 역사는 승리,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엔 편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자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권력자의 시선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지역을 바라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5월 12일 일기 콜렉션 아카이브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무를 바라볼 때 나이테 한 단면을 보고 그 나무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이, MRI 자기공명장치도 우리 신체의 한 단면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과거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가 현재의 삶을 충실히 기록하는 작업이 중요하겠고요. 이천 문화원에서 발간한 ‘이천사람실록’도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객원기록자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천 지역의 시민 아키비스트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귀한 강연을 해주신 신정아 선생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문화의 기록, 이천민중실록(Talk)

- '대구경북문화 기록하기'에서 배워라 -

**손영학**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서 박사과정(인류학 전공)을 수료했다. 그동안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 학예사를 지내면서 주로 고미술 전시를 총괄진행 했으며,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에서 한국미술미학 강의를, 영남대학교에서 박물관과 문화유산에 대한 강의를 했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인의 숨씨', '나무로 빛은 예술-나무공예', '옛집의 살림살이' 등이 있다.

### 시작하는 말

제가 강의를 요청 받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이렇게 많이 고민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문화원에서 그동안 인문학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것이고 거기에 제가 부응하지 않으면 실망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상투적으로 들리거나 공허하게 들릴까봐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적인 이야기를 풀어 놓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체험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필진으로 참여한 '향토와 문화'를 통해서, 또 문화원 일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저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교학상장(敎學相長)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향토와 문화』의 탄생 배경

대구은행의 지역사랑지(대구은행 사외보)인 ‘향토와 문화’는 1996년 3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벌써 20년 전이 되겠는데 현재 80호까지 나왔어요. 저는 창간호엔 참여를 못했는데 창간호의 주제가 대구 사람들의 일상에서 함께 해 온 ‘팔공산’이었습니다. 경관도 수려하지만 대구 사람의 정신적 지표가 되어온 제일의 명산입니다. 예전엔 대구 하면 사과였는데 지금은

그 명성이 빛을 바랬죠. 제2호 ‘길 위의 삶, 길 위의 풍경’부터 필진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대구 경북의 경계선을 따라가면서 글을 쓰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받고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도 경계선을 따라 가면서 취재하는 기획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담당한 부분이 태백산맥이 종단하고 있는 경북과 강원도, 소백산맥이 가로 놓인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경계선을 따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취재라고 하는 개념은, 대부분은 한 두 시간 아니면 몇 시간 동안 인터뷰를 통해서 그 기사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이 일은 4박5일 동안이나 걸리는 일이고, 현장에서 시나리오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취재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비포장이라 흙바람 날리는 덜컹거리는 길을 몇 시간 달려야 겨우 마을이 나타나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3도 접경지역입니다. 경북과 충북이 시냇물 하나 사이에 두고 도 경계선을 이루고 있더군요. 오지 사람들이 자연과 동화되어 사는 모습에서 취재 후에도 여운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사실 전 잡지와 사외보 일을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이런저런 기사를 한 10년 정도 쓰고 나니 ‘정말 잡지 일은 하지 말아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잡지는 너무 잡스러운 얘기를 다룰 뿐, 정말 심도 있게 다룰 수 없으니까요. 정해진 분량이 있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고, 또 깊이 있는 내용은 일반 독자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잡지 일에 회의를 느끼던 차에 ‘향토와 문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획도 흥미로웠지만 도대체 누가 이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지 기획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같이 작업을 해보자 싶어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토와 문화’를 총괄 기획하시는 분이 엄명숙 씨인데, 지난번에 이천문화원에 다녀갔다고 하더군요. 그 기획자와 계속 일을 하면서 이 분이 이 책에 임하는 열의와 역량에 놀랐습니다. 대학원에서 미학미술사학을 전공했는데 일단 굉장히 학구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료를 섭렵하고 탐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분 얘기로는 처음에 이 책의 기획을 맡았을 때 이 일을 20년 동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요. 자기가 좋아

하는 것, 자기가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이 책에 쏟아 부을 수 있겠다 싶어서 꼭 이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보 제작이란 워낙 클라이언트들의 입김이 센 일이라 중간에 다른 편집진이나 실무자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법도 한데 20년 동안 이 책을 총괄기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클라이언트들이 기획자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요.

1990년대 당시엔 전국적으로 사외보가 붐이었습니다. 대구은행에서도 사외보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한 호 마다 한 가지 주제만으로 콘텐츠를 꾸리자는 제안이 채택되었죠. 그 시절에는 삼성문화재단에서 나온 ‘문화와 나’라든지, 하나은행 사외보라든지 그런 비슷한 포맷의 사외보들이 있었지만 대구·경북에 국한하여 콘텐츠를 엮어나가는 책은 최초였거든요. 사실 대구은행 내부에서 찬반양론이 있었다고 해요. ‘너무 학술적이다’, ‘너무 무겁다’, ‘고리타분하다’, ‘대구은행 소식도 한 점 안 나가는데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등등.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인 이윤추구에 이 책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책을 네 권 발간하고 난 뒤에 사보 대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식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독자들의 반응이 없으면 계속 발간되지 못했겠죠. 대구은행장도 고객이 없으면 은행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은행 이익은 향토문화적 기반에서 온다고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향토문화를 무시하면 경제를 등한시하게 되고,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생활도 무너지고, 우리의 생활이 무너지면 대구은행도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은행 경영진 측에서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에 박수를 보낼만하지 않습니까?

## 책이 주는 파급력

이 책의 미덕은 지역을 미시사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대구에 살고

있어도 대부분이 경북과 어떤 인문지리학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전혀 감 없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영남의 감춰진 역사와 문화를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을 이 책이 알게 해 주었으니깐요. 간혹 시기적절하게 지역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관련 기획을 잡아 기여한 적도 많아요.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릴 때는 육상특집을 마련한다든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때를 맞춰 실크로드 특집을 펴낸다든지, 걷기 열풍이 일 때는 ‘영남의 길’을 한다든지 하면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이 책을 활용하죠.

대구是我们 근대문화사를 놓고 보자면 근대 음악, 미술, 문학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책이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는데 문학을 다룰 때 지역 출신 문단 거물인 김주영, 김원일, 이문열, 이 세 분의 인터뷰를 두 번이나 실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사보 인터뷰를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출신지에 대한 애정으로 기꺼이 허락해 주셨다 합니다.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대구읍성, 영남의 독립운동사, 대구의 음악사, 대구의 50년대, 영남유학 같은 테마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문연구소 등에서 챙겨야 일들인데도 다들 이 분야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아서 ‘향토와 문화’에서 다루었다고 해요.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사업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예가 많아요. 이번호에는 무슨 특집인가 관심 있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언론이나 문화 관련 사람들이거든요.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얼마 전 이천문화원에서 펴낸 인문학총서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를 읽다가 ‘진정한 기록자인가’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동안 필진으로 참여를 하면서 나는 과연 진정한 기록자였나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으로만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 발로 뛰는 취재, 젊은 필진의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은 책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초기엔 현장 취재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취재라는 형식이 대부분 현장에서 천막을 치는 건데 이제는 희석이 되어 점점 원고를 청탁하고 재구성 하는 쪽으로 흘러가더군요. 점점 거시적으로 자연, 동·식물, 역사고고학 범주까지 전 지구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어요. 기획자에게 변화된 이유를 물어보니 필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프리랜서들이 참여했습니다. 대구에서 글쓰는 이들을 찾았는데 현장을 찾아가서 취재하고, 취재 후에 원고정리하고 다듬고 원고매수에 맞춰 고료를 받는 일을 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교수들이나 학자들의 원고를 받아보면 일단 잘 읽히지가 않고 또 재미가 없다고 해요. 현학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읽는 사람들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읽고 나서도 울림이 없는 글이 많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내 마음의 거리’를 보면 거의 문인들이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일단 문인들이 쓴 글은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문장에 대해서 편집자가 윤문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방침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필자로 삼자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 구성도 달라지게 되는데, 글쓰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블로그나 카카오톡스토리의 글을 읽어 보니 글을 담백하게, 맛깔나게 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필진으로 참여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글을 쓰고 활동을 하는지 인적 자원을 많이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역시 이런 기획자의 고민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 고민을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을 보며 방안을 모색해보기도 했어요. 구미문화원에서 지역청소년 문화교육과 연계한 향토사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미 현일고등학교 학생 20~30여명이 직접 현지답사하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펴낸 책을 보았습니다. ‘구미지역의 7가지 전설’, ‘구미의 전통장인과 디지털의 명장’, ‘구미 숨겨진 생활의 명인 1, 2’가 그것인데 제가 그걸 보고 구

미문화원에서 고교생들을 필진으로 받아들였다는 건 참 잘한 일이다 여겼습니다. 지금 대부분 필자를 찾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성, 그 사람의 저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했는데 구술을 채록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엮는 일은 미래의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이테크 시대에 외부 문화와의 조류에서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이 전승되어야 할 가치 있는 문화 보존에 힘을 쏟아야 할 때, 학생들에게 문화원의 역할과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죠.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를 받쳐주는 정신적 가치니까요.

## 인문학도 젊어져야 한다

지금 인문학 열풍은 연령대가,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인 연령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좀 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의 지역문화 자산에 젊은 인문학도가 참여해서 핫플레이스를 만든 예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대구 근대골목투어 입니다. 지구상에 골목이 없는 곳이 있겠냐마는 대구에는 줄잡아 1천 여 개의 골목이 있다고 해요. 약전골목, 공구골목, 양말골목, 타월골목, 오토바이골목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골목뿐만 아니라 진골목, 말전골목 등 생소한 골목도 수도룩한데 이 골목은 2천 년 대 초에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문혀있던 골목의 모습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선 인물이 권상구씨인데 그 당시가 20대 초반이었죠. 그는 수많은 골목을 수없이 돌아다니며 얻은 정보를 지도에 옮겼고, 약 7개월간의 노력 끝에 ‘골목은 살아있다’란 포켓용 책자를 발간했어요. 그 이후 2007년 경북대 사회학과 학생 등 1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대구 신택리지’를 펴냈는데, 이 책은 ‘생활사지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 행정기관도 근대골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권상구씨가 낸 아이디어에 사업성을

알아본 지자체는 예산을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입힌 골목이 되살아난 겁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대구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도시를 인문학적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문학도 더 젊어져서 젊은 사람을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생산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가 도시를 좌우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창조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문화도시다’ 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다시 ‘향토와 문화’로 돌아와서 저는 이 책이 대구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는데 많이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략 2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1만5천부는 직접발송을 하고 나머지는 각 지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활자매체에 대한 어떤 갈망 혹은 인쇄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희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에 어떻게 출판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대구문화원연합회에서 대구의 8개 구·군문화원 소식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관련 단체의 소식을 아우를 수 있는 잡지를 창간 준비 중이라 더욱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잡지 창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대구예총이나 대구문화재단의 편집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차라리 웹진을 만들지, 보지도 않는 책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왜 책을 만드느냐고 물어봤더니 연세 드신 분들은 책으로 나와야만 뭔가 보이는 게 있다고 생각한데요. 물론 저도 사실 기계치에 가깝고, 아직도 워드를 독수리타법으로 칠 정도라 전자책은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 또한 여전히 책에 익숙한 편이라 책을 낸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읽게 만들 건지가 과제입니다.

## 관주도가 아닌 주민주도로 가야

책이 주는 여러 가지 파급력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시장’(3호)을 작업할 때입니다. 그해 96년 7월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대구경북의 시장 30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피약벌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오일장만 찾아다니다보니 장돌뱅이가 된 거죠. 지금은 전통시장 살리기가 붐이 되어 현대식 건물에 아치를 만들고 지붕을 덮어서 재정비 했는데 인간미 넘치던 생산과 교환의 흥겨움은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쇠락해가는 시장을 목도한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얘기하자면 ‘나의 20세기’에 담겨있는 경북 예천의 낙동강 삼강나루 주막의 마지막 주모 유옥련 할머니인데,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낙동강 소금배가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99년 당시엔 아주 허름한 주막이 있었는데 주모가 책에 소개되고 난 뒤에 경상북도의 민속자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후일담으로 지자체에서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조악하게 주막을 복원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새로운 주모를 뽑자고 했고, 그 마을에서 누가 주모가 되느냐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화기획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일에 공무원이 주도하면 다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강주막을 무대화 하면서 원형을 잃어버리는 행태를 보니 참 씁쓸하더군요. 삼강주막과 연결선상에서 요즘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에 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앞서 대구 근대골목투어를 언급했는데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키워드가 된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길이가 고작 350m되는 좁은 골목길이거든요. 기타를 치는 김광석 조형물과 사진, 벽화로 꾸미고 서정성 짙은 그의 노래가 흘러나오니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지요. 김광석 길과 맞닿은 곳이 방천시장인데, 김광석 길이 주목받게 된 것이 방천시장 프로젝트로 영세한 방

천시장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장상인, 예술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프로젝트였죠. 8년 전의 일입니다.

초기에 ‘문전성시’, ‘별의 별 프로젝트’를 하면서 방천시장에 서른 명의 작가들이 입주했습니다. 시내와 거리는 가깝지만 죽어있는 곳이라서 임대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내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었거든요. 저도 몇 년 전에 김광석 길 주변을 탐방하다가 스틸(steel)로 작업하는 한 공예가의 작업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테이블 1개에 겨우 4명 정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손수 드립한 커피가 3천원이었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진열해놓은 작가의 작품도 보고 얘기도 나누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인상적이고 좋았는데... 아, 지금은 없어졌어요. 사람이 몰리니 상권이 살아나고, 상권이 살아나니 음식점과 프렌차이즈가 들어오고, 임대료가 세배에서 다섯 배가량 뛰어 오르니 기존에 있던 상인들과 작가들이 다 쫓겨나갈 수밖에요. 채소나 떡을 팔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죠. 이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sup>2)</sup>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천시장에는 음식점이 즐비하고, 고급스러운 카페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음식 냄새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요. 도심재

2) 젠트리피케이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도심 지역의 노후한 주택 등으로 이사 가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생사업을 하면 건축주와 기획자와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정비를 하죠. 정비를 하고 난 뒤에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거대자본과 상업자본이 활개를 치게 되죠.

‘향토와 문화’에 삼강주막 얘기가 나와서 대구 골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애정을 가지는 소수 사람들의 ‘문화적 독립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자본이 결합이 되지 않으면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향토와 문화’ 경우에는 대구은행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근대 골목 투어는 사업성을 알아본 중구청이 예산을 지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김광석 거리가 뜨고 난 뒤에 이걸 벤치마킹하여 대구 수성구에서는 정호승의 거리를 만들자, 안동에는 이육사의 거리를 만들자 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무슨 거리가 점점 더 많이 생길 텐데 방천시장 같은 전철을 밟아서 안 되겠지요. 지금 대구에서는 북성로 공구 거리에 도심재생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 삼년 만에 방천시장과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하 더군요.

## 소장하는 책에서 활용하는 책으로

다시 ‘향토와 문화’로 돌아와서, 지금은 주변에 이 책을 열정적으로 수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책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과월호가 궁금해져서 고서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주위를 뒤져보게 되죠. 이 책은 고서점에서 유일하게 3천원~1만원 가량 거래된다고 해요. 다른 사보는 절대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고서점에서 이야기해요.

“웬만한 잡지류는 한두 번 보고 폐기하기 십상이지만 ‘향토와 문화’는 단행본처럼 소장한다. 은행이란 그냥 돈 장사를 해서 이윤을 챙기는 곳이지 이런 문화사업, 특히 돈이 안 되는 출판사업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있고, “더 이상 이 책은 사보가 아니라 귀하디 귀한 책이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국수적 통념도 이 책을 보면서 사실임을 느끼게 되었다”고 힘을 주는 분들까지 이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가지도 아니고 신청만 하면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편함도 한 몫을 하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질로 소장하고 싶어 해요. 대부분 그 분들의 생각은 이 책이 학술지 못지않은 인문지리서라서 나만의 소장품, 지식창고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소장가치를 떠나 활용 가치를 높일 방도를 찾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표정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어쨌건 지역에서 ‘향토와 문화’가 나옴으로 해서 산성형 인간을 알카리형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책에 나왔으니 보라고 하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말인데? 이런 표정을 하거든요. TV로는 봐도 수고로이 책 볼 틈은 없다는 거죠. 소비가 미덕인 현대사회에 읽히지 않는 책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향토와 문화’도 100호 발간을 앞두고 있으니 이 책의 존재가치를 정립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역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이천에서 ‘향토와 문화’ 같은 포맷으로 책을 낸다 하면 모든 게 다룰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향토와 문화’는 대구 경북 즉 영남권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범주가 굉장히 큼니다. 그런데 이천은 행정구역을 떠나서 이천만의 것들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향토와 문화가 80권이나 나왔는데 이천도 80권이나 나올 만큼 콘텐츠가 있을까 하는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일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향토와 문화는 ‘탈지역주의’를 생각 하는 것 같아요. 발간을 거듭할수록 언제까지 지역에만 머무를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기획자도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전통문화, 문화재 등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무형의 정신적인 것을 발견하고 재인

식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역을 넘어서 큰 시각에서 우리와 타자를 아우르는 내용을 다뤄보고픈 욕심도 있다. 대구의 정신, 경북의 정신, 그 큰 뿌리가 한국 정신문화의 저류를 이룬다는 자부심을 독자에게 일깨워주고 싶다. 그런데 난 문화적 순혈주의(純血主義)를 좀 경계한다. 안동, 영양, 영주 경북 북부 지역이 과거와 소통만 하고 미래와, 특히 젊은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법고창신(法古創新)하기 힘들 것이다."

어쨌거나 서로 관심 분야는 다르겠지만 책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가 ‘향토와 문화’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질문을 많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얘기들은 일단 여기서 지금 마무리 하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과 대답 - 이천사람들의 실록(Talk)

사회자 : ‘향토와 문화’는 ‘사외보’라기 보다는 ‘문화지’로 분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향토와 문화’를 처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애독자가 된지 15여 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지가 11년 됐을 때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제가 특집호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뒤에 편집자 엄명숙 선생님이 ‘가슴 설레는 11년의 기억들’ 이런 제목으로 그동안의 감회를 쓰셨고, 다음에는 필진들이 쓴 후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사한 추억, 대구의 재발견’ 이건 김인기 선생님이 쓰셨고, ‘가슴 뿌듯한 성과와 추억을 함께’ 이 글은 사진작가인 석재현 선생님 쓰셨구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화의 패턴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라는 글은 손영학 처장님이 쓰신 글인데요. ‘대구 경북의 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풍경과 삶을 읽어내기 위해 길 떠난다는 것, 향토의 문화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동안 화제의 인물을 인터뷰한다, 장인을 찾아 나선다, 여행지를 소개한다 하는 이전의 취재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방식이었다. 지역의 기반을 두기 거시적이기보다는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기. 현지

조사와 참여 관찰, 촘촘한 그물망으로 인간의 다양한 행위 양식 더하기. 대구 경북의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는 것도 일깨워 주기. 향토문화가 갖는 이러한 덕목은 내가 뒷날 전공하게 된 인류학의 연구방법론과 잘 맞아떨어졌다...'

또 이춘호 씨의 '멋진 사고(史庫)로 진화하길' 이런 글, 이한용 이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필진으로 많이 활약을 하셨던 분인데요. '향토의 들길에서 쓰는 편지'에서 저는 생동감 있는 물씬한 현장과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책을 받아보았을 때, 나도 기회가 된다면 필진들과 함께 발로 뛰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집호의 이 후기 부분을 읽고 '우리 이천 지역에는 이런 문화와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없을까? 아니 틀림없이 어딘가 숨어있을 거야. 기다리면 언젠가는 서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를 자석에 철가루가 붙듯이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착착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손영학 처장님이 '향토와 문화'에 쓰신 글들을 보면 원래 이런 전통문화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향토와 문화'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연자 : 제가 이렇게 취재하고 글 쓰는 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잡지 일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중 향토문화를 만들게 됐는데요. KTX가 나오기 전 새마을호 기내지 '레일로드'(RailRoad)에 10년간 전통문화 관련 기사를 썼고 다큐멘터리 잡지, 사외보 등에도 주로 우리 문화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고미술을 좋아하고 장인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처음 「한국인의 숨씨」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 대학 박물관에 근무를 하면서 「나무로 빚은 예술-나무공예」를 내게 되고, 아이들 책을 내보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을 위한 일이다 싶어 「옛집의 살림살이」를 내게 되었어요. 책을 내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볼,

우리 문화의 길잡이가 되는 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판 시장 중에 아이들 시장이 가장 큰 것도 있지만 나이가 오십이 넘어 가면서 어릴 때에 우리 전통문화를 접하도록 해주는 것이 귀중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학문을 접근하는 방식에 끌려 뒤늦게 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인류학은 가능한 한 지역사회, 이웃 또는 집단의 삶 속으로 깊이 몰입을 해서 새로운 유형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해 봄으로써 배우려 합니다. 1920~30년대는 원주민마을에 들어가 1년 혹은 그 이상 지내는 걸 당연히 여겼죠. 연구자가 오래 머무르는 것이 이상적이며, 때로는 몇 번을 되풀이하여 다시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좀처럼 얻기 힘든 인류학만의 장점이고요. 또한 참여관찰은 연구자 자신의 왜곡된 시선을 최소화하고, 또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전체와 범주를 통해서 생활양식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상주 남부초등학교 전교생의 활동을 1년간 다큐멘터리 식으로 전제한 ‘향토와 문화’ 49호 ‘우리들의 행복한 학교’가 그런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 : 대구는 뮤지컬 오페라가 국제적인 규모로 열리지만 정작 수도권에서는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구가 문화도시로 불릴만한 건가요?

강연자 :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연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1천석 이상의 공연장이 총 9개로, 지방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올해 10주년을 맞은 ‘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14회째 열리는 ‘국제오페라축제’ 등 공연관련 축제가 넘치고, 대명동에 있는 12개의 소극장에서도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이 대구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데 공연과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1년 내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연간 900건 이상 공

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대구시의 공연 분야 육성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에 한숨이 절로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문학적 요소들은 행하니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볼거리, 즐길거리만 가득하면 행복한가요? 노래가사처럼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홀로 객석에 앉아 있는 허망감은 무엇으로 채울 건가요?

질문 2 : 대구는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천을 비롯하여 경기도의 수많은 도시들이 각자 자신의 색깔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강연자 : 이천엔 도자기축제 할 때 두 번 와 봤는데 어제 다시 15년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천은 거대 담론 말고 소소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담을 거리가 많을 걸로 보여요. 대동여지도를 그리듯 하나씩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천의 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오늘 아침에 이천 문화원에 오는 길에 오거리를 지나왔는데, 뭔가 독특한 교통체계와 분위기가 느껴졌고, 또 도자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 오거리 반경 100미터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본다거나 그 오거리를 둘러싼 어떤 얘기들도 좋을 것 같고... 어제 이천으로 진입했을 때 다른 지역과는 뭔가 다른 느낌. 2차선 도로가 좀 많고 그러면서 외곽지는 느리게 개발 중이고, 그래서 담을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얘기는 끊임없이 솟아나기 마련이거든요. 독자와 소통하는 방식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는 시가 있잖아요? 각각 세밀하게 나눈 콘텐츠가 모이게 되면 통합해서 큰 틀로 묶을 수 있는 주제들도 나타날 겁니다. 미시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한다면

『치즈와 구더기』<sup>3)</sup>입니다. 그게 16세기 마을을 배경으로 마녀사냥이 있던 시대의 글인데 민중의 기록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담겨있거든요.

‘향토와 문화’는 항상 100페이지 분량을 잡고 있어요. 100페이지에 못 담는 테마는 몇 번으로 이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한 권 내는 데 5천만 원이 든다고 하니 1년이면 2억이네요. 이미 1만5천명이라는 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을 이미지메이킹 하는 데는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문화원엔 이렇게 인문학강좌를 지속적으로 수강하는 분들이 계시니 인문학적 토양이 비옥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문학 강좌는 먼저 공무원, 행정기관에서 듣고 또 정치인들이 들어야 하는데 워낙 그 분들은 바쁜 분이지 않습니까.

질문 3 : 12호 ‘新농가월령가’ 편을 보니 민중이라는 말도 나오고, 김용택 시인의 시도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보는 회사에 대한 소개, 제품 등을 다루는데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기획자 분이 처음 시작할 때 20년을 목표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갈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향토와 문화’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강연자 : 기획자는 일단 100호까진 할 거라고 하는데, 그 후에도 아직 담을 게 많다고 말해요. 한때 여기저기서 이 책을 아웃소싱 받겠다고 욕심을 내서 다른 기획자가 두 번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연 비교 되니

---

3) 주인공 메노키오가 이단혐의로 피소돼 화형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사고를 마치 추리소설을 쓰듯 생생한 필치로 재현하고 있는 역사학자의 저서. 이탈리아 동북부 프리올라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메노키오는 예수의 신성과 마리아의 처녀성,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등 중세 사회에서 이단적인 자신의 생각을 마을에서 이야기 하고 다니다 51세의 나이에 이단 혐의로 피소되고, 이후 투옥과 방면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급기야는 1599년 말에 교황청의 명령으로 화형당했다. 이 책은 그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통해 그의 사상과 감정, 상상과 회구를 재구성한 미시적 연구를 담고 있다.

까 다시 처음 기획자로 오게 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업무를 못 내죠. 총괄기획자가 계속 이 책에 몰입하다 보면, 오래하다 보면 테마가 자꾸 솟아나오는가 봐요. 퍼내면 퍼낼수록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고나 할까요?

전통이라는 개념과 전승이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전승’은 이어받아 계승하는 거고, ‘전통’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것이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을 뜻하죠. 전통은 전승을 통해 후대로 이어지고 때로는 모방, 발견 등으로 재창조되어지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한류문화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전통이 될 수 있듯이 얼마든지 지금 시점에서 눈을 돌려보면 아이템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70번 국도를 찾아가는 그런 기획도, 또 제가 그때 처음에 참여했던 ‘길 위의 삶, 길 위의 풍경’도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아가 본다면 그 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람들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탐구해 보는 것도 괜찮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짐작컨대 200호까지도 가능할거란 생각이 들어요.

질문 4 : 12호 ‘新농가월령가’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돈을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인지 아니면 사진작가가 본 그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연자 : 우리가 보통 시나리오에 따라 연출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사진가의 역량에 따라 사진이 좌우되더라고요. 사진가들도 편차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제가 2호에 참여할 때 함께 작업했던 사진가는 순간 포착을 잘 해요. 박스 인터뷰에 나온 몇 장의 사진 말고는 아무 연출 없이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 사진가와 호흡이 잘 맞아 함께 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서로 맞지 않으면 사진을 연출하느라 시간을 잡아먹게 되니 작가들은 짜증이 나죠. 그만큼 감각이 훈련돼 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는다

해도 퀄리티가 책에 실을 만큼 사진의 어떤 가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진가는 상대방이 사진을 찍고 있다고 의식할 틈도 없이 현장을 포착해 내는 반면에 어떤 사진가는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게 해서 경직된 사진을 만들어 내기도 해요.

연출된 사진은 독자들이 감으로 알아차리게 돼요. ‘新농가월령가’ 같은 경우에는 사진가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조금은 연출된 사진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진가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찍은 사진가라 현장에 강해서 무게감 있는 장면을 담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사진을 찍을 당시가 1988년이었으니 농가부채가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던 시기였습니다. 취재를 위해 다니다가 마을 앞 느티나무에서 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두 분은 무얼 하고 계셨느냐고 물어보았겠고, 그러니 서로 빗을 갠기 위해 돈을 가져 왔다고 애길 했겠죠? 상황은 이랬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재촬영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질문 5 : 대구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 혹은 지역적인 기질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작업하시는 ‘향토와 문화’를 비롯해서 기록 작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연자 : 지역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경상도 기질 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향토와 문화’에서 다루었던 지역의 정체성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은연중에 대구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성향이 있었네. 공감하게 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걸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주요 독자층을 보면 50대 이상들이 많습니다. 30대 미만은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고, 가끔씩 학생들이 학습 교재 자료로 활용 하는 상황입니다.

이 책의 모토가 지역사랑이고, 대구은행의 슬로건이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민과 함께’인 만큼 대구 경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는 대구은행 밖에 없단 말인가? 다른 은행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거

든요. IMF전에는 청구, 우방 같은 건설회사에서도 사보를 냈고 지역백화점에서도 사보를 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없어지고 대구은행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한 시대에 대구·경북, 향토와 문화, 내 땅, 영남문화에 천착하기보다 지평을 넓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빛을 발하는 기초과학처럼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6 : 대구의 수성못은 잘 있나요? 오래 전에 가보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풍광도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았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같은 모습을 보고 그곳의 역사와 문화적인 것들에 공감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보았던 모습이 점점 잊혀져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연자 : 바다가 없는 대구에서 수성못은 큰 볼거리이자 관광지죠. 관광지에는 카페, 식당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살짝 돌려 제가 무형문화재에 관심을 두고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것을 술회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는데 대회 참가자들을 무대 위로 올려서 심사를 보게 되잖아요? 모내기소리를 한다 하면 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인조모를 심으면서 그걸 거짓시늉, 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도 있어요. 원래 농사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그날 일이 끝날 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라서 무대 위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원형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 중에서 입김이 센 사람이 주장을 해서 원형이 점점 변형되는 거죠. 이걸 두고 ‘무대화된 고유성’이라 하지요.

제가 구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발갱이 들노래’를 취재할 때 그 분들을 만나러 구미시에서 지어준 전수회관을 찾아갔어요. 회관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시멘트바닥 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다 달라지잖습니까. 게다가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 아예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한 달에 서너 번 씩 모여서 연습을 한다

고 해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보조금도 받고, 전승자 이수자들에게 지원금이 내려오니깐요. 세월의 바람에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건 현대적인 무대로 옮겨 갔을 때 예전에 행하던 것들이 무형문화재라는 틀 속에 가둬두고 박제화시키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7 : 대구 하면 사과가 있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기도 하고, 제주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섬문화라도 있잖아요? 대구문화를 요약한다면, ‘기증문화는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연자 :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대별로 살펴봐야 되는데 저만 해도 누나 세대, 부모 세대와는 사상 체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체감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반타령, 극우, 보수, 이런 사고를 계량화, 도식화 하긴 어렵잖아요? 대구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걸 제일 실감나게 느끼는 분들이 외지인들이거든요. 제가 만난 전북 남원분이 하는 얘기가 외지인들이 대구 서문시장에 점포를 내면 발붙이기가 어렵다, 백 명 중에 한 명도 붙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와 닿지 않지만 대구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백화점도 대구, 동아 양대 백화점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어서 여타 서울의 백화점이 들어올 수가 없었고 전국에서 가장 늦게 서울의 백화점이 진출했어요. 2003년에, 경상도 기질이 이렇다 라는 것은 거의 60대 이상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인구가 250만이라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구미나 포항, 울산 같이 공단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유입되는 것도 없고. 토박이 붙박이가 많다는 게 어떤 대구를 형성하는 하나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질문 8 : 사과하면 대구라고 생각했는데 포도도 유명하지요?

강연자 : 사과는 지금 이미 기온이 맞지 않아 재배가 되지가 않고요. 점점 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포도는 영천, 경산, 등 인근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고요. 대구가 사과를 상징하게 된 것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대구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과는 지금의 동산병원으로 발전한 제증원 초대원장이었던 존슨 선교사가 도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899년, 존슨원장이 제증원을 동산언덕에 신축하면서 선교사주택 뒤뜰에 3개 품종 72그루를 미국에서 주문한 묘목을 심었습니다. 당시 대구는 기후와 토양이 사과나무 재배에 안성맞춤이었죠. 존슨 원장이 묘목을 심은 지 반세기만인 1960년대에는 대구지역 사과재배면적이 전국의 73%를 차지했고, 생산량은 83%에 달했다고 합니다. 제철과일 밖에 못 먹었던 시절, 저장성 강한 사과는 전국으로 팔려나가 으뜸상품이 되었던 것이죠. 현재 대구 최초의 사과나무 한그루가 대구시 보호수 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산병원 선교박물관 앞에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질문 9 : 뜬금없지만 저는 평소에 왜 벚나무를 많이 심는지 궁금했어요. 진해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천의 설봉공원을 비롯해서 전국 어디서나 벚꽃을 볼 수 있지요. 사실 벚꽃 말고도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가로수가 많이 있을 텐데요. 문화 영역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유독 문화가 획일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연자 : 안타깝게도 벚꽃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가로수를 지역마다 시목市木이나 군목郡木으로 특화한다면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좋을 텐데 말이죠. 일본에 여행을 가면 꼭 그 지역에만 살 수 있는 어떤 공예품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살 수가 없어요. 2001년경, 제가 가나자와라는 도시에 갔을 때 아주 정말

특이한 병을 하나 샀는데 그 병을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난 뒤에 아쉬워 똑같은 걸 하나 구하려고 하니 그 지역, 그 장소 아니면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관광지 어디에나 볼 수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생각하면 지리멸렬하죠.

질문 10 : 탈지역주의를 말씀해 주셨고 반대로 ‘향토와 문화’가 고착화 되는 경향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지역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는 초등학생 시절 정도인 것 같아요. 중,고생이 되고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 취업과 결혼... 지역에 대한 고민이 끼어들 자리는 거의 없지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책’이라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강연자 : 지금은 전국적으로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시대잖아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더욱 활발해졌죠. 이런 시대에 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활자시대는 이제 소멸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사외보의 역할은 전문지가 아닙니다. ‘향토와 문화’가 아예 학술전문지를 표방해 버리면 일반 독자들이 읽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잡지와 학술지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책이 사실 방송이나 신문, 인문학 연구소, 여타 문화관련 단체에 큰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어느 대학 인문학연구소에서 나오는 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사람들에게 더 읽히느냐 이거죠.

대구 지역의 한 대학에서 민중생활사 프로젝트<sup>4)</sup>를 받았는데 30억 넘게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인력도 박사급들로 구성되었거든요. 후에

4) 영남대학교에 따르면 영남대와 목포대, 전북대, 중앙대 등 전국 6개 대학연구소가 중심으로 참가하고 있는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은 ‘한국민중구술열전’ 13권과 ‘사진으로 기록한 이 시대 우리 이웃’ 3권 등 모두 16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20세기를 살아온 평범한 이웃들의 삶을 기록한 이 책들은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박현수(62)교수를 포함해 전국의 인문학자 100여명이 지난 5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발품을 판 산물이다.

그 실적이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책을 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보았는데 돈을 주고 사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썩 들지 않았어요. ‘향토와 문화’에서 펴낸 ‘나의 20세기’보다는 훨씬 더 분량이 많고 세세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향토와 문화’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거죠. 100페이지 책이지만 여기 기울이는 기획자의 역할, 노고와 열정은 값으로 셈할 수 없거든요. 작지만 강하다 라는 말 있잖아요? 이천의 ‘설봉문화’가 갖는 변별성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 이천에도 대구은행 같은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 멋지겠죠.

사회자 : 어제 오셔서 이천 지역을 쭉 둘러보시면서 많은 생각도 나눠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도 오늘 수업을 어떻게 맞을까 고민하면서 ‘이천의 인맥’이라는 책을 다시 좀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천의 기질과 정체성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하면은, 겨울에 옷을 벗겨 놓으면 수원 사람은 30리를 가지만, 이천 사람은 50리를 간다, 50리를 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인수 전 국장님께서.

그리고 이천사람의 기질이 상충부와 또 하충부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상충부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해에 밝고 좀 타산적인 부분들이 크죠. 근데 대부분의 이천의 하충부를 이루고 있는 많은 민중들의 삶은 어려움이나 역경이 왔을 때도 꺾이지 않고 이겨내고 인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향과 기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은행에서 발간한 이 책자에도 보면 대구 경북 사람들의 기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또 가장 좀 특이한 기획 중에 하나가 43호 ‘선비와 신사’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책자가 있습니다. 선비는 어떤 정신문화를 이루고 있는 동양적 인간상이고, 신사는 현대문화를 대변하는 서구적 인간상이죠. 그런 부분을 서로 대비시켜 가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화적 역량에 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교류하고 있는 안동문화원도 ‘전통에 너

무 발목이 잡혀 있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다행스럽게도 전통에 얽매이는 부분들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 경북 쪽에서 하지 못했던 좀 더 현장성 있고 좀 더 실감나게 다가가는 글쓰기, 그리고 전문인 위주의 글쓰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필진들이 발로 뛰는 글쓰기,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풀어내는 글쓰기로 설봉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문화 아카이브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을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고 세세하게 설명해주신 손영학 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과 문화유산의 만남

- 왜 지금 우리에게 문화재 사진이 필요한가? -

**이태한** 여주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 교수. 20년간 전국의 문화재를 찾아다니며 우리 문화재에 담긴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알리는 사진작업을 해 오고 있다. 한국다큐멘터리사진학회,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개인전으로는 ‘한 순간도 같은 만남은 없다’를 비롯하여 ‘일어서는 침묵’, ‘이형사신(以形寫神)’, ‘여주 남한강이야기’, ‘석탑에 흐르는 불멸의 강’ 등이 있으며 주된 저서로는 ‘나는 누구인가? 운주사’, ‘법고창신-웅기장과의 대화’, ‘한 순간도 같은 만남은 없다’ 등을 저술했다.

### 사진을 대하는 생각

가르치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수업은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을 뵈니깐 울렁증이 생기네요. 더구나 저희 아이가 이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낯설지 않지만 잘 해 보고 싶은 욕심인지 더욱 긴장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저를 소개하는 말씀 중에 브라



질 사진가 살가두<sup>1)</sup>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살가두가 영국을 방문하면 BBC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브라질에는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건 반드시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축구를 잘하죠. 축구 영웅 펠레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사진이 걸려있는데, 살가두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살가두는 브라질만이 아닌 세계가 좋아하는 사진가입니다. 저 또한 살가두를 존경하고 저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한 동안 전 살가두의 완전한 추종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영웅인 살가두를 버림으로 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진 암실 작업을 하던 것을 중단하고 저녁식사 먹으면서 간단하게 반주 한 잔하고 돌아 왔습니다. 다시 사진 암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전의 사진을 다시 들쳐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 내 사진이 어디 갔지? 내 작업실이 맞는데 내 사진이 어디 갔지?’ 같은 사진인데 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모방한 사진이었지 제 자신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살가두가 사용하는 카메라인 라이카M6 바디에 35mm-1.4 줌리릭스 렌즈를 부착한 아주 명품 카메라도 똑같이 샀어요. 따라하려고요. 살가두가 썼던 필름도 똑같이 썼어요. 살가두가 필름 현상하는 방법대로 외국원서를 다 번역해서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사진을 찍고 똑같이 흥내를 내보았지만 내 것, 내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한순간 ‘나는 재능이 없구나. 아 때려치워야겠구나. 아 나는

---

1) 세바스치앙 살가두(1944~)는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 작은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 상파울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건너 가 소르본느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박사과정 수료 뒤 런던 국제개발기구에서 일했다.

29세에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나서 커다란 영감을 얻어 프리랜서 사진가로 전업했다. 그는 국제 분쟁과 기근의 현장에서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적십자, 국제연합난민기구 등과 함께 작업하며,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표현해 대중과 평단의 사랑을 받았다. 사진집으로 ‘다른 아메리카’, ‘사헬, 비탄에 빠진 인간’, ‘불확실한 은총’, ‘인간의 손’, ‘엑소더스’, ‘아프리카’, ‘제네시스’ 등이 있으며, 1994년에 아내 릴리아 와닉 살가두와 아마조나스이미지스를 설립했다. 이 부부는 ‘인스티튜트 테라’를 설립해서 브라질 숲을 살리는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사진을 하면 안 되겠다.’ 남과 같이 해서는 그 사람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건 진리잖습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사진을 그만 두려고 했는데 어떤 우연히 찾아 온 계기가 저를 사진의 길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길어질까 봐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을 위해서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남산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적인 것을 찍어보자.’ ‘정말 국적도 근본도 없이 베끼기만 하는 사진이 아니라, 우리 것을 소재로 경주 남산을 찍어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산을 힘들게 찍었습니다. 그때는 디지털카메라가 아니라 필름카메라였습니다. 자그마한 소형 카메라가 아니라 중형 이상의 대형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경주를 찾았습니다. 십년 정도 경주를 촬영했습니다. 어렵게 석굴암 사진도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진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다시 돌이켜보니 또 아니었습니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내가 아니구나.’

## 내 모습이 사진 속에는 없구나.

제가 사진을 좀 찍게 되니. 인물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진을 전공했으니 남보다는 나은 사진을 찍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본 사람일 뿐이죠. 제가 이분을 봤을 뿐이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아름답고 예쁘다는 이유로, 제가 조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테크닉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진을 찍었다면 그건 예쁜 사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 사진도 아니고 제 사진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태워 없애 버렸습니다.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문화재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과에 찾아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문명대 교수님이 그

나이에 와서 공부를 하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학년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으니 불상, 불화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묘사를 하다보니까 사진 찍을 때 묘사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배워서 남 줄 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부터 다시 사진을 찍으면서 조금씩 뭔가 피사체와 얘기하면서 찍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피사체와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셔터를 누르기 보다는 최소한 대화를 나누며 찍을 것 같아요. 문화재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부처님이 여기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지요.

‘어의한 일로 여기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이 분이 약사불이구나. 그렇다면 이 부처님 앞에 서있는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왔을까, 자식 때문에 왔을까? 누군가 이 자리에서 간절히 빌었을 텐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다르게 보여 지더라고요. 저는 다 같은 불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 왜 문화재 사진이 필요한가?

제가 지금부터 문화재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왜 지금 우리는 문화재를 알아야하고 또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면서 느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도 분께서 자꾸 조시니깐 목사님이 막 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조시면 어떡합니까.” 하며 계속 잠을 깨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도 분이 너무 조시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민망한 신도 분이 옆 사람에게 던지시 한 마디 했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유, 자기가 재워놓고선.”이라고 했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신다면 그건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재미없거나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 되면 목소리라도 크게 해서 졸지 않으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화재 사진, 문화재하고 사진인데요. ‘new things from the old things.’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표현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손주 보실 분도

계시고요 결혼하실 분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내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본적 있으실 겁니다. 미래의 아들, 딸이 태어나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시죠? 알고 싶죠? 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 집 개똥이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new things from the old things.’ 이 말은 ‘오래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자성어가 법고창신(法古創新)인데요. 법고창신이 무엇인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시절에 제 집사람이 병원에 다녀왔는데, 임신을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더라구요. 초음파 사진 속에 작은 형태의 태아지

만 저랑 꼭 닮았다고 흥분해서 말을 하니까 집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닮았다고 당신을 닮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좋아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했습니다. 몇 달 뒤 아기가 나왔습니다. 아기가 방긋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나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습니다. 그래서 내기는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커서 유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족사진을 가지고 족보를 만든다고 사진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갓집에도 가고 본가인 우리 집에도 갑니다. 앨범에서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저렇게 뽐다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거네

요. 똑같이 생겼죠? 그죠? 옛날 사진 속 인물과 지금 사진 속 인물이나 똑같지요. 그 날 봉어빵을 사다 먹으면서 오래된 내기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미래는 과거에 있다는 거죠. 내 아들의 얼굴은 내 가족의 앨범에서 찾을 수 있듯이 문화재는 우리의 DNA가 녹여져 있는 역사의 앨범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문화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오후에 뉴스를 봤는데, 만취한 외제차하고 국산경차하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수입차 운전자는 멀쩡하고 경차의 어린 여학생들은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단순한 사망사고로 보면 차는 좋은 것을 타야 돼. 외제차를 타야 해. 이렇게 끝낼 일이었습니다만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래에서 들어 온 무조건적인 사대주의가 우리의 전통인 것들과 만나 충돌을 일으키면 우리는 전멸해요. 다 죽었어요. 짧은 뉴스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그날

따라 뉴스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국수주의자가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를 알기 위해서라면 남을 알아야 하고, 남을 통해서도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까지나 우리 것을 고집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것을 너무 하찮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외국 것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 두 개를 융합해서 그 위치와 좌표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의 탐파 = 탐은 쌓는 것이 아니라 짜는 것이다.

제가 ‘한국의 탐파, ‘즉여(即如)의 미’란 제목의 사진전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탐은 쌓는 것이



아니라 짠 것이다.’ ‘탐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응축된 종합선물세트다.’

우리나라에서 한번은 세계박물관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리는 것처럼 세계에 있는 박물관 관장들이 다 모이는 세계박물관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린 거죠. 박물관올림픽이 열리면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셨으니까 극진히 대접도 하고 우리 문화가 위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어딘가를 가야 하겠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럴 기회가 생겨서 외국 분을 모시고 가야한다면 혹시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궁궐, 박물관 등에 가시겠지요. 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곳이죠. 생각해보셨나요? 우리가 자랑하는 석굴암도 있고 팔만대장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큰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니 박물관대회가 뉴스에 나와야 하잖아요. 당연히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 관장이 뉴스에 나가서 한국의 문화는 대단하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잖아요. 실제로 인터뷰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한국적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오래 된 화두로 언론은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한국적인 것이 세계 제일이니, 그래서 우리 문화는 우수한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했고, 그런 것이 정통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왜요? 가령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난 후 식사는 잘 하셨냐고 물으면 인사말로 “예, 맛있

습니다.” “아, 독특하네요.”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딱히 칭찬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는 상투적인 말일 겁니다. 보통 할 얘기가 없으면 그렇게 밖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문화재에 대한 갖는 우리의 자부심이었습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박물관장들을 모시고 경주 감포 문무대왕릉을 보여주려고 가는 길에 우연히 감은사지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감은사지 가보셨어요? 굉장히 큰 탑이 있죠. 쌍 탑입니다. 감은사지 삼층석탑을 지나치다 일행 중 한 분이 저게 무엇이냐? 물으니 스투파, 탑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참고로 탑의 명칭에 대하여 우선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탑은 원래 ‘탑파’의 줄임말이고 ‘파고다’라고도 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파고다 공원이 있는데 이제는 탑골공원으로 명칭이 바꿨죠.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일행은 일정에 없었던 것을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감은사지 삼층석탑이야말로 지금까지 봤던 어떤 한국의 문화재 중에서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한국이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고 대단한 작품이라고 다른 나라 대표들이 아우성입니다.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 없이 많은 탑들이 우리는 왜 그렇게 대단한지 잘 몰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탑은 ‘쌓은 것이 아니라 짜는 것’이라는 거죠. 서양에서는 탑은 쌓는 것이라고 생각 했죠. 그런데 세계 어느 민족과도 다르게 우리는 탑을 짚습니다. 우리네 탑은 가구 짜는 것처럼 그 단단한 돌을 파가지고 돌과 돌을 서로 짜서 끼워놨어요. 세상에 돌을 짜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 민족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섬세하고 독특한 기술은 물론이고 나무도 아닌 돌을 다듬어 짜려고 하는 생각의 전환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발견할 수 없는 소중한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탑은 ‘종합선물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종합선물이나 하면 종합선물은 다 들어 있는 거죠. 탑은 그렇습니다. 탑은 당시의 석공의 테크놀로지, 회화



와 서체를 알 수 있죠. 더구나 탑 안에 사리함으로 금속공예도 알 수 있는 거죠. 사리함을 감싼 비단에서는 섬유 및 직조기술을 알 수 있죠. 더구나 거기서 한지가 나오잖아요. 석가탑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나왔는데 세계 최초의 인쇄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탑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기술을 모두 모아놓은 우수 유전자 종합선물세트라고 생각합니다.

## 한지와의 인연

사진을 뽑을 때 쓰는 인화지는 대부분 수입산 종이입니다. 저는 한지를 이용해서 사진을 뽑고 있습니다. 한지는 우리의 정신과 혼이 들어있는 종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지와 화선지를 비교하면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화선지에 그리면 잘 그려진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한지는 투박해서 웬만큼 필력이 있지 않고서는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지는 두고두고 옆에 있어야 할 마누라 같은 조강지처인데 화선지는 쉽게 좋았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쉽게 멀어지는 첩 같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화선지에 그린 그림은 시간이 지나면 종이와 색이 벌어지고 터지고 깨진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한지와 신문과 비지정 문화재를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지와 신문을 배접을 하고요. 배접한 한지 위에 불상 사진을 인화 합니다. 한지는 우리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전통성이고 배접한 신문의 이미지는 현재 지금 우리시대의 모습이고요. 목이 잘려 있는 불상의 모습은 우리 문화재와 정신이 홀대받고 있는 처지를 비판하려고 한 것입니다.

## 운주사 = 사찰의 인식이 아닌 새로운 인식

운주사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천 불, 천 탑으로 유명한 사찰입니다. 지금 보시는 불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과 생각을 투사한 것입니다. 작가의 해석과 정



체성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느낌을 자신의 시각으로 표현한 사진입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려는 작가의 마음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사찰의 불상이라는 고정 관념을 벗어나 자신만의 재해석으로 문화재를 감상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 한국의 옹기장인 = 법고창신

이천, 여주는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주로 불상이나 탑 사진을 많이 발표하다보니 “저 사람은 그것만 찍을 줄 알아.” 그래서 사람 사진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국에 있는 옹기 장인들을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옛 것을 지키시는 장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고창신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걸어간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이 보인다는 의미로 옹기는 옛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 문화재 사진 = 문화재 + 사진

말벌 집짓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벌이 냇가나 저수지 같은 데 가서 동그랗게 흙을 모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입에서 침을 게워내어 바위에 붙이고 이렇게 하나씩하나씩 계속 나르고 붙여서 결국은 딱하니 커다란 말 벌집을 만들어 냅니다. 말벌의 집 짓는 기술은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말벌이 학교를 다녔을까요? 건축학과라도 다녔을까요? 수업료를 내고 배웠을까요? 아니죠. 배우지 않았습니다. 말벌에게는 각인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각인된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각인된 문화가 있습니다.

광우병이 왜 생겼나요? 소가 미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소는 원래 오

래 전부터 풀을 먹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소를 어느 순간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기로 된 사료를 먹였죠. 풀이 아닌 고기를 먹으니 소가 미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광우병이 생긴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라든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우병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00년 아니 그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켜왔던 우리의 전통적 문화나 습관들이 어느 순간, 짧은 시간에 서양의 문물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우리 것으로 체질화시키기도 전에 느닷없이 뭔가와 합쳐지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받아 소가 미치는 것처럼 뭔가 이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 게놈 지도

미국의 한 지역에서 60년 동안 마을에서 낳은 애들을 분석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에 출생할 아이들은 어떻게 다를까? 하는 연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래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일 것 같습니까? 키가 클 것 같습니까? 작을 것 같습니까? 마를 것 같습니까? 뚱뚱할 것 같습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요?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미래의 아이들은 지금보다 당연히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사 결과에서는 아주 작고 뚱뚱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몸과 운동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 중에도 캘

리포니아라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완벽한 신체에 관심이 많아서 운동하고 근육 키우려고 헬스클럽 또한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또 유명한 것은 시험관 아기 출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임의 문제로 시험관 아이를 출산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이의 유전적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 시험관 아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염색체 조작으로 눈동자의 색깔을 원하는 대로 주문이 가능하답니다. 머리카락 색도 가능하고 지능도 가능하답니다.

무섭죠. 자, 남자를 원하세요? 여자를 원하세요? 예, 남자이면 500달러 추가입니다. 키는 얼마를 원하세요? 180이상이면 2000불 추가입니다. 자, 눈동자 색. 파란 눈을 원하세요? 검은 눈을 원하세요? 파란 눈을 원하는데요. 3000달러 추가입니다. 아이큐도 고르십시오. 정말 섬뜩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운명이 지어진다고 생각하면 충격인 상황입니다.

## 빅 데이터 big data



여주에서 이천으로 오다보면 국도 중간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편의점을 개업한다고 해서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차만 내달리는 국도에서 사람도 얼마 다니지 않는 편의점을 개업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의심스럽지만 리서치 회사에서 분석한 결과 여기 차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차렸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성업 중입니다. 1년 동안 예상 매출이 총30만원 오차 내에서 틀린답니다. 그게 빅 데이터입니다.

금융자산가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데이터를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서울 강남역의 상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의 점포에 업종 하나만 가졌잖아요. 이제는 한 점포에 업종이 세 개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전에 무슨 점포를 하다가 오후에 다른 점포로 바뀌고 심야에는 또 다른 점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인도 세 명이예요. 12시까지 지분이 있는 사람, 12시부터 6시까지 지분이 있는 사람, 6시부터 밤까지 지분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 지식경제부가 2011년도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에서 그 첫 번째는 빅 데이터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구글 엔그램 뷰어<sup>2)</sup>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가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러브라고 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단어가 쓰였던 빈도에 따라서 연도별로 그래프로 나타내 줍니다. 어떤 해에는 그래프가 올라가 있고 어떤 연도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진 연도를 해아려보면 그 당시에 큰 전쟁이나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동시에 검색할 수도 있어요. 죽음과 삶이라는 두 단어가 만나는 교차점을 통해서



세계사를 찾아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크게 생겼어요. 키워드를 통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빅 브라더’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금융 자산가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최고 자본가로 쳤다면, 이제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빅 브라더라고 합니다. 빅 브라더가 세계

2) ‘구글 엔그램 뷰어(<http://books.google.com/ngrams>)’다. 디지털화된 텍스트들 중에서 특정 단어나 구절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측정해 그래프로 보여준다.

를 움직이는 거죠. 날씨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산업이 어떻게 되고 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것이 예측과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것이 지금은 돈이라면 미래에는 통장에 돈이 아닌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느냐가 부자의 기준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정보의 독과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사유화할 것인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칼처럼 말이죠. 칼이 사람을 죽였다고 칼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잘못 쓰일 경우엔 문제지만 잘 쓰일 때는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물건이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이런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재+DNA+Big Data 최고매체 =사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빅 데이터화시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천에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탑이 있듯이 여주에는 영월루에 보물로 지정된 탑이 두 개 있습니다. 이천의 탑은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주 탑에 대해서 관계자 분들에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여주에는 영월루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의 영월루는 원래 그 자리가 아닙니다. 공원화시키기 위해 영월루를 거기로 옮겨다 뒀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름이 영월루로 정해졌습니다. 그 공원 안에 보물로 지정된 탑이 두 개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셨나요? 박물관 야외에 국보나 보물들이 조각공원의 조형물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고향을 잃은 탑과 불상들이 박물관의 야외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조경수 꽃아 둔 것과 뭐가 틀려요? 문화재가 태어나고 그 지역과 인연을

맺으면서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부터가 달라져야 합니다.

탐은 그 자리를 떠나면 문화적 가치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탐은 좌표와 같습니다. 탐을 기준으로 대웅전의 위치가 예측이 되고 탐의 크기로 미루어 사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옮긴다면 옮기더라도 의미가 있는 곳에 옮겨야 하는데 그냥 합당한 이유도 없이 아무데나 조경공사 해놓고 대충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구석에 처박아놨다는 인식이 가슴 아픕니다.



여주는 영릉이 있습니다. 굉장한 문화자산입니다. 문화재를 상품화한다는 발상이 좀 어색하지만 여주에서 영릉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영릉을 찾는 관광객들은 여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휴지만 버리고 간답니다. 와서 먹고 자고 돈을 쓰고 가야하는데 썩 와서 휴지만 버리고 관광버스 타고 가버리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진 동호회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자전거 동호회 다음으로 많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수가 천 이백만 명이고 사진 동호회 수는 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진 동호회가 한 번씩 거쳐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양평입니다. 양평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지요. 바로 두물머리입니다. 전원일기 드라마 나올 때 배경으로 나오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카메라를 들고 사진 좀 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양평으로 갑니다.

두물머리. 고목나무 같은 거 하나 서 있죠. 고목나무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고목나무가 쓰러지면 다시 가짜라도 박아놔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고목나무가 실루엣으로 보이면 그야말로 풍경사진의 교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은 주제와 부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양평 두물머리에서 사진촬영 구도 잡는 거 연습한다고 성지처럼 찾아갑니다. 그러니깐 동호회가 천만 명이면 천만 명이 찾아간다는 얘기죠. 이천이나 여주에서 하는 도자기 축제에 방문객이 많다고 하는데 천만 명이 옵니까? 못 오죠? 어떤 축제도 천만이 오는 축제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성공한 함평 나비축제라도 천만 명이 오는 축제는 아니거든요.



다시 여주 영월루 공원 안에 있는 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탑이 보물로 지정된 탑인데 탑이 안에 박혀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주사람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주에는 한 장소에서 일출과 일몰

을 같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영월루 한쪽 구석에 박혀서 버려져 있다는 취급을 받을 바에야 오히려 일몰과 일출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탑을 옮긴다면 아마도 양평 못지않게 사람들이 다녀 갈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관광 상품화 한다는 자체가 큰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봉공원에 있는 탑도 옛 세무서에서 옮겨 온 것입니다. 제가 전국의 탑을 촬영할 당시에 이천의 탑도 촬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세무서 입구에 서 계신 탑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재촬영을 위

해서 다시 세무서에 갔는데 없어서 어디로 갔을까 했더니 설봉공원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 공원 사람들도 잘 모르는 후미진 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또 잃은 가슴 아픈 탑입니다. 원래 자기 자리로 되돌려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다가가면서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우리의 기록문화 세계문화유산 지정

조선왕조실록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실록의 기록성입니다. 사소한 일들까지도 안 빠뜨리고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실록은 정치적인 부분과 왕의 일상적인 생활 부분



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임금님이 기침을 몇 번 했고, 궁궐 부엌에 숟가락, 밥그릇이 몇 개가 있는지 일일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이러한 기록 정신으로 우리 문화재를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 두면 훗날에 뭔가 우리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이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다 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맹자의 의미변화

문맹자라고 하면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했는데 현재에는 이미지나 영상 메시지를 못 읽는 사람에 대해서 문맹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신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같은 신문사보다는 훨씬 뒤에 만들어진 신생 신문사입니다.

신문사를 창립하면서 기존의 우수한 신문사와 경쟁하려면 자신만의 특별한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편집회의와 경영회의 결과, 신문의 전체 지면에서 50%이상을 반드시 사진을 이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지나서 1등을 했습니다. 이제는 읽는 신문이 아니라 보는 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문 지면에 글보다는 실린 사진 이미지에 우선 시선이 끌립니다. 관심이 있는 이미지가 눈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 해당되는 기사를 읽으려는 것이 요즘 대중들의 신문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 입장 바꿔 생각하기

제가 애국가 구절에 나오는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코스모스를 찍고 싶었습니다. 코스모스 꽃 위에서 떠다니는 별을 접사촬영 하는 일은 매우 많은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근접 촬영이기 때문에 노출이 어두워져서 셔터스피드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목대가 아리고 가녀린 코스모스는 마냥 흐느적거립니다. 정확히 초점이 맞는 사진을 찍기가 어렵습니다. 삼각대를 이용한다고 해도 별이 한 자리 한 꽃에 멈추고 자리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로울 때도 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하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스모스 무리에

서 조금 떨어진 곳에 홀로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유난히 흔들리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가을이 되기 전 어느 여름날에 동네 꼬마가 흙장난을 하면서 자신을 뽑아다가 따로 떨어뜨려서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자신은 자신들의 부모 형제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자라서 옮겨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난 이런 코스모스의 안타까움을 사진으로 표현하고자 했고 저속 셔터를 이용하여 흐느끼며 떨고 있는 코스모스의 어깨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슬픈 사연을 듣고 코스모스의 입장에서 사진촬영을 한 것입니다. 코스모스는 마냥 즐거울 거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물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동물원 이야기

아이가 6살 때의 일입니다.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다녀오라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한가한 평일을 이용하여 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에게 오늘 재미있었느냐고 문자 화를 내면서 다시는 안 간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림책이나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차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윽고 눈물을 터뜨리며 오늘 하루 종일 어른들 궁둥이만 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들의 눈높이에서는 동물들을 볼 수가 없었겠구나! 아이의 입장에서 본 동물원이 아니라 내 눈높이에서 본 동물원이었구나! 비로소 난 내 눈높이의 앵글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이 나의 사진 폭을 넓혀주는 아이러니가 되었습니다. 다다리스트이면서 초현실주의 사진의 대표주자인 만 레이(Man Ray)나 모호이 나지(Moholy-Nagy)는

뉴 비전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신이 늘 찍어 왔던 앵글(카메라 눈높이)에서 1인치만 올려서 보거나 내려 본다면 생전 처음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경험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일반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새롭게 보고자 한 그들의 노력은 사진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역사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 고정관념을 버려라

"어느 날 혜능선사라는 젊은 승려가 지나가는데, 늙은 스님 두 분이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한 스님이 '바람에 깃발이 흔들린다'고 하니, 다른 스님이 '아니다. 깃발에 바람이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두 스님은 젊은 스님에게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젊은 스님은 두 스님 모두 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람도 깃발도 아닌 당신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물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자.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하자. 간혹 동호회나 협회에서 단체로 출사를 떠나고자 할 때 장소를 정하는 것이 매번 큰 걱정거리입니다. 회원마다 이미 다녀갔던 장소를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본다면 예전에 찍었던 피사체라고 할지라도 매번 새로운 피사체로 혹은 다양한 느낌으로 내 눈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내려갈 때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세 가지만 기억해도 이미 사진작가가 될 수 있다 4-3-3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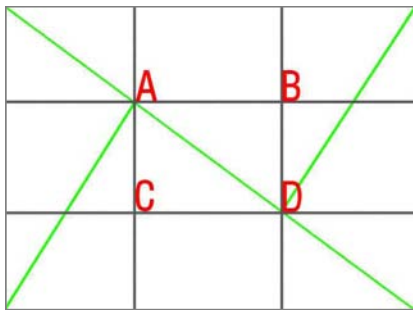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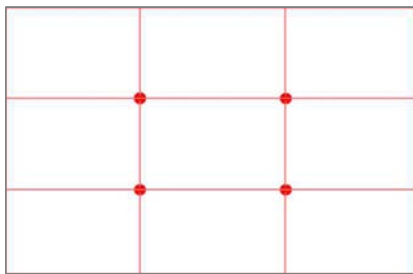
### 1) 화면의 네 귀퉁이를 살피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생애 첫 운전에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해서 무조건 앞 만 보면서 직진만 하다가 부산까지 갔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긴장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처음 사진을 시작하거나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는 화면의 주변 정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눈에 들어왔을 때,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화면의 네 귀퉁이를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중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다 보면 사진 주변에 전봇대, 전선줄, 간판 등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피사체 주변에 너무 많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라. 사진은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족은 화면 밖으로 빼 내라는 말입니다. 가능한 한 장의 사진에 하나만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보여 주려고 욕심을 부린다면 감상자의 감동은 촬영자의 욕심과 반비례합니다. 과유불급의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 2) 화면을 셋으로 나눈 후 (황금분할-Golden Section Fra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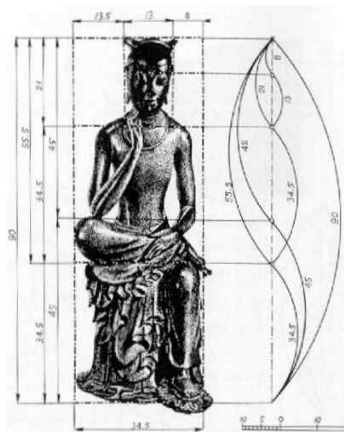
황금분할(Golden Section)은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되었는데 가장 조화가 잘 된 직사각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건조물이나 공예품에는 흔히 황금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윤곽이나 우리나라의 금동 미륵 반가사유상, 석굴암의 본존불,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는 황금비가 적용된 예술작품입니다. 황금비율은 건축·조각·회화·공예·사진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고, 솔방울, 파인애플 열매, 국화



의 꽃잎 등 자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로 및 세로로 화면을 나누다보면 교차하여 서로 만나는 점(A·B·C·D)이 있습니다. 이 점을 sweet spot이라고 합니다. 촬영될 주 피사체를 가능하면 sweet spot(A·B·C·D)에 위치하도록 조절하면서 촬영하면 화면의 구도가 보다 안정적이 될 수 있는 촬영 구도 법입니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피사체를 왼쪽(A·C)보다는 오른쪽(B·D)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구도에 집착하다 보면 사진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릴 수 도 있습니다.

황금분할 구도는 인간의 눈에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비율을 적용시킨 구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화면 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특색 있는 화면구성을 만들 수 없는 결정적 단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진이 회화의 시녀 역할로 사용되던 암흑의 시대로 회귀(回歸)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로 사진뿐만 아니라 세로 사진도 반드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화면의 비율은 족자나 주련과 같이 길게 늘어지거나 펼쳐진 파노라마식 화면구성의 길게 그림입니다.



### 3) 하나 둘 셋 찰칵!

보석 사진 촬영으로 유명한 어느 사진가는 아무리 작은 보석일지라도 촬영할 때 1톤이 넘는 쇠판을 깔고 그 위에 삼각대를 올려놓고 촬영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촬영시간은 건물주위의 차 다니는 진동 때문에 심야 시간을 이용하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는 주위 스템은 물론 자신도 호흡을 멈추고 케이블 릴리즈를 누른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의 최종 단계에서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도 더욱 침착하여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셔터를 나누어서 누르도록 합니다.

아무리 순간 포착이 잘 된 사진이라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흔들린 사진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사진으로 선택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손으로 들고 찍은 사진은 절대 대형인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진이 회화를 대신하면서 점차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신축되어지는 대형 빌딩의 현관 로비나 오피스 룸을 장식할 수 있는 예술품은 확대가 무한정 가능한 사진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여 흔들린 사진은 사진이 출력되어야 할 본래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공간과 예술의 만남

- 예술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남윤호** 현재 인덕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교수. 이천시 신문면 수하리 출신으로 1994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광고디자인과를 졸업했다. 현재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초대디자이너로 활동하며 개인전 4회(한국의 이미지전) 등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10여 년 전부터 여주에서 필우재 카페&갤러리를 운영하며 우리나라 전통과 근현대사 물건에 관심을 갖고 수집·연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쉼터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자 : 오늘은 인문학 강좌는 강의실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모처럼 봄꽃 향기를 맡으며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향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재능과 감각, 그리고 특별한 생각을 가진 그림 비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향유하려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술전람회를 간다든지, 예술공연을 보러가는 것은 일종의 사치, 허영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만 불을 넘어가고 2만 불을 향해가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때부터 문화예술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문화예술 분야에 사람들이 돈을 쓰고 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예술공연을 보고 전시회에 가고 이렇게 된 거지요. 또 언제부턴가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예술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 졌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분야에도 바우처제도가 생겨서 문화소외계층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남는 거지요.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예술을 공연, 전시 형태로 보고 관람할 뿐이지 예술을 창작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직접 예술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누구의 예술 작품을 그저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방식보다는 예술가의 예술창작 과정에 참여하고 관여하면서 능동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생활예술, 생활문화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생활문화예술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문화예술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생활문화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술을 이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재미있게 구현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분을 알게 된 것은 몇 달 전, 지난 해 겨울이었습니다. 이곳 필우재를 돌아보며 생활공간 곳곳에 소소한 예술작품들을 은근슬쩍 배치시켜서 전체공간을 하나의 생활문화 예술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공간과 예술의 만남을 보여주기엔 꼭 안성맞춤인 장소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렇게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갤러리 필우재의 관장이시고 인덕대 미디어아트엔디자인학과 교수이신 남덕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필우재에 대한 이야기

반갑습니다. 좋은 만남이 기대되네요. 제가 이쪽에 필우재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 중에 몇 사람이 수석 매니아들이 있어요. ‘여주 이포 쪽에 수석이 좋다는데 가

서 수석을 보고 싶다. 같이 가겠느냐?’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이포 강변 쪽으로 탐석을 하러 다니다가 옆에 보니 본토박이 부동산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 내가 갤러리 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적합한 곳이 있으면 보여 달라고 했더니 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인연 따라 가는 거라는데 저는 이천이 고향이지만 설악면, 포천 그쪽만 보러 다녔어요. 또 집이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한 군데 본 것이 지금의 필우재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딱 마음에 들어서 전액 대출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월급 타서 다 갚다 주더라도 무조건 저지르자.’ 그래서 여길 사게 된 거예요. 지금도 갚느라고 고생하는데, 그때 대출을 받아서 사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필우재는 없었겠죠?



저는 경기도 이천사람입니다. 신둔면 수하리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내고 서울 가서 대학, 대학원까지 다녔어요. 학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아끼고 하니 생활력은 강한데 좀 고달프게 살아온 거죠. 제가 옛날부터 꿈이 갤러리를 가지는 거였는데 그래서 전시장을 다니면서 내 작품을 걸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생각했거든요. 여기를 구입하고 나서 처음에는 갤러리만 운영하게 되었어요. 제가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공부를 하고 또 개인전을 4차례 하고요 여기저기 작품도 팔고 하는데, 처음에는 카페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산 건 아니었어요. 갤러리를 하면서 내가 노후 대책으로 예쁘게 꾸며보자 해서 산 거였어요.

이곳을 가꾸느라 꽤 많은 시간과 품을 들였습니다. 서울에 대학 강의가 있는 날을 빼곤 매일 3~4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일을 했어요. 풀을 뽑고 청소를 하고 나무도 심고 그랬습니다. 낮과 호미를 들고 꽃을 심고 잔디를 깔았습니다. 거의 농부처럼 지냈어요. 돌맹이 하나라도 갖다 놓고 조화롭게 만들어보자 이런 일념으로 쪽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잡고 9년째가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사람들이 여기 참 예쁘다, 카페를 같이 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처음 와서 갤러리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하루에 전화가 꼭 2통이 와요. 하나는 우리 집 사람, 하나는 잘못 걸린 전화구요. 전화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오니까 ‘아 이런 때는 누구라도 왔으면 좋겠다. 너무 적막하다’ 그래서 카페를 하게 된 겁니다. 한쪽은 갤러리가 이렇게 있고, 다른 쪽은 살림집을 개조해서 카페를 열었어요. 오늘이 카페 차린 지 2년이 된 날이에요. 처음 카페를 열고나서 두 번째 온 손님이 자기가 이렇게 멋있는 카페를 처음 본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제대로 되었나보다.’

나는 카페를 별로 가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고 했는데 멋있다고 그러니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해보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국의 이미지 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든지, 유년시절의 추억 같은 아스라한 그리움의 이미지들을 형상화하고 단순화시켜서 한국적 이미지를 화폭에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왔거든요. 저는 취미가 옛날 물건들을 좋아해요. 골동품, 문짝 이런 것들을 구해서 그런 옛 물건들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건데 만들다 보니 독특한 형태가 나온 겁니다. 또 그런 이미지가 우리의 정서에 맞다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이고요.

골동품을 쪽 모으다보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고 먹고 쓰고 했던 생활용품들 모아 놓은 것을 곧 보시게 되는데, 저도 옛날에 담배갑, 빈 병들이 집에 있으면 그런 구질구질한 것은 다 버렸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그런 것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고 있어요. 원기소 병, 우체통, 공중전화박스, 술 빈병들, 그런 옛 시절의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가는 세월이 아쉬

운 것 같고, 또 옛 모습이 그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으게 되고, 많은 분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죠.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다시 젊어지는 것 같고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자주 빠지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모을 생각이에요. 제가 여주에 와 있지만 이곳을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만난 분들도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페를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이 궁금하신 게 ‘필우재’라는 카페 이름이 제 이름이냐고 물어봅니다. 제 이름은 남윤호입니다. 카페 이름은 제가 아는 스님이 지어 주신 거예요. 반드시 필(必), 벗 우(友), 집 재(齋) 해서 좋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 어떤 필연적인 인연으로 벗이 되어 모이는 곳, 그런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카페를 열고나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기인들도 많이 오시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오시죠. 제가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제가 안내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필우재의 전시 공간이야기

제가 만들고 싶은 갤러리는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갤러리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나름 테마와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갤러리를 꾸밈습니다. 여기 있는 글씨 디자인 작품들은 몇 차례 전시가 되기도 하고 개인전 끝난 다음에 그린 게 또 일부가 있고 그래요. 그림은 한국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이 많은데, 우리나라 디자인, 미술세계를 제 나름대로 재조명하고 재창출해서 만든 작품들



을 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을 보시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 갖고 계시던 물건들, 많이 봤던 일상 생활용품들이예요. 이런 것들, 미닫이가 있는 TV, 전화기, 소주병 빈 거, 그리고 지금 이런 사흘짜리 대병은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다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야 저런 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이게 재미난 거예요. 내가 아끼는 건데 용이예요. 이거 여주 이포 쪽에 돌 찾으러 갔다가 주은 거예요. 가지고 와서 조금 손을 보고 용이 여의주를 문 것 같이 연출을 해 놔가지고 탄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소주병들이 있습니다. 백화, 삼합,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시면 병이 기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진짜 옛날 초기에 나온 것들이예요. 그 다음에 양각이라 그래 가지고 병 표면에 글씨가 새겨지잖아요? 이런 거는 빨대로 불어서 만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비싼 겁니다. 이런 데서도 흔히 보기 힘든 것들, 예를 들어 삼성 사이다는 빈병이라도 귀하고 보기 힘들어요. 롯데껌 꺾는 거, 1960년대 아이스케키 통도 귀한 물건이지요.

삼양라면하고 돼지라면, 추억의 우체통... 그리고 이거는 풍년초라고 전매청에서 나온 담배 있잖아요. 이게 담뱃잎을 잘게 썰어서 그냥 넣은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가 별로 없으니까 신문지에 말아서 피우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음에 그 개피로 나오는 담배가 나왔어요. 아리랑, 청자, 신탄진, 파고다, 새마을 이런 거 심부름으로 많이 사다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담배들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 생각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 필우재 기러기 이야기

필우재에는 오리가 참 많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리가 아니라 기러기예요. 기러기를 형상화한 겁니다. 저에게 기러기는 가족과 같습니다. 기러기를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10여 년 전 어느 골동품 주인이 제게 골동품도 무작위로 구입하지 말고 테마를 정하라고 권유하기에 기러기를 찾게 되었어요. 기러기가 저에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유물이나 예술작품을 보면 도자기, 장신구, 솥대, 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러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부터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거나 경사가 있을 때 솥대를 세워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기러기로 장식했는데 우리 문화 속에서 솥대와 기러기는 하늘송배의식과 단군신화 이전의 신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쌍의 기러기, 혹은 새끼를 거느린 기러기는 행복과 화합, 그리고 장원급제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묘사되기도 했어요. 저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기러기가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고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좋은 친구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필우재에는 기러기를 테마로 한 작품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 앞에 버려진 옷걸이로 만든 작품은 기러기 떼가 잔디밭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돌로 조각한 기러기 한 쌍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갤러리와 밖에 있는 야외전시장을 잘 둘러보시면 숨은 그림처럼 기러기들이 숨어있습니다. 나무 위 가지 위에, 올라가는 계단에, 그리고 갤러리 타일 위에서 유유히 헤엄쳐가는 정겨운 기러기 한 쌍을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보시면서 의외의 작품을 발견하는 재미도 꽤 쏠쏠할 거 같습니다. 제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과 대답

질문 1 : 여기 이포 천서리에 들어오시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없으셨는지,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거나 예술협업 같은 프로젝트를 해보신 건 없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자 : 물론 처음 여기에 들어올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도로에서 골목길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네주민들한테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인근지역을 둘러보니 문화자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천서리가 막국수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인근에 파사산성이 있습니다. 또 남한강 경관 중에서도 이곳 이포가 아주 뛰어납니다. 옛날부터 유명한 시인묵객들이 이포를 지나다가 시 한

수씩은 읊었다고 해요. 이런 문화자원들을 잘 묶어서 디자인하면 관광 차원에서든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서리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관광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파사산성), 먹거리(천서리막국수), 볼거리(남한강)를 넣어서 지역브랜드를 디자인했습니다.

2009년에 마을회관 준공식에서 제가 디자인한 지역브랜드를 발표하고 마을에 기증을 했습니다. 천서리 주민들이 별모양으로 된 지역브랜드를 상가와 자동차에도 붙이고, 면민의 날에도 사용하는 걸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감사패도 받았어요. 이제 필우재가 제 개인 갤러리나 작업장이 아니라 천서리 주민들의 쉼터도 되고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 삼국유사에서 이천유사로

- 이천의 구비전승에서 삶의 진실을 읽다 -

**신동훈**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구비설화 전공으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국을 대상으로 이야기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설화에 담긴 민간의 삶의 자취와 세계관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전통 이야기문화의 현대적 재현 가능성을 탐색해 왔다. 쓴 책에 〈역사인물 이야기 연구〉, 〈삶을 일깨우는 옛이야기의 힘〉, 〈살아있는 한국신화〉,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등이 있다.

**사회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힘든 신동훈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시고, 개인적으로 『옛 이야기의 힘』이라든지 『왜 주인공은 길을 떠나야 할까』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정서, 삶에 대해서 끌어낼 만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우리가 시작한 이천의 이야기꾼 양성사업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의미도 편안하게 머물던 공간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어느덧 떠나야 하는 시점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만나는 우리 고장의 전설이나 민담에서도 그렇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지, 옛 이야기의 의미가 우리 삶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찾아가는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동훈 교수님은 양평에 살고 계십니다.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과 우리 지역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시작한 이천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찾아 떠나는 용감성과 결단성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훈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 이야기 하나 : 사기(史記)에서 유사(遺事)로!

저는 옛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이야기꾼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면 어디든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전



설이나 민담에 담겨 있는 지역의 내력이라든지 거기에 담겨 있는 문학,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정한 주제라는 말씀을 듣고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 이야기를 장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기에서 유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시대 역사와 삶을 기록한 대표적인 우리 고전이죠. 그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하면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전기에 나왔고,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에 나왔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나 역사적 가치로는 삼국사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삼국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저 같은 사람은 삼국유

사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중세적인 유교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책으로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사마천의 사기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삼국사기의 핵심적인 지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처럼 역사를 기술하는데 사실만 가지고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역사는 다 이야기 역사였거든요. 신화나 전설,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삼국사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열전’이라는 이야기 부분입니다. 온달 등 수많은 인물들에 관한 서술들이 있는데, 이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도 다 합리적으로 재구성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몽신화 같은 경우도 꼭 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살리지만 그 외에 온갖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구 삼국사에는 해모수가 하백하고 도술 시합하는 부분이 앞에 있고 해모수가 하늘에서 다섯 마리 용이 이끄는 오룡거를 타고 내려와서 궁전을 세우는 신화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빼버려요. 그게 삼국사기가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었습니니다.

거기에 비하면 삼국유사는 훨씬 뒤에 나왔지만 삼국유사는 합리성보다는 신성성, 상상성을 함께 품으며 그 속에서 삶, 인간, 역사를 다 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땅이 불국토이며 세상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족주의, 지역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저자인 일연스님이 구비전승되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전의 설화기록들, 고승들의 내력이나 기이한 행적들을 다 수집을 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역사가 되는 거죠. 읽다보면 삼국사기보다도 삼국유사가 ‘그때 사람들도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며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역사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이전 지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다. 여기서 장수가 났다.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영웅이 여기서 태어났다. 그런 것들이 전설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삼국유사의 세계관이에요.

## 20세기, 사기(史記)의 시대

제가 문화사 공부를 하며 설화조사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록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세기는 또 하나의 사기(史記)의 시대입니다. 20세기에는 사실, 과학, 합리성을 중시하는 시대였습니다. 모두 역사, 사실에만 관심을 갖고, 옛날이야기, 전설, 민담의 가치를 경시하던 시대였어요. 근대적인 교육을 받고 6.25 전쟁을 겪으며 전설이나 옛날이야기는 다 관심에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옛날이야기 해 봐야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옛날 이야기하면 가난해진다. 하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에 탑골 공원에 노인들이 많이 모여 계셨는데 2000년 전후로 탑골공원 사업을 하면서 종로 앞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도 오후에 가면 적어도 몇 천분 이상의 노인들이 꼭 차 있습니다. 서울시내 노인들의 집합소인 셈이지요. 여기 가서 옛날이



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다섯 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한테 옛날이야기 채록하는 과제를 내주는데 종로에 노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면 혼나고 오거나 “아니 젊은 친구들이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무슨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해! 어서 가!” 이렇게 혼낸답니다.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관심에 옛날이야기는 없습니다. 전설은 하찮게 봅니다. 현실 세상, 역사, 경제, 돈 거기에 관심이 집중된 합리적인 세대죠. 세상 돌아가는 일에 환하고 논리가 정연하고 정보들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이야기 마지막 장면은 예전 탑골공원에 98-99년까지는 이야기관이 있었습니다. 탑골공원의 마지막 이야기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금자탑’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검은 모자의 사나이, 김한 어르신인데, 많을

때는 4~5백 명이 둘러서 이야기를 듣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야쿠르트 갖다 드리고 차비도 드리고 하는... 아무튼 1990년대까지는 이런 풍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 말고도 다른 이야기꾼이 있었어요. 순서를 기다리다가 한 분이 30분 내지 1시간씩 순서대로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모이는 사람들은 백 오십 명 정도, 정말 많을 때는 3~4백명 정도였습니다.

종묘공원에서 이야기판을 벌인 모습입니다. 인원이 확 줄었죠? 저희 팀이 판을 벌였습니다. 매일매일 자생적으로 이야기판이 벌어졌던 탑골공원과 비교가 되죠. 보시다시피 이야기꾼은 있지만 듣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모두 제가 데리고 간 학생들입니다. 이처럼 이야기꾼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시비를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세상에 불만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기분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을문화가 살아 있는 시골경로당과는 달라요. 요즘에는 노인들이 좋아하는 시집살이 이야기, 전쟁 치르는 이야기 그런 걸 조사를 많이 다녔고요. 전설이나 민담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크게 들으나마나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설이나 민담에 대한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설이나 민담을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고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이야기 둘 : 전설과 삶의 진실

### 아기장수 이야기

이천 호암산 아기장수 전설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아기장수 전설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설화가 아기장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가난한 오막살이집에서 애를 낳죠. 그런데 애가 이상해요. 부모가 밖에 나갔다가 오면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떤 때는 시렁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어느 날 몰래 일 나가는 척하다가 딱 문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니 애가 기어 나오더니 날아올라서 시렁 위에 올라간 거죠. 날개가 달린 거죠. 옛날에 장수가 태어나면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다고 했거든요. 날개로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날개를 없애려고 했더니 죽었다고 되어있는데, 보통 엄마가 무거운 걸로 눌러서, 아이를 못 날아다니게 해요. 이대로 두면 애도 죽고 우리도 죽고 마을도 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또는 마을사람들이 아기장수를 눌러서 죽인다. 그게 아기장수 전설의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천에서는 날개를 없앴더니 아이가 죽었다. 날개를 없앴다는 거는 아이의 정체성, 아기는 장수로 태어났는데 장수에게 달린 날개를 없앴 것은 그건 살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눌러 죽이는 것보다 많이 완화가 됐지만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를 눌러서 죽였더니 용마가 나타나서 울다가 죽었다 혹은 용마가 울다가 연못으로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죽은 아이가 바위 속에 들어가 10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혹은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를 남기고 바위를 깨트리는 바람에 아기가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조금 더 달라지면 아기가 바위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에게 검은 콩을 서 말만 볶아 달라고 했는데 콩을 볶다가 다 익었는지 확인하려고 콩 한쪽을 먹었는데 나중에 콩이 갑옷이 되어 아기장수를 보호했지만 하필 콩 하나가 비어서 그곳에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아기장수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죠.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것인지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부모가 아기를 눌러 죽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더욱이 아기장수가 바위 속에 들어가 거기서 곡식으로, 콩이나 팔조 같은 것으로 병사들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전설이고 민담인 겁니다.

그런데 전국의 수많은 고을 방방곡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허구로 보이는 이 안에 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옛날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글공부를 하시지 않은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이백년 전으로만 가도 글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10% 될까 말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글을 써서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역사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니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가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도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역사로 보느냐 하면 바로 이야기로 구전으로 역사를 기억하십니다. 전설에서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글로 기억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어제 들은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기억입니다. 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를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바로 전설입니다. 어느 오막살이 가난한 집에서 애를 낳았는데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 한 번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는 어제 들은 것도 금방 잊어버리지만 아기장수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내가 아무리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이야기가 가지고 있던 화소(motif)입니다. 화소는 낫설어야 합니다. ‘날개 달린 아기’가 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닌, ‘용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화소가 되는 겁니다. 아기장수와 용마가 짝이 되고, 부모가 아기를 죽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구조화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삶의 진실 그 의미와 주제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기장수 이야기에서 아기장수를 낳았는데 부모가 장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부모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수는 날개달린 장수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면 날개가 달린 장수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기장수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과 특별한 장수. 그리고 아기장수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 구원자입니다. 하늘이 장수를 낳다는 것은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문제가 없다면 이런 인물이 날 이유가 없는 거죠. 뭔가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 번 변화가 필요하니까 장

수를 내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기장수는 희망의 상징이고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희망의 싹이기 때문에 아기장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떤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을 상징하는 게 장수인데 그 부모는 어떤 존재죠? 자식한테 부모는 보호해주고 키워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해줘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여 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희망이 생겨났는데 희망을 키워야 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자신의 희망을 말살해 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늘이 장수를 내려 보냈는데 그 장수를 지켜줘야 하는 부모가, 또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희망을 자기 손으로 말살한 역사를 안고 있는 이야기가 아기장수 이야기인 거죠. 아기장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 집에 장수가 태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장수를 보호할 수 있는가. 내가 위험에 처하더라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장수를 우리 손으로 죽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기장수 설화는 우리한테 세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전설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의미 구조화가 된다는 겁니다.

## 영규대사 이야기

영규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사의 큰 스님이셨던 영규대사가 산에서 매일 나무를 해서 몽둥이를 만들어 마루 밑에 넣어 두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커다란 철 당간에 펄쩍 뛰어올라 나라를 구하러 가자고 하여 승려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금산전투에서 왜적하고 싸우다가 다 몰살했잖아요. 거기서 영규대사가 죽임을 당하는데 전설에서는 그때 죽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서 공주까지 왔다는 거예요. 워낙 용맹한 분이라 총을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총 맞은 부위를 움켜지고 공주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도와주기로 했던 공주감사가 오지 않아 몰살을 당했으니 공주감사를 죽

여야겠다. 그래서 공주까지 오게 된 건데 오는 도중에 냇물이 하나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황토물이 되어 있었다. 거기를 건너다가 상처에 황토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에 비석이 아직까지 서 있다. 그 고개를 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고개 이름을 못넘어고개, 무넘이 고개로 불리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허구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에 대한 전란서를 봤는데 마냥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충청감사가 실제로 의병을 모집하려고 하면 해산시키고 의병을 돕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임진왜란의 역사이기도 했고요. 영규대사가 총을 맞고도 차마 죽지 못하고 공주감사를 죽이려고 그 먼 길을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백성들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는 자기 앞가림하기에 급급했고, 백성들은 스스로를 지키려고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대패하고 말았다는 그런 역사를 이 영규대사 전설을 통해 전승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 많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이야기 형태로 응축하고 있는 게 전설이라는 겁니다.

### 김덕령장군 이야기

임진왜란 하면 수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이순신 장군보다 이야기가 열배 이상 많이 전해진 분이 바로 김덕령 장군이십니다. 전국에 다 이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실패한 영웅입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 받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1596년 부여에 있는 이몽학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김덕령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래서 김덕령이 붙잡혀 가게 된 거죠. 김덕령은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였는데 신분이 미천했거든요. 헛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덕령을 처형하게 된 거죠. 그게 실제역사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김덕령을 죽이려 하는데 아무리 해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칼로 찌르면 칼이 부러지고, 창으로 찌르면 창이 부러지고 하니 어떻게 해야 그대를 죽일 수 있는가 묻습니다. 나를 죽이려면 그냥은 못 죽인다. ‘만고충신’ 이렇게 현판을 써주면 내가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김덕령을 죽이려고 현판을 가져와 만고충신이라고 써주었다는 거죠. 그러자 김덕령이 ‘내 다리 오금에 비늘이 달려있는데 복숭아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걸로 그 비늘을 세 번 치면 죽을 거다.’ 그래서 복숭아 가지를 꺾어다가 오금을 때리니 결국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이고 나서 더 못할 짓을 합니다. 김덕령이 무슨 만고충신이나 현판을 대패로 밀어 글씨를 없애버려라. 이래서 대패로 밀려고 하니깐 밀면 밀수록 글자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현판을 불에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쓰러졌던 김덕령이 눈을 부릅뜨는 바람에 현판을 없애지 못했다. 이렇게 전설이 전해지거든요.

전설 자체는 약간 과장되고 허무맹랑할지 모르지만 진실은 이 사람이 역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죽였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인데, 그거를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김덕령을 죽이기 위해 만고충신이라는 현판을 써주고 죽였다. 충신인지 알면서도 죽였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김덕령이다. 왜? 권력자들이 자기 안위를 돌보느라고 슬그머니 제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중은 이런 전설을 기록해서 전승을 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왜적을 몰아냈는데 김덕령이 그때 죽지 않고 함께 나가서 싸웠으면 석 달 만에 왜적을 물리쳤을 거다. 그런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을 죽였으니 세상의 왜적을 몰아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칠년 동안 왜란을 겪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겪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 가려진 진실을 이야기로 기억을 하는 거죠. 이게 이백년 삼백년 사백년 동안 전국적으로 전승이 된 거예요. 임진왜란의 역사가 실상 이런 전쟁이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를 지키려고 싸우는데 나라에서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장군들을 스스로 나

서서 죽이고 이순신 장군도 옥에 갇히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쟁이었다. 전설은 마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중들이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셋 : 이천유사(利川遺事) - 이천의 구비전승에 담긴 의미

### 도드람산 전설

이제 이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도드람산에 얶인 전설들입니다. 문화원에서 발간한 ‘이천 백가지 이야기’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천 도드람산이 원래 이천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도드람산은 원래 계룡산에 있던 산이었는데, 새로 도읍을 세우기 위해 산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여자 신이 산을 들고 도성에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서울로 가다가 서울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여기다 두고 가야지! 해서 이천에 두고 왔다는 거죠. 울산바위 생각나시죠. 금강산에 귀한 바위들을 다 모으는데 울산에 있던 바위가 금강산으로 걸어가다가 일 만 이천 봉이 다 찼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여기 눌러 앉아! 해서 설악산에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도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도 원래 거기 있던 산이 아니라 어디에서 날아 온 산이라는 거죠. 밤마다 산이 날아가는데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어느 날 밤, 남자 산, 여자 산이 날아가다가 날이 새려고 해서 남자봉우리가 ‘여보 우리 이제 그만 갑시다.’ 했어요. 그러자 여자 봉우리가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우니 조금 더 가요!’ 라고 우겨서 조금 더 날아가다가 새벽에 날 밝기 전에 빨래하러 온 아낙네의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어이쿠, 저 산이 날아가네. 산이 날아가네.’ 하니 그 순간 산이 더 날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암 마이산, 솟 마이산이라고 하는데 솟 마이산이 ‘당신 때문에 못 갔잖아’ 하고 암 마이산을 돌아보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줄 모르지만 그 산이 정말 태고 적에 움직여 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산의 덧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십리만 더 갔으면 여기가 도읍지가 되었는데 여기서 멈추는 바람에 도읍지가 안 됐다는 거죠. 삼각산 자리로 갔어야 했는데 늦어서 못 갔다.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도드람산도 바로 도읍의 뒷산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드람산 그 주변의 마을이 도읍지가 될 만한 그런 곳이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천 사람들이 도드람산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계룡산에서 온, 도읍지로 옮겨 가려다 못 가고 멈춘 산인데 이 산의 정기가 도읍을 품는 정기를 가지고 있다. 도드람산이 둘러싼 이 마을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다. 여기가 진짜 도읍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지역중심주의가 있다고 했는데 전설은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지역을 변방이 아닌,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기장수가 태어난 곳도 멀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거죠. 여기서 장수가 태어나고 용마, 활쏘기 시험을 하고 다 우리 마을, 내가 사는 곳,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죠. 아까 마이산이 옮겨 온 산일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백두산에는 흑룡이 나타난 전설이 있어요. 흑룡이 나타나서 해를 삼켜 버리니 캄캄한 암흑천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를 찾기 위해 싸우지만 흑룡이 나타나서 물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수가 없게 되어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은 용은 화산의 상징이에요. 화산이 폭발하면 검은 연기가 해를 가립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물길이 다 막히지요. 용은 물의 상징이거든요. 화산의 역사, 화산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문화사가 설화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은 실제로 화산이죠. 전설이라고 함부로 할 게 아니라 문화사, 자연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도드람산이 언제 솟아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은 따지고 올라가면 훨씬 더 이전의 역사가 전해져 온 전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효양산 구만리들

이천의 효양산에도 전설이 참 많죠.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도 벌써 10년째 했더라고요. 전설 가지고 축제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효양산에 금송아지가 묻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효양산에 있는 금송아지를 가져가려고 중국의 어떤 신하가 이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 신하가 어떤 노인을 만나서 효양산까지 가는 길을 묻게 됩니다. 그 노인이 거기까지 가려면 오천 개의 역, 이천 개의 역을 지나 억억 개의 다리를 건너서 구만리 들을 지나야 효양산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만 포기하고 떠나갔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구만리들은 왜 구만리들일까요? 한 없이 넓어서? 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구만리들을 지나 효양산에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몇 십리 되나요? 자로 재면 십리, 이십리 일지 모르지만,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구만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메면서 이걸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천리만리 아니겠어요? 사실 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몇 백 년을 거쳐서 건너 것을 생각하면 억억 번 건너는 다리 일 수도 있는 거구요.

효양산의 보물을 찾으려면 그런 삶을 산 사람들만이 효양산을 자기 보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보물이라면 가져가야죠. 그러나 효양산 자체가 보물인 거고, 누가 이걸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안에 사는 사람들, 역사, 땀이 만들어 낸 그런 보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구만리라는 게 김매기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랑 하나도 구만리잖아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삶도 모르면서 불쑥 찾아와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효양산 화수분

또 효양산에 화수분이 있다고도 하죠. 화수분이 도대체 뭐죠? 그릇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화수분이 나한테 있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저는 그릇이 아니라 이 들판이 진짜 화수분이라고 생각해요. 심으면 끝없

이 나오잖아요.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고 하는 이게 바로 화수분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땅이 화수분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천 땅이 쌀농사가 정말 잘되는 기름진 땅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화수분인 거죠. 산에서 먹을 게 나오고 나뭇물이 나오고 목재가 나오고 땅에서 돌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수많은 보물을 품고 있는 산 자체, 땅 자체가 바로 화수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최근에 자연 자체가 바로 화수분이다 그런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화수분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죠. 그런데 법칙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서 한꺼번에 가지려고 하면 딱 끊깁니다.

유명한 전설 중에 쌀 낱는 바위 전설이 있습니다. 바위에서 쌀이 나오는데 매일 하루 먹을 만큼만 나와요. 어느 날 이웃동네 사람이 이걸 보고 ‘그것 참 신기하네, 쌀이 막 나오네. 이걸 팔면 부자 되겠다.’ 그래서 구멍을 파니까 피가 줄줄 나오고 그 다음에 쌀이 전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지만 자연을 약탈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화수분의 법칙입니다. 황금알을 낳은 닭도 똑같습니다. 닭은 매일 알을 하나씩 낳아 주잖아요. 키우면 계속 알을 얻을 수 있는데, 배를 가르니깐 그 다음에 알이 안 나오는 거죠. 효양산 화수분 설화의 주인공도 바보라서 필요한 것만 가져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연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 오는 것이지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서 쓰면 끝없이 혜택을 주는 게 자연이고 땅이라는 거죠. 한꺼번에 가져오려고 땅을 파헤치면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하면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이천은 너른 들판을 보면 땅 자체가 커다란 화수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흥부놀부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흥부의 박에서 뭐가 나왔는지 찬찬히 생각해보죠. 첫 번째 박에서는 쌀하고 돈이 나오고, 그 다음 옷이 나오

고, 집이 나옵니다. 의식주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박에서 껌짝이 하나 나왔는데 쏘으면 또 들어 있고 쏘으면 또 들어 있었죠. 거기 화수분이 들어 있었던 거죠. 화수분이 박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박은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열린 겁니다. 조그마한 씨앗에서 이만한 박이 열리잖아요. 이게 화수분입니다. 박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잖아요. 흥부가 박 속에서 쌀과 돈을 얻고 부자가 된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보물을 줘서 부자가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은 노력의 결과로 된 거죠. 그게 복이고, 그게 화수분이라는 얘기죠.

알리바바 이야기가 아시죠. 산 속에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그것을 알고 부자가 되는데, 형은 산속에 갇혀 죽어버리게 되죠. 한꺼번에 다 가져오려고 하다가 못 나오게 된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누리고 살면 부자가 되는데, 한꺼번에 독점하려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가지려고 하면 망하게 되는 거죠. 놀부도 똑같아요. 놀부가 심은 박은 욕심의 산물로 나중에 놀부를 망하게 하죠. 효양산 화수분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효양산 금송아지 이야기의 의미는, 정말 금으로 된 송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힘 자체 그게 바로 효양산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송아지는 키워야 하잖아요. 그걸 키워서 더 큰 기운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기운을 받아서 이천이 더욱 더 윤택해 지는 거겠지요. ‘금송아지를 찾아서 팔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천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는 금송아지 설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손님 끊으려다 망하는 이야기

원통산에 절이 있었는데 경치가 좋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 귀찮고 일도 많고, 내 일도 못하겠고 힘드니까 젊은 스님들이 손님들이 더 이상 못 오게 하려고 산의 혈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비바위 이야기도 이천문화원에서 주신 자료에 보니 있더군요.

어떤 부자가 살았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귀찮으니깐 손님을 못 오게 하려고 제비 바위에 독을 쌓아서 돌려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끊겼고, 부자도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설화의 이치입니다. 손님이 재산입니다. 손님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는 그 집이 잘 된다는 겁니다. 손님이 전혀 오지 않는 집. 그건 망한 겁니다. 이천에 외지 사람이 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손님 끊으려다 망하는 이야기, 이게 전국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손님이 많다는 게 집안의 기운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입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손님 맞는 게 힘들지만 거기서 재미를 찾고 행복을 찾으면 그 집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말하는 거죠. 이게 혈을 끊고 가난해진 집, 손님 끊으려다 망한 절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호암산 아기장수

호암산 아기장수 이야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다른 데는 자식을 놀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날개를 자르려고 했더니 죽었다 그래요. 날개를 자른다는 것 자체가 아이의 능력, 가능성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아이의 미래를 막는, 아이의 잠재력을 죽이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수가 죽지 않고 바위 속에서 삼년동안 다시 재기의 날을 꿈꾸면서 바위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삼년에서 딱 하루 모자란 날, 애석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 전에 바위가 깨지는 바람에 장수가 성공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또 하나 호암산 아기장수 이야기에서 독특한 면은, 보통 아기장수 이야기는 죽었다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용마가 울고 복하천에 뛰어들어 사라진 뒤로 메말랐던 복하천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에서 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용마의 눈물이에요. 그 덕분에 농사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강물이 바로 용마가 흘린 눈물이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한테는 스스로 그것을 지워버린 역사가 있다. 그런 뼈아픈 사실을 되새겨주는 역할을 용마가 할

수 있는 거죠. 용마가 물에 빠져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용소’라고 해가지고 여기 용마가 죽은 곳에 증거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말랐던 냇물이 흐르게 되었다. 이렇게 뒷이야기가 독특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 이사성과 용마 이야기

용마에 관한 다른 이야기 중에는 이사성이라는 장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무덤 근처에 땅을 파보니까 사람 키만 한 돌이 다섯 개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사성이 가지고 놀던 공기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전설적인 화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사성이 실패했잖아요. 이인좌의 난에 가담했다가 실패해서 처형된 인물인데 왜 실패했을까요? 난을 일으켜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설화 논리에 의하면 말 무덤 전설입니다.

화살보다 빠른 말이 있었죠. 어느 날 이사성이 누가 빠른지 화살과 말의 시합을 했는데 활을 쏘고 달려가 보니 화살이 벌써 쫓혀 있는 거예요. 이사성이 화살보다 늦게 왔다고 용마의 목을 잘라 죽였는데 그때 화살이 늦게 날아와서 쫓혔다는 거죠. 전에 쏜 화살이 박혀있는 걸 모르고 말을 죽인 거죠. 이사성이 그 자리에 죽인 말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기개는 있었지만 경솔했던 거죠. 이사성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너는 용마면서 어쩌서 화살보다 늦게 도착했단 말이냐? 큰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나와 짝이 될 수 없다!’ 자기 안의 교만이나 경솔함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용마를, 자신을 따르는 동료들, 세상을 바꿀 가능성을 스스로 없애 버려서 나중에 성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사성의 경솔함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사성이 어느 점쟁이를 시험하기 위해 상자에 쥐를 한 마리 가둬놓고 몇 마리가 있는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점쟁이는 두 마리가 있다고 대답했는데 열어보니 당연히 본인이 잡았던 한 마리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점쟁이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 새끼를 뱀 쥐였던 것이지요. 그제야 본인의 경솔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지력을 가진 귀한 인재를 자기 손으로 죽이다니, 이것도 우리의 교만과 경솔함을 돌아보게 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 서희선생에 관한 이야기

이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서희 선생님입니다. 효양산 사슴이야기와 관련이 있지요. 서신일이 사슴을 구해줬는데 나중에 꿈속에 신령이 나타나서 우리자식 구해줘서 고맙다. 너희 집안이 잘 될 거다. 귀한 자식이 태어날 거다. 여든에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그 손자가 서희 선생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싸움을 안 하고 적과 담판을 짓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나라가 위기에 몰려있을 때 오히려 잃은 땅을 되찾은 분, 우리나라에 가장 빛나는 외교성적을 가져온 외교관인 서희선생과의 연결고리를 효양산 사슴 설화로 이어갈 때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으니 당연히 복을 받아서 좋은 인물이 나온 거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설화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연관성을 찾을 수 있죠. 서희의 조상 서신일은 노루의 생명을 구해준 분이잖아요. 서희 선생도 싸우지 않고 군사와 백성들의 희생 없이 나라를 구했다는 점에서 바로 사슴의 생명을 구해준 서신일의 공덕하고 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서희 선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런 맥락들, 생명을 중시하고 백성을 보살핀 이야기하고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사슴이 산신령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산 속에서 자라는 생명이 모두 산신령의 아들인 거죠. 모든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이 산, 이 땅, 여기 사는 생명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물까지 다 챙기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니까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죠. 서희 선생의 행적을 보면 배를 타고 사행 길을 떠나야 하는데 파도가 너무 심해서 출발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원한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내 원한을 풀어 달라 이런 말을 해서 다음 날 제사를 지내주고 정성껏 모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신령을 모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챙기

고 보살핀다는 거죠. 사슴을 쟁기고, 산신령하고 만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의 가치까지 내다본다는 거죠.

서희 선생도 보면 눈앞에 적군이 쳐들어 왔을 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는 거죠. 적장의 편지에서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귀신을 모셨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눈여겨보고 그것들을 보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 싸우지 않고 예지력과 애민정신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서사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희 선생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도 맥락들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의미들을 서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 강감찬과 맹꽁이 이야기

이천에는 강감찬 장군이 맹꽁이 울음소리를 제압한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강감찬 장군이 맹꽁이와 소통한다는 것도 일종의 자연이나 미물, 다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강감찬이 맹꽁이 말을 알아듣고 억울해서 우는 맹꽁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감찬이 울지 말라고 해서 안 울었을까요? 이 부분도 상징이 있는데, 맹꽁이 소리가 사람들에게는 잠을 못 자게 하는 소음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 사실 맹꽁이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운다는 거예요. 맹꽁이나 개구리도 사람 말하듯이 하고 있는 거다. 똑같은 거다. 맹꽁이도 형제라고 생각하고 다 사연이 있어서 우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 전에 소음으로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던 소리가 울어도 우는 소리로 안 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맹꽁이 울음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울려 사는 역사를 강감찬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맹꽁이만 없었으면, 개구리를 다 쫓아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맹꽁이나 개구리가 하는 역할이 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원한이 맺히면 나도 저렇게 태어날지도 몰라.

저들도 땀 흘려서 슬피 우는 건데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이렇게 강감찬 장군이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땀방울이 울음소리가 갑자기 들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이야기 넷 : 유사(遺事), 전설을 넘어서 민담으로

단순히 전설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가 민담까지 확장되면 폭이 넓어지고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장터에 가면 이야기꾼이 거기서 이야기 시합을 하는 곳이 장터거리, 여관, 객주 집 이런 곳이거든요. 탑골공원에 가면 금자탑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연세가 87세인가 되시는 이야기꾼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한 시간 동안 찌렁찌렁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전설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는 민담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옛날 옛날에 부자가 살았는데... 나무꾼이 살았는데... 민담하고 전설이 서로 통하기도 하지만 서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야기관의 최고가 뭐냐 하면 바로 민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찾아내야 하고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신기한 경험담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는 재밌는 이야기, 민담, 옛날이야기,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한 읍면에 있는 전설을 찾자면 수십 개로 양이 적는데 민담의 경우엔 열개의 민담을 가지고 이야기꾼 한 명이 백 개, 이백 개, 삼백 개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한 달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박문수 이야기만 가지고 몇날 며칠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박문수는 전설처럼 생각이 되지만 박문수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암행어사 박문수는 민담 성격이 강합니다. 이야기의 폭이 훨씬 넓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천 지역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이천 지역 것이기도 하지만 이천 지역 것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담을 내가 이야기

하면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설은 그 지역거지만 민담은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민담은 저작권도 없습니다. 그리스로마 신화 이야기, 중국 이야기, 독일 이야기를 재밌게 각색해서 이야기 한다고 해서 왜 남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중국에 팔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딘, 선녀와 나무꾼, 물란 등은 자산이고 민담입니다.

###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민담은 무궁무진 하지만 민담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선녀와 나무꾼’, ‘우렁이각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아니 이야기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짝 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짝이 될 만한 사람을 발견해서 그 짝과 함께 하려 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된다. 그런데 같이 살려면 지켜야 될 게 있다. 금기가 있어서 그걸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댓가로 여자가 떠나버린다. 그래서 되찾으려고 길을 떠났는데 나중에 되찾았다고도 하고 못 찾았다고도 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우렁덩딩 선비’ 이야기입니다. 단지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바뀌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의미 없이 애들한테나 맞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무꾼이 날개옷을 감춰둬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선녀의 삶이죠. 나무꾼은 ‘자식을 둘이나 낳았는데 괜찮겠지. 이젠 날개옷을 주어도 될 거야’ 하며 옷을 주었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이 남자 같지만, 선녀가 주인공입니다.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고 붙잡혀 사는, 그런 선녀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하죠? 나무꾼이 쫓아 올라가야 합니다. 쫓아가서 ‘내가 잘할게’ 빌어야 하죠. 선녀는 ‘그럼, 우리 아버지 시험을 통과해 봐!’ 그걸 통과해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살고 끝나는 이야기보다는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많죠. 왜? 엄마 때문이죠. 나무꾼이 엄마를 만나려고 용마를 타고 내려왔다가 땅에 발을 내디디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주는 뜨거운 팔죽을 먹다가 떨어 져버리잖아요. 그게 억울해가지고 수탉이 되어서 하늘을 보면서 ‘아이고 마누라’ 하면서 우는 거죠. 다 상징인 거죠. 어머니하고 처자식, 그 사이에 서 있는 남자가 우리 현실인 거죠. 우렁이각시 이야기나 선녀와 나무꾼이 만일 엄마 없이 총각이 혼자 살았다 이러면 행복하게 살았다 로 끝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다거나 어머니가 등장하면 다 비극으로 끝나요. 엄마가 밥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왜 우리 색시한테 밥 시켜서 색시 붙잡혀 갔잖아 엄마 때문이야!’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어머니라는 품을 벗어나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고,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우렁이각시 이야기

우렁이각시와 선녀와 나무꾼이 똑같은 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구전되는 거죠. 선녀는 억지로 잡혀있어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우렁이각시는 스스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렁이각시는 원님이나 임금한테 붙잡혀 갑니다. 나무꾼은 선녀의 날개를 감춰서 만납니다. 나무꾼이 선녀를 보려면 위로 올려봐야 하죠. 선녀는 위에 있는 존재예요. 우렁이각시를 만나려면 아래를 봐야하죠. 땅을 봐야합니다. 소리도 작게 하죠.

총각도 가난하고 외로운 신세지만 우렁이각시는 더한 거죠. 땅속에 파 묻혀 있고, 껍질 속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도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총각이 우렁이각시를 데려다가 보호를 해 준거죠. 그래서 각시가 밥상 차려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선녀는 높은 곳에 있고 우렁이각시는 밑에 있는 존재이죠.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나무꾼은 재벌 딸을 운 좋게 연결이 되어서 데리고 온 거라면, 총각은 고단하고 오갈 데 없는 우렁이 각시랑 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렁이각시는 어떻게든 남편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런데 결국 붙잡혀 갑니다. 여기서 문제는 총각이 아내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총각이 백일만 기다려주면 결혼을 하는데, 백일은 신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총각은 그럴 마음이 없었고 조금했던 거고 그래서 집밖에 못 나가게 하잖아요. 누가 붙잡아 갈까봐.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기 아내를 지키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능력을 키워서 다시 아내를 되찾아 오는 거죠. 9년 동안 공부를 해서 아내를 되찾을 자격을 얻고 나서 임금이랑 맞서고 임금을 이기고 다시 아내를 되찾아 오는 거죠. 능력을 키우고 노력을 해서 비로소 아내를 되찾는 이야기가 우렁이각시 이야기입니다.

우렁이각시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역학관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도 있지만 우렁이각시처럼 사는 집도 있습니다. 제자가 선녀와 나무꾼과 우렁이 각시로 논문을 썼는데, 그게 외국인 며느리를 대상으로 해서 썼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시집을 와서 마음은 고향에 있지만, 여기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서러워요. 남편은 항상 엄마 편만 들죠. 외국인 며느리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할 수 없이 몸은 살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는 며느리를 선녀 같은 며느리라면, 여기 와서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면서 사는 우렁이각시 같은 며느리도 있어요. 내 안의 이야기. 자기 서사라고 합니다. 선녀의 서사를 가진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은 우렁이각시 서사를 가진 며느리가 있어요. 다 서사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삶을 다 반영하고 있는, 우리 인생살이의 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 밤골며느리 이야기

이게 아주 재미난 이야긴데 밤골 며느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맨날 며느리를 괴롭혀서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나?’ 며느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꼭 차 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시어머니 안 계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 년 동안 하루도 빼지 말고 밤을 삶아서 대접을 해라.

그러면 일 년 뒤에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했어요. 아들은 밖으로 나가 장사해서 한 달 있다가 오고, 두 달 있다가 오는데 며느리가 밤을 잘 삶아서 시어미니를 봉양하니 얼마 뒤 시어머니가 건강해져서 '우리 며느리가 최고네. 나한테 귀한 거 갖다 주고!' 이렇게 어디 가서나 며느리 칭찬하며 다니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맨날 쭈그려 앉아 있던 노인네가 마당도 쓸고, 애도 봐주고 하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당신보다 우리 어머니가 백배 낫다고,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된 거죠. 일 년 동안 꼬박꼬박 밤을 삶아 주니까 고마워서 며느리 자랑하고 집안이 화목해졌어요. 집안에 좋은 기운 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웃으면서 모시면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보다 더 귀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못되게 굴면서 내 흥 보지 않을까 걱정해서 어디 가서 내 흥 보는지 뒤쫓아 가서 보니깐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칭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내 칭찬을 하고 있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줬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시부모님께 잘 해 드리고 진짜 효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마국산 여우 이야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여우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외롭게 살다가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밤마다 자꾸 아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내가 사람이 아니라 여우였다는 거죠. 산에 가서 공덕을 쌓아야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밤마다 산에 가서 공덕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사냥꾼이라서 사냥꾼이랑 여우랑 사는 게 모순이죠? 사냥꾼이 산에 가서 독이 든 미끼를 놔는데 그 아내인 여우가 잘못 먹고 죽어버린 거죠. 남편이 서러워하면서 아내가 산에 백 개의 자리를 만들다가 죽었는데, 이제 내가 남은 자리를 만들겠다. 그걸 다 만들고 나니깐 신령님이 나타나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를 되찾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소원대로 해주었더니 여우가 다시 살아나서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 라고 하는 민담이에요. 내가 손 내밀어주면 나에게 덕을 베푼다는 거죠.

### 구렁이 색시 이야기

구렁이 색시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구렁이가 변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구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구렁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드디어 그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 방법이란 것이 밥을 뱉으면 구렁이가 죽는다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나를 살려주고 나를 도와준 여자인데, 아무리 구렁이지만 내가 어떻게 저 구렁이 죽이겠나 싶어서 밥을 뱉지 않고 삼켰다는 거죠. 그때 구렁이가 고맙다고 합니다. 당신이 밥을 안 뱉은 덕분에 내가 용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구렁이가 용이 되고, 그 사람도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 나무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호랑이

나무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호랑이도 있습니다. 호랑이가 나무꾼의 노모가 있는 집에 들어오니 눈이 어두운 노모가 호랑이를 껴안고 ‘아들아’라고 한 거죠. 호랑이가 깜박 속아서 ‘내가 아들이었구나’ 해서 산짐승도 잡아주고 잘해주었어요. 나무꾼은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호랑이가 진짜 형님이었구나.’ 피를 나눈 친형은 아니지만 친형보다 더 귀한 형님이라는 거죠. 호랑이한테는 아무도 자기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라고 손 잡아주고, 아들이라고 껴안아주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준 세상에 유일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형님이 된 거죠. 진짜 아들이 된 거구요.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 형님보다 더 귀한 형님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세상사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 물레방앗간 처녀 이야기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물레방앗간 처녀 이야기입니다. 어떤 총각이 살았는데 어느 날 예쁜 색시가 나타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색시가 먹기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억지로 그걸 먹인 거예요. 억지로 먹으니깐 그 여자가 구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렁이를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남편의 자기 식의 사는 방식에 여성의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삶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의 자존감이 사라지고, 아내를 그렇게 죽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귀한 아내를 구렁이로 만든 거죠.

몇 달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자식들 다 죽고, 바닷물에 들어가려고 앉아 있는데, 한 젊은 숙녀가 ‘아저씨 죽지 마세요. 제가 딸이 되어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 희망도 없이 떠나려던 사람을 안아주고 그 힘에 의해서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일으켰다는 건데요. 끝까지 수양딸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시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줬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내가 그를 형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형님이 되었다. 그게 옛날이야기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야기의 힘이고, 이야기의 진실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맺힌 것을 풀어내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지요. 하지만 치매 걱정은 다 날려버렸으면 합니다. 치매 안 걸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살면, 이야기꾼으로 살면 치매 안 걸립니다. 이야기꾼들은 다 정신이 또렷하고 그리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사십니다. 아흔 두 살 때까지 세상 돌아가는 일에 환하고 탑골공원에 나가서 수백명 앉혀 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꾼 말씀들을 드렸었지요. 세상에 걱정이라고는 없는 분이라고 다들 부러워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의 막내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에서 존경이 묻어나요.

집에서도 존경 받으면서 이분이 아흔 세 살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가보니 손자들이 ‘할아버지 힘내세요.’ 라고 응원문구를 써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런 응원을 받으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 이야기 다섯 : 이야기를 하며 산다는 일!

이야기꾼 어르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이분이 매번 재미난 만담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도 즐거워합니다. 허풍도 기가 막히게 잘 치시거든요. 본인이 전국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허풍 쳤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재밌어요. 유엔총회에 불려가서 연설하고 세계대통령 칭호를 받아서 왔다. 이렇게 하는데, 대학원생이랑 같이 가서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 대학원생이 ‘진짜 유엔총회에 갔다 오셨나요?’ 그렇게 할 정도로 실감나게 하시는데, 유엔총회에 가서 하셨다는 다섯 가지 연설은 다 철학이 담겨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이분의 아이디어가 참 대단합니다. 빌딩을 짓는데 바탕에다가 거대 회전판을 만드는 거죠. 빌딩 옥상으로 해서 길을 만들면 교통 방해 안 되고 사는 거죠. 옛 이야기를 따지는 이야기로 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싸우면 골치가 아파요. 머리로 이기면 상대방이 설득이 안 돼요. 머리로 하는 이야기는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런데 옛날이야기는 그런 게 없어요.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죠. 따지는 게 아니라 몸과 가슴으로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은 몇 살로 보이세요? 이분도 일흔 아홉이 됩니다. 이분은 조금 젊으시죠? 이야기꾼들이 이렇게 젊어요. 이분은 올해 백 다섯 살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같이 다니는 며느리도 여든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면서 살면 백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이야기라는 게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건강의 힘이다! 라고 하고요. 이야기를 배워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옛날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귀

신 이야기 해주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요즘 아이들은 이야기에 빨려오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 맺는 이야기 : 이천을 옛이야기의 메카로!



이천을 옛날이야기의 메카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기는 미국 테네시 주의 존스버러(Jonesborough)라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워싱턴 카운티에 있는 작은 타운인데 인구가 이천보다 더 적을 거예요. 인구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작지만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옛이야기 축제를 하는 곳이거든요. 이야기 축제로 유명합니다. 항상 10월 첫째 주말에 합니다. 지역 인구의 열배 되는 사람이 옵니다. 이미 좋은 호텔은 예매가 다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마당에서, 극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수십 시간을 운전해서 해마다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꼭 차서 사흘 동안 축제가 벌어지는데 홈페이지

지<sup>1)</sup>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꾼이 올해 나오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마을에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먹고 자는 건 별도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티켓 가격부터 나와 있습니다. 전통이 오래 되었습니다.

이천보다 작은 마을인데 이 지역은 주변까지 반경 40km 되는 숙박업소가 짝 잡니다. 우리나라도 이야기가 강한 나라입니다. 한류 드라마가 인기잖아요. 어디서에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민담은 세계 공통이기 때문이지요. 관심만 있다면, 이천에서 해보자 하면 정말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야기대회가 막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도자기축제, 쌀문화축제도 하잖아요. 여기에 이야기까지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겠어요? 이야기가 있는 도예촌의 모습은 또 얼마나 멋진가요? 이천의 이야기가 새롭게 살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1) <http://www.storytellingcenter.net/festival/>



## 세라믹 예술도시를 꿈꾸다

- 모든 길은 세라믹 예술도시 이천으로 통한다 -

**한영순** 1984년 단국대 대학원 도예전공 석사. 1988년 일본 문무성 초청 연수로 후쿠오카 교육대학원에서 수업하며 약 2년간 한일간 도자기 비교 연구를 위해 일본의 도자마을을 둘러보았음. 한국에 돌아와 1991년 이천제일고등학교 도자디자인과를 개설하여 부장으로 근무. 1996년 청강문화산업대학 도예디자인과를 신설하여 11년간 근무하며 명지대학에서 도자기재료학으로 박사학위 수여, 2007년 최초 개방형 공모제 교장으로 한국도예고등학교 학교장으로 취임하여 한국도자재단 이사,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정년퇴임 후 현재 도자전공한 사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 일본에서 얻은 고민, 이천에서 꿈을 펼치다

1988년에 제가 연수차 일본의 오사카와 후쿠오카 지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마을을 돌아보며 저는 내심 일본도자기 발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자기를 전공했다는 사실을 안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한국에서 전래한 도예기술을 배워왔는데 한국에서 도자기를 전공한 당신이 무엇을 배우려고 일본까지 오신 겁니까?” 일본은 지금도 한국의 도공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도공들을 데려와 일본의 도자기술이 시작되었는데, 왜 굳이 일본에 도자기를 배우러 왔을까 궁금했던 것 같았어요.

“한국의 도자문화와 역사는 일본이 강점한 36년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가 어느 정도로 발달했는지, 한국의 도자기와 일본의 도자기를 비교해 보고 싶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은 일본사람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저를 데리고 일본의 도자기마을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도자기마을을 다녀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도자기마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일본도자기도 화려하다기 보단 오히려 깨끗하고 단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활도자기와 그들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주부들의 의식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외국 도자상품을 진열하고 사용하는데 비해 평범한 일본 가정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모두 자국의 도자마을에서 생산된 각종 생활용품을 사용

하는 것을 보고 무척 부러웠습니다. 어떤 분은 상자에 잘 보관한 도자기를 꺼내 보이면서 결혼 초 시아버님께서 사주신 찻잔이라고 소개하며 매우 귀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자기를 선보이며 ‘이건 아리타 도자기, 이건 가라츠 도자기’하면서 보여주는데 저는 순간 속으로 ‘아, 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은 어떤 일본인 선생님 댁에 초대를 받아 점심과 저녁을 대접받았습니다. 두 끼를 먹는 동안 사용한 식기가 모두 일본도요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각기 다른 다양한 형태의 그릇이었습니다. 마치 음식은 입으로 그릇은 눈으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날 저의 머릿속에는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에서 도자기를 전공하였음에도 경기도에 도자기전공반이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연수 기회를 얻었던 건데 일본에

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도자교육의 현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개인전도 하고, 도자기산업과 관련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일 년 반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귀국 후 제가 전공한 도자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서 교육감님께 부산공예고등학교로 전출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천과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가 1990년이었어요. 교육감님은 이천농고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학과 개편을 하려고 한다. 이천시가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도자기과 신설을 위해 한번 가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조심스럽게 이천은 시골인데 괜찮겠냐고도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천이 시골지역인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도자기발전에 대한 저 나름의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6년 전이니 젊기도 했고요. 그 날 이후로 이천시가 제2의 고향이 된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1991년 이천실업고등학교(현 이천제일고등학교)에 처음으로 도예디자인과를 개설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운명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 미래 도예산업을 이끌 이천의 학생들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신나게 뛰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도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1988년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의 도자기마을에는 도자고등학교, 도자전문대학, 도자기요업센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도자도시인 경덕진에도 도자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도자기를 연구하는 대학원까지 있었습니다.

이천에서 학생들에게 도자기를 지도했던 지난 25년 간 저는 언제나 미래의 도예꿈나무인 학생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작가들이 많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꿈나무에 대한 투자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지금의 작가, 도예인들도 힘든데...’ 이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만 초·중·고 시절부터 미래 도예산업의 꿈나무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이천은 한국의 대표적인 도자기 고장으로 한국도자재단, 요업센터, 제일고등학교 도예과, 한국도예고등학교가 있는 한국 도예산업의 성지입니다. 한국도예고등학교는 이천으로서는 상징과도 같은 학교로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단순한 특성화고교로만 여기는 것에 늘 아쉬움이 컸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선 인재가 필요하죠. 기능인과 기술자, 예·체능인도 저마다 제 역할을 충분히 하는 인재입니다. 김연아, 박지성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단한 인재들이고 우리에게 매우 자랑스러웠잖습니까?

## 시민의식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야 성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은 도자기 축제 기간이 항상 같은 날, 같은 시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몇 주 초까지. 이런 식입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반면 우리나라의 축제는 수없이 일정이 바뀌어서 관광객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축제 날짜 자체가 대단한 홍보인데 이걸 놓치곤 하는 거죠. 축제일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알려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관광객이 축제일을 기억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도자마을에서 열린 도자기축제에 가보니 도자학교에 다니

는 청소년과 도예인, 그리고 평범한 지역주민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일본의 도자문화가 이래서 발전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1년 이천제일고등학교 도예과 1회 학생들이 이천도자기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 축제장에 갔는데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5회째를 맞이하는 도자기축제는 아무런 예산지원 없이 이천문화원이 힘겹게 치르다보니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때는 축제장이 미란다호텔 뒤편 설봉호텔 앞마당이었는데 정말 일본의 축제와 너무나 차이가 나더군요. 도자기축제라기보다 시골의 5일장 같았어요. 도자기공방도 장날에 나온 시골사람 느낌 그대로였어요. 주최 측에 물어보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지원도 없고 시민들의 관심마저 없으니 도예공방만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절 이것이 우리 이천 도자기축제의 모습이었고 우리 시민의식의 현실이었어요.

도예공방을 지원해주고(이천도자기축제), 농민을 지원해주고(이천쌀문화축제), 복숭아농장을 지원해주고(장호원복숭아축제) 주민 전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축제를 만들어간다면 축제도 더욱 풍성해지고 이천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널리 알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왜 못할까? 이렇게 단절이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천도자기축제에 가보면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고 초라했던 행사가 이렇게 멋지게 변할 수가 있나?’ 비단 이천도자기축제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이천이 정말 대단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윗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과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라믹 예술도시를 꿈꾸다’지만, 저는 시민인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시민의 생각이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이 바로 시민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깨어나 전문가집단을 자극해야 합니다.

## 도자기 축제의 변화모색

문화예술의 도시는 어떤 걸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할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광산업형 축제를 개발하고 국내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서 문화예술도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이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자문화관광지로 육성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세계도자기축제를 개최해서 역량을 제고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예술의 도시,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에 가서 받았던 감동이 떠오릅니다. 크고 작은 공방들, 작가들의 갤러리가 함께 공존하는 그 곳에서 어느 작가의 갤러리

를 들어가 보았는데 한국도자재단에서 개최한 공모전 상장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는 거예요. 한국도자재단의 위상은 ‘그저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의 입장에서 한국이 도자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매우 부러워하더군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동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도자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는 미국의 도자단체는 외부의 예산지원 없이 오직 회원들의 회비로 지역별 행사를 개최합니다. 물론 대부분 미국인이 참여하지만, 전 세계의 도자기 전공자와 학생, 일반인에게 이미 몇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식으로 기간티켓을 예매하도록 합니다. 행사장 주변의 숙소도 안내도 체계적으로 하구요. 저도 한국도자재단, 이천시 관계자분들과 몇 번 갔다 왔지만 향후 2년 뒤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추진하는

그들의 기획력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도자기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지원의 유무, 혹은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의 차이는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도예인 스스로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예인이 중심이 되어 도자기를 통해 이천의 사회, 경제,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에서 도자분야에 예산을 많이 쓰는데 비해 지역에 들어오는 수익이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도예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축제를 통해서 이를 국내 외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고가의 예술품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저가에서 고가까지 남녀노소 계층별로 고객을 세분화해서 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천과 여주, 광주의 도자기축제가 축제 내용에서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시의 차별화, 상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세 곳 모두 다르게 기획을 해서 관광객들이 각자의 매력을 찾아 스스로 오고 싶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은 지역마다 작품의 종류, 문양, 유약의 차이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특성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역마다 다른 문화의 차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역마다 도자기 유약의 사용 종류가 나뉘어져 있어 고유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 우리는 청자, 분청, 백자 등으로 나눌 뿐 차별화도 없고 문양도 비슷합니다.

## 산학협동 교육의 중요성

‘장인은 있으나 예술가는 없다.’ 달리 말하면 ‘기술은 훌륭하지만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할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로 도예교육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천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전통도예를 계승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뵙는 일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통도예를 하시는 장인과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와의 관계가 가깝지 않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였고요. 대부분의 전통도예 장인들은 현대도자를 하는 분들이 실력이 없다고 하고 반대로 현대 도예작가들은 전통도예 명장들이 디자인능력-새로운 아이디어-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던 시기였죠.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일본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본은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만 좋다면 훌륭한 작가로 인정을 하더군요. 물론 체계적인 교육은 중요하지만, 작가로서의 재능과 역량이 학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천에서 전통도자를 계승하는 장인들과 현대적인 기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현대도자작가 간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아무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따라갈 순 없어요. 오히려 숙련된 장인들이 고도의 교육을 받는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전통도예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공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새로이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도전에 나서길 꺼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학교 프로젝트 사업으로 전통도예 하시는 분들에게 도예디자인을 교육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익혀온 도자의 형태와 문양에서 과감히 탈피하는데 무척이나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래도 몇몇 분들은 잘 적응해서 발전하는 속도가 무척 빨랐어요. 교육을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전통도예장인들의 작품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도자기를 연구하는 분위기도 생겨났습니다.

## 소비자분석

소비자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없죠. 도자기는 일상 생활용품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소비층을 대상으로 제품을 만들어 낼 것인지, 또 그 대상에 맞게 형태, 색채, 문양 등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해야 하죠. 예를 들면 서양인과 동양인, 남성과 여성, 신혼부부와 중년부부의 취향을 파악해서 도자기를 제작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제일고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했던 시절, 하루는 이천도자기 축제에 학생들의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로 유약의 성분량을 잘못 넣어 예상보다 훨씬 짙은 색의 도자기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국 그대로 도자기축제장에 내놓긴 했지만 아무리 보아도 팔릴 것 같지 않은 색상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어떤 외국인들이 도자기를 보더니 전부 사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꽃병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꽃병을 디자인해서 만들어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학생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꽃병이 탄생해서 이 꽃병들을 도자기축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람객,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꽃병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쉬이 선택을 못해요. ‘이게 무슨 꽃병이야’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런데 의외로 어떤 건축 인테리어 하는 분이 학생들의 꽃병을 모두 사갔어요. 참 놀랍죠? 이 또한 저에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일본의 도자기축제장을 방문했을 때, 모든 도자기가 예쁘고 좋았지만, 한편으론 너무 화려하게 느껴져서 결국 백자와 분청작품처럼 익숙한 도자기만을 선택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내가 아는 기술만 가지고 내가 좋아 하는 것만 만들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러니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정 도자기를 만드는 것보다 전업

주부, 신혼주부, 미혼인 이렇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들의 취향과 욕구, 생활양식 같은 걸 자세하게 조사, 분석한 후 도자기를 제작하면 훨씬 판매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제자가 “선생님 저 오늘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도자기를 많이 팔았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을 누가 사갔니?”라고 물었더니 글썄 초등학생들이 작품을 사갔다는 게 아닙니까? 제자가 만든 작품은 만원, 오천 원 정도의 작은 악세사리였어요. 초등학생들이 엄마 줘야지, 누나 줘야지, 여자 친구 줘야지 하면서 사다보니 작품 20개를 전부 팔았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에겐 부담 없는 가격의 도자기작품이 제격이었던 것이죠. 간혹 학생들이 만든 미숙한 작품이 의외로 잘 팔리는 모습을 보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구입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의 작품이 전 세계에 하나뿐인 작품이고 굉장히 순수한 작품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작품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학생들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족함이 그들에게는 아름답게, 귀중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우리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 연결고리를 통한 도자기의 확장

지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 나라, 그 지역 특산품에 관한 것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에는 해바라기 문양의 접시받침과 장식품, 악세사리 등이 유독 많습니다. 해바라기가 그려진 그릇이 많아 현지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프랑스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풍경이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우리 이천도 이천만의 뚜렷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토야, 복숭아, 쌀, 온천 이런 이미지들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조형성도 있고 기능성도 있는 이천만의 특산품을 만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개발과 디자인에는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도자기의 고장이라고 해서 온통 도자기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금방 지루함

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도자기마을 이외에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해외의 유명한 도자기마을은 주변 환경이 참 좋았습니다. 그 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 분위기 좋은 식당과 찻집, 다양하고 개성이 넘치는 관광상품 판매장, 그리고 깨끗한 자연환경까지. 우리는 여행을 하며 볼거리와 먹을거리, 추억거리를 찾습니다. 외국에서 이천을 방문한 관광객이 이천도자기축제를 보러 왔는데 ‘도자기만 있네. 힘들어서 혼났어. 앉아 쉬려니 쉴 곳도 없고 우아한 커피숍도 없고, 밥 먹으려니 쌀밥만 있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나중에 이천을 다시 찾거나 주변 사람에게 추천을 할까요? 저는 이천도자기축제 실무위원으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 실무회의를 할 때마다 ‘이천사람 아니면 들어오지 마라, 도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태도를 많이 보았어요. 각계각층의 실무위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몇 시간씩 회의해서 내놓은 안건도 정작 축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속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일본에 ‘테이블 웨어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이십 년째 변하지 않고 매년 지속되는 행사입니다. 일본 도쿄돔에서 크게 열리는 행사로 방송국의 취재 열기도 대단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본 각지에서 만든 도자기로 꾸민 다양한 상차림 공모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합니다. 물론 대중 만든 상차림이 아닙니다. 도자기를 만든 도예가.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사. 상차림을 만든 작가가 서로 의논을 하여 테이블 세팅을 합니다. 부부, 아이, 부모님, 친구들. 즉, 누구를 위한 상차림인지, 일상적인 식사, 혹은 특별한 파티음식인지, 상차림에 담길 음식의 종류는 무엇인지, 모두가 함께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준비합니다.

저도 다섯 번 참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모인 일반인, 대학생, 주부에서 외국인, 바이어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사람들은 다채로운 상차림을 구경하며 도자기 외에 앞치마, 유리잔, 수저, 테이블보 등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지만 다양한 품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교육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를 창의적으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사는 재미가 있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제품도 잘 팔리는 것이지요.

예술은 ‘특별한 재료와 기교양식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 인간의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도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이르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천을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예술의 도시 이천은 도자기를 중심으로 회화와 조각, 건축 같은 현대적인 분야와 자연, 환경, 힐링 같은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본의 사례



이곳은 일본의 아주 작은 섬마을입니다. 나오히마 섬인데 너무 가난해서 한때 폐허가 된 마을이에요. 그런데 다 쓰러져 가는 작은 어촌을 예술의 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도 다다오를 비롯한 일본 건축가와 예술가들이 프로젝트로 낡은 어촌을 고쳐 새롭게 디자인했고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지나가다 재밌어서 찍은 사진이에요. 쓰레기통을 작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범한 동네인데 주민들이 자신의 집 대문을 열어놓아 지나가는 이가 자연스럽게 작은 정원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장의 사진은 일본의 고베시입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마치 동화의 집처럼 생긴 상품가게가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가게입니다. 그 옆에는 문패예요.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고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는 일본의 작은 섬마을을 여행하면서 마주친 수많은 예술품 중에서 이 작은 게스트하우스가 가장 큰 예술품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천에도 외국인이 감탄을 하며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실이 있는 관광지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건축이 조화롭게 어울려야 합니다. 이곳은 주로 일본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온천마을인데요. 고작 두 시간 남짓이면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은 전통적인 먹을거리를 파는 상점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립니다. 거리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점부터 우아한 테이블이 있는 식당까지, 관광객은 이 골목만 지나가도 재미있는 볼거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맛있는 전통음식이 참 많죠? 우리 이천에 전통음식을 파는 이런 골목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맨홀뚜껑은 어떻습니까? 천편일률적인 우리나라 맨홀뚜껑과는 많이 다르죠? 맨홀뚜껑에 아름다운 문양을 넣은 섬세함이 인상적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진속의 대나무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사실 대나무 밑에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철망으로 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환경에 어울리도록 대나무를 이용하여 위쪽을 막아놓은

것이지요. 이처럼 자연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실생활과 연계한 작은 섬세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 최고의 1위만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처럼 작은 부분에서 충분히 감동을 받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작고 하찮게 느껴지는,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유럽과 북미지역의 사례

그리스의 ‘메테오라’는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인데 보시는 것처럼 높다란 사암바위 기둥위에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정교회 신자들의 성지 순례 코스이기도 한 메테오라는 수도자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 벼랑꼭대기에 지은 수도원입니다. 저는 메테오라를 처음 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은 아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종교를,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 낸 건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남부의 도자마을입니다. 사진만 보아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단아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의 메테오라, 프랑스남부의 도자마을을 여행하면서 우리 이천의 도자마을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천의 건축물은 대부분 높고 크고 화려하지만 정작 가장 귀중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하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메테오라’는 비록

넓고 투박하지만 신념을 위한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는 공간이라 관광객  
 의 가슴을 울리고, 프랑스 남부의 도자마  
 을도 이곳이 도자마을임을 나타내는 특별  
 한 건축물은 없지만 마을전체가 독특한  
 개성을 은근히 뽐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의 사진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피카소  
 미술관 앞에 중고서적이나 그릇, 과일과  
 채소를 내다파는 작은 시장이 열리고, 시  
 장 옆 느티나무 아래에는 한 아주머니가  
 마치 모노드라마처럼 옛날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관객이 많지  
 않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즐기는 모습이  
 한편의 멋진 그림처럼 감동으로 다가왔습  
 니다. 예술의 도시는 외적인 건  
 축물도 중요하지만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예술을 즐기는  
 모습, 이천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그랜드빌 아일랜드라  
 는 지역입니다. 작은 항구도시인데 예술적  
 인 감성을 입혀 개성이 넘치는 예술의 도  
 시로 디자인된 곳입니다. 이곳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일본이나 유럽처럼 실생활에  
 예술이 녹아있습니다. 다양한 물품을 취급  
 하는 상가건물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로 지어졌습니다. 공사장에서나  
 쓰일법한 컨테이너 건물에 예술적인 감성  
 을 씌워주니 이처럼 독특한 풍광의 거리  
 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디자인대학인  
 에밀리 카 대학(Emily Carr



University of Art & Design)이 있는 곳 답게 도시 곳곳에 예술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레미콘트럭에도 예술적인 감수성이 닿아있습니다. 도시의 크고 작은 것이 함께 모여,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는 곳. 바로 이런 곳이 예술의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 틀에 박힌 사고를 깨자

도예고등학교 교장을 지낼 때 학생들과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자교육협의회(NCECA: 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for the ceramic art)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앤시카는 1967년 미국도자협회에서 독립한 단체로 진보적인 사고와 정보교환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활동적인 전시,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여 도자 관련 교육자와 전문가, 도예가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도자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곳입니다.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였지만 다행히 이천시의 도움을 받아 교사1명과 학생4명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관람객 앞에서 물레시연과 조각시연을 하였고 구경하는 외국인의 질문에 친근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날의 경험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훗날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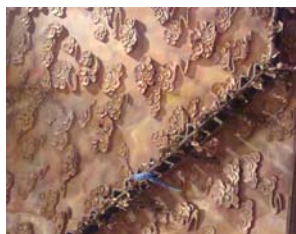
캐나다의 거리를 걷다보니 많은 배너가 걸려있었습니다. 무언인지 물어보니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가 먹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식 '신토불이'운동인 셈이지요. 그런데 배너의 그림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물었더니 뜻밖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택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사고방식으론 당연히 돈을 주고 전문디자이너에게 의뢰를 맡겼을 것 같은데 이곳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찬찬히 생각해보니 초등학생의 소질을 어려서부터 발견하고, 계발시킬 수 있는 좋은 진로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 독특한 개성이 필요하다

‘도자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있지만, 일본, 유럽, 캐나다의 도자 마을은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의 성공적인 도자 마을은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유리 박물관이나 담벼락을 가득 뒤덮은 용이 인상적인 중국의 도자 마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도자작품으로 벽을 치장한 대만 도자의 메카, 잉거(Yingge)까지.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이천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천, 특히 신둔지역은 도자기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적어도 신둔면의 관공서나 학교,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음식점 등을 다양한 도자제품으로 디자인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자와 백자, 분청처럼 전통적인 소재로만 디자인하면 다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도자기를 활용하되, 도자기를 회화처럼, 혹은 도자기를 조소彫塑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하여 마을을 디자인하면 어떨까요? 이천만의 독특한 예술적 감성을 품은 지역으로 재미있고, 멋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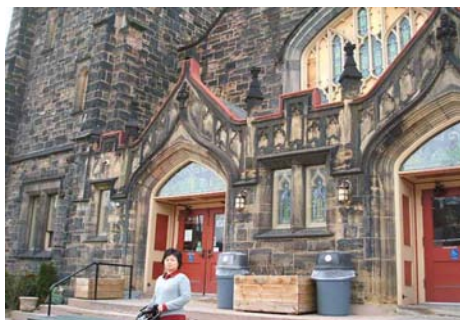
## 독특한 도자작품 아이디어 사례



지금부터 제가 여행하면서 발견한, 도자기를 활용한 작품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작품은 작은 구름모양의 도자기를 하나 하나 붙여서 만든 장식입니다. 도자기를 활용하여 마치 산수화 그림처럼 웅장하게 표현을 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양이, 다른 나라

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의 핵심입니다. 가운데 작품은 무엇처럼 보이세요? 작은 난장이를 표현한 조각품 같지만, 실은 캐나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견한 재미난 의자입니다. 아이디어가 독특하지요? 오른쪽에 화려한 도자기가 시선을 끄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미국 피닉스의 어느 레스토랑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라기 보단 고급스러운 침실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는 철거할 위기에 처했던 오래된 교회를 도예인에게 임대하여 창의적인 공방으로 재탄생한 건물입니다. 서너명의 작가들이 공방을 운영하여 작지만 알찬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세면대 위에 도자기로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보이십니까? 처음 말씀드렸다고 저는 이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라믹 예술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도자예술도시를 돌아보며 발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결국 도자기가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도시 이천으로 거듭나려면 역설적으로 도자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도예전문대학의 필요성

처음으로 한국도예고등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했을 때,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들었습니다. 당시만하더라도 이천에서 공부를 잘하

는 학생들은 한국도예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예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 도예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자연의 이치처럼, 도예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지도했습니다.

몇 년 전만하더라도 이천과 여주의 전문대학에 도자학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이천과 여주의 전문대학 도자학과가 사라졌습니다. 도자도시라 자부하는 두 지역의 도자 전공학과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도자산업의 현 주소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천이 우리나라 도예문화의 중심이라면 도예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최소한 국립 혹은 공립 전문대학이 한 개쯤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전통도자기술과 현대도자기술을 함께 전수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이천에서 25년여를 재직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학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4년제 대학이 어렵다면 전문대학이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몇몇 도자명장님과 의논한 결과 폴리텍대학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폴리텍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역에서 학교부지와 건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세계기능올림픽대회 출전종목 학과가 있어야 하는데 도자기학과는 대회에 별도의 종목이 없습니다. 결국 아쉽게 대학유치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도자기 관련 직업학교의 학비가 무료입니다. 다만 입학조건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학교가 있는 도시에 도자기공방을 창업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도예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요. 일본의 아리타대학 도자학과는 원래 2년제 과정이었습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도자산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오히려 도자학과를 4년제 과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연구해야 한다는 일본의 마인드는 배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한 사회가 만들어 낸 물질적, 정신적인 산물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둘 누적되어서 만들어 집니다. 이천도 도자기축제가 세계적인 수준의 도자비엔날레가 되고 신둔

면에 도예촌이 조성되는 등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 도예고 옆이나 도자마을에 언젠가 도자전문대학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의 도예인과 시민의 열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서희, 밀레니엄영토를 다시 그리다

- 불과 결혼하여 나무를 낳다 -

**윤한택** 문자기술자. 청명선생 문하에서 한학 수업, 〈사람과 땅의 문학〉 동인, 우이선생 문하 서도 수업, ‘바로 보는 우리역사’, ‘사회과학계론’, ‘고려전기 사전연구’, ‘고려양반전 연구’ 등을 저술하였다. 현재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조선사’의 고려사 부분을 집중 검토하여, 일제 관학자와 성리학자들의 공모로 ‘고려사’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아침인데요. 4월 21일이 절기로 곡우였습니다. 곡우 때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봄비가 내리면 농부의 마음은 절로 기뻐서 좋아하는, 그런 순박한 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천에도 이렇게 봄비와 같은 귀한 손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이천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서희 선생이잖아요. 이 서희 선생을 이천의 문화적 자산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서희 선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선양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6월 16일에 서희테마공원과 서희역사관이 정식으로 개관을 하는데요. 지금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서희에 대한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이를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자화자찬하는 식의 내부의 시각보

다는 좀 더 객관적인 외부의 시각이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이나 편견들, 사회적 장벽들을 부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될 분은 윤한택 교수님이신데요. 고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또 경제학 전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이(牛耳) 신영복 교수님 밑에서 서도를 사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후학들을 길러 내셨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서회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윤한택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 1. 시작하는 말

사회자께서 저를 거창하게 소개하셨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할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좀 가늠해 보니까, 서회 선생님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다루어 오히려 김을 빠러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서회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 아실 텐데 제가 더 이상 무엇을 덧붙이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새삼스레 강의 부탁을 수락한 것에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 이야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죠? 우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제게 강의를 부탁하시면서 강의 제목을 ‘서회, 밀레니엄 영토를 다시 그리다’ 이렇게 주셨어요. 정말 21세기적인 창의적인 발상의 제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훌륭한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주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불과 결혼하여 나무를 낳다’로 붙였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긴죠. 이게 무슨 얘긴지,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접근해 보

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에서 제게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몇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서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말고 시각을 좀 새롭게 해서 보는 게 어떨겠는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콘텐츠로 다양하게 만들어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생활과 밀접하게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적 관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강의의 방식은 미국에서 시작된 TED 강의처럼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하셨습니다. 강의 진행은 2시간 중 대략 40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다시 40분 질문하고 응답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관점에서 써 놓은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설봉문화’라고 하는 이천 문화원에서 낸 잡지에 ‘구만리뜰’이라고 하는 글을 보니 아주 자세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 나온 ‘인문학 총서2,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책에 보면 각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 얘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잘 정리해서 활용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이야기꾼들이 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야기꾼 소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하겠고, 서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정리하는 게 될까, 서로 다른 시각들을 잘 정리를 해서 조금 더 다양한 시야를 가지고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될까, 그런 방법들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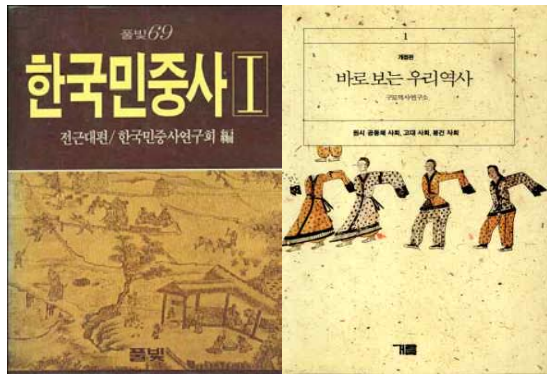
## 2. 민중적 관점의 역사 인식

‘생활밀착’, ‘생활공동체’, ‘여기 지금’, ‘민중적’ - 이런 말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저항적이고 창조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말들이잖아요. 저도 젊은 시절엔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맥이 빠져서 그런지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아까 제가 서희 선생님을 맥 빠지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새 한창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까지 오게 된 과정에 제가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교과서 자체가 좀 좌편향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던 출발점이 ‘한국민중사’라는 책이었어요. 그 한국민중사라는 책을 내고 우리가 뭇을 이어받아서 ‘바로 보는 우리역사’라는 책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구로 역사연구소’라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특히 제가 초대 소장이 되어 책임지고 그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좌편향’ 책의 대표적인 책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두드려 부수고 국가 차원에서 바른 역사책을 쓰겠다고 나온 게 국정교과서 사태인데, 일단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떠나 있었긴 하지만 한때 문화 동네에서 밥을 벌어먹다 보니까 그 때 그 시점에서는 문화 방면의 생활공동체나 민중적 관점이나 기타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것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죠. 실천을 앞세웠고, 사회를 바꾸어내려면 무슨 이론이 필요한 거냐. 이 세계는 해석하는 게 아니



한국민중사(1986)와 바로보는 우리역사(1990)

고 변혁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주류((周流)하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흐르자. 세월에 얹혀서 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겉으로는 상당히 맥 빠진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단단한 걸 만들어서 이제 좀 멈추고 전체를 좀 더 넓게 바라보고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뭔가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뭔가 확 이렇게 힘 있는 그런 얘기는 안 될 거 같아요. 속이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 3. 인문학에 대한 두가지 흐름 - 동양 고전과 포스트모던

제가 보니 이 강의의 목적이 이천의 인문학을 하자는 것 같아요. 인문학 열풍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인문학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서 이걸 이천 지역에서는 어떻게 끌어내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의 이야기꾼으로 이야기를 끌어왔다고 생각해요. 이천에서 인문학을 어떻게 할 건가.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는 이야기꾼을 만들어 내면 좋겠다. 이렇게 상당히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그 이야기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있을 거고, 그럼 이천을 대표하는 인물인 서희 선생 얘기를 먼저 해 보자, 오늘 얘기가 이런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문학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시비를 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하면 새로운 시각도 안 보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인문학과 관련 해가지고 떠오르는 인물 중 올해 돌아가신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저의 '신영복 선생'이고. 또 한 분이 서구에서의 '움베르토 에코'(Umberto



움베르토 에코(1932~2016)와 신영복(1941~2016)

Eco)입니다. 인문학 하면 먼저 신영복 선생님 계열이 떠오릅니다. 21세기에 노자와 장자, 논어, 그리고 불경 원전 같은 동양고전을 읽는 흐름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흐름을 보면 움베르토 에코 등으로 대표되는데, 이런 조류를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지요. 이

게 인문학의 대종을 이루는 두 기둥입니다.

먼저 ‘포스터모던’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포스트모던 흐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프랑스 역사학자그룹인 아날학파<sup>1)</sup>가 있습니다. 아날학파라고 하면, 알튀세르(Louis Pierre Althusser), 발리바르(Étienne Balibar),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죠. 기존의 막시즘 자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흐름입니다. 구조주의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 비유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연못 가운데 조약돌을 하나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죠. 동심원을 이뤄서 이렇게 뻗어갑니다. 그러다가 파문이 연못 언덕에 닿으면 되돌아옵니다. 동심원이 작아지면서 다시 중심으로 오고, 이게 또 커지면서 그 세기가 줄어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문들이 지속적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의 움직임을, 조약돌을 하나 던졌을 때 일어나는 파문의 움직임으로 추적해낸다 이게 구조주의죠. 구조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의 깊이와 얼마의 강도로 이게 나타나고, 이거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느 정도의 힘과 강도로 나타

1) ‘아날’은 연보라는 뜻으로 아날학파는 1929년 L. 페브르와 M. 블로크에 의해 창간된 역사잡지 ‘사회경제사 연보’(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를 중심으로 형성된 프랑스 역사학파를 말한다. 이들은 인간의 삶에 관한 모든 학문 분야를 통합해 생활사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며 1970년대 이후 세계 역사학계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난다. 이런 식의 얘기가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대략 이야기한 구조주의인데. 그게 프랑스 중심의 아날학파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독일 중심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버마스(Jurgen Habermas)라는 사람의 소통이론, 커뮤니케이션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학문 전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학파입니다. 이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트(Sigmund Freud)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에게 제자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파문을 당한 융(Carl Gustav Jung)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프로이트와 융 사이의 차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프로이트를 신경학자로, 융을 정신학자로 보고 신경과 정신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신경정신분석학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리해야 한다는 거죠. 프로이트가 융을 파문한 이유가 자연과학적인 관점을 떠나서 이것을 신비주의로 끌고 가버렸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실재론’을 벗어난 것, 이게 융을 파문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관념적으로 흘러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과 정신을 엄격히 구분해 봤습니다. 현재 우리의 논의 범위에서 포스트모던의 대략적 흐름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해 두기로 하죠.

그리고 다음 ‘동양고전’은 대략 말씀드렸는데, 유학 쪽의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주역 등 이런 강의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특히 주역 강의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교는 처음에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원효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까지 들고 공부하는 그룹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자, 장자를 위주로 하는 고전 강의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군요.

#### 4. 인문학의 문제점 - 복고주의와 기술경시

그런데 이제 ‘포스트모던’과 ‘동양고전’으로 대변되는 인문학을 가만히

들여다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복고주의와 기술경시입니다. 먼저 복고주의는 무조건 옛것으로 되돌아가려는 태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근대사회가 위기의 순간에 도달했고 이것을 뛰어 넘으려면 당장 새로운 것이 없으니 자꾸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포스트모더니든 동양고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들뢰즈(Gilles Deleuze)가 ‘천개의 고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복고주의적 경향으로 말하면, 옛것 가운데에서 찾아내야 되긴 하겠죠.

하지만 자꾸 옛날 얘기만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옛것에서 뭔가 찾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과연 그거 알아서 뭐할 건가? 옛것으로 돌아가서 어찌자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신나게 인문학 강좌를 하면서도 무의식중에 이걸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온고지신’ 가지고 안 되니 ‘법고창신’이라는 말을 쓰고, 또 ‘수왕지래’라는 새로운 말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가지고 제일 정치를 잘 한 사람이 정조입니다. 정조 같은 사람이 아주 똑똑한 자기 신하들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걸 썼습니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온고지신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옛 것을 익혀서 새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조가 그 자리에서 단번에 경을 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초심자들이나 하는 소리다. 옛날 것 아무리 익혀봐야 새 것이 나오느냐? 옛날 것에서 무슨 새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정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옛날 것을 잘 살피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게 보인다는 소리다.’ 이렇게 정조가 얘기를 해요.

그럴 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들에게는 주자만이 그냥 최고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온고지신이라는 말 자체가 자꾸 옛날 공부 하라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게 성리학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파한 거죠, 정조 자체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양반이 그때 그 대목에서만은 상당히 포스트모던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정조는 그런 식으로 신하를 다루었고 그렇게 해서 다 나가떨어집니다. 이렇게 옛날 왕 조차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제 진보적이라는 실학자들을 보죠. ‘온고지신’가지고 안 되니까,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창(創)은 ‘창조’란 말인데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과연 정부 차원에서 이것 끌어낼 수 있는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요새는 ‘수왕지래’(數往知來)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데 온고지신의 원문이 주역의 수왕지래라고 합니다. ‘지나간 것을 헤아려서 올 것을 안다’는 뜻인데 어디 가서 온고지신, 법고창신 쓰지 말고 수왕지래를 쓰면 그럴 듯해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복고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서 뭔가를 끌어내오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끌어내올 건가. 이런 식의 고민은 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에 이 분들은 뭔가 그럴 듯한 말을 많이 하고, 휴머니즘이 어떻고, 그 당시 실천적으로 뭘 해야 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얘기 속에 은연중에 기술경시가 깔려 있습니다. 정신만을 갖고 자꾸 이러다보니 뭔가 기술 자체가 장애가 되는 듯이 치부되는 거죠. 기술이 인간 자체와 별도로 취급되죠. 그래서 그게 비판이 지나치다 보면 기술경시란 것이 자기도 모르게 깔리게 되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고주의와 기술경시라는 이 두 지점을 넘어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 5. 신비와神通 - 비결정성

복고주의와 관련해서 아까 포스트모던이나 동양고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고주의와 관련해서 주로 많이 다루는 소재가 뭐냐 하면 신화입니다. 여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신화 얘기를 소재로 써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봉문화의 ‘구만리 뜰’에도 그 소재를

보면 신화 관련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문화원에서 발간한 ‘인문학총서2’에도 신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 신화 얘기가 복고주의와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까 그 방법을 고민하다가 제가 단어를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신비’(神秘)라는 말과 ‘신통’(神通)이라는 말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신화를 얘기하되, 그걸 신비주의로 끌고 가서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겠다. 신통한 부분으로 끌어내자. 고놈 참 신통한데. 이렇게 얘기할 때 신통과 신비의 의미는 뭔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비는 어디 숨어 있고 감춰져 있어서 뭔가 재미는 있는데 관념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걸 말하는 반면에, 신통은 그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보다는 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로 통하는 데서 느끼는 희열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화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신비와 신통이란 말로 구분해서 써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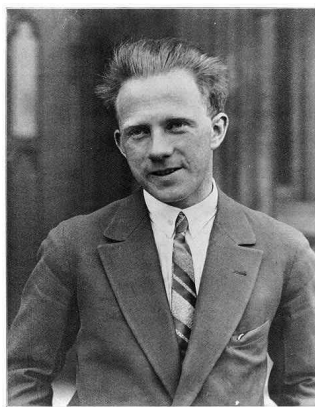
그 다음에 또 하나, 복고주의를 돌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개 동양고전을 읽다가 끝에 가면 다가오는 단어가 ‘중용’, ‘중도’입니다. 이 중용, 중도라는 의미의 반대쪽에 ‘극단’이 있는 거죠. 근대 문명이 지나치게 극단으로 흐르게 되는데 극단 자체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대안으로 중용, 중도를 찾는다. 그래서 동양고전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수십 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 고민을 좀 오래 했어요. 우리가 90년대 들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근 30년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용·중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복고적 경향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오래 고민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원래 경제학이었고 그러다가 국사학으로 갔고, 문화 동네에서 밥을 벌어먹었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공부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뛰어 넘으려면 소위 융합의 시대에 자연과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애를 자연과학 쪽으로 보내고 그 분

야에 대해 애들한테 장학금을 쥐 가면서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옛날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철학이라는 게 물리학 위에 서 있잖아요. 물리학 중에서도 전통 고전물리학, 그러니까 뉴턴, 아인슈타인 이후의 소위 양자물리학까지 갔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골치 아파하는 건데, 그 정체도 모호해서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잠시도 없으면 안 되는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은 원천이거든요. 그게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입니다.

이 양자역학에 대해 우리가 자세한 것, 아주 복잡한 수식은 모르더라도 그 문명사적인 의미는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존의 극단에서 중용 중도로 가야 한다는 것을 딱 한 걸음 좀 더 심화시키는 단서가 보이게 된 겁니다. 기존의 모든 사고는 결정론이었고, 모든 것은 다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지난 20세기까지는 한 치도 어긋나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내주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게 물리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그게 관념론 상으로 중용 중도의 어떤 지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론 자체를 실제로 뛰어 넘을 수 있는 이론이 이 양자역학의 비결정론 혹은 불확정성 이런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원래 모든 사물 자체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자의 시대에서 이 양자의 시대로 넘어 오면서, 사물 자체가 원래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senberg)라는 사람이잖아요. 물리학자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 시야를 좀 더 넓게 하고 우리의 미래 자체를 흘러가는



하이젠베르크(1901~1976)

방향으로 제대로 흘러가게 하려면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결정성의 문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6. 불과 결혼하여 나무를 낳다

신화 속에서 신비와神通 개념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가지고 제가 이걸 읽어오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더 구체화 돼서 나왔습니다. 미르치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읽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과 속’(The Sacred and the Profane)이라 하는 책인데 유명한 책이죠.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86년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사람입니다. 철학 공부, 종교학 공부하다가 인도에 가서 좌선 이런 것도 하고, 또 파리 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 대학 교수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필생의 업적으로 쓴 게, ‘세계종교사상사’(Geschichte der Religiösen Ideen)라는 책입니다. 세 권으로 된 책인데 2006년쯤인가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2년에 걸려서 아주 잘 번역이 돼서 저도 통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화를 이 분이 두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프로메테우스형’, 또 하나는 ‘하이누엘레형’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위해서 불을 훔쳐왔다가 벌을 받게 된 신인데요. 제우스 신한테 가서 불을 훔쳐 왔다가 그 벌로 두 손과 발이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파 먹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것이 불과 관련된 하나의 신화적 유형인데요. 이 프로메테우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으로 하이누엘레 즉 야자수 잎이라는 뜻입니다. 야자수가 나무잖아요? 설봉문화의 ‘구만리뜰’에도 보면 우주목 신화가 나오잖아요? 우주목 나무와 관련된 신화입니다. 나무신화를 우리 신화에서 가장 잘 이해하려면 단군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단군 할아버지의 신단수 아래’라고 하는 그 신단수죠. 그게 몽골리안 루트로 이쪽으로 죽 오

면서 그쪽에 다 퍼져 있고 또 남만까지 퍼져 있는 하나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나 하면 이 우주가 거대한 하나의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나무의 뿌리와 가지, 줄기와 잎, 모두에 모든 사물들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유형은 아까 우리가 불을 뺏어 오고 그것 때문에 평생 간을 쪼아 먹히고 하는 식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아까 프로메테우스 유형, 불의 신화와 대비해서 이쪽은 나무의 신화, 하이누엘레 신화가 있는 거죠. 사실 인류의 계급사회는 끊임없이 불을 훔치는 역사였던 거죠. 그러나 한편 불을 훔치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나무가 되기를 바랐다. 근데 이 나무는 또 다시 불이 되고, 또 나무가 되어 가득 차면 불을 일으켜 숲이 태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나무가 가득 차면 거기서 서로 비벼져서 불이 나고 또 숲을 태워 버립니다. 또 그 위에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인류가 불과 결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론 인류와 불의 친화 노력. 그것이 이제 쌓여서 정말 나무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로 간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서히 이야기를 하면서 부제로 ‘불과 결혼하여 나무를 낳다’라고 붙인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 7. 중용 중도에서 불확정성과 비결정성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술경시 문제나 중용·중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하나 좀 구체화해서 풀어야겠네요. 그럴 때 등장하는 인물이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과 닐스보어(Niels Bohr)입니다. 아까 하이젠베르크도 나왔는데요. 여기 아인슈타인의 핵과 닐스 보어의 스마트폰, 이렇게 써 놔습니다만 핵 개발의 역사를 잠시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국제 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첨예한 문제잖아요.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당당한 핵보

유국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 역할에 자기들도 동참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서로 난리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핵의 문젠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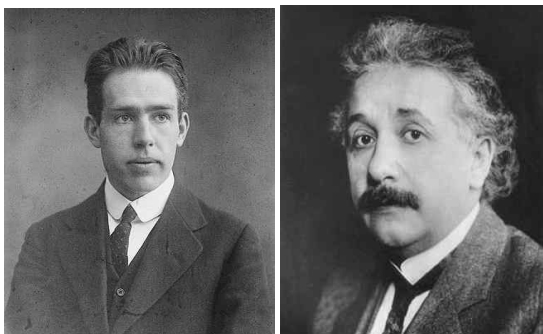
핵 개발의 역사가 시작되던 때가 1927년 그 땀니다. 1920년대예요. 핵과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근대와 현대로의 전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닐스 보어, 아인슈타인은 다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들입니다. 히틀러에게서 핵 개발을 제안 받았던 하이젠베르크는 닐스 보어의 조수였어요. 이 사람들의 지역이 어디냐 하면 덴마크예요. 덴마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안데르센도 있어요. 그 덴마크에서 이 자연과학 사상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1927년에 일어납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언쟁이 붙었습니다. 엉뚱하게도 물리학자들이 신에 대해 논쟁을 한 겁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God does not play dice with the universe.”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그 때 닐스 보어는 비유하면 주사위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거든요. 주사위를 던져서 확률을 따지는 거죠. 이전은 가설을 세워 놓고 결론을 유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짝 끊임없이 갔던 뉴턴시대였죠. 하지만 확정적인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게 닐스 보어의 주장이었어요.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를 따지듯이 하는 이런 주사위 놀이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의 불확정성 이론에 시비를 건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뉴턴에 근거해서 그 지점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이론과 특수 상대성이론을 가지고 오면서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수정해 갔죠. 시간도 상대화시키고, 공간도 찌그러 뜨려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뉴턴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멋지게 닐스 보어라는 사람이 응수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Einstein, stop telling God what to do.” 신이 무슨 짓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그만 두게. 당신이 뭐 건방지게 신 얘기를 하고 그러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주사위 던져서

하겠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건드리지 마라. 뭘 그따위 얘기를 하나.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이후에도 논쟁이 계속되었지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그 때가 언제입니까. 1927년입니다. 1920년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또 나름대로 대단한 한 시대를 넘어가던 때입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세계 대공황이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일어나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잖아요? 또 독일과 일본이 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점에 독일이 등장하는 거죠. 독일이 그때 닐스 보어의 조수였던 하이젠베르크에게 핵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 왔죠. 하이젠베르크는 닐스 보어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해 줄 생각이었어요. 과



닐스 보어(1885~1962)와 아인슈타인(1879~1955)

학자 입장에서 그게 무슨 가치든 상관없이 본인이 해달라면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닐스 보어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히틀러에게 핵무기를 손에 쥐어준다면 파멸을 야기하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당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소련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게 대처점에 있으니까 우리는 같이 공개하자.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 자체를 독일에도 공개하고 러시아에도 공개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사찰이 오고 닐스 보어가 견디지 못해서 스웨덴과 영국으로 망명을 해서 나중에 미국으로 가게 되죠. 미국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30년대가 지나고 40년대가 지나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이걸 잡아채서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

국은 아인슈타인에게 자문을 구해서 소위 맨하튼 프로젝트로 핵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했던 닐스 보어는 끊임없이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그와 그 아들 아게 보어(Aage Niels Bohr)는 모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자연과학사상에 있어서의 근대의 마지막 발명품은 핵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가지고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그것은 불의 무기입니다. 지금이 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 장난치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거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내고 알파고를 만들어 내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과 나무의 대비, 스마트폰이 나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까 인문학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경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에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기존의 결정론, 기존의 극단주의를 비판하고 중용·중도로 끌어 왔던 그 흐름 자체를 좀 더 심화해서 문명사적으로 이해하고 비결정론과 불확정성의 흐름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야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경시 부분을 돌파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8. 중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서희 선생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인문학에 대한 흐름, 문제점 같은 걸 짚어보았고 또 현대물리학에 관련된 사람들 얘기를 해서 시각을 조금 조정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양고전 중용·중도의 결론은 우리 결론과 관련해서 불확정성, 비결정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용이 뭘까? 그걸 뛰어 넘으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뭘 뛰어 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유가(儒家) 쪽에서 말하는 중용(中庸)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죠.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也. ‘하늘의 命을 받은 것을 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道라 하고, 그 도를 닦는 것을 教라 한다. 道라는 것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희로애락이 발현되지 아니한 것을 中이라 하고, 이것이 발현되어서 모두가 절도에 들어맞는 것을 和라고 한다. ...中和 和에 이르면 천지가 제 자리를 잡고 만물이 양육된다.’ 이게 중용의 뜻인데. 희로애락 안에 들어 있는 거를 적절하게 발현시켜라. 한마디로 이런 소리거든요. 그게 중용입니다.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도(中道)는 대표적으로 법성계(法性偈)에서 보면, 法性圓融無二相 ‘법성은 원융해서 두 모양이 없다.’ 이렇게 첫구절이 시작하는데, 뒤에 가서는 窮坐實際中道床 ‘마침내 실제로 중도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도(仙道)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노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위(無爲)가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비상(非常)이 그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자 도덕경 1장을 보면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비상명의 의미를 사람들은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상도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려면 비상의 도여야 한다. 명을 명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비상의 명이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자 자체가 아까 얘기한 그런 기존의 결정론 자체에 반대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玄之又玄, 衆妙之門. ‘가물가물한 것이 모든 오묘한 것의 들어가는 입구다.’ 이렇게 도덕경 1장이 끝나거든요. 여기서 현(玄)자는 검을 현이 아니고 가물가물하다는 현입니다. 고유섭 선생의 호가 우현(又玄)입니다. 우리나라 미학의 기틀을 세우신 고유섭 선생 아시죠? 그 현이 거기서 따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비상이라는 개념, 중용의 개념과 같다고 생각이 돼요.

# 剝 復

그 다음에 주역(周易)에서는 신영복 선생 같은 경우에는 희망을 얘기하시면서, 박괘(剝卦)나 복괘(復卦) 쪽에, 그러니까 석과불식(碩果不食)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때 박괘는 위가 산(☶)이고 아래가 땅(☷)이거든요. 모두가 음효이고 맨 위의 하나만 양효가 남아, 박살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박(山地剝) 괘라고 해요. 주역의 스물세 번째 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괘를 ‘산지박산한 이순자(23)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괘는 위가 땅(☷)이고 아래가 우뢰(☳)입니다. 지뢰복(地雷復) 괘라고 하지요. 모두가 음효이고 맨 아래 하나만 양효로 시작하니, 복구하는 형상입니다. 주역의 스물네 번째 괘라서 저는 ‘지뢰복구하는 백담사로 이사하니(24)’라고 외워요. 위에 박괘가 23번째 괘고 그 다음 복괘가 24번째 괘.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요걸 굉장히 강조했죠. 이걸 가지고 ‘씨과실은 먹지 않는다, 혹은 먹히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석과불식’이라는 휘호를 써서 많이 유행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중용을 얘기할 때 더 적절한 괘로는 60번째 괘가 있는데, 수택절(水澤節) 괘라고 그래요. 위가 물(☵)이고 아래가 못(☴)입니다. 산골짜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못에 이렇게 고이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차면 다시 흘러보내죠. 그 수위를 조절하는 거라서 저게 절괘(節卦)가 됩니다. 뭐든지 가득 차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한 70프로 지점으로 내려

오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자기 능력의 70프로 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용·중도의 의미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절(節)의 의미가 뭔가, 중도가 뭔가, 중용·중도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중(中)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야 대단하네, 그럼 되겠네, 삶의 지표로 삼아야겠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 걸음 더 내디뎌보자는 취지로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절과는 이런 거죠. 저는 자호를 ‘절로’(節路)라고 씁니다. 우리말로도 절로예요. 우리말의 절로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로의 첫 번째 의미는 1인칭인데, 1인칭의 의미는 ‘저로부터’입니다. 그리고 2인칭의 의미는 타인에게 ‘절을 함으로써’이고, 그리고 3인칭이 바로 ‘저절로’입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낼 때 제 이름 뒤에 반드시 절로를 붙입니다. 그리고 어른들께는 ‘절로 드립니다.’라고 붙이고. 윤한택 절로 이렇게. 지난번에 자본론을 번역하신 김수행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이 분이 메일을 쓰면 꼭 뒤에 ‘건투’를 붙였다고 해요. 그분 장례식 때 추모자가 엄숙한 분위기를 깨려고, 나는 죽어서도 건투를 빌 것이라고 농담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글을 쓸 때 거기에 자기를 각인시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얘기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 9. 모순에서 상보로

이렇게 중용·중도의 의미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하고 정리를 하면서, 인문학 자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나아가 알파고시대의 인문학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불과 나무를 매개로 해서 풀어 보았습니다. 그것을 용어로 만들면 ‘모순에서 상보로’가 되겠습니다. 모순이라는 개념은 평생을 두고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지하 시

인과 이 모순 개념을 가지고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분 중에 윤노빈 교수가 있습니다. 원주사람인데 ‘신생철학’이라는 책을 썼고 지금은 북한으로 갔어요. 1980년대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초반이면 민주화운동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존경 받고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도 있던 이런 시점에 돌연 월북을 했어요.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요. 대만과 중국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송두율 선생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 가서 대남방송 ‘구국의 소리’ 이런 데서 방송 원고를 쓰고 있답니다. 또 가서 지옥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그 부인은 당신을 내가 지옥에까지 가서도 저주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분의 저서인 신생철학 중에서 이 모순 상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물 존재의 본질이 모순이 아니라는 그런 설명을 하려고 예를 든 게 바둑돌입니다. 바둑돌의 검은 돌과 흰 돌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다. 일종의 상보개념이다. 이러면서 그걸 실천하러 간 것일까요? 그 당시 남한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니 됐고 민주화 운동도 성장하여 제대로 때가 되었다. 이제 문제는 북한이다. 내가 북한을 비판할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몸으로 뭔가를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니면 그런 짓을 왜 했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반대로 내려온 사람이 주체사상을 만든 황장엽인데, 서로 대비가 돼요. 거기다가 이론을 다 만들어 놓고 아래쪽에 내려 와서 잘 살았어요. 윤노빈과 황장엽의 얘기는 이 시대 20세기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모순 얘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모순에서 상보로’, ‘불과 결혼해서 나무로’ 등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인류는 여전히 불과 결혼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잔재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나무의 본질로 끌려 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 서희 선생을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얘기를 종합하면 기존의 인문학 문제의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인문학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더 근원적인 신학의

위기였습니다. 20세기까지 인류의 계급사회는 그 신을 만들어 오는 시대였습니다. 중세에만 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을 때 신이 죽은 건 아니었죠. ‘신과 인간이 마주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죽은 신을 또 살려 냈잖아요. 중세의 신은 죽었지만은 상품이라는 신, 물신이 다시 탄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대사회도 끊임없이 신을 만들고 신에 복종하고 신을 따르는 무리가 신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한쪽에서는 자본의 신이, 저쪽에서는 권력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양쪽이 모두 결정론이었지만, 그 길었던 계급사회의 결정론의 성과를 딛고 이제 비결정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역사적 단계에 인류가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 10. 신학에서 신경학으로

‘모순에서 상보로.’ 이걸 자연과학 쪽의 용어로 얘기하면 ‘원자에서 양자로’입니다. 그 설명은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또 해 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설명이기에 기회가 되면 ‘시인을 위한 양자물리학’<sup>2)</sup>이란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래더먼 등이 쓴 책인데, 이게 하도 딱딱하니까 소프트하게 설명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시인도 읽을 수 있는 양자물리학이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문학과 신학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 다 무너진 거잖아요. 자본을 기대했는데 자본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 권력도 우리가 기대했건만 우리 인류의 미래를 짊어지리라고 생각했던 사회주의마저도 무너져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기댈 신이 어디에 있나. 인문학이 문제가 아니라 신학이

2) 래더먼 박사와 힐 박사의 『시인을 위한 양자물리학』. 양자이론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문화적, 문학적, 역사적, 과학적인 관점에서 전달한다. 뉴턴 역학과 고전 전자기학으로 대표되는, 300여 년 동안 이어진 고전적 물리 법칙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양자이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과정을 상세히 재구성한다.

문제죠. 인문학이란 이름으로 포스트모던이나 동양고전, 이 두 축이 그것을 뛰어 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 왔던 거죠.

그걸 조금 더 심화시켜 보자. 그래서 신화를 신비에서 신통으로 끌어가고, 기존의 중용 개념을 불확정성의 개념으로 끌어가면 이런 개념 자체가 제대로 서질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신학’에서 ‘신경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경’(神經)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말로는 ‘신으로 향하는 경로(經路)’ 아닙니까. Road to God, Neuron. 그래서 신경이라고 말을 붙여 봤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과 관련해서는 DNA를 발견한 사람 중의 하나인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의 말을 상기시켜 둡니다. 그는 인간이라는 것은 신경의 복합체라고 써 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끌어 와서 양자역학과 신경학을 연결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서희 선생 얘기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배경에 깔고 두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신통에 관련된 것, 두 번째가 비결정성과 관련된 것, 이 두 개의 사례를 뽑아 왔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사료는 고려사와 삼국사기 뿐인데 이것들이 정사입니다. 그 외에 야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소개해 드린 이천인문학 총서 ‘이천을 스토리텔링하다’ 책 속에 인용된 여러 가지 사료들 중에서 눈여겨보면 ‘환단고기’(桓檀古記)라는 책이 있어요. 서희 선생님이 옛날 몇 대를 올라가니까 저 위에 한단 시대의 그런 누구하고 연결이 돼서 그때 서씨가 있었다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실제로 그랬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다가는 잘못하면 궁지에 몰립니다. 소위 재야 학문적인 엄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괜히 그랬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사를 인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의 이야기는 재밌는 얘기로 하고 이야기꾼 입장에서는 하실 순 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 11. 사슴이야기-신통 고대적 관념 자체가 중세적 관념으로 흐름

서희와 관련하여 먼저 사슴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고려사 열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初弼父神逸郊居，有鹿犇投，神逸拔其箭而匿之，獵者至，未獲而返。  
‘옛날 서필의 아버지 서신일(徐神逸)이 교외에 살았는데, 사슴이 집으로 뛰어 들어오기에 신일이 화살을 뽑고 숨겨주었더니, 사냥꾼이 추격해 왔으나 잡지 못하고 가버렸다.’

夢有神人謝曰，鹿吾子也。賴君不死，當令公之子孫，世爲卿相。神逸年八十，生弼，弼·熙·訥果相繼爲宰相。

‘꿈에 신인이 나타나 사례하기를 “그 사슴은 바로 내 아들입니다. 그대 덕분에 죽지 않았으니 공의 자손은 대대로 재상을 하겠습니까.” 하고 약속하였다. 서신일(徐神逸)의 나이 여든에 서필을 낳았고, 서필과 서희(徐熙) 및 서눌이 과연 이어서 재상이 되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여기서 끄집어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슴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동화에서 들은 사슴 얘기는 나무꾼과 선녀 얘기로, 이 얘기의 다른 버전 아십니까? 금강산에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이 활을 맞고 와서 숨겨줬다. 그랬더니 뒤에 사냥꾼이 쫓아와서 못 봤냐고 물었는데 숲 속으로 갔다고 그랬다. 그 사냥꾼이 가고 난 뒤에 사슴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느 날 보름달이 휘영청 뜨거든 저 연못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할 거다. 그 날개옷을 선녀가 하늘로 못 올라가게 숨겨 놔다가 같이 살면 된다. 애를 셋 낳을 때까지는 날개옷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너무 조르니까 별 수 없이 애 둘을 낳고 나서 날개옷을 다시 내 줬더니 선녀가 날개옷을 입고 애 둘을 양 손에 안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나무

꾼과 선녀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긴데 그 중에 뒷부분을 잘라 버렸어요. 여기서는 그냥 자손들이 대대로 경상이 될 거라고 했죠. 과연 그랬더니 재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서로 비교해 봤죠. 그 나무꾼과 선녀 얘기 자체는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의 얘기는 신통한 얘기라고 해야 할까, 좀 달라졌어요. 어쨌건, 그 부분에서 연결을 어떻게 쉽게 할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예둘러 가겠습니다. 시경이란 책 아시죠? 인문학 강의를 다녀 보면 사서삼경 중에 시경 강의는 잘 안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주역 강의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한데 시경 강의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좀 딱딱하니까 부드러워지려고 시도 쓰고 그림입니다. 요즘에는 경전 강의를 할 때는 시경 강의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시경은 사서삼경 중 하나인 유학의 기본 텍스트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 텍스트가 이루어진 시점은 중세가 아닙니다. 고대거든요. 하 은 주 시대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춘추전국을 거쳐서 공자가 정리를 해서 다시 진대 한대를 거쳐 오면서 유학자들이 중세 봉건의 관점으로 다시 정리한, 그러니까 일신론이죠. 일신론의 텍스트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변질, 왜곡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뭔가 분식(粉飾)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식 부분을 보면, 공자가 채록해 놓은 그 삼백 편을 한대의 정현(鄭玄), 당대의 공영달(孔穎達), 그리고 송대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주자(朱子)가 주를 붙입니다.

바로 그들이 해놓은 일이 우리 사슴 이야기 변조와 비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서필 얘기로 다 바꿔 놨다는 거죠. 서희 집안 얘기로. 그러니까 중세적 이데올로기로 처음부터 다 그냥 분칠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미는 많이 없어져요.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곧바로 신비와 신통으로 구분 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얘기를 그렇게 비유해서 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대사회는 중세사회처럼 대단히 도덕적인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대사회는 야만이 지배하는 시대로 봐야 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무당인데 그래서 무당들이 써 놓은 시, 무

당 관점으로 써 놓은 시를 중세에 도덕군자의 관점에서 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보자는 말입니다.

예컨대 그 시경을 읽어보면 가장 특징적인 게 순장(殉葬)인데 고대 순장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발전 단계에서 지극히 당연한 장례 형태였습니다. 물론 살아 있는 인간이 아무런 자기 생각 없이 끌려간다는데, 죽으러 간다는데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의 논리로 끌려가면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고대사회 마지막을 장식하고 중세로 다시 산 게 예수 아닙니까. 부활하는 거니까. 그런 부활 이데올로기는 다 항상 있었던 거였죠. 인신공여가 원래는 자기 몸을 제물로 주는 거잖아요.

고대에 곡령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곡식에 신령이 있어 다시 땅에 떨어져야 번성한다는 얘기죠. 곡령신앙,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원래의 인신공여가 차츰차츰 변화하는 거죠. 그런 인신공여의 형태가 순장이죠. 처음에는 산 사람을 무덤 속으로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산 사람 대신에 토용, 흙 인형을 넣잖아요. 역대에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처음에 인간을 올렸다가 그 다음에 소를 올리잖아요. 소를 바치다가 그 다음에 그보다 좀 가벼운 양을 바치잖아요.

여기서 그 양 얘기를 잠시 보죠. 이 양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기 한자의 ‘의’(義)라는 글자는 아벨과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나(我)를 양(羊), 희생으로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아벨이 양을 바치고 카인은 곡식을 바치죠. 아벨이 곡식을 받지 않고 양을 받잖아요. 그래서 카인이 질투를 해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카인의 후예가 된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양을 바치다가 그 다음에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게 과일류, 이런 쪽으로 바뀌고 차츰 뒤로 오면서 나중에는 그 상징 자체가 향을 사르는 정도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게 인신공여 흐름의 흔적들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의미도 인신공여의 잔재로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가 서희, 서필의 자손 번성의 얘기로 바뀐 것 자체는 고대적 관념 자체가 중세적 관념으로 이행하는 그런 어떤 흐름과 연결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때 다분히 좀 관념적이고 신비한 색채가 깃들어있는 샤머니즘의 시대로부터 하늘, 하나님을 얘기하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거죠. 동양도 하늘(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무당에서 중세의 신부, 승려로 바뀌어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든 하나님이든 그런 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신비한 부분을 떼어서 하늘에 다 돌려버리는 것이죠. 이게 뭐 옳다 그르다 하기보다도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되어온 부분과 관련돼 있는 거다. 이렇게 역지로 해석해 봤습니다.

## 12. 소손녕과의 담판(비결정성)

소손녕과의 담판. 이게 주제로는 비결정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려 성종 때, 한자는 다르지만 거란도 성종입니다. 이 때 거란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사람들이 거란이, 그 60만 대군이 왔으니까 뭐 땅도 떼 주고, 그 위에 서경 이북의 땅 다 떼 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대단히 위축되었던 거죠. 이 위축된 상황에서 거란의 소손녕 쪽에서 외교 문서를 보내왔는데 그 외교 문서를 딱 본 순간 서희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고려사 열전의 해당 부분<sup>3)</sup>을 한번 보겠습니다.

熙見書，還奏有可和之狀.

서희가 그 문서를 보고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걸 서희가 딱 알아챈 거죠. 이게 뭘까. 그 문서를 보고 서희가 알아챈 게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나와 있죠. 조정 대신들이 땅도 떼 주고 서경에 있는 곡식도 백성에게 나눠

3) 출전: 高麗史 94卷, 列傳7, 徐熙 002

주고 남으면 다 대동강에 넣어 버리고 항복하자 이러는데, 이 때 서희가 나서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면,

食足則城可守, 戰可勝也. 兵之勝負, 不在強弱, 但能觀釁而動耳.

‘곡식이 풍부하면 성을 수비할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강약에 있지 않고, 단지 능히 그 틈을 바라보고 응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성종에게 상주합니다. 그 상태, 상황을 보라는 거죠.

何可遽令棄之乎, 況食者民之命也, 寧爲敵所資, 虛棄江中? 又恐不合天意.

‘어떻게 그 곡식, 식량들을 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의 목숨이니, 차라리 적의 자산이 되도록 할지언정 어찌하여 강 가운데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늘의 뜻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自契丹東京, 至我安北府, 數百里之地, 皆爲生女眞所據, 光宗取之, 築嘉州·松城等城.

‘거란 동경<sup>4)</sup>에서 우리나라 평안북부까지 수백리 땅은 모두 생여진이 거처한 곳이었습시다. 그런데 광종이 그것을 쳐서 가주성 그리고 송성 등의 성을 쌓았습시다.’

今契丹之來, 其志不過取此二城, 其聲言取高勾麗舊地者, 實恐我也.

‘지금 거란이 온 것은 그 뜻이 이 두 성을 취하려고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짐짓 고구려의 예전 땅을 취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나 실지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란이 보내온 그 외교문서를 읽은 후에 서희가 딱 알아차린 겁니다. 아까 환단고기에서 안동문화원의 이동수 선생이 지적해 놓은 그 부분과도

---

4) 여기서 거란의 동경은 현재의 요양을 말한다.

연결됩니다. 아마도 고구려 시대와 혈연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때의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그런 지혜를 여기서 읽을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만 앞을 보면 이때가 990년대니까, 한 100년 200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당나라 수나라가 고구려한테 와가지고 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서희 선생이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고려는 옆에 송나라가 있었거든요. 바다 건너서도 송나라가 건너와서 힘을 보태주면, 자기들은 60만 대군 가져 왔다지만 이거 망하는 꼴이에요. 겁이 안 나겠어요? 그걸 읽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 것인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전투에서 바로 살수대첩이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신비한 게 아니란 거, 신통한 거죠. 서희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今見其兵勢大盛，遽割西京以北與之，非計也。且三角山以北，亦高勾麗舊地，彼以谿壑之欲，責之無厭，可盡與乎？

‘지금 그들의 군세만을 보고 서경 이북을 떼서 준다면 계책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삼각산 이북 땅은 옛날 고구려 땅 아닙니까. 저들이 그 골짜기 같은 한없는 욕심으로 내놓으라고 강요한다면 내어주겠습니까?’

況割地與敵，萬世之恥也。願駕還都城，使臣等一與之戰，然後議之，未晚也。

‘하물며 땅을 이렇게 떼어서 적에게 준다는 것은 만세의 치욕입니다. 바라옵건대 왕께서는 도성으로 돌아가시고 신들에게 한 번 그들과 싸워보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답판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혼자 답판하러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위험해서 안 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신통한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런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게 적진에 가서는 이제 소손녕이 마당에 서서 절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절을 해.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 숙소에 가서 드러눕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모시고 와서 마루에 같이 올라가서 절하고 공손히 앉게 되죠. 그러고는 소손녕이 서희에게 말합니다.

汝國興新羅地，高句麗之地，我所有也，而汝侵蝕之。又與我連壤，而越海事宋，故有今日之師。若割地以獻，而修朝聘，可無事矣。”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고구려의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가 그것을 침식했다. 또 우리와는 국경을 연결하고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서 송과 교류하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 서희가 바로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죠.

熙曰，非也。我國即高句麗之舊也，故號高麗，都平壤。若論地界，上國之東京，皆在我境，何得謂之侵蝕乎？

‘우리나라가 바로 옛날 고구려의 후계자다. 그래서 나라이름을 고려라 부르고 평양을 국도로 정한 것이다. 만약 그 경계를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전부 다 우리 경계 안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침식했다고 이야기하는가?’

且鴨綠江內外，亦我境內，今女眞盜據其間，頑黠變詐，道途梗澁，甚於涉海。

朝聘之不通，女眞之故也，

‘또 압록강 안팎<sup>5)</sup> 역시 우리의 경계 안인데 지금 여진이 완악해서 길이 막혔으므로 바다를 건너기보다 왕래가 어려우니 조빙이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의 탓이다.’

5) 압록강을 중심으로 고려 북쪽 경계 지역에 대해서는 필자(강연자)가 더 검토하고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향후 다시 이전에 와서 발표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

若令逐女眞，還我舊地，築城堡通道路，則敢不修聘？將軍如以臣言，  
達之天聰，豈不哀納？

‘만약 여진을 몰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되돌려서 도로를 통하게 한다면  
어찌 조빙하지 않겠는가? 그대가 이런 말을 당신 천자에게 알린다면 천  
자는 알아듣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정확하게 형세를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유  
리한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여전히 평범한 일이고 그렇게 뭐 대단  
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냥  
구름 속에 있는 듯이 맹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  
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태를 읽고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겁  
니다. 그게 너무 지나쳐 관념적으로 이야기하고, 심오하게 이야기하고 이  
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문학 자체가  
너무 비판적으로 흘러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경시로 경도되는 경향이 있어  
서입니다. 이걸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꾸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과격하기만 한 것이 인문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불과 결혼하여 나무를 낳다’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인간은 불과 결혼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물의 원래 본질은 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불행한 시대를 건너오면서 인류가 쌓아온 모든 성과  
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궁극적으로 나무의 시대가 오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전망들을 갖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서희 이야기  
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너무 거창합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이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까지 너무 맛있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사회자 : 오늘 해주신 말씀들은 이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  
해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한

가지 재미난 시사점을 얻은 게 있다면 서신일의 동생이 서신통(徐神通)이란 분인데요. 이분의 아들이 서목(徐穆)이잖아요? 서목은 고려태조 왕건이 이 지역을 지날 때 강물이 불어 건널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를 도와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해준 인물입니다. 이천의 고을이름이 유래된 ‘이섭대천’(利涉大川)을 가능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데 신통(神通)이란 이름이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신통(神通)하고 일치합니다. 신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신 신비는 뭔가 감추고 숨겨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통은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고 또 확 통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개념을 서로 대비시켜주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순에서 상보로 간다는 관점들, 그리고 고려사에서 새롭게 읽어내신 서희 선생의 그런 핵심적인 안목들, 그리고 치열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가 처해있는 상황과 이를 돌파해 나갈 틈이 무엇인지 그거를 읽어내는 지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깊이 되새김질 해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의 몫으로 남긴 하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실마리를 끌어내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서희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계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11강

# 이천이 직면한 열 가지 위험한 질문

- 이제는 회피하지 않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

**윤여빈**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센터장. 이천 신문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다. 국가 전례(典禮) 및 의례(儀禮) 분야의 전문가로 수많은 전통의식 고증 및 복원 작업에 참여해 왔다. 현재 경기정신문화와 31개 시·군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뭐 이딴 강좌가 있어?’ ‘당신 이천사람 맞아?’ 를 각오하며

사회자 :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디세이 문화대학을 시작한지 벌써 10강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진행해온 10개의 강의를 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천이 직면한 10가지 위험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딱딱한 강의 형식보다는 인문학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루어왔던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고민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중요한지, 지역을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어떻게 지역에 눈떠야 하는지 이런 문제의식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의 지역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연에 대한 탐구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태도를 견지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라볼 때에도 모든 권위, 인습, 관행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지역의 문제에 접근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위험수위가 높은 질문들을 내놓고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보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처럼 무지의 지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처음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중엔 뜻밖의 발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중간에 얼마든지 끼어들어 질문하실 수 있고 또 코멘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이나 코멘트를하실 때는 1분 이내로 생각을 정리하셔서 질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경기문화재단의 경기학연구센터에 계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전례, 의례분야의 전통의식을 고증, 복원하는 일에 힘써 오셨고,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수많은 지역연구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천이라는 지역성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좌를 위해서 선생님과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가 났습니다.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탈피해보자. 좀 더 도전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천에 대해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좀 가혹한 질문들을 뽑아보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좀 더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궁지로 몰아세워 보자. 이런 공감대 위에서 ‘이천이 직면한 10가지 위험한 질문’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럼 경기학연구센터의 윤여빈 센터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연자 :** 안녕하세요. 윤여빈입니다. 오늘 같은 진행 방식은 저도 사실 어려운데요. 편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학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학연구센터는 경기문화재단의 산하기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을 일기일회(一期一會)라고 하잖아요.<sup>1)</sup> 불교적으로 말하면 일 겁에

---

1) 일본에서 회화를 할 때 접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데, ‘일생 단 한번밖에 없는 만남의 기회’라는 뜻으로, 차를 대접할 때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한번 만난 것을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만난 것도 일 겹의 인연이 아닌가 합니다. 차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더 얘기해드리자면, 달마대사 얼굴 아시죠? 달마대사 얼굴을 보면 뭐가 없어요? 눈꺼풀이 없잖아요. 옛날에 달마대사가 송산의 한 동굴에서 참선을 하다가 잠이 몰려오니깐 견딜 수가 없어서, 달마대사가 눈꺼풀을 떼어 버렸지요. 떼어 버린 자리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게 차나무가 되었어요. 졸음이 찾아 올 때 차를 먹으면 안 졸리게 됩니다. 여러분과 일기일회의 인연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두서없이 말을 많이 하거나, 주제를 벗어나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문학강좌를 하면서 스피נק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요.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시험문제로는 맞추었지만 인생문제로는 맞추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이디푸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질문과 다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문제가 아닌, 인생문제를 맞추어야 그게 진짜인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과 본질을 마주하기 위한 길목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길목을 넘어가야만 새로운 변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 길목에서 스피נק스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스피נק스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사자의 몸과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가가는 순간 위험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 앵그르, 1808

여러분이 마주하실 질문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마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이천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재가 있는가?

- 이천에는 이렇다 할 문화자원이나 고유한 문화가 없다.

**강연자 :** 이천에는 이렇다 할 문화유산이 없는 게 사실이지요. 문화적으로 무엇을 자원화 할 것인지,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하거나 준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을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이 ‘문화도시’를 꿈꾸느냐? 이렇게 물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을 통틀어서 이천을 문화도시라고 말하는 것은 좀 외람된 것입니다. 이천 자체의 문화가 없으니까요. 문화를 붙이는 것이 웃기는 이야기죠. 여기 시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송구하게도 이천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 것도 없죠.

지금은 이천이 도자기 문화를 내세우지만, 광주는 몰라도 역사적으로 이천이 도자기 산지가 아니잖아요. 이 곳 땅값이 떨어지고, 그래서 공장을 유지 못하는 사람이 이천으로 내려온 거죠. 도자기 문화요? 일본에 가보셨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도자기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자기 부분에 대해서 감상용으로만 만들었지, 실생활에서 쓸모가 있는 도자기를 만들려고 했느냐? 그리고 도자기 문화의 궁극은 우주선의 소재로 쓰이는 세라믹 아닌가요? 우주선을 세라믹으로 만드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새로운 산업으로 바꾸지 않으면 도자기 문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없어서 경기도 산하의 여러 기관들 통폐합하잖아요. 도자문

화재단을 없앴다고 그러합니다. 물론 재단에서 많은 일을 해왔지만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생활하고 동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원래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경기도 자체가 문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문화처럼 독특하고 특별한 문화가 없고 그저 짬뽕문화입니다. 경기천년을 기념해서 좀 그럴듯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 ‘좀 다양한 문화다.’ 라고 포장하고 있죠. 냉정히 봐서 경기도가 특징이 없는 것처럼 이천은 더더욱 특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긴, 이천은 경기 남부니까 조계종의 제 2교구가 되겠네요. 제 2교구 중에서 유명한 절이 있느냐? 용주사가 큰 사찰이고, 말사로서 유명한 절이 있느냐? 없잖아요. 영월암? 그건 암자일 뿐이죠. 이렇다 할 서원이 있느냐? 사액 서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난 향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정려가 있느냐?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느냐? 없죠. 서희 선생 외에. 설봉서원에 배향된 분들이 소요재 최숙정, 율정 이관희, 모재 김안국 이런 분들인데, 여기 이천에 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산소는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대인물도 별로 없고, 역대 유명한 정치가가 나왔느냐? 없잖아요. 1961년에 이정재씨 국회의원 못 나와서 다른 사람이 나왔잖아요. 백두진씨가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그랬죠. 내놓을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죠. 유능한 정치인이 나왔느냐. 이렇게 보면 이천이 스스로 문화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자괴감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말씀하신 것처럼 이천이 여주, 용인, 광주 같은 인근도시와 비교해볼 때 문화재라든지, 민속이라든지 그런 전통문화자원이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천에 아무런 문화자원이 없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강연자 :** 만약에 이천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도드람산의 돼지’를 문화상징화하면 어떨까 합니다. 서울사

람들이 도드람포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도드람산의 전설에 나오는 돼지, 이게 효자이야기와 연관돼 있고요.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끌어올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문화상징으로 백사면에 있는 ‘반룡송’이 있습니다. 도선이 심었죠. 신라 말에 국력이 쇠약해지니까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큰 인물이 나기를 기대하면서 길지 다섯 곳에다 이 반룡송을 심었다고 그러잖아요.<sup>2)</sup>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미 큰 인물이 나왔거나 나무가 말라죽었는데 여기 이천에서는 아직까지 큰 인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새로운 인물의 탄생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더 의미가 있고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정감의 상징이니까요. 계룡산에서는 정감이 태어나니까 정감록이 나온 거죠.

이 나무가 있는 그쪽이 마침 어산이, 도립리라는 마을이죠. 도립리에 청학동에서 오신 분이 세운 서당이 있는데 도립서당입니다. 도립리(道立里)가 아주 유서 깊은 동네입니다. 본립도생(本立道生). 논어 학이편에 보면 근본이 바로서야 자연스럽게 나아갈 길이 트인다는 뜻인데, 근본이란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도립리에 있는 ‘육괴정’이 문화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육괴정이 언제 세워진 거냐 하면 기묘사화 때 선비들이 내려와 지은 거니까, 이천의 상징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천의 상징으로 삼을만한 것을 찾는다면, ‘효양산의 사슴’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녀와 나무꾼 설화가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서희선생의 할아버지 서신일이 효양산에 살았을 때,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을 숨겨주거든요. 원형 설화입니다. 서신일이 사슴을 숨겨주고 구해줍니다. 그 이후 내용은 부수적으로 살이 붙은 이야기이고 여기까지가 사실이겠죠. 여기가 이천서씨의 발상지죠. 서희라는 걸출한 인물이 계시니 이 부분을 상징화하

---

2) 도선이 5군데에 이 나무를 심었는데 함흥에는 이성계가 나고, 한양에는 정조가, 계룡에는 정감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강원도에 심은 나무는 말라죽었다고 전한다. 마지막 한군데 남은 곳이 이천의 반룡송이다. 천연기념물 제381호로 지정되어있다.

면 어떨까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까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천은 이런 것들을 문화적 상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희’ 하나만을 상징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희란 분이 냉정히 말해서 이천시민과 밀착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서희가 여기에서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후계자를 기른 것도 아니고 평생 개성에 사셨을 테니까요. 여긴 사패지(賜牌地)였으니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만들 어내느냐가 우리가 해야 할 과제겠죠.

**사회자 :** 서희테마공원, 서희역사관이 6월 16일날 개관할 예정인데, 서희 일대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동상으로 쪽 30여개를 제작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때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창작 사이에 경계는 무엇이고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자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는 냉정하게 역사를 쓰더라도 콘텐츠를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작가가 얼마든지 역사를 소재로 쓸 수가 있잖아요. 해석은 자유죠. 스토리텔링은 우리 마음대로니까 사실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요. 대신 서희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 외교담판이나 강동6주 회복 같은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자님 말씀대로 인물적인 스토리텔링을 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인물됨을 연구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만의 기록이 아니라 중국 측의 기록을 살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서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후대의 인물들, 예컨대 어재연 장군까지 묶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서희 자체로는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자주 상품성을 말하는 것이 외람되지만 흡인력이 떨어

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외교가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외교관 양성에 관한 답사코스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외교라는 것이 단지 국가 간에 교섭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부인하고 잘 지내는 것도 외교구요, 가족 간에 소통을 하는 것도 외교이고, 결국 모든 삶 자체가 외교니까요.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양한 갈등의 소통’ 그런 부분까지 외교의 개념을 일상생활 속으로 확장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을 살펴보면 시군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장 거친 사람들이 울산 사람입니다. 울산사람들이 거칠어요. 안동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지키는 거죠. 울산사람들이 거칠지 않았으면 학성 전투라고 유명한데 임진왜란 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고생들을 많이 했죠. 기질이 세니까 문화전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천도 비슷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천사람들의 기질이 다른 곳 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가 이천의 중요한 표상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이천을 문화도시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의견이 앞서서도 나왔지만, 이천을 소개할 때 ‘아트이천’이라고 하잖아요. 예술의 도시 이천을 표방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아트(ART)라는 말은 활력이 넘치고(Active) 풍성하고(Rich) 최고의(Top) 도시라는 뜻으로 풀어낸 지역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풍성하다(Rich)란 말은 소출이 풍성하다는 뜻도 있지만, 풍성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자는 바람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톱(Top)은 이천하면 쌀이 최고, 도자기 최고, 이런 최고를 지향한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천이 ‘아트이천’이라는 말에 합당한 시민적 활동과 정책과정을 하나하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가 듭니다. 역시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이천을 쌀의 고장이라 하는데 과연 원조가 될 만한가?**  
**- 이천하면 떠오르는 특산물은 이천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강연자 :** 이천의 쌀 문화를 그저 쌀이 좋다. 임금님께 진상했을 정도로 명품 쌀이다. 이런 식으로만 보서는 곤란합니다. 이천의 쌀 문화라는 것은 수탈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천이 마름, 소작농의 도시였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천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김자점 같은 사람들의 식읍이었어요. 가을에 수확을 하면 이포나루를 통해서 쌀이 김자점의 창고로 가는 거죠. 안동김씨가 득세하면서 또 나합의 창고로 가는 거죠. 백사면 내촌리에 안동김씨 김좌근 별장이 있잖아요. 복하천 배증개까지 배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다 실어 나르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천에서는 자주 임금님께 진상한 쌀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그럼 정말로 이천의 쌀이 임금님께 진상이 됐느냐. 아니거든요. 그런 기록이 있다면 한번 가져오세요. 기록이 남아있나요? 없습니다. 임금은 이천 쌀을 드시지 않습니다. 임금은 자신이 농사를 짓습니다. 친히 소를 몰아 밭을 가는 친경행사를 하잖아요. 답십리 전농동에 왕실 소유의 농토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석 정도를 소출해서 궁궐에서 썼죠. 제사지낼 때에도 꼭 왕실에서 농사지은 쌀로 올렸어요. 죄송하지만 이천에서 진상된 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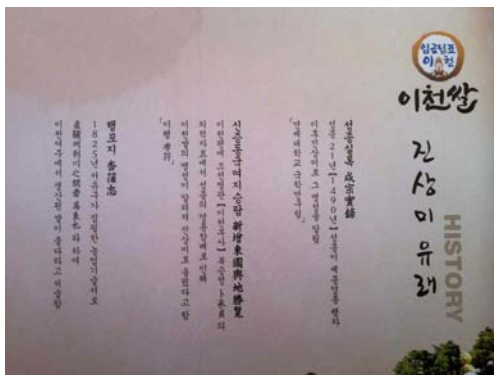
이천이 쌀이 유명해진 게 언제부터냐 하면 조선총독부에서 자체쌀을 심기 시작해서 거기에 연원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달리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이고요. 이게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한 거죠. 대지주보다도 마름들이 쌀을 모으고 실어 나르고 통제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천 쌀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공해 청정지역, 맑은 물, 천혜의 기후여건 이런 걸로 따지면 이천

쌀이 좋다고 하지만 철원 오대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구요. 이천 쌀의 이미지홍보 차원에서 매년 호법면에서 전국최초의 모내기를 했다 이런 정도의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전에 경기도의 축제에 대해 논의할 때에 ‘이천 쌀 축제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쌀이 생명이니까 생명축제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까만 쌀도 만들고, 노란 쌀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대 혁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 쌀 축제는 이천이라는 지역의 특색 있는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축제장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콘텐츠가 고갈되었고 새로운 게 없다면 그런 축제는 정리를 하든지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천의 임금님 진상쌀이라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없습니다. 본적이 없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절대 말도 안되는 세종대왕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자 : 이천 쌀이 맛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임금님께 진상한 쌀이었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천 쌀이 임금님께 진상이 된 건지 살펴보면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진상미와 관련해서 이천에서 근거로 삼는 내용이 성종실록입니다. 농업테마공원 쌀 전시관에 가보면 ‘왜 이천 쌀이 유명해졌을까’ 이런 제목으로 해서 성종임금이 영릉에 성묘하고 환궁할 때 이천에 머물던 중, 이천 쌀로 밥을 지어 진상했는데 맛이 좋아 진



이천농업테마공원 쌀전시관의 진상미 유래

상미로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종실록 원문<sup>3)</sup>을 확인해보았는데 ‘이천쌀로 임금님께 밥을 올렸다’ ‘밥맛이 좋았다’ ‘임금님이 진상미로 올리라고 하교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종실록을 언급하면서 내용에 살을 붙이고 확대해석을 한 거지요.

원문내용은 어가가 이천부(利川府)에 이르러, 관찰사 송영과 여주목사 신부에게 전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이천 유생(儒生)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치르고 서윤공(徐允恭)을 뽑아 생원으로 발표하게 하였다는 내용, 그리고 이날 이천 파오달(波吾達)에서 유숙하였다는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의 영릉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천에 머물렀던 것까지는 사실인데 그 뒷부분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팀에서 쌀 전시관에 전시한 내용을 보니 ‘성종21년 성종이 영릉을 행차한 이후 진상미로 그 명성을 알림’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어요.

그밖에 많이 언급하는 문헌 중에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있는데 역시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유구가 저술한 행포지(杏蒲志)에도 보면 ‘산여주이천지간자 위양야’(産驪州利川之間者 爲良也)라고 해서, ‘여주이천에서 생산된 쌀이 좋다.’ 이런 표현은 있는데 진상했다는 내용은 역시 아니죠.

임금님이 이천에 머물렀다면 틀림없이 이천 쌀로 밥을 지어 올렸을 거다.



진상나라 자차베.1936.2.14.동아일보

3) 원문 : 駕至利川府, 賜觀察使宋瑛大紅匹段衣一領, 仍傳曰: “予專爲拜陵而來, 今已行祭, 近日無有差誤事, 予甚喜之.” 又賜驪州牧使申溥紫的縣袖袂帖裏一領, 仍傳曰: “予累日留住, 未見弊事, 且聞爾乃申政承之子, 故特賜之, 爾須用意治民.” 試利川儒生, 取徐允恭爲生員, 以權例放榜. 是日, 宿于利川波吾達. -성종실록245권, 성종 21년 윤9월 16일 을미

거기서 너무 밥맛이 좋아 진상미로 올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천 쌀을 진상했다는 기록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1990년 8월 21일 경향신문에 보면 ‘이천쌀은 맛이 뛰어나 옛날부터 임금에게 진상했던 자채쌀이 그 효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977년 9월 2일 동아일보에는 자채쌀이 언제부터 진상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진상미로 불린다고 하면서 부발면 가좌리의 박치득씨가 자채벼를 3백 평에 심어 다섯가마를 수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1936년 2월 14일 동아일보에 ‘이천 자채쌀은 올벼 조생종으로 6월 유두에 햅쌀밥을 먹는데 특히 맛이 좋아 진상미로 이름이 높았다’고 나와 있죠. 하지만 역시 1900년대 이후의 2차적 내용들이고 조선시대의 이천 진상미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천에서 계속 근거 없는 기록들을 언급하면서 진상미를 주장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천 쌀의 이미지 전략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지 좀 혼란스럽군요. 이천 쌀이 맛있다는 믿음의 원천은 임금님께 진상한 쌀이라는데 근거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연자 :** 기록들이 조금은 있네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더라’ 식의 내용이지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기록을 찾을 순 없을 겁니다. 물론 진상이라는 게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에게 올리는 건데 그걸 임금 수라에 직접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궁궐에 얼마나 쓰임새가 많습니까? 각 지역에서 특산품을 나라에 올렸는데 이천에서는 쌀을 바쳤던 거죠.

조선시대에 이천지역 자체가 황무지였습니다. 기근이 심했구요,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여기는 병력이 대치하거나 주둔하는 곳이었어요. 이천의 이전 지명이 남천이었을 겁니다. 서희선생의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이름이 이천이 되었는데 왕건이 병력을 이동해서 이곳으로 지나가다가 강을

무사히 건너서 이천이란 이름을 얻게 된 거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군사주둔지가 되었죠. 역사 기록들을 보면 여기가 습지였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이게 조선후기에 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풍수가 중요한 것인데, 원적산 아래가 주역으로 말하면 천동 패거든요. 뭐냐 하면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산과 강이 있고 물이 이게 풍수해에 잘 안 들죠. 그 이후에 쌀을 많이 심게 되고 맛이 좋았겠지요.

그런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쌀이 가장 먼저 생산된 곳이 김포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신석기시대에 쌀이 가장 먼저 재배가 된 곳이 김포다. 벼 재배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김포 쌀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거구요. 임금님 진상미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쌀을 특산물로 올렸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조선시대 역대 왕 어느 임금이 이천 쌀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거나 끌어내기가 힘들다면 앞으로 이천 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1 :** 그러면 좀 전에 진상미 이야기도 그렇고 영광굴비도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의미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지방마다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록으로 밝히기가 어려운건가요. 그러면 진상이라는 것이 조선시대에 상시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잠깐 드렸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나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강연자 :** 쉽게 말하자면 이천 쌀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죠. 조선시대엔 특산물을 내는 세금이 있고요. 또 쌀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각 군현에서 상납하는 공물은 부과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물품이 또 너무 다양하니까 폐단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걸 나중에 쌀로 환가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게 대동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모든 세금은 10분의 1세입니다. 중국 주나라에서 유래된 법이었구요,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10분의 1을 내도록 하잖아요. 일종의 십일조죠. 정전법의 원리인데, 이게 비율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3분의 1이 되거나 지주와 반반씩 나누는 병작제가 되고... 15년 전에도 3분의 1이었어요. 1마지기에 3가마 정도가 나오면 3분의 1은 지주세, 3분의 1은 경비, 3분의 1은 농사짓는 소작농의 몫. 이러니 정말 힘들었죠. 옛날에는 전국을 360개 부와 현으로 나눴습니다. 1년이 360일이니까. 부와 현이 국가의 하루치 조세를 담당하는 겁니다.

조선은 효종 때(1653년) 김육의 건의로 시현력이란 달력을 도입해서 243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중국역법과는 다른, 서양역법에 기반한 역법이었어요. 시현력이 양력입니다. 1년을 360일로 해서 보강을 하는 건데요. 이게 고종황제 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65일을 담당하는데 5일을 빼잖아요. 이 5일은 담당할 부, 현이 없으니 한양에서 담당하는 거죠. 도성 밖 10리 밖까지 한양으로 보는 거죠. 이 물산을 가지고 365일을 채우는 거죠. 원래 1년은 365일과 1/4이잖아요. 매년 5와 1/4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양에서 담당하는 셈인데, 의례에서 보면 4년을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5와 1/4을 4년 곱하면, 2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줄을 21일 동안 달잖아요. 완성의 숫자입니다.

**질문2 :** 그러면 진상했다고 할 때, 직접적인 진상이 아니라, 특산물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단양에서 부채 몇 개, 이렇게 특산물을 진상하는 것처럼 지역마다 진상물품을 정하고 올렸다면 모든 지역이 다 이천식으로 해석하자면 임금님 수라에 특산물을 올린 거네요.

**강연자 :**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밥술이 좋으니까 밥맛이 따로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환자들이 먹는 쌀을 개발하면서 이천에서 다양하게 상품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 3. 이천을 도자기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 요장과 종사자 수는 많지만 독특한 도자문화는 없다.

사회자 : 세 번째 질문은 도자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천을 도자기의 고장이라고 하지요. 340개가 넘는 요장이 있고 최고의 도자가 명장들이 이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장과 종사자가 많다고 최고의 도자도시가 되는 걸까요? 이천시립박물관에 가보면, ‘요장과 종사자 수로 따져서 이천이 최고의 도시다’ 이런 주제의 전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최고를 만드는가?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에 이천이 최고의 도자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천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국 스테퍼드셔에는 스톡 온 트렌트(Stoke-On-Trent)<sup>4)</sup>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때 영국도자기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도시인데, 2009년 이 도시가 ‘세계 도자도시의 수도’(World Capital of Ceramics)라는 선언을 했죠. 여기에 보면 도자도시로서 갖춰야 할 6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①도자에 관한 문화유산이 있는가? ②세라믹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③일정 수준 이상의 세라믹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④세라믹에 대한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⑤세계적인 브랜드력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⑥독특한 도자 디자인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이천은 사실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천의 도자문화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트렌트강에 접해있는 도자기산업의 중심지로 영국의 도기생산과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세부터 ‘스테퍼드셔도자기’로 알려진 도자기류가 제조되어왔으며, 도예가 J.웨지우드도 이곳에서 작업을 했다. 타일과 벽돌의 생산량도 많으며 부근에는 탄광도 있다. 북(北)스테퍼드공과대학·영국도기연구소 등의 도기연구기관이 있다.

**강연자 :** 저는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너무 비싸다. 대중화 되지 않았다. 하는 건데요. 제가 감상용으로 도자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에 친구가 하나 준 건데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느끼고 마음이 정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사 갈 때 귀찮기만 해요. 깨질까봐 그런 거죠. 비싸지도 않은데. 또한 감상용 외에는 실생활에 거의 쓸모가 없다는 거죠.

광주요의 조태권 대표는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최고급 도자기를 만들지만 대부분이 도요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적으로 뛰어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중적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4.0시대를 간다. 트렌드가 4.0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완상용에 머무르지 않았는가. ‘대중화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천 시민들조차 실생활에서 도자기를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아쉽고 좀 더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화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천이 공예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됐잖아요. 그건 공무원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첨단우주선을 만드는 나사(NASA)에 세라믹을 연결시키면 안 될까요. 우주선에 붙이는 도자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도자기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요새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하는데 금수저, 은수저는 녹잖아요. 하지만 흙은 불에 구우면 안 녹습니다.

이제 도자기 분야는 다른 산업으로 가야된다. 새로운 산업에 접목에 안 되면 도산된다. 저는 세상의 이치가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자기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경쟁하게 내버려둬야죠.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여주, 이천, 광주가 싸우니까 분산시켜놔야요. 하지만 원래는 세 군데가 경쟁하게 만들어 놔야합니다. 좋은 축제를 만들고, 좋은 걸 만드는데 투자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더 새로운 부분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렵다. 우선은 대중화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하는 것은 체험밖에 안되잖아요. 유치원생들 데리고 와서 흙 만지게 하는 것이 재미있지만 이건 부수적인 거구요. 도자기에 관한 최고의 박물관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고. 도자기 관련 콘텐츠를 만들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냉정히 말해서 ‘이천 도자기 산업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3 :** 이천시립박물관에 주요 전시분야가 도자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천 도자기의 역사가 6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기막골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 것도 그렇고, 실록에도 이천에서 도자기를 진상했다, 이천의 태토를 쓰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또 칠기가마의 흔적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천도자기의 연원을 더 오랜 시기로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보다는 도자기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 대중화를 위한 노력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강연자 :** 지금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니까 자꾸 과거의 연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도? 제가 보기에 그런 노력은 거의 안했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기도의 도자, 이천의 도자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장인 선생을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과 미팅을 하게 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소비자로서 들어볼 수도 있고, 전혀 관계없는 분에게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TV를 통해 헝가리의 도자기를 보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들더라구요. 다른 분야하고 결합이 됐느냐. 도자기로만 보지 말고, 작품으로만 규정하지 말고... 도자기로 집지으면 안 되나요? 건축부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도자기를 시민들에게 싸게 보급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자, 청자만 만들지 말

고 새로운 것도 만드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명장 분들 ‘이거하기도 힘든데’ 이립니다.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제자에게 안주고 자식에게 주려고 해요. 소목장은 손마디가 없어야 되요. 마디가 칼날로 찢어져서 없어야 되고... 기계로 하나까 이제 좀 덜 하지만. 손마디가 있으면 비정상인거죠. 그런데 외국에 유학가고 대학 나온 아들이 전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에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도자기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4. 이천의 도자기축제, 쌀축제는 과연 축제다운가?

- 이렇다 할 특색 없는, 특산물 판매 위주의 잔치다.

**사회자 :** 네 번째 질문은 축제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자체들이 특산물을 알리거나 팔기 위해 축제를 만들어서, 한동안 특산물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요. 전국이 전부 특산물 축제였어요. 이천이 자랑하는 축제로는 도자기축제와 쌀문화축제가 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들의 방향성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 과연 축제다운 축제인가?

**강연자 :** 저는 축제를 평가하기 이전에 축제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제 행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민이 주인이 아니고 시장님 개회사가 주행사가 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의견이고요. 이천시의 축제를 바라볼 때, 도자기축제는 예산을 한 100억 쏟아 부으면 좋을 텐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활력을 잃게 되는 거죠. 지금도 도자기축제 기간이지만 그렇게 많은 국가적인 관심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춘천인형극

제, 함평나비축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나 라고 할 때 저는 냉정하게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천의 축제들은 우선 특징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소재를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 위주의 축제를 해야 합니다.

요즘 문화의 대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문화입니다. 문화다양성 시대라고 하는데요. 전부터 제가 주장하는 건데 문화다양성에 대비해야 됩니다. 문화다양성은 혼혈가정이 다양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는 것만이 다문화가 아니라, 조손가정도 다문화고, 부인하고 마음 편히 사는 것도 다문화입니다. 지금 가족구조가 깨졌잖아요. 이제 혼자 사는 시대로 변했다고 봐야합니다. 가족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가족인 거죠. 가족구조도 완전히 바뀌니까. 아직 잘못 느끼시겠지만 조만간 피부로 절감하실 겁니다. 함께 사는 이웃이 중요하게 되는 거고. 지역성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지역문화가 대세입니다. 이럴 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축제인데요. 지금 축제가 시민축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선진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만 아직도 관제축제인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동아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도자기축제 방식을 시민과 동아리 중심의 축제로 가면 어떨까요? 시장님 위주의 의전행사 치르는 축제가 아닌, 시민들 주체의 축제. 문화원 주체의 축제가 아니라 문화원이 장을 만들면 동아리들이 와서 맘껏 공연할 수 있는 축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질문4 :**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강요하기 힘든데 관객의 호응이 있어야 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도자기축제 같은 경우에 평일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도자기축제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아마추어 동아리가 공연을 많이 한다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말이죠. 10명도 안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동아리 하시는 분이 와서 공연을 하지만 시민들과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그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민들이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연자 :** 지금 생활문화축제를 가장 잘하는 데가 성남, 인천, 그리고 부천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남이 가장 잘하죠. 동아리가 자그마치 2500개예요. 행사비로 2억 가지고 합니다. 문화원은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동아리를 양성하라는 거죠. 자주 개발을 하고 주제를 만들어서 올해 설봉문화축제의 주제는 이거다. 화합이다, 참여다, 마을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모티브를 잡고 자발적인 공연을 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동아리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기획자가 세심하게 기획을 할 필요가 있죠. 예산이 적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공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거죠.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더 해보자는 거죠. 설봉문화제라든지 도자기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하자는 거죠. 전 도자기 축제 한 꼭지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집에 있는 안 쓰는 도자기들로 바자회를 하고, 도자기 명인이 10점씩 내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좋은데 쓰면 어떨까요?

**질문5 :** 그런 식으로 명장들이 10점씩 도자기를 내다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장들에게 혜택이 안돌아가고 그러면서 안하게 된 것이 10년이 되었네요. 명장들에게는 이런 건 반갑지 않은 축제죠.

**강연자 :** 그래서 좀 더 콘텐츠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쌀 축제가 주제의식도 부족하고 개념이 떨어지니까, ‘생명문화축제’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쌀은 생명이다’ 이런 거죠. 옛말에 ‘날알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백가지 수고로움이 든다’(一粒百行)는 말이 있잖습니까? 수고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 5. 이천은 국내 최고의 조각예술도시로 평가할 만한가?

- 보유작품 수는 많지만 조각예술도시로서의 청사진은 없다.

**사회자 :** 이천이 ART이천을 지향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예술도시를 지향한다고 했을 때 이천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올해 19회째가 되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입니다. 국내에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도시들이 몇 군데 되는데요. 그중에서 19회를 이어온 도시는 이천 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싶다는 국내외 작가도 많습니다. 200여 점에 달하는 국제적인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작품 수로 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작품들이 어떤 수준인지, 심포지엄의 주제나 특성은 잘 살리고 있는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원은 조성되어 있는지, 세계적인 조각 예술도시가 될 만한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ART이천을 지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점검해본다는 차원에서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 :** 전통문화분야를 다루는 저로서는 이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저는 금석문, 비석밖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이천에 200여 점의 조각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또 국제조각심포지엄을 19회째 이어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중에 세계 최고로 치는 이우환선생의 작품이 있느냐? 또는 세계의 거장이라 할 만한 조각가의 작품이 한 점이라도 있느냐? 이런 의미 있는 표상작품이 있느냐 라는 거죠. 200여 점 내에서 볼 수 있는냐는 거지요. 그저 친선작가들의 품앗이 교류에 불과한 작품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품 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현재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작게는 이천시민, 경기도민, 넓게는 국민

들에게 잘 홍보가 됐느냐 라고 할 때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건 자기들만의 리그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19회까지 이어져온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려왔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고 행사가 유지됐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동안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중요한 것인데 과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심포지엄이었는가? 작가들이 심도 깊은 예술세계와 문제의식을 토의하고 주제를 합의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이었는가? 아니면 만들어진 작품 중에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가 누구냐는 거죠. 이전에 여러 가지 풍광도 좋고 하니까 여기서 작업실을 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동호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리고 유학 갔다온 분들과 연대를 해서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참여하는 작가들이 과연 어느 급이냐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9회까지 내려온 건 두 번째 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거죠.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포럼을 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익대 학장님이나 서울대 학장님을 부르셔서, 또 작가들도 부르셔서 뭘 지향 하는지, 도록도 보여주고 내놓고 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천한 지식이긴 하지만 제가 함부로 이천이 최고의 예술도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외람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작품 수는 많지만, 그 중에서 대표할 만한 작품이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조각심포지엄에 어떤 일관된 정신이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심포지엄을 치르고 나서 12월에 평가 보고회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잘 반영되거나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 조각가, 도슨트,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엄한 시각을 가지고 조각심포지엄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6** : 제가 생각하기에, 꼭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있어야 되나? 그걸 예술적으로만 봐야 되나? 대중적으로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로 치면 칸영화제나 이런 영화제에 나가서 입상한 영화만 영화로 칠 것이냐? 그런 문제잖아요. 가령 독립영화라든가 그런 영화들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감상할 수 있다면, 그것도 예술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 작품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즐기게 만들거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연자** : 저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꼭 들어맞는 말씀이시고요. 지적하신 그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작품을 지향하면서 그에 걸맞는 도시환경이나 조각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방향, 다른 하나는 시민들 속에 친숙히 다가가는 생활문화 지향형 심포지엄 행사를 만들어가는 방향. 그런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이전 시민과 관람객들이 함께하는 조각행사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조각심포지엄이 지향하는 목표를 시민과 대중에게 친숙한 그런 부분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준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심포지엄을 통해서 세계적인 조각도시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한 기준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이전에서 작업을 하는 조각가들이 공방을 열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참관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학교를 만든다든지,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예술분야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철이나 스텐레스 같이 다양한 소재들이 있으니까.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조각예술을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인성교육이라든지, 교육이랑 합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포지엄 행사를 좀 더 대중화해서 ‘시민

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었느냐' 하는 항목도 평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각작품 수가 많다고 해서 그걸로 '이천이 최고의 문화예술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6. 이천에는 오랫동안 이어온 지역정신이 있는가?**

**-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특색 있는 문화나 정신이 없다.**

**사회자 :** 이천에는 오랫동안 이어온 지역정신이 있는가? 이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는 선비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문화콘텐츠를 안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금이 갑니다. 고장마다 그 지역의 정체성, 지역정신이란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파주는 울곡문화제를, 용인은 포은문화제를, 그리고 남양주는 다산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죠. 다산을 통해 실학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경기도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정체성을 말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우리 이천도 지역정신이라 할 만한 그런 걸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질문이 나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연자 :** 이천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31개 시군을 들여다보면 지역의 표상, 이런 건 시장님 바뀔 때마다 바꾸니까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경기도가 얼마나 정체성이 없으면 그렇겠어요. 경기도지사 했던 분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국회의원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천도 무슨 지역정신이 있었나요. 예전엔 여주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것이 비일비재 했잖아요. 광주사람이 되기도 했고,, 다행히 이번에는 이천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역정신을 말하긴 어렵지만 이천엔 지역정신이

별로 없던 거죠. 이천엔 내세울만한 인물이 없었으니까. 서희선생 이야기  
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천에서 내세우는 표어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천이 못할게 뭐가 있어요. 파주도 사실 지역성은 없습니다. 지역성  
자체는 전쟁 때 다 섞어버렸으니까. 지역민이 거의 없고요. 군인으로 계  
시다가 거기서 제대하고 정착하신 분들, 북한에서 고향을 두고 내려오신  
분들이 모두 짬뽕이 되어 있죠.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 자체가 8도가 섞  
여 있는 건데,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을  
저는 향후의 과제라고 보는 거죠. 이천 정신은 무엇으로 만들까. 이게  
꼭 여기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딱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수원만 되  
요. 수원은 정조라는 인물과 화성이 있으니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몇몇  
도시들은 가능합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어요. 신륵사가 있고  
요. 신륵사에 강월헌(江月軒)이라는 정자가 있잖습니까. 정자가 표현하는  
것이 예쁘잖아요.

이천은 딱히 생각이 안 납니다. 지역정신을 무엇으로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애련정(愛蓮亭)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연꽃을 사랑한다. 연꽃을 상징하면 어떤가. 흙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그런  
부분이니까.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가 쓰여 있어요. 애련정 시비  
가 있으니까요. 향기는 뭇으로 부터 지쳐진다. 이런 구절의 이야기를 지  
역의 표상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영월암(映月庵)의 영월(映月)은 ‘달빛이  
어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격조가 얼마나 높아요. 이런 부분을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섭대천(利涉大川)을 상징화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천(利川)이란 고을이름이 주역의 이섭대천에서 유래했잖아요. 겸괘(謙卦)  
에 보면 노겸군자(勞謙君子)라고 나오는데 겸손입니다. 쌀하고도 연결이  
되죠. 좀 전에 일입백행(一粒百行)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쌀 한 톨을  
위해 백가지 수고로움을 해야 하는 고통, 며칠 밤낮을 새면서 도자기를  
빚고 가마에 불을 때서 꺼내면 반은 깨지고... 그런 고통들을 이겨내고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쌀과 도자기를 만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

기하면 어떨까요? 이런 것을 이천 정신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서희 선생이 적장과 담판할 때의 예리한 판단, 끈기, 지혜 등을 이천의 표상으로 하면 어떨까요?

사회자 :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천으로서는 참고할만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무형의 정신적인 자산들,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좋은 의견들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 **7. 설봉문화제는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

**- 가장 유서 깊은 축제, 그러나 지금은 명목만 유지하는 축제.**

사회자 : 이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축제가 설봉문화제입니다. 1987년에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해 설봉문화제의 일환으로 도자기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단체, 동아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유기적으로 엮은 종합적인 문화행사 성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30회 째를 맞게 되었구요. 전문인 위주의 큰 무대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개의 작은 무대가 모인 축제인 셈이죠. 이천도자기축제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자기축제나 쌀문화축제 같이 독립해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행사를 분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축제 상황을 보면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산도 십 년째 그 수준이고 여러 행사들은 시기별로 장소별로 분산되다 보니 축제의 성격을 주제에 맞추어 기획할 수도 없고... 축제의 성격이 갈수록 퇴색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봉문화제, 과연 축제다운가? 예산은? 축제 내용은? 시민과의 소통은? 이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연자 :** 우리나라에 지금 형태의 지역축제가 시작된 것은 1980년도에 허문도씨가 기획한 ‘국풍81’이라고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 축제의 시초입니다. 이런 식의 축제는 이전에는 없었고요 대학가에 대동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 하신대로 설봉문화제가 80년대 후반일 겁니다. 그때 설봉문화제가 처음 만들어졌고 그 다음 해 도자기축제가 부대행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설봉문화제가 30년이 된 축제군요. 하지만 오래된 축제라고 그것만 내세워서 뭐하겠습니까?

설봉문화제 같은 경우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2800만원? 아, 그 예산으로 지금까지 축제를 해왔습니까? 이건 심각하네요. 이런 유서 깊은 축제를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 예산이면 빨리 문을 닫아야죠. 10년째 그 예산이라면 시에서도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고 주관하는 단체도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관행적으로 붙들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발상을 바꿔야 한다. 참여형 축제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설봉문화제가 시민 동아리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봉문화제 예산이 십년동안 2800만원. 올해 3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행사로 분산시켜서 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딱 두 가지 만 하는 거죠. 무대만 만드는 거예요. 무대 음향시스템을 만들고 진행요원 쓰고, 밥값은 써야죠. 참여자들 밥은 줘야 하니까. 그 다음에 브로슈어(brochure)를 여러 가지 만들고 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합니다. 주제만 정해주면 동아리들이 와서 자율적으로 발표하고 진행하는 거죠. 이천이 인구가 20만이 조금 넘는데 이제 동아리가 많잖아요. 문화원 동아리만도 열 개가 넘을 거예요. 자율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연주회도 하고 시낭송회도 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38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8. 이천은 문화도시에 걸맞는 문화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가?**  
**- 메가공연시설만 있고 소소한 일상문화공간은 없다.**

**사회자 :** 이 질문은 이천은 과연 문화에 투자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천에 문화시설, 문화기관이 많습니다. 문화부에서 5대 지역문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문예회관 이렇게 다섯 개거든요. 문예회관은 이천아트홀을 말하는 거죠. 이천아트홀이 2009년도에 지어졌어요.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450석, 전시관 크기도 660㎡나 됩니다. 경기 동남부권에선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문화예술 공연시설로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큰 공간 말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가? 시민들이 친숙하게 생활문화공간으로 이용하기에 적절한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대형 문화공간들은 번듯하게 세워져 있지만 시민들과의 거리감이 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소소한 일상 공간, 주민 삶의 공간 속에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작은 전시 공간, 소극장, 공연장이 몇 개나 되는가? 시민들이 도란도란 모여 이야기하고 열띤 토론, 생각을 나눌 공간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천이 문화시설을 지을 때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할지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강연자 :** 이 부분은 꼭 이천시만이 아니고요. 31개 시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단순히 문화시설, 공연장이 많다 보다는 소규모 강당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요. 이렇게 동아리들이 연습을 하고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고 접근성이나 이용율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처음부터 한 것인지, 시민들이 잘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지요.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주부들, 청장년들,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을 언제든지 예약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거죠.

최근에는 이러한 행태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면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인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올라온 60개의 오케스트라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를 하는데 돈은 지원을 안 하고 장소만 빌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천아트홀 공연장도 아마추어 동아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넓게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방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유명가수 불러다가 공연을 하면 아트홀이 그런 부분에서만 쓸모가 있는 거죠. 결국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문화 기획자만 배를 불리는 공간이 아니냐. 이제는 아트홀을 정말로 무료 대관을 해서 아마추어 동아리나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질문7 :**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규정상 안 된다 라고 하거든요. 시민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강연자 :**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 결사체를 만드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정치잖아요. 여기가 외교죠. 정치의 연장이지요. 생활외교고 생활정치입니다. 외교를 못하면 정치도 못하는 거

죠. 시장님에게 편지 왜 안 쓰세요. 이런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되요. 백 명이 해보세요. 편지를 쓰세요. 더 싸우셔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만족하신다고요? 그래도 안 좋은 게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껄끄러운 일들, 그런 것을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많고. 10년인가, 7년 전에 발표된 걸 보니 이천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순위가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발표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 시민들이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야 합니다.

**질문8** : 선생님은 연구하시고 강의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공무원을 상대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나요?

**강연자** : 매일 싸웁니다. 잘 안되죠. 그것은 시민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민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협조를 안 해준다? 민원이 많으면 승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적극 넣으세요. 민주주의가 싸워서 이기는 것인데. 계속 건의하시고 민원을 내셔야 합니다. 가장 피곤하지 만 이천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질문9** : 조금 전에, 정치 결사체하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강연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 있고요. 문화 운동을 벌여야죠. 그런 것을 해서 언론에 계속 나오게 하고 언론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지역의 신문들이 있으니까. 신문 기고를 하시고, 기자들도 다 이웃인데 이야기도 하고, 시의원들도 불러서 건의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거죠.

**사회자** : 우리 이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 의견수

럼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건너뛰는 게 사실이지요. 하지만 바닥부터 채워져야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진리이고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천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 이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9. 이천 하면 주먹문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지금은 어떤가?

- 아직도 학교폭력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못 벗어나고 있다.

**사회자 :** 이제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에 도달했는데요. 이천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기억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엔 역모와 모반이 많았던 지역, 자유당 시절엔 이정재, 곽영주, 유지광, 10.26사태 때 차지철 경호실장으로 이어지는 주먹문화, 그리고 최근엔 학생들이 교사를 구타하는 등 학교폭력이 심한 지역. 정말 부끄러운 이미지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천에 오면 세 가지 자랑을 하지 말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씻어낼 만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바꾸어가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천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이야기 할 때 뭐라고 대응해야 하나?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기억을 상쇄할 만한, 이천의 정신적 가치가 있는지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보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이천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지역도 나름대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아킬레스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연자 :** 요즘 영화 ‘곡성’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전남 곡성군수가 잘 활용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성군수가 영화 ‘살인의 추억’ 때문에 스트레스

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영화를 통해 특정지역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데요. 이천은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좀처럼 잘 희석이 안 되고 있죠. 이천의 부정적인 인식은 동대문패거리 이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천에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천 시민들이 문화운동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아쉬운 거죠. 문화원에서 이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작해준다면 어떨까 합니다.

#### **10. 이천은 창조도시에 걸맞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나?**

**- 이천에는 창의적인 생각과 활동을 하는 시민그룹이 없다.**

**사회자 :**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천은 창조도시인가요? 이천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죠. 2010년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와 함께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지정된 도시들 가운데 시애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시애틀을 창조도시의 모범사례로 자주 언급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창조도시 글로벌포럼’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군요. 대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제포럼을 한다?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같은 사람들은 창조도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창의적으

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서 창조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는 시민들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도시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도시사람들이 도시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계획하고 창조성과 활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실질적인 창조도시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N)에 가입해서 관련 도시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좋은 점을 배우고 또 자극을 받을 것이냐 그건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지정된 걸 마치 세계적인 창조도시로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 치명적인 해가 되는 거죠.

이천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는 데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데 그 보다는 우리 이천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민그룹이 있나? 없다면 이런 시민층을 어떻게 키우고 지원해야 하나? 이런데 방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연자 :** 마지막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천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지금 어떤 과제를 안고 있고 어떤 도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성이 긴요하게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내세우는 창조경제라든지 그런 정책이 현 정부에서 성공했는지 안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세는 창조 부분인데요. 창조성을 도시의 생명력, 도시의 활력의 원천으로 보는 관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구요.

지금 현재 이천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천시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저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광만 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천시의 모든 정책에서 시민들의 창조성을 끌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시의 창조성을 위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계획도 세웠을 것이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과의 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시민들과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시민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활동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지, 또 창의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할지, 취미생활 수준의 동아리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활동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세심하게 챙기고 개선하고 해야만 창조도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도 옛날처럼 1차 산업이 아니라 6차 산업으로 보고 있죠. 1차, 2차, 3차를 다 더하거나 곱하면 6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창의가 기본이고 그 바탕 위에 옛날 것이나 지금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미 그려진 그림 위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백지에다 그리기 때문에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천이 가장 좋은 부분은 이미 그려진 그림이 별로 없으니까 백지상태니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다른 데는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지역의 표상이 이미 그걸로 정해져 있어서 창조성을 발휘할 영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여기는 새롭게 발전할 여지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인구와 물산이 있고 풍부하지는 않지만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도 찾아보면 그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창의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이걸 복돋아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교양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인문적 소양을 갖게 하려면 결국은 공부하는 시민이 되게 하는 것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건이 이천 땅을 지나가야만 남쪽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충청도로 갈 수 있고 이쪽을 지나야 충주로 넘어가서 경주를 점령할 수 있

고... 그래서 이천을 차지하는 게 중요했는데 복하천을 건너는 부분에서 이섭대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지명 중에 주역에서 나온 지명은 이천밖에 없을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강남이란 지역이 원래 중국에 있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형주자사 유기가 다스렸던 강릉이 나오고, 적벽대전에는 청주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지명이 중국에서 따왔어요. 그런데 이천은 왕건이 주역에서 점사를 보고 강을 건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잖아요.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제가 주역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전공은 그쪽으로 해서 가끔 보는데요. 이섭대천(利涉大川)이라는 구절이 주역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겸괘(謙卦)에도 나오고 화수미제괘(火水未濟卦)에도 나오는데 이 괘는 주역의 64괘 가운데 마지막 괘입니다. 이 괘는 미완, 미결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있게 될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을 놔두고 아직까지 표상으로 안 쓴 거죠. 지금까지 안 쓴 거니까 감사한 거구요.

이섭대천이 ‘큰 내를 건너면 형통한다’는 말인데요. 그 내(川)라는 것이 여울을 건너는 건데 내를 건너는 것 자체가 험난한 길이잖아요.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공부가 필요하다. 인문도시를 지향하면 어떨까. 인문도시를 지향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평택은 교육도시, 수원도 인문도시인데 기질 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수원은 정조대왕이 화성을 지으면서 부자를 데려온 곳이라서 상업정신이 강하죠. 배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천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낫습니다.

이천의 경우 인문적인 부분을 좀 더 내세우면 어떨까. 전 이렇게 보는 거죠. 두서는 없습니다만, 아까 서희 선생의 외교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 은근과 끈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다르게 풀어내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는 것도 되고요. 이야기를 잘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다양성 시대에 걸맞게 이천의 지역 정신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흡수하자. 그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건 공부인

데 결국 독서운동을 하자 이거죠.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책을 읽고 토론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슈들을 서로 얘기하고, 생각을 나누고 표현해보고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해보자 이거죠.

문화(文化)라는 한자를 풀어서 보면 결국은 문화가 글월 문(文)하고 될 화(化)로 이루어진 건데, 화(化)라는 한자는 사람 인(人) 변에 돌아왔을 비(匕)자로 되어 있잖아요. 돌아왔은 사람을 감복하게 하는 것이 화(化)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천에 딱 맞는 게 아닌가. 서희 정신과 딱 맞는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머리를 감아야 새로운 관을 쓰고요, 목욕을 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열 가지 곤혹스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말씀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천은 도시의 활력과 변화에 대한 목마름이 큰 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천에는 가능성과 미래가 있는 거구요. 이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문화 자원이 부족하지만, 반대로 안동 같은 경우는 너무 전통문화자원이 많아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약점을 자주 숨기거나 부인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대로의 현실과 여건을 인정하고 그 백지 위에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럴 수 없는 그림을 더 힘 있게 시민들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려나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10 :** 물을 이롭게 하자. 정치세력이 바뀌어도 물을 이롭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다 함께 묶어 낼 수가 있거든요. 동네 앞의 개울이나 마시는 물이나 생활공동체의 자원으로서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천의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것을 잘 찾아내서 이천의 무형의 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어가자는 말입니다.

질문11 : 사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쌀이 임금님께 진상된 정  
말 좋은 쌀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그게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어  
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연자 :**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임금님이 드셨든 안 드셨든 그게 뭐 그  
렇게 중요합니까? 여태껏 그렇게 써왔는데요. 좋은 쌀 드시면 임금님이  
되는 겁니다. 좋은 쌀이니까. 이천 출신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되죠. 자꾸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반송룡에 큰 인물이 난다고 하면서 쌀도 갖다 드  
리고요. 예를 들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열전(列傳)이 있는데요. 모두  
70편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편(70편)은 자기 이야기고요. 69편이 화식  
열전(貨殖列傳)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이익이다. 이런 관점  
으로 돈 버는 부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돈 벌려면 이 화식  
열전을 꼭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돈  
버는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사기 열전에서 백이숙제(伯夷叔齊) 열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천  
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의 도는 치  
우침이 없어 늘 착한 사람 편을 든다’(天道無親 常與善人)는 거지요. 하  
지만 실제로는 백이와 숙제 같이 절의를 지키다가 굶어죽은 사람이 있  
는가 하면, 반대로 도척이란 자는 사람을 죽이고 그 간으로 회를 쳐 먹  
고도 천수를 다 누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 천도가 과연 있는 것인지 모  
르겠다는 거죠. ‘나는 심히 당혹스러우니 이른 바 하늘의 도라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餘甚惑焉 儻所謂天道 是邪非邪)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천도는 본래 말이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착한  
사람은 덜 맞느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사마  
천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역사에서 누가 이름을 남겼느냐?  
안희나 공자가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추구하는 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꾀하  
지 않는다고 했으니 각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한다’(道不

同不相爲謀 亦各從其志也)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모여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런 문화의 시원을 만들자.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화운동을 이천에서 시작하자. 이천에 맞는, 이천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운동을 해나가자. 그러면서 우리 동네는 큰 인물이 나올 거야! 그렇게 자랑을 하자는 거죠. 최고의 명당이 원적산 일대잖아요. 게다가 반룡송까지 있고. 동학의 최시형 선생이 원적산에 계신 거 잘 모르시죠? 얼마나 명당이에요. 제가 거기에 두 번 갔었는데 천하의 명당입니다. 영월암 올라가서서 달빛 어리는 정취에 빠져보지 못하셨잖아요. 얼마나 멋진 지역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도드람산의 효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힘들게 나를 건너면 평탄한 길이 나오잖아요. 그런 고장을 다 함께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 긴 시간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천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주신 윤여빈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문학 토크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습지의 땅, 황혼의 시간

- 스프링스, 냇고개에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다 -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문화비평가이자 실천학자. 대안학교 맑은샘솟는학교 설립. 90년대 한국의 경제를 견인해온 대기업과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환경·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며 통섭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과학기술과 물질문명, 성과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에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 어떤 인문학이 필요한지 이야기한다. 최근에 의학과 예술, 인문학의 융합연구로 인간의 '심장'을 읽어낸 「마음의 장기, 심장」을 공동 저술했다.

### 지역에 대한 끝없는 성찰

오늘 아쉽게도 이천인문학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디세이 문화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3개월 동안의 길고 긴 항해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인문학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고보니 마음이 좀 착잡해 집니다. 좀 더 여러분과 참여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후회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 그 곳을 넘어서면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는 지점, 경계의 강가에 도달하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을 건너는 배에는 같이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조선시대 왕릉을 가보면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박석을 깔아놓은 길이 있습니다, 이걸 참도라고 하는데, 참도는 한쪽은 높고 다른 한쪽은 조금 낮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쪽은 능에 모셔진 혼령이 지나가는 신도가

고 낮게 만들어진 길은 선왕의 능에 참배하러 온 왕이 걷는 길입니다. 정자각까지는 선왕의 훈령과 왕이 함께 걸어갈 수 있지만 분향 후에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훈령은 능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산 사람은 현실세계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경계의 지점에 서게 되면 더 이상 같이 동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날 글로벌 기업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그때 보여준 회사의 비전이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비전추진실, 해외투자실 이런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 비전이 저에게 꿈을 갖게 했었습니다. ‘이 비전 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다. 나는 현지화(Localization)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 현지사회와 고객들에게 공헌하는 좋은 기업이 되도록 일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이 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에 자금문제가 생겨 부도가 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회사 측에서는 정보 공개도 없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손실을 고스란히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해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업이 내세우는 비전은 결국 포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면 기업은 이윤을 택하지 결코 사람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윤이 먼저고 비전은 나중입니다. 이윤이 기업의 목적이고 고객은 수단입니다. 이걸 저는 갈림길에서, 그 미묘한 경계의 선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기업은 영리추구라는 근본적인 생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종업원은 자신을 고용한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이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어내지 않는 한 비전과 윤리는 그저 기업의 약세사리에 불과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냉정한 현실 앞에 부딪쳐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련 없이 기업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 후 저에게 또 다른 삶의 토대가 된 곳이 바로 지역사회였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번 다양한 시민 활동도 하기는 했지만, 이천이라는 지역사회

에 깊숙이 들어와 터를 잡고 살아온 지 어느덧 2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밭을 빼기에는 너무 와 버린 거죠. ‘지역사회는 뭐가 다를까? 젊은 시절 열정을 기울였던 기업이 그 갈림길에서 스스로 세운 비전과 윤리를 내동댕이친 것처럼 지역사회도 어느 시점이 되면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가 문제의 핵심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내게 무엇이고 어떤 의미일까?’ ‘지역은 무엇이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 지역은 무엇이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은 공동체다.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행정적 단위를 구성하고 주민자치를 실시하는 자치공동체다.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공동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역은 그저 단체, 단위적 개체(entity)로 머물러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일 뿐이다. 서구의 콤툐(commune), 버러(borough), 게마인데(Gemeinde)처럼 역사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적 자치단위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지역이 스스로의 역할도 잘 알지 못하고 행사할 권한도 별로 없다. 그래서 지역은 자꾸만 무엇이 되려 한다. 그렇다면 지역에게는 어떤 길이 가능한가? 정부조직(GO)이 되거나 기업조직(CO, PO)이 되는 길이다.<sup>1)</sup>

지역은 먼저 정부처럼 되기를 원한다. 독립적인 정부가 되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다. 그게 지방정부라는 목표다. 또 다른 길이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처럼 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정부보다는 기업이 더 매력이 있다. 정부는 세금을 내는 주민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기업은 주민들을 고용해 종업원으로 부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길은 모두

1) 조직, 단체에 대한 정의에서 정부조직을 GO(Governmental Organization)로, 기업조직을 CO(Corporate Organization), 또는 PO(Profit Organization)로 규정할 수 있다.

달콤한 유혹들이다. 마치 오디세우스를 8년 동안이나 머물게 했던 칼립소의 유혹처럼. 그렇다면 새로운 길은 없을까? 시민들을 대상화시키고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 위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비정부조직(NGO)이 되거나 비영리조직(NPO)이 되는 길로 가야 한다. 정부형태의 통치(Govern-ment)가 아니라 시민주체의 협치(Govern-ance), 자본위주의 이익배분(profit-sharing)이 아니라 시민중심의 책임분담(burden-sharing)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이 더 큰 권력을 위해 정부가 되려 하고 더 큰 이익을 위해 기업이 되려 하는 한 지역에는 희망이 없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기업 같은 지역은 나를 실망시킬 게 뻔할 겁니다. 시장은 CEO고 그럼 기업경영 하듯 주민들을 몰아가겠지요. 시장논리와 수익창출에 중점을 두는 순간 주민들은 지역이라는 기업의 종사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부통치를 흉내 내는 지역도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주민의 권리를 위임받은 지역이 정부라는 탈을 쓰고 권력을 휘두르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주민들은 그 개개인을 놓고 보면 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어느 순간 권력화 되면 주민들은 자기도 모르게 권력에 종속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종속되어 왔습니다. 중앙집권정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지역에 관리를 파견했어요. 이천현감, 이천부사 이런 관리들을 보내서 조세와 부역, 특산물을 거두어 갔거든요. 주민들은 그저 중앙정부가 제도화시킨 지배구조에 순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부과시킨 조세, 부역이 지나치면 주민들은 그 지역을 이탈해서 산속에 들어가 도적이 되거나 하잖아요.

지역문화 운동의 출발점은 내가 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지역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바꾸어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늘 곱씹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이 정부의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기업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것처럼 지역에 종속되지 말자. 그보다는 협치의 일원으로 지역의 정

책 과정에 참여하자. 자본의 논리에 붙들리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자. 주민들이 가진 재능과 창의적인 생각, 이런 걸 일깨워주고 털어내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자...

## 오디세이 문화대학이 필요한 이유

올해 이천문화원은 3개의 인문학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시도가 아닐까?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끝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천이 어떤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지 그동안 많은 고민과 모색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유사인문학을 흉내 내거나, 스타 강사들을 모셔와 일방적인 강연을 듣게 하는 것은 이천의 인문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인문학으로는 정작 사람들에게 이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이 이천과 접목이 되려면 이천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지역의 가치를 되문게 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진 시민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인문학이다. 인문학을 통해 사람과 만나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가슴 속의 열정을 일깨워 보자. 한번 해보자는 열의를 끌어내 보자... 그런 취지에서 3개의 인문학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과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성 과정입니다. 예술작품도슨트, 문화유산 교육사, 이천스토리텔러 같이 이천의 문화일꾼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멀리 내다볼 때 이 3개의 과정이 서로 다른 전문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개인의 발전경로를 염두에 둘 필요도 있었습니다. 양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뭐할 건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픈 질문이지만 제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일자리 대책은 뭔데? 그런 후속적인 대책도 없이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냐? 그래서 3개의 인문학

과정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일자리의 함정에 빠져서 인문학적 통찰과 주체적인 사고를 놓쳐버리는 일입니다.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내놓는 가짜 일자리 대책에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기업이 온갖 편법으로 내놓는 비정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쉽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자본에 종속되고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대상으로 취급받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를 억압하는 사회구조와 편견들, 왜곡된 시선들을 정면으로 돌파할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의 재발견, 현장에서 시민들과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느꼈던 설렘, 이 일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소통했던 순간들, 소소한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더 큰 변화를 기대하던 뿌듯함, 이런 소중한 가치와 공동체감을 삶의 1순위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인문학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바램들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는 인문학적 시각과 통찰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지역이 뭔가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아직은 정부(local government)나 기업(municipal corporation)을 표방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이천은 지방자치단체(local autonomous entity, Gebietskörperschaft)입니다. 저는 이천시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천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역할

로마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최



고대로마 지도(예루살렘히브리대학 소장)

그들의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아래쪽에 거대도시 로마의 인프라를 지탱하는 노예계급이 있었다는 것. 이것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정치를 꽃피운 그리스 시대에도 그 폴리스를 유지하기 위한 피지배계급, 노예계급이 있었던 말이지요. 그래서 한편으론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가 과연 민주정치였을까? 결국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정치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노예계급 없이 시민 모두가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노예제가 사라졌지만 또 다른 형태의 노예제가 존재하거든요, 자본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로 재산과 소득으로 시민들을 서열화합니다. 우리는 자본에 의해 고대사회보다 더 강력한 통제를 받아가며 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도시의 편리함도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를 근거로 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이 만들어 놓은 이 괴물스러운 사회의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마치 이 시대가 계속 진화를 거듭해온 최상의 정치형태인양 안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문학의 주제가 뭐지요. 예,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입니다. 모든 길이 이천으로 통한다면 이천이 로마와 같은 세계제국의 주도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지요. 이천으로 통한다는 것은 이 길을 통해서 모든 길이 이어지고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와 단절된 이천이 아니라 전

전성기 때는 인구가 대략 1백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인구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원로원 같은 귀족층이나 로마의 시민권자도 있었겠지만 속주민이나, 여성, 노예 같은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층과 시민들이

세계와 연결된 이천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과 실천들이 이천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 세계 사람들과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라면 이천은 모든 길로 통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을 끊임없이 바꾸어 가려는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세계와 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대도시 로마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는 ‘새천년 문화의 도시, 이천이에요’

## 창조해야 창조도시다

그런데 문화도시, 창조도시라고 표방은 하지만 이천다운 문화를 새롭게 창조할 과제를 안고 있는 도시죠. 아직 문화都市는 아닌 겁니다. 창조도시? 아닌 거죠. 유네스코가 이천을 창의도시로 지정했다는 말은 이천이 창조도시가 되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창조도시라는 개념에 동의하고, 새로운 도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계층을 키우고, 도시를 새롭게 바꾸어 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도시,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도시들을 분야별로 선정하자. 그리고 이들 도시들 간에 서로 필요한 부분을 배우고 교류할 수 있도록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게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창의도시를 만들어가야 할지 그 과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아직 이천은 창의都市는 아니다. 하지만 창의도시로 가야 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이천시가 창조도시라는 화두를 지역사회에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쌀의 고장, 임금님 진상미’ 이걸 아니잖습니까? 정말 품질 좋은 쌀 고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최초 모내기, 최고브랜드, 최고판매가, 이런 눈에 보이는 평가나 광고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쌀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의미, 정신적 가

치를 어떻게 끌어내고 콘텐츠로 만들어갈 거냐 하는 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농사짓고 밥을 지어왔던 농민들의 삶과 애환, 그들의 일상생활과 풍습, 농사짓는 기술과 일하며 불렀던 노래,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농사짓기는 어려운데 징수해 가는 조세는 늘어나는 상황에서(그래서 농민들의 삶이 고달픈 거잖아요) 이런 농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고 알아주는 임금도 있었겠지만, 임금님이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이천 쌀로 지은 수라를 받으시고 ‘이거 어디 쌀이냐, 앞으로는 이천 쌀로만 수라를 올리거라’ 이런 허황된 얘기에 기대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제 좀 탈피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쌀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도자기 보다는 이 도자기에 담겨진 음식, 곡식, 씨앗, 그리고 이 도자기를 통해서 전하고자하는 많은 문화들을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사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쌀에, 난알에 스며있는 땀과 거기에 담겨진 우주를 봐야 합니다. 도자기만 보지 말고 도자기에 담기는 그 무엇이 주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담을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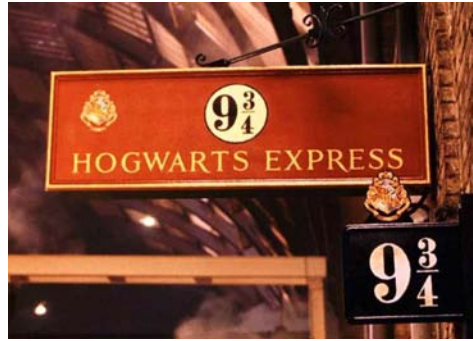
## 변화의 공간과 시간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일상적인 장소인데 갑자기 성별된 공간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리포터에 보면 킹스크로스역 9번 플랫폼의 3/4 지점이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점에서 해리포터 일행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법의 세계인 호그와트로 떠나는 기차를 타게 되잖아요. 이제까

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해리포터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에서 저마다 그런 장소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 달아나다가 너무 피곤해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사다리가 서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킹스크로스역 호그와트행 9와3/4 플랫폼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이 깨어나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야훼가 바로 이곳에 계신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불모지에 지나지 않았던 장소가 갑자기 성스런 장소로 바뀝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찰의 시간, 성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과 공간이 처음부터 특별한 시공간은 아닌 거예요. 그저 평범한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이 어느 순간 아주 특별하게 변모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평범하고 지루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갑자기 아주 특별해지는 시공간이 바로 ‘지금과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천입니다. 이천이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공간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천이 중요하고, 이천이 우리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천은 그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 인생의 변화를 모색하고 결단해야 하는 장소로 드러납니다. 이섭대천(利涉大川)이 그런 뜻이거든요. 큰 강을 건너면 이롭다. 큰 강이란 인생의 곤경이나 위험을 뜻하는 상징이에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만한 국면에 놓여 있는 거죠.

지역에 대한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을 찬찬히 살펴보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 지역사회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 지역의 자연과 환경을 이루고 있는 이천이라는 토대 위에서 굳건히 서는

것,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출발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저 단순히 욕구 충족을 위해 산다거나 자본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사고하고 결정해 보자는 거죠. 지역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런 방향들을 조금 거슬러서 의도했던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보자는 거죠. 그런 애매모호한 공간과 시간, 그것이 ‘창조의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그 지점이, 바로 습지입니다. 그리고 황혼의 시간도 마찬가지로요. 새벽에 해가 뜨는 시간, 저녁노을의 시간, 다 이도저도 아닌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그때가 창조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신화의 세계에서 모든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뉘엿뉘엿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것으로 마칩니다. 창조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벽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그 시간에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경계선은 시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공간적으로는 순간, 찰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순간은 ‘영혼으로 통하는 창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찰나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불교적으로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집 채 만 한 바위를 얇은 날개옷으로 스쳐서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일 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각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센 폭발을 일으키는 순간이 있어요.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그 찰나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딱 들어섰을 때, 변화하는 순간

이 있습니다. 변화는 여러 장소를 여행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지점에 이르면 그때 딱 변화가 되는 거지요.

수천, 수만 년 전에 인류의 원시인들이 어느 지점에 들어섰어요. 바로 ‘동굴’입니다. 그 지점에 들어서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 치 앞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지점에서 자기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동굴에 벽화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군 신화를 한 번 볼까요? 동굴은 내면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동굴 속에 곰과 호랑이가 들어갔습니다. 모두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호랑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곰이 40일이 지나자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은 변화의 공간이에요. 변화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공간에 들어가야만 변화가 된다는 거죠. 동물이었지만 마침내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과도 같은 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 경계에 선다는 것은? - 냇고개, 관우, 터미널, 닥터 후

사람답게 살고 싶다. 맞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진리죠. ‘짐승보다



이천에서 서울방향의 냇고개(냇고개) 모습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성찰의 시간, 변화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인문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천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의 목적은 이천사람이 이천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천이라는 지역사회를 통해 세계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요. 이천시민이 곧 세계시민인 거예요. 이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곧 세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찰의 과정에서 일상과는 구별된 공간에 들어서는 것, 경계의 지점에 들어서는 것이죠.

서울에서 이천으로 올라오려면 경계를 지나야 해요. 광주에서 이천으로 올라오는 길목이 바로 냇고개입니다. 반대로 광주, 서울로 내려가려면 냇고개를 거쳐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영남지역으로 내려가려면 조령(鳥嶺)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문경새재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가보면 관문이 있잖아요. 3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영남지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죽령(竹嶺)입니다. 온달 장군이 죽령을 차지하려고 신라와 싸우다가 전사하잖아요?

삼국지에 보면 관우(關羽)가 하비성 전투에서 조조에게 사로잡혀 그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조조가 관우를 회유하려고 적토마를 선물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끝내 관우는 조조의 곁을 떠나 탈출하는데요. 이때 줄줄이 경계를 통과합니다. 5개의 관문을 통과해요. 그를 가로막는 장수 여섯을 모조리 베어 버립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에서 한 개의 관문을 통과하기도 힘든데 단번에 여러 관문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가 사당에 모셔지고 민간에서는 무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관제(關帝) 또는 관왕(關王)으로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신이 된 거죠. 그의 이름이 또 희한하게 ‘관’(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길목을 지날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신이 바로 ‘관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에, 속담에 ‘문턱에 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죠. 조심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금기시 되는 그 지점을 밟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현관’이란 말



영화 '삼국지: 명장 관우'(2011)

이 있잖아요. 거기서 현(玄)이 ‘가물 현’입니다. 제가 편두통이 심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가물가물 거려요. 가물가물한 것이 막 떠다니면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어서 구토가 나고 심한 두통증세가 찾아옵니다. 그런 가물가물한 순간,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지점을 ‘현’이라고 해요. 현관은 가물가물한 곳, 경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영어의 리미트(limit)란 말도 거기서 왔다고 해요. 이승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한계 지점인 거죠. 그 너머가 저승이 되는 거구요.

우리가 해외에 명품 주문하지요. 인터넷에서 보통 ‘직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주문한 물건은 통관을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통과한다는 ‘통’(通) 자예요. 그 경계를 통과하고 나서 들어오는 거예요.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통관 절차를 거쳐야 다른 나라 물건이 들어올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통관 절차를 거쳐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출입국심사’(immigration customs)라고 하지요. 바로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해서 잘 통과를 해야 된단 얘기죠.



영화 ‘터미널’(The Terminal), 2004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내용은 뭐 폴란드 동남부 쪽에 있던 ‘크로코지아’라는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란 사람이 미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는데요. 미국의 JFK공항에 도착

해서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심사대 요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입국심사에서 불합격 댔어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당신 나라가 없어졌어요. 오시는 동안 쿠데타가 일어나 크로코지아라는 나라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국적이 없으니 여권(passport)이 소용없고 그래서 통과시켜 줄 수가 없

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빅터는 통과하지 못하고, 공항 터미널에서 먹고 자고 하는 희한한 신세가 됐습니다. 공항 터미널 노숙자가 된 거죠. 그 터미널 안의 공간은 이도 저도 아닌 공간입니다. 그 지점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국적이 뭘까. 통과한다는 의미는 뭘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누구일까?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문학의 목적, 인문학의 사명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확고한 신념들을 뒤흔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터미널 속에서 빅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시간을 넘나드는 아주 희한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닥터 후’(Doctor Who)인데요.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Who)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천재적인 통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은 공중전화박스 안에 가면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영국BBC 드라마 ‘닥터후’(Doctor Who)

있어요.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현재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요. 전화박스 안에 들어가면 통화를 하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건데, 멀리 떨어진 그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누구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한다면 이 지역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여기 살고 있지만 서울에 가서 대단한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그들과 예술활동을 해요.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나는 이천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천사람과,

이전의 삶의 양식과, 그리고 이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은 이전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 경계를 지키는 자 - �핑크스

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아름다



이집트 기자(Giza) 피라미트 앞의 �핑크스

운 여성의 얼굴에 사자의 몸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에서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자, 삶의 본질에 대한 수수께끼를 내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형태인 이집트의 �핑크스는 호루 엠 아케트 (Hor-em-akhet)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지평선의 호루스' (Horus in the Horizon)라는 뜻입니다. 지상의 호루스, 묘지의 호루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핑크스가 거쳐하는 곳은 경계의 지점이에요.

수많은 파라오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피라미드 앞에는 언제나 �핑크스가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수문장 역할이잖아요. 이승과 저승, 삶과 그 너머에 있는 죽음의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세계는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삶과 죽음의 그 경계를 넘나들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헤르메스조차도 함부로 그 경계를 넘나들어서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저승의 경계인 스틱스 강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헤르메스가 맡고 있습니다. 오직 오르세우스만이 그의 아내를 구하러 저승으로 내려갔을 때 노래로 케르베로스를 잠재우고 저승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경계가 지켜져야 하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면 세계질서가 뒤흔들리기 때문이죠. 스팅크스가 그 경계를 지키는 수문장이예요.

그런데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키는 스팅크스가 시간적인 경계가 아닌 공간적인 경계에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팅크스인데요. 테베로 들어가는 길목에 출현한 괴물. 원래 그 길목에는 스팅크스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팅크스가 그 길목에 나타난 거죠. 길목에 나타나서 테베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걸어서 못 맞히면 잡아먹는 거죠. 그 경계를 통과해야만 테베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테베에만 머물러있거나 테베로 들어가길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 경계, 이 길목에서 누가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이때 경계를 넘어가려는 사람이 있었죠. 오이디푸스가 테베시로 들어가려 할 때 스팅크스가 문제를 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 이제 저자도 곧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런데 웬걸? 오이디푸스가 정답을 맞추고 스팅크스를 무찌른 거죠. 영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테베의 시민들은 마침 공석이 되어있던 왕 자리에 오이디푸스를 추대하고 홀로 된 왕비 이오키타스를 새 왕비로 맞도록 해 준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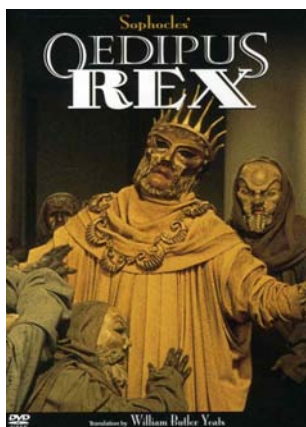
그럼 오이디푸스가 맞춘 문제는 뭘까요?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해봤습니다. 경계라는 측면에서 새로 고민을 해 봤어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 하늘을 나는 새도 아니고 네 발로 걷는 짐승도 아닌 것. 어린 아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 것. 그렇다고 또 제대로 된 사람도 아닌



스핑크스와 오이디푸스(Red Figure Kylix)

것. 때로는 무엇에 의존해서 견지만 그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 그게 뭔지 물어본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것. 정체성의 불안함, 자기 성찰의 경계선에서 이도저도 아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방황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게 질문의 본질인 거예요.

‘바로 인간이다.’ 라고 말한 거죠, 오이디푸스는. 아주 자신 있게 ‘인간’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오이디푸스가 그 말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정답을 맞췄다는 거예요. 스팅크스는 수치스러움에 절벽에서 떨어져 최후를 맞습니다. 테베의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오이디푸스는 장학퀴즈 풀듯이 그렇게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이디푸스는 진짜 인생의 수수께끼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테베로 들어온 동시에 인생의 미궁 속으로 빠져 버리는 거죠.



영화 ‘오이디푸스왕’, 1957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테베에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메르스나 구제역이 창궐하는 거죠. 신탁을 받으니 선견자 테이레시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왕을 죽인 자를 단죄하지 않으면 역병은 견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라고...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선왕의 살해사건을 밝히려고 당시의 증인들을 하나씩 소환합니다. 그 범인은 바로 오이디푸스 자신이었죠. 선왕은 그의 아버지였고 그가 맞이한 왕비는 그의 어머니였던 겁니다.<sup>2)</sup> 왕비는 침실로 달려가 남편에게서 남편을, 자식에게서 자식을 낳게 한

2) 오이디푸스가 테베로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테베로 오는 길목에서 한 노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노인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오이디푸스가 격분해서 노인을 죽여 버렸다. 그런데 그 노인이 바로 테베의 라이오스 왕이었던 것이다. 라이오스 왕과 이오키타 왕비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델포이신전에서 신탁을 받으니 아주 불길한 신탁이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그래서 비극을 막기 위해 라이오스 왕은 아들을 낳자마자 죽이라고 명령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밧줄로 목을 맵니다. 뒤쫓아간 오이디푸스는 죽은 왕비의 옷에 꽂혀있던 황금 브로치를 뽑아 거뭇거뭇 두 눈을 찔러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신이 운명의 희생물이 된 거예요.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로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지만 정작 자기 운명의 수수께끼는 풀지 못했던 거죠. 오이디푸스는 선왕을 죽인 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하면서 점점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져 가는데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

길 위에 서 있는 존재, 그게 오이디푸스 신화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예요. 삶이 곧 기나긴 여정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걷는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한낮에 이르러 두 발로 우뚝 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둑해지는 황혼에도 더듬거리며 끝까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두 발로 선다는 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본질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오이디푸스는 불행하게도 그 이름부터가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발이 부었기 때문에’(swollen-foot) 그렇습니다.

오이디푸스는 본질적으로 잘 걷지 못한다는 얘가지요.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라이오스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시켰을 때 하인은 차마 아이를 죽이지 못했어요. 대신 아이의 발 뒤꿈치를 나무에 밧줄로 묶어둔 채 돌아가 버렸던 거죠. 그래서 발이 퉁퉁 부어올라서 잘 걷지 못한다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인생의 역정에서 그가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거라는 예감을 하게 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 던져진 인간은 정체성의 혼란 속에 놓여있다는 얘기에요. 누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한마디로 규정해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천사람에 대해 ‘이천사람은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 메두사는 정말 괴물이었나?

오디세우스는 미지의 삶, 온갖 괴물이 출몰하는 거친 바다를 향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새로운 타입의 영웅이에요. 이전의 영웅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전의 인문학 과정들을 오디세이 문화대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지역에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며 지역을 창조적으로 바꿀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이전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의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바다에서 수많은 괴물들과 만나죠.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 영원과 순간, 필멸과 불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영원에 대한 갈망, 그 경계 위에서 끝없이 방황합니다. 다른 영웅들은 쉽게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는 10년 동안이나 바다를 헤매면서 이전시대의 영웅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타입을 그리스 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대결하는 건 수많은 괴물들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로 몰아세우는 내부의 욕망들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향해 중에 키클롭스 거인뿐만 아니라 키르케(Kirke)와 세이렌(Seirenes), 스킬라(Scylla)와 카립디스(Charybdis) 같은 괴물들과 만나죠. 그런데 그런 괴물들과 단순히 무력으로 대결을 펼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괴물의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괴물이 가지고 있는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교활할 정도로 머리를 쓰고 타협을 하면서 그 관문들을 통과해 나갑니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유혹, 영웅다움에 대한 유혹, 부와 출세에 대한 유혹,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회피하고, 우리를 붙잡고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괴물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괴물들과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회피하려들지요. 도망치거나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현실이 아니야 꿈일 거야. 규정하

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괴물을 물리칠 방법은 없을까요?

페르세우스 신화는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첩단무기로 무장하고 괴물을 상대하는 겁니다. 페르세우스는 신이 마련해준 방패, 투구, 샌들, 칼, 자루 이런 걸 가지고 메두사(Medousa)와 대면합니다. 기술사회와 자본주의가 결합해 고안해낸 첩단무기를 온 몸에 장착하고 메두사와 맞섭니다. 마블의 아이언맨처럼 말이죠. 수트를 입으면 천하무적이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페르세우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페르세우스 이야기를 반복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신화에 타임루프<sup>3)</sup>를 적용해보자는 거죠. 어느 날 현대의 페르세우스는 심각한 자기정체성의 위기에 빠집니다. 나는 과연 영웅이었나? 영웅답게 메두사를 물리쳤나? 사실 그는 신들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쉽게 말해서 아테나 여신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중년의 나이가 된 페르세우스는 회고록을 쓰다가 이윽고 문제의 그 대목에 이릅니다. 그리고 깊은 회오에 빠지는 거죠.

‘내가 한 행동은 영웅이 아니었어. 사람들은 칭송하고 있지만 그건 나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을 칭송하는 것에 불과했던 거야.’ 이렇게 현대의 페르세우스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하면서 다시 한 번 괴물과 정면으로 대면하려고 합니다. ‘이젠 정말 정직하게 마주해보자. 시선을 돌린 채 청동방패를 응시하며 무기에 의존하지 말고 메두사라는 괴물을 정면으로 마주해보자.’

괴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모른 채하고 방관해 오는 사이 점차 커지고 권력화된 사회구조일 수도 있어요. 현대의



‘Medusa’, 카라바지오, 1598년

3) 타임루프는 최근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SF영화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야기 속에서 등장 인물이 동일한 기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페르세우스가 영웅다웠던 점은,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무방비로 괴물과 마주했다는 점이지. 그럼 페르세우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괴물과 대면하는 순간 보나마나 돌이 되어버렸을까요?

천만에. 그가 메두사를 대면하는 순간, 메두사를 온 힘을 다해 끌어안은 순간 메두사는 저주에서 풀려나 다시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합니다. 원래 메두사는 아테나여신과 겨룰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테나 신전에서 그녀를 꺾어 몰래 사랑을 나누는데 이걸 보게 된 아테나가 그녀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실뱀으로 만들어버리고 흉측한 괴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테나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페르세우스를 동원해 그녀의 목을 베어버리게 한 겁니다. 여기서 누가 과연 괴물일까요? 보기가 흉측하기에 우리는 메두사를 괴물로 규정하지만 사실은 아테나가 더 괴물인 거죠. 그녀의 질투와 증오심, 복수가 더 괴물스러운 겁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테나는 자신의 방패에 메두사의 목을 넣어 장식으로 붙이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다면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이걸 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헬레니즘 세계의 절대 괴물 - 티폰의 탄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신화는 이렇게 다시 해체하고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는 신화가 있지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는 잘 알려진 대로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악당입니다. 그가 잘 쓰는 수법이 이래요. 어느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을 꺾어 자기 집으로 유인해웁니다. 그리고 손님을 침대에 눕힌 다음 침대보다 길면 도끼로 다리를 잘라버리고 짧으면 당겨서 사람을 죽여 버리는 사이코 괴물인 거죠. 자기 자신의 편의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자기 관점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프로크루스테스 침대’(Procrustean bed)라고

부릅니다. 이 악당은 결국 테세우스한테 그 침대에 눕혀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죠.

또 이런 괴물도 있어요. 미노타우로스는 인간의 몸에 황소의 머리와 꼬리를 한 괴물인데 미궁에 살면서 미궁에 제물로 바쳐진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이렇게 그리스신화에는 가지각색의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특유의 상상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괴물들을 만들어 냈어요. 마치 레고블럭 같이 모든 생물의 신체 부위를 해체하고 다양한 조합 방식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물을 구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의 DNA 유전자 조작기술과 매우 비슷합니다.

신화에 나오는 괴물 중에서 ‘티폰’(Typhon)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거대한 뱀인 괴물인데요. 어깨와 팔에는 눈에서 불을 뿜어내는 뱀의 머리가 백 개나 솟아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티폰은 가이아가 낳은 자식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제우스와 겨루는 티폰, Chalcidian hydria

힘을 가진 괴물로 묘사되고 있죠. 활활 타는 바윗돌을 내던지고 입으로는 불길을 내뿜으며 거센 폭풍을 만들어내서 올림포스를 공격하자 신들은 혼비백산해 도망칩니다. 제우스와 맞붙어 그의 팔과 다리에서 힘줄을 모조리 끊어 힘을 못 쓰게 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Typhoon)이 바로 이 티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에키드나’(Echidna)<sup>4</sup>는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이고 하반신은 거대한 뱀인 괴물인데 티폰과 결합하여 여러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 모두가 끔찍한 괴물들이에요. 두 개의 머리와 등에 일곱 개의 뱀이 나있는 맹견 ‘오르토스’(Orthrus), 지하세계를 지키는 개 ‘케르베로스’(Cerberus), 아홉 개의

4) 동양신화에서는 북희씨와 여와씨의 결합과 비견될 만하다. 신화에서는 둘 다 하반신이 뱀의 모양으로 교미하고 있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머리를 가진 물뱀 ‘히드라’(Hydra), 사자의 머리, 염소의 몸, 뱀의 꼬리를 가진 ‘키메라’(Chimaera)가 이들의 자식들입니다. 스팅크스도 에키드나처럼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사자의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다가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인 거예요. 스팅크스는 삶과 죽음의 길목을 지키고 서서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집니다. 강렬한 유혹에 이끌려 우리는 어느덧 경계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 중근동 세계의 절대 괴물 - 리워야단

이제까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괴물인 티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히브리 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괴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괴물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구약성서의 욥기인데요. ‘리워야단’(לִוְיָתָן)이라고 부릅니다. 꼬불꼬불한, 거대한 뱀이란 뜻인데,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짐승, 악의 표상, 사탄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 리워야단이 근대에 와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영국의 철학자 홉스(Thomas Hobbes)가 그의 사회계약사상을 설명하는 책(1651년)의 표제로 고대의 이 괴물을 다시 불러낸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리바이어던’(Leviathan)입니다. 리워야단의 영어식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제목이에요. 리워야단은 신이 창조한 것들 중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또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누가 이 리워야단을 상대하겠느냐.’ 욥기 41장에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묘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홉스는 이 괴물이 국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객체이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걸 중재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연적 권리를 위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통일되었을 때 비로소 국가라는 거대한 창조물이 탄생하는 거지요. 홉스



는 그걸 이 리워야단에 비유한 겁니다.

이제 ‘리바이어던’의 표지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대한 인간형의 존재가 산 너머에서 도시를 보호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거대한 인간의 몸은 수많은 인민이 뭉쳐서 만들어낸 형상이에요. 리워야단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읍기에 보면 리워야단은 온몸이 두꺼운 비늘로 덮여있어서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죠. 이 비늘 하나하나가 권력을 위임한 인민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리워야단은 두 손에 검과 주교의 지팡이(baculus)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물은 단순한 인민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민들이 포기한 모든 권력을 위임받는 순간 살아있는 인격체가 된 거예요. 리워야단은 오른손엔 검을 들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야만스런 투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지상에 평화를 이룩해요. 그리고 왼손엔 주교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건 교회에서의 모든 종교적 분쟁을 잠재우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의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지상의 절대권력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림의 맨 위엔 이런 문구가 라틴어로 새겨져 있구요.

‘Non est potestas Super Terram quae Comparetur ei.’<sup>5)</sup>

‘그와 겨룰 만한 힘을 가진 자 땅 위에 없느니라.’ 이런 뜻인데요. 리워야단은 한 마디로 지상의 신(Mortal God)으로 군림하는 거죠.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산 너머로 하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다도 보입니다. 산 능선을 좌우로 따라가다 보면 수평선이 조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뒤로 가려져 있는 리워야단의 하반신은 바다에 있는 셈이죠. 리워야단이 바다에서 올라온 거대한 영물이란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리워야단이 들고 있는 검과 주교의 지팡이 아래에는 좌우로 각각 서로

---

5) 이 문구는 라틴어 불가타(Vulgata) 성서의 읍기 41:24에 인쇄된 그대로 적혀 있다. 그러나 1611년 영국에서 번역된 제임스 왕의 영어번역본을 보면 이 문구가 24절이 아니라 33절로 배치되어 있다. (“There is no power on earth to be compared to him.”)

대응되는 5개의 그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엔 아래부터 차례대로 전쟁터,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 대포, 왕관, 성이 그려져 있는데 시민사회(CIVIL)의 권력체계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엔 아래부터 공의회 재판정, 여러 개의 창으로 표현된<sup>6)</sup> 사변논리들, 파문을 상징하는 그림, 주교가 쓰는 모자, 그리고 교회가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ECCLESIASTICAL)의 권력체계가 작동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하단부 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상징물들은 두 개의 권력, 즉 시민권력과 교회권력을 통합하는 국가의 절대권력이 어떤 근거 위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인 거죠.

표지그림의 하단부 중앙에 이 책의 제목 ‘리바이어던’이 나오는데 그 밑에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커먼웰스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이렇게 써여 있어요. 여기서 커먼웰스가 무슨 말이나 하면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국가냐 하면 부르조아 시민들의 부(Wealth)와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그들로부터 권력을 양도받아 성립된 결사체를 말해요. 리워야단이 바로 커먼웰스인 거죠.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크롬웰이 수립한 공화정국가를 커먼웰스라 불렀습니다. 커먼웰스의 재료가 뭘까요? 인간입니다. 커먼웰스의 형태는? 그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을 재료로 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빚어진 괴물. 이 괴물이 교회와 시민사회(ECCLESIASTICAL and CIVIL) 공동의 부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절대권력을 부여받는 것이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서 보면 그 괴물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느닷없이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갑작스럽게

6) 이 그림에는 삼지창 1개, 이지창 3개, 그리고 황소의 뿔이 그려져 있는데 삼지창에는 삼단논법(Syl-, logis, me)을 뜻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3개의 이지창에는 현재와 내세(Spiritual, Temporal), 실재와 표상(Real, Intentional), 교회권력의 직접적, 간접적 행사방식(Direct, Indirect)을 뜻하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그리고 황소의 뿔엔 두 뿔을 잡는다는 의미의 양도논법(di lemma)을 새겨놓았다. 이렇게 중세의 신학논쟁이나 사변적 논증에 동원되는 논리들을 흡수는 창으로 표현해 놓았다.



영화 '괴물'(The Host), 2006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가 잊고 지내는 사이에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어둡고 냄새나는 시궁창 속에서 몰래 그 몸집을 불려가고 있었던 거죠. 거대한 괴물이 처음부터 거대한 괴물로 등장한 건 아니었어요. 이 괴물은 겉으로는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의 내면에 깊이 잠재해 있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만들어낸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무관심을 통해 길러낸 이 괴물이 결국 우리들의 숙주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을 영어로 번역할 때 ‘몬스터’(Monster)가 아니라 ‘호스트’(Host)라고 했다는 거예요. 호스트는 ‘숙주’

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들로부터 비롯된, 우리들로부터 파생된 결과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저 괴물이 외계에서 온 괴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무관심과 방조를 통해서 길러낸 우리의 자식이었다. 뭐 이런 걸 감독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깊은 성찰의 순간, 성찰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수수방관했던, 나 자신의 괴기스러운 모습, 우리사회의 괴기스러운 모습을 만나게 된단 얘기죠. 그 순간 우리는 경악하게 되죠. 경악하게 되지만 그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 후쿠시마 – 우리는 어떻게 명계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이 있었죠. 쓰나미가 밀려왔고 그 여파로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원자로가 침수되고 전원이 차단되

면서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온도상승으로 폭발하게 된 겁니다. 방사능이 누출되고 후쿠시마 원전 20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무서운 일 이죠.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 사회는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아베 총리는 원전에는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아직까지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그렇지만 많은 일본 주민들은 ‘원전이 이렇게 무섭구나.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구나. 원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실감하게 되면서 현대사회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비판의식이 생겨나고 있어요. 후쿠시마 사태가 가져온 일본사람들의 삶의 변화,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일본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스스로 묻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도시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도시에 전력이 갑자기 차단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기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도시의 편의성에 종속되지 않고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 새로운 삶의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닐까?



가나 도모코(海南友子)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후쿠시마에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다가 뒤늦게 임신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마흔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불임치료까지 받았었는데 임신한 채 후쿠시마에 다녀온 걸 알게 된 거죠. 원전통제구역에 들어가 주민들 취재를 했었는데... 후쿠시마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취재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이 된 거예요. 아이를 지킬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런 처지에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출품했습니다. 제목이 '후쿠시마에서 부르는 자장가'(A Lullaby Under the Nuclear Sky)였어요. 여기서 가나 도모코가 후쿠시마 사태를 자신의 문제로 느끼는 그 지점,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로 바뀌는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거기가 성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지점이거든요.

후쿠시마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페르세포네 납치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데메테르 여신은 대지의 여신(Terra Mater)이자 곡물의 여신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딸인 페르세포네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데메테르는 그녀가 관장하는 농업과 식물을 키우는 일을 내팽개치고 정신없이 딸을 찾아 헤맽니다. 그로 인해 산과 들의 초목이 말라죽고 대지가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 페르세포네는 납치된 거였어요.



L.베르니니의 '페르세포네의 납치', 1621

명계를 지배하는 하데스(Hades; 로마신화의 플루토)가 그녀를 강제로 데려와 아내로 삼은 거죠. 여기서 제우스가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제우스는 데메테르를 달래기 위해 하데스에게 일년의 3/4은 페르세포네를 지상으로 돌려보내고 1/4은 하데스와 지내도록 중재를 하지요. 페르세포네가 지상으로

되돌아오자 땅에는 싹이 트고 풍요의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가 사라진 겨울기간에는 다시 대지가 황폐해지고 맙니다.

이게 꼭 후쿠시마 사태와 비슷하지 않나요? 후쿠시마 원전은 플루토늄을 원료로 삼고 있습니다. 플루토늄(plutonium)은 아시다시피 죽음의 물질이죠. 또 명계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 플루토(Pluto)잖아요.<sup>7)</sup> 갑작스런

7) 태양계 순서를 보면 7번째로 떨어져있는 행성이 천왕성, 8번째가 해왕성, 9번째가 명왕성이다(명왕성은 2006년에 왜소행성으로 분류되었다). 로마신화에서 하늘, 천공의 신 우라누스(Uranus), 바다를 지배하는 신 넵투누스(Neptunus), 명계를 지배하는 신 플루토(Pluto)에서 그 이름이 유

원전사고로 후쿠시마와 그 반경 30km의 지역은 죽음의 땅이 되고 맙니다. 플루토가 다스리는 명계처럼 말이죠. 주민들은 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온, 생명과도 같은 땅을 강제로 빼앗기고 이주조치를 당합니다. 지금도 1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땅은 데메테르 여신의 분노로 인해 생산을 멈추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량한 지역이 되고 맙니다. 페르세포네는 곡물의 '씨앗'을 의미하는 신화적 상징입니다. 땅에 들어가 죽는 기간이 지나면 이윽고 두터운 땅 껍질을 뚫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씨앗, 생명과도 같습니다. 아베총리는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까요? 언젠가는 후쿠시마 농민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땅에서 밭을 일구고 파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베 내각은 전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도쿄올림픽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행정력을 동원해 진실에 접근하려는 민간의 노력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아베 총리가 제우스만큼이라도 현명한 권력자였으면 좋겠습니다.

## 세월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눈엔 후쿠시마 사태보다 더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월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인식 수준, 우리의 태도가 그 처리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죠.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세월호가 주는 성찰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태가 일어나면 온 나라가 들끓고 열 받고 그러다가는 시간이 흐르면 잊혀져버리는 겁니다.

---

래했다. 그런데 원소의 발견에서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마지막 원소이면서 가장 무거운 원소가 주기율표 92번인 우라늄(Uranium)인데 이 이름은 로마신화의 우라누스(Uranus)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충돌시켜 만들어낸 물질이 93번 넵투늄(Neptunium), 94번 플루토늄(Plutonium)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방식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어느덧 그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성찰보다는, 세월호 그 일부 가족과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보험금, 보상금 이런 것을 노리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매도하거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세월호에 대한 조사를 해 나갈수록 우리 사회는 이 참사에 대해 결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것도 규명하지 못



하는 사회,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그리고 참사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사회.. 절망스럽습니다.

과연 세월호에 대한 책임이 저만 살겠다고 탈출했던 선장에게 있는 것인지, 밖으로 나오지 말고 현재위치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라는 방송만 되풀이했던 안내방송직원에게 있는 것인지, 인명구조 상황을 잘 통제하지 못한 해경에 있는 것인지, 그런 배를 헐값에 구입해 부실하게 운영해온 선주에게 있는 것인지, 해경수뇌부에 구조에 대한 지시는 없고 끝없이 숫자와 자료만 요구하고 있던 청와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수학여행을 결정한 단원고 측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수학여행 동의서에 싸인을 했던 부모에게 있는 것인지...

원인규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고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회 자체가 거대한 괴물의 모습이었던 거죠.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죄다 세월호 사태를 초래한 원인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

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회에 살고 있는지, 그동안 어떤 사회에 길들여져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 우리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괴물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하거든요.

성서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 동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인간존재의 현 상황을 묻는 질문이죠. 단지 네가 누구냐고 묻는 것보다 더 구체성을 띤 질문입니다. 현존재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 질문을 받고 있는 ‘나’의 현존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이천’이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천을 단순히 행정구역으로만 보지 말고, 나의 현존재의 상황과 나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받아들이고 이 지역을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와 이 시대에 닿을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기술과 문명, 자본과 도시의 편리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괴물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러보는 삶의 훈련, 아이들에게 가끔씩은 전기 없이 살아보는 훈련 그런 것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라는 풍습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들은 쓴 나물을 먹으면서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했을 때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거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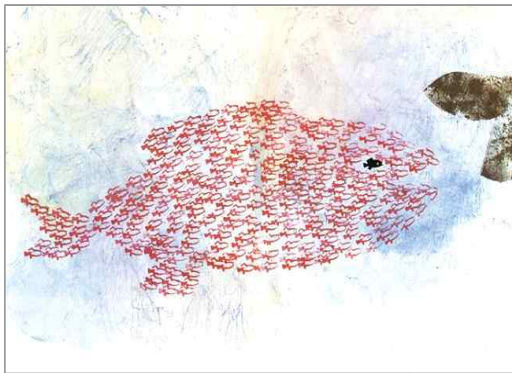
## 이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천의 어원인 ‘이섭대천’은 ‘큰 강을 건너면 이롭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천시립박물관에 가면 이섭대천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희역사관에도 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그림에서 주인공은 왕건이 아니에요. 저 왼쪽 끝에 있는 서목입니다. 서목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천 서씨의 시조가 서신일인데 그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가 있고 또 그의 묘역도 효양산에 조성이 잘 돼 있어요.



하지만 서신일의 동생 서신통과 그의 아들 서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서목이라는 사람은 물길을 잘 알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도와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해주었거든요. 지금 이천에는 서목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천이 지금 만나고 있는 강은 무엇인지, 이천이 건너야 할 강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레오 리오니의 동화 '스위미'(으뜸해엄이) 삽화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권력을 국가라고 불렀다면, 레오 리오니(Leo Lionni)는 그의 동화 '스위미'(Swimmy)에서 상어에 대항하기 위해서 작은 물고기들이 힘을 합쳐 물고기 대형을 이루는, 연합체로서의 물고기를 고안해 냈어요.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면 리워야단은

사람들로부터 모든 권리를 위임받는데 비해 물고기는 필요할 때만 뭉치고 각자의 권리가 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워야단 같이 국가권력으로 뭉치는 방식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으

로 판단해서 위험할 때마다 하나가 될 것이냐? 옛날에는 사람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국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휘어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 서로 동등한 권리로 커다란 대형을 이루고 큰 물고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정부(Government)라는 개념은 권력 개념입니다. 국가 권력이라고 생각되는 거대한 지배권력,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절대 권력을 가진 거대한 괴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 NGO라는 것은 반대(Non-) 개념, 그러니까 권력 개념을 탈피하고 개체들의 권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그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나 조직, 그것을 NGO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GO와 NGO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가치를 구현해 가는데, 특히 NPO라는 것은 권력이나 자본가들의 영리(Profit)를 추구하는 개념을 벗어나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sup>8)</sup>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은 조합을 구성해서 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근로자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기업’(village company)이란 것은 최근 법적 기반은 갖추지 못했지만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자원과 인재들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성공적

---

8) 우리나라에 사회적 기업이 도입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에서였다. 예전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에게 ‘공공근로’, 또는 ‘자활근로’라는 명목으로 타율적으로 일을 시키다 보니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자활의지를 높이기도 어려웠다. 그 대안으로 2인 이상의 자활근로자가 ‘자활공동체’(self-support community)를 만들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2인 이상의 공동창업, 조합방식 운영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자활공동체는 다양한 법적 기업형태를 가질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바뀌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다. 사회적 기업은 자활기업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결합 방식들이 소개되면서 이제는 지역에서도 다양한 목적과 수준으로 물고기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여건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긴 안목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심사를 끌어내고 이걸 자원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지역경제와 창의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발상이 필요한 거죠.

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변화를 추구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역의 자원들을 모으고 여러 기관이나 단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결합 방식과 연대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수합병(M&A; Merger and Acquisitions)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업과 기업이 완전히 합치는 건데 지역사회에서 이런 자본적 방식이 통용된다면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되고 말 겁니다. 그보다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서로의 개체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천지역에 맞는 거버넌스 협력구조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GO와 NGO 사이의 협력적 관계, 역할과 책임, 그리고 권한의 배분을 통해 이천의 공동체적 삶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결합하고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해나가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 관계를 설명할 때 당사자 간의 협력의 거리와 강도에 따라 협조(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공조(collaboration), 이렇게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군요. 협조(cooperation)는 그저 당사자 간에 서로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수준에서 비공식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를 뜻합니다. 조정(coordination)은 서로간에 공동 기획은 같이 하지만 여전히 서로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수준의 공식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에 비해 공조(collaboration)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조직구조를 만들고 미션과 권한을 정하는 관계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리바이어던 모델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를 포기하고 양도했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은 국가의 통제와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지만, 물고기 대형 모델에서는 물고기 하나하나가 자신의 자율성과 역할, 책임을 다하는 구조예요. 물고기 대형은 대형에 참여하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가 주체들이고 위기상황에 처할 때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 물고기들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권력도 물고기들 간에 함께 공유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거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 길을 찾으면 길은 만들어집니다. 물고기 대형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 얼마든지 상어를 쫓아낼 수 있고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문화원과 협력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가는 모임도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주기 위한 부모모임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무관심하게 보였던 문제들이 갑자기 피부에 와 닿고 실감나게 다가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어느덧 서로 연결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삶의 문화를 바꾸어 가야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나는 나 자신이 되고 나의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삶의 양식이예요. 문화라고 하면 저도 예전에는 전통문화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다운 삶의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바로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정말 바람직한 걸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해볼 때, 조금씩 삶의 양식을 바꿔보는 것, 삶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 그게 문화 운동인거죠.

지금 우리가 서있는 지점, 습지의 땅이면서 황혼의 시간인 이 지점에서 스핑크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테베의 길목이 아닌, 냇고개 위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핑크스가 던지는 수수께끼입니다. - “아침에 네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발, 저녁에는 세발로 걸어야 하는 그 곳은 어디인가?”



# 모든 길은 이천으로 통한다

## 이천 인문학 총서 5

---

2016년 12월 25 일 초판 1쇄 인쇄

2016년 12월 25 일 초판 1쇄 발행

지 은 이 이 동 준 외

펴 낸 이 조 명 호

기록정리 정해경, 이동준, 이선민, 이성경

펴 낸 곳 이천문화원

주 소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63-19

등 록

전 화 031-635-2316

팩 스 031-637-7486

홈페이지 [www.cc2000.or.kr](http://www.cc2000.or.kr)

제 작 도서출판 흥익기획 02-2274-8110